# 군선교 신학

9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 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 · 민족 · 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 · 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군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 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의 군선교는 지난 1949년 해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 금년이 63주년이 되었으며, 1951년 6 · 25 전쟁 중에 군종목사 제도로 창설된 기준으로는 60주년을 맞게 되었으며, 그동안 장병들의 복음화와 신앙전력화의 구체적인 열매는 세계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군선교연합회가 조직한 한국군선교신학회는 매년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군선교신학 논문을 공모하는 등 군선교신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군선교 사역의 확고한 기반 조성,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군선교 전략과 전술을 개발 및 적용해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뜻깊은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심오함이 지대한 가운데 어느덧 제11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군부대 내의 각종 군기,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져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은 더욱 꺼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군에 입대한 장병들 또한 체력과 정신력은 더 약해져 군부대 내에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 제11회 심포지엄은 "군인의 애국심과 개인윤리"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러한 때에 국군장병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갖고 군복무에 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가 당연하기는 하지만 개인에게 국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을 간과한다면 군복무는 부담이며 피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군선교논문집 제9권에는 기독장병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과 신앙관, 전쟁 중 애국심과 개인윤리, 하나님의 전쟁신학과 군선교 사명을 다룬 논문 등이 실렸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쪼록 국내외 군선교신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나아가 군장병들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선교신학회 회장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 주신 쿰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군종 목사님들과 군선교 교역자 및 독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9월 25일

곽선희 목사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군인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문제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군(軍)이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군선교신학 논문 제9집에서 집중적으로 애국심과 윤리 문제를 다루었다.

사실 군(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피하지 않고 하나씩 깊은 연구와 고민을 하면서 그 대답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해답을 몰라서 헤맸다기보다 문제에 대한 깊고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방향조차 찾지 못했던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군인의 애국심이 흐려졌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군인의 윤리가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와 규범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윤리와 공동체 윤리를 구분 짓고 있지 않은가?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1만 명을 죽인 이는 개선장군으로 추앙을 받은 것은 무슨 의미일까? 국가라는 공동체가 행하는 것과 개인의 윤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개인윤리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는 말씀은 공공윤리를 가르치신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집단 생활에서는 유보되고 자제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다.

이 책에 훌륭한 원고를 써주신 집필자 제위께 그리고 편집에 수고를 한 여러분께 독자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읽는 이마다 애국심이 고취되어 이웃 사랑을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란다.

2011년 9월 25일

이 종 윤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머리말 | 곽선희 목사 … 4
발간사 | 이종윤 목사 … 6

11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 이종윤

36 기독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 강사문

56 기독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 우기식

61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 주연종

92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에 대한 논평 | 오덕교

98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 이규철

135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 김추성

156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 임성빈

176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 김수진

234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 | 안명준

256 군목과 지도력 | 안광춘

273 전쟁에 대한 기독 윤리적 고찰 | 김동연

303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 정성구

309 《목ᄉᆞ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 방안 연구 | 최석환

군선교신학 제9권 기조연설

#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Military(Chaplain) Patriotism and Private Ethics

이종윤 Lee, Jong Yun

■ 서울교회 위임목사(Rev. Ph.D., D.D., D.D.)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 Div, D.D.)
■ 영국 Univ. of St. Andrews(Ph. D.)
■ 독일 튀빙겐 대학
■ 장신대 명예신학박사(D.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운동 실천위원장
■ 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기총 신학위원장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1. 왜곡된 파시스트적 국가관

'애국심' (愛國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국가(國家)가 무엇인가?' 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국가'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쟁사를 살펴볼 때, 전쟁 도발은 항상 잘못된 국가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을 도발한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로 그릇된 국가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애국심은 참된 국가관에 기초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을 때, 참된 애국심이 발로(發露)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도발한 정치 지도자들이 내세운 국가관은 백성들을 싸움터로 몰아가기 위한 '이데올로기' (Ideology)였고, 그들이 강조했던 '신앙' (信仰)은 오히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죽음' 을 합법화하고, 신성시(神聖視)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쟁에는 이 두 가지 요소—곧 '잘못된 국가관' 과 '왜곡된 신앙' —가 항상 그 내면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가장 최근에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에 의해서 주도된 미국에 대한 테러전쟁도, 한편으로는 '성전' (聖戰)이라는 구호 아래 '이슬람' 종교가 배후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범 이슬람 국가 재건' 이라는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 국가관' 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빈 라덴이 미국에 대항하여 일으킨 테러전쟁의 사상적 뿌리를 찾아보면—물론 역사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20세기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파시즘' (Fascism)과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시즘이란, 곧 대중(大衆)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격한 언사(言辭)로 위장하고, 신비의 의상을 걸친 민주주의(民族主義)" 이기 때문입니다.[1] 이러한 '파시즘' 은 1922년 이탈리아의 실권을 장악한 무솔리니(Mussolini)를 비롯하여 1933년 독일의 히틀러(Hitler), 그리고 1936-1939년까지의 스페인의 프랑코(Franco), 그리고 그밖에 동구권의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형

[1] 참조. Crane Briton, John B. Christopher, Robert Lee Wofff, A History of Civilization, 梁秉祐 외 4인, 『世界文化史』(서울: 乙酉文化史, 1963), 377f.



성하기 위하여 내걸었던 이념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Suharto)와 최근 북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세습체제가 내세우고 있는 '강성대국' 이데올로기와도 유사합니다.

파시즘적 국가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대략 14가지로 종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바로 '국수주의적 국가관' 입니다.[2] 그래서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외관상의 특성은 우선 '착색된 셔츠(shirt)' 를 입고, '사설 군대' 를 가지고, '민중 최면' 을 행하고, '특수한 경례' 를 하며, '독특한 전쟁구호' 를 외치면서 '의식' 을 행하고, 특히 '민족적 광영(光榮)을 신비화(神秘化)' 하고, 과대(誇大)한 정복계획을 내세우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파시즘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재자들은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 , 혹은 '부유한 나라' 와 '가난한 나라' 를 양분하여 적대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파시스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못 가진 자들' 로 규정하고, '가진 자들' 에 대한 투쟁을 앞세웁니다. 따라서 '파시즘' 은 자연히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제도(議會制度)' 에 대하여 격분한 반발을 일으키고, '입헌정치체제' 를 반격하면서 개인의 인간성을 무시한 국가 지상주의(至上主義)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파시즘은 거짓말이나 유언비어로, 혹은 아주 과격한 언사로 무자비하게 반대자들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시즘은 '국가발전, 국가재건 혹은 국가독립' 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 아래, 정치사찰, 집단수용소, 공포정치, 국민의 기본권 박탈 등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自行)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시즘은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믿으라, 싸우라, 따르라' 라는 슬로건(slogan) 아래 최고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을 고무(鼓舞)합니다. 즉 최고 지도자의 말과 정책을 '믿으라' , 그를 위해서

[2] 참조. Lawrence Britt, 'Fourteen Defining Characteristics Of Fascism' , http://www.libertyforum.org/showflat.php?Source Free Inquiry.co 5-28-3

'싸우라' , 그리고 무조건 최고 지도자 동지를 '따르라' 고 강압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스즘은 최고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끝내는 '종교화' 합니다.

이러한 '파스즘적 국가관' 은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내세우는 이데올로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독재정권의 파시즘적 국가관은, 남북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민족' 이라는 '혈통주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관' 입니다. 즉 '남북한, 우리는 모두 하나(一)의 한 민족(韓 民族)' 이라는 이념 아래 남북의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무시하고 일단은 무조건 '민족통일' 을 이루어 강대한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관은 이미 20세기의 파시스트 무솔리니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는 필요하지 않으며, 규율만으로 충만하다" 고 외치면서 1924년에 쓴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 파시스트들은 모든 전통적인 정치이론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며, 우리는 귀족이고 서민이며, 혁명가이며 보수주의자이며, 프롤레타리아이고 반프롤레타리아이며, 평화주의자이고 반평화주의자이다. 우리는 단 한 개의 확고한 점, 즉 민족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나머지는 명백한 것이다.[3]

이와 상응하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하나(一)의 한(韓) 민족' 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남북한이 '한반도 깃발' 아래 함께 모이자는 '통일운

3 Franz Neumann, Behemoth,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44, 462f. George H. Sabine,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4th. revised by Thomas Landon Thorson, 成裕普 車南姬 譯,《政治思想史》[서울: 한길사, 1983], 1096에서 재인용.



동'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났고, 또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왜곡된 '혈통주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관' 때문에, 백주(白晝)에 공공연하게 서해안 연평도가 북한의 해안포 공격을 받아 섬 전체가 초토화되어도 대다수의 젊은이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단지 경계활동만 하고 있던 '천안함' 이 북한군 어뢰에 의해서 침몰당하여 수십 명의 국군 수병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도, 남한의 좌파 세력들은 북한의 도발에 격분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정부를 불신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 내(內) 좌파 세력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식량을 원조하고,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과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 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하여도 그것을 '북한 주민을 돕는 것' 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 혹은 자본주의적 문화침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군인들까지도 '대한민국' 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체제' 라는 것을 망각하고, 단지 '혈통주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관' 때문에 자신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 주적(主敵)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주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자신들의 그릇된 국가관을 개인윤리 차원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 라는 '기본권' 의 하나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에서 '참된 애국심' 이 무엇이며, 윤리적 차원에서 한 개인의 '사상적 자유' 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관은 한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치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왜곡된 파시스트적 국가관' 때문에 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특히 히틀러의 '국수주의적 혈통주의 국가관' 과 '국가사회주의' 는 6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참상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국수

주의적 혈통주의 국가관과 국가사회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국수주의적 혈통주의 국가관과 국가 사회주의의 문제점

우선 먼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Fascism)과 독일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Nationaler Sozialismus)의 공통점을 열거하자면—두 가지는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정치이념이지만—그들에게는 어떤 통치철학이나 정치이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통치방법은 단지 '군중심리' 와 '폭력주의' 의 혼합이며, 이들은 오로지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통치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파시즘과 국가사회주의는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여—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포퓔리슴' (Populism)으로—대중의 열광적인 충성을 유도해 내는, 단지 '민중운동' 을 통한 정권장악에만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박한 '민중운동' 에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까지도—특히 오랜 세월 봉건주의의 억압을 받아온 소시민적 농민까지도—이 운동에 맹목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였습니다. 예컨대 히틀러 당시 비상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괴벨스(Goebbels) 같은 학자도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는 히틀러야말로 공산주의, 군주제, 또한 민주주의 중 어느 것을 택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바쳤을 것이 분명하다고 칭송하였으며, 히틀러에 대한 영웅적 숭배와 반유대주의에 동조하였습니다.[4] 뿐만 아니라 1914년 9월에는 보수주의 신학자인 아돌프 슐라터(Adolf Schlatter)를 비롯하여 93명의 독일 지성인들이 카이저(Kaiser) 황제와 독일의 전쟁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였습니다.[5] 독일 신학자들의 이 서명을 목도하고 칼 바르트(Karl Barth)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그 영광을 잃고 말았다,



신학적 자유주의는 균형을 잃었으며, 구멍이 뚫어졌다고 평하였습니다.[6] 이러한 점에서 '민족주의에 근거한 혈통주의 국가관' 은 모든 인간적 비판력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마성적(魔性的)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7] 왜냐하면 크라우제(Kause)는 독일 민족주의에 동조하는 기독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 우리는 한 국민, 한 공화국, 한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참된 독일 민족 기독교의 기초 위에 있는 나누어지지 않은 독일 국민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 2. 우리는 피와 흙에 뿌리를 둔 국민 공동체의 신적 계시를 고백한다.
> 3. 우리는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모든 외래적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위대한 독일의 정신적 지도자들의 말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선포된 독일적 경건의 복음의 근거 위에 서 있다.
> 4. 교회에 대해서나 국가에 대해서 같은 삶의 법칙을 타당하게 적용한다. 그것은 우리의 국민에 대한 봉사는 하나님의 봉사라는 것이다.[8]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로, 혈통적 국수주의적 국가관이 국민들을 싸움터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 로 변하고, 그

---

4 예컨대 The Goebbles, 1942-1943, Eng. trs. by Louis P. Lochner, 1948, 16, 62, 116, 242, 370 등등.

5 참조. A. Schlatter, Die Geschichte des Christus, Stuttgart, 1923, trs. Adreas J. K[redacted]tenberger, The History of the Christ. The Foundation for New Testament Theology, 한제호 역, 《그리스도의 역사》(상, 하) (서울: 자연, 2007).

6 Mueller, Karl Barth, Texas Books Publisher, 1972, 20.

7 참조. Edwar A. Mowrer, Germany puts the Clock Back, 1933, 149.

8 Arther Frey, Cross and Swastika, London, SCM, 119. 박봉랑, 《신학의 해방》(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413에서 재인용.

것이 발전하여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죽음' 을 합법화하고, 신성시하는 '종교' (宗教)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민' , 곧 '한 민족' 은 곧 '한 공화국, 곧 한 국가' 그리고 '한 신앙' 으로 통합되고 신성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피와 흙' 이라는 혈통주의 국민 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혈통주의 국가관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관은 안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밖으로는 타민족에 대한 철저한 배타주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셋째로, 참된 신앙이 '국가 이데올로기' 로 환원됩니다. 넷째로, 결과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봉사는 '국가' 에 대한 충성으로 전이(轉移)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이됩니다.

저는 요즈음 한국 사회의—소위 앞서간다는—진보 세력들의 국가관이 '민족주의' 라는 이데올로기적 '혈통주의 국가관' 에 이미 발을 깊이 들여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참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통일된 조국의 번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은 중국, 일본의 부흥을 염려하며, 대한민국이 열국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조건 남북한 한 민족이 통일하여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강대국' 을 만들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지 '혈통주의 민족주의 국가관' 을 변호하여 한 사람의 정치적 지도자를 우상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 정신의 국가관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국가관이며, 국제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타국을 빌미로 자국의 '민족주의 혹은 혈통주의 국가관' 을 앞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혈통주의 혹은 민족주의, 심지어는 국수주의 국가관' 을 가질 때, 자국만을 위한 침략전쟁이 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실례를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을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自己) 민족 중심의 혈통주의 국가관' 은 결과적으로 '세계대전' 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3. 애민(愛民) 애족(愛族)에 기초한 국가관

참된 국가는 자기 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을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라는 권력의 집합체를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Plato)은 '국가의 자연발생설' 을 주장하면서 독재자나 자치제도의 권력의지에 반대하는 하나의 보다 높은 '최고 결정기관' 으로서의 '국가' 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기초하는 것은 바로 정의(正義)라고 했습니다. 즉 '정의가 국가의 기초' 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한 국가가 흥왕하고 멸망하는 것은 그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모든 방면에 널리 퍼져 있는 윤리적인 퇴폐" 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9]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신정론(神政論)을 주장하였습니다. "신(神)이 아니라, 죽어갈 인간을 통치자로 받들고 있는 국가는 불행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죽지 않는 것을 개인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삶을 위한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10]

---

9 Plato, 《법률》, 688c.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법률》은 오푸스의 필리포스(Philipposvon Opus)가 편집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플라톤은 여기서 다시 '국가' 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0 《법률》, 713c.

이러한 플라톤의 국가관에 의하면, 정치 지도자 한 개인을 우상화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러한 집단은 국가도 아니요 그러한 집단의 지도자는 또한 국가 최고 지도자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집단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주장한 바와 같이— '국가' 를 구성하고 있는 '제1실체' 인 '개인' ,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구성요소로 결집된 국가라는 '제2실체' 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보다 앞설 때 국가조차도 존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된 '국가 사랑' 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혹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본래적인 과제(課題)는 순수한 공리성(公利性)이나 피비린내 나는 권력을 확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행동,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11] 이와 상응하게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도 "국가의 최고 목적이자 인간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 곁에서 정복(淨福)을 추구하는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에 의하면, 참되고 올바른 국가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애국' 도 세속적 '국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굴복' 이나 보이지 않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헌신적 사랑입니다.[12]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

11 Aristoteles, Πολιτικα, 3권 9장, 1281 a 2.

12 영어 표기에 있어서도 정확히 말하면, 'nation' 은 국민, 곧 백성을 의미하고, 'State' 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적 권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두 단어는 일반적으로 서로 통용되고 있다. Georgia Harkness, Christian Ethics, 김재준 역, 《基督敎倫理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242.



느니라" (요일 4:20; 눅 10:27)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참된 사랑도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국가관이나 보이지 않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고, 참된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Chirstus pro nobis, 참고 롬 5:8)이듯이, 참된 국가도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애국심도 참된 이웃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라를 위해 일하고, 희생하고, 세금 내고, 법을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랑의 표현 이외에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요일 4:19).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요 10:11), 참된 국가 지도자는 국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일가(一家)의 통치가 과연 북한의 주민들을 사랑하는 통치입니까? 북한의 김정일의 통치는 '강성대국' 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통치자 우상화' 에 불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정치가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행동,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는 한 그러한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적 국가관에 대하여는 충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교회 공동체가 자기 나라는 부강하고 다른 나라는 패망해도 괜찮다는 배타심에서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한 교회 공동체 역시 1933년 독일 히틀러의 '아리안 입법' 을 지지한 '독일 기독 신자들' 의 제국총회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13] 그런데 1930년 말 발행된 잡지 〈기독교 세계〉(*Chrisitliche Welt*)에 의하면, 그

당시 "거의 모든 신학생들이 나치스이고……프로테스탄트 신학생들의 거의 90%가 강의실에서 나치스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14] 그래서 〈기독교 세계〉는 '목사 후보생의 반 이상이 히틀러를 따라갔다' 는 불평이 교회의 신학교로부터 있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15]

오늘날 한국 '교회 공동체' 가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국민의 영혼과, 영적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 나라와도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평화의 나라' 를 이 땅에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일,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 불치의 병마로 인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애국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국가관 혹은 '애국' 의 의미는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 및 '이웃 사랑' 과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군목(軍牧)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멸망시키는 군대, 곧 아군(我軍) 안에서 적군(敵軍)을 양성하는 종교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군목의 참된 사역은 사병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군목이 단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종교적 제의만 진행한다면, 그가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군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군목의 국가관과 윤리관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가름하는 '기준' 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군목이야말로 군대에서 지휘관으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참된 국가관' 과 '윤리관' 을 정립해 주어야 할 교사이며, 동시에 자신이 가르치는 국가관과 윤리관에 따라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참된 국가관에 이어서 군목의 참된 윤리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3 '독일 기독 신자들' 은 1933년 7월 23일 행해진 교회 선거에서 73%의 득표로 독일 교회 정치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그 후 국수주의적 히틀러의 독재정치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래서 본회퍼를 비롯한 '젊은 개혁자들의 모임' 은 교회 정치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14 Bethge, DB, 197《基督教의 非宗教化》, 45에서 재인용.

15 Christiliche Welt, 1930, 11626(Bethge, DB, 157에서 재인용. =《基督教의 非宗教化》, 45에서 재인용.



## 4. 군목의 최우선적 정체성으로서의 그리스도교적 신앙

'군목' (軍牧)이라는 직책의 정체성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군목은 우선 군인이기 이전에 '기독교 신앙인'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목은 군인이기 이전에 '한 국가의 국민' 입니다. 따라서 군목이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목이라는 직책을 가진 군인 장교입니다. 이러한 군목의 정의에 의하면, 첫째로 '군목' 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식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 이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군목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종교인이 되려고 할 때, 그러한 군목은 '군승' (軍僧)이 되거나 '군신부' (軍神父)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목의 윤리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군목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둘째로, 군목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군목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의 의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대 지휘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직책' 입니다. 따라서 군목에게 요청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에 상응하는 국가관 및 윤리관입니다. 즉 군목에게는 자유 민주주의의 사상적 특성에 상응하는 가치관과 '군 복무 규정'의 행동지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군목 사역을 하나의 직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는 '직업윤리'가 더 추가될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자유 시민 혹은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이 군목에게 보편적으로 요청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서 행하는 개인 행동에는 언제나 그 한계점과 책임성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목 개인의 윤리를 언급할 때는 일반윤리와는 다른—앞에서 언급한 3가지 요소, —즉 그리스도교 신앙, 자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국가관,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목사'라는 직책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기독교 신앙이 전제된 윤리

군목은 군목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 군인과 다르게 '두 세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목은—일반 그리스도인처럼—지상의 세속적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16] 그러므로 군목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기독교 기본 윤리'가 선행적으로 요구됩니다.[17] 첫째, 국가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군목에 대하여 국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리스

16 참조.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V, xx, 1.

17 이하의 세부 내용은 Georgia Harkness, Christian Ethics, 김재준 역,《基督敎倫理學》, 243이하를 참조.



도인인 군목은—국가가 기독교 신앙과 위배되는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는—먼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의 최대 관심은 자국의 지정학적 국민적 공동체 건설에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군목은 모든 인류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적 인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관심은 동일한 지정학적, 혈통적, 정치권 안에서의 공동체 형성에 있지만, 군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높은 차원의 범우주적 인류 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국가는 자국의 정체성과 자국민의 안전 유지에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두고 있지만, 군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국가는 그 권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법적,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만 그리스도인인 군목은 법적, 물리적 강제력보다는 각 사람의 '신앙'에 호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 26:52)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군목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때론 '순교'(殉敎)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군목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행 5:29)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혹은 군목이 '세속적 국가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윤리적 의무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윤리적 의무가 선행되는 것은 보편이 실제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Coram Deo)에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이지만, 이 세속적 지정학적, 혈통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이념의 특성에 따라서 형성된 '지상의 국가'는 보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민족적, 국가적, 정치적 이념에 기초

할 때는 모든 국가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차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 라는 보편적 이념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군목의 윤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군목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군목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전쟁을 통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할 때, 독일 국민이며 목사인 본회퍼(Bonhoeffer)가 독일 총통 히틀러에게 대항하였던 것은—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국가의 명령에 우선한다는 윤리관'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34년 8월 2일 독일 대통령 '힌덴부르크' (Hindenburg)가 죽고, 히틀러가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총통으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베를린(Berlin) 방송 시간' 이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그릇된 지도자의 개념' 을 경고하였습니다.

> 지도자가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이 그에게 우상을 기대하면, 그 지도상은 조만간 악마의 상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자신을 우상화하는 지도자와 정부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마련입니다."[18]

본회퍼의 이러한 발언이 뜻하는 바는 정치-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한 정치적 지도자를 우상화하거나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십계명의 제1계명(출 20:3-5)을 거

[18] D. Bonhoefer, Gesammelte Schriften, Bd. 2, München 1974, 35.



역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적 지도자를 '우상화' 하고, 특정한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시하는 '민족우월주의' 는 '종교적 마성(魔性)'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19] 왜냐하면 최초 인간 아담이 타락할 때도 사탄은 '인간을 신격화' (homo erit sicut deus)시키는 것으로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5).

### 2)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이 전제된 윤리

군목은 군목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군목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군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직책' 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군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이념에 상응하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군목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에 따라서 '군목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는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닐뿐더러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人命)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군인의 군목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군목은 오히려 '적군' 입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영적(靈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면서 동시에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사람을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라고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막 12:17)고

[19] 이러한 점에서 '선택사상' 에 근거하여 '셈족의 우월성' 을 강조하는 '유대주의' 역시 '종교적 마성(魔性)' 으로 빠질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한 국가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도외시(度外視)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비록 이 세상 국가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국가가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 이 지상적 국가관에 존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지상적 국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듯이 이 지상적 국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의 존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뿐만 아니라, 지상의 세속적인 나라의 권세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惡)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권세(權勢)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롬 13:1, 벧전 2:17).[20]

그러나 이 지상의 권세가 악할 때는 그 세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폭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정부를 사악한 '땅의 음녀' 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 17:5-6). 칼빈도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 그러한 자를 제거하는 데 자비심을 베풀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때, 그들은 반드시 진압되어야 하며, 그들은 헌신짝 이상으로 평가될 아무 값어치도 없는 것입니다."[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지상 국가의 정당한 권위와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면서 자기 신앙 중심의 '열광주의적 신앙인들의 군복무 거부' 는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22] 왜냐하면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자유는 참 신앙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도 "자유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인식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한계 내에서 자유인으로서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23]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무질서한 개혁을 전개하였던 열광주의 농민들에 대하여 귀족들 편에 섰던 것입니다. 자유를 빙자한 이기주의적 윤리관 혹은 종교적 열광주의는 참된 신앙도 개인윤리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전제하지 않은 개인주의적 자유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혼돈' 이 아니라, '질서' 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었을 때, "네(= 베드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 26:52-54)라고 말씀하

20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벧전 2:17).

21 J. Calvin, Calvini Opera, xli, 415-16. 이밖에 참조. Georgia Harkness,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ch. xi.

22 칼빈도 자신의《기독교 강요》에서 개인주의적 자유개념에서 '개인의 자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열광주의자들의 자제 없는 방종과 이 세상 규율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 를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다. 참조.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V, xx, 2.

23 Karl Kupisch,《칼 바르트》, 박종화 역 (神學思想文庫, 9), 202.

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기적 자유' 개념은 비록 그것이 자기 신앙에 기초한 것이라 할지라도 '군목의 윤리', 혹은 '개인윤리' 의 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정치철학적 이념에 기초한 개인의 자유—심지어 자기 신앙에 근거한 자유—라고 할지라도 '자유 민주주의 정치이념' 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통치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저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 3) 군대(軍隊)라는 특수집단에 제한된 개인윤리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모든 자유 시민 혹은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원칙' 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존립과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즉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은—그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악(惡)을 강요하거나 직접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공동체의 존립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행동에는 언제나—공동체나 국가 기관의 존립에 상응해야 한다는—한계점과 책임성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군목' 은 '군' (軍)에 속한 목사이지, 일반 사회에 속한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목의 개인윤리를 언급할 때, 우리는 항상 '군대' 라는 집단 혹은 공동체의 존립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특수집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때로는 '자국 국민들의 생명 보호' 를 위하여 타국의 침략을 물리적으로 저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불가피하게—정당방위 차원에서—침략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살(打殺)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 입니다. 전투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 5:17)라는 십계명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더 자세히 말하면, 자국의 영토 확장이나 정치권 확장을 위해서—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 백성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를 저지하는 '제어행위' 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침략행위는—어떠한 명목을 내세우든—살인행위이고, 그러한 살인행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략자와의 전투에서는 '침략자에 대한 제어' 가 오히려 '정의' 입니다. 악(惡)과의 싸움에서는 악을 소멸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 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야 국가가 전쟁(戰爭)에 나가도록 명령하여 전쟁터에 나간 것이지,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평소 국민들은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이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행하려 할 때,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北韓) 김정일 부자(父子)가 남한을 침략하려고 북한 국민들을 책동할 때 참된 국민정신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라면, 그러한 김정일 정책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은 언젠가 그 대가를 스스로 받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악한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은 언제든지 그 악정(惡政)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목은 침략자를 저지하는 일에 '평화의 사도' 로서 침략자를 진멸하고 평화가 정착되도록 기도하면서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군인' 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군목의 개인윤리이자, 군목이라는 특수사역의 윤리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백성이 전쟁에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왕들의 침략전쟁을 저지하였습니다. 예컨대 선지자 미가야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침략하여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행하려 할 때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임을 선

포하였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희망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미가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정적으로 전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왕상 22:17). 이렇듯 군목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휘관에게 혹은 정치적 지도자에게 전할 '예언자적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며,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군목은 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 모세는 그들이 패하여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어올려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닛시' 라고 불렀습니다(출 17:8-16). 이와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정치적 지도자들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침략전쟁은 기필코 패배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군목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의 '전쟁관' 은 '개인의 정치적 철학적 이념' 에 기초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에 종속되어야 함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신학자 폰 라드(von Rad)에 의하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성경에서의 전쟁' 을 '여호와의 전쟁(Milhamoth Yahweh)'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상응하게 적군(敵軍)도 구약의 증언에 의하면, '여호와의 적' (삼상 18:17, 25:18; 민 21:14)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24]

[24] 참조. G. von Rad, 《폰 라드 논문집》, 김정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15-223, 특히 122.



## 5. 신학적 윤리로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바른 애국심' 은 '바른 국가관' 위에서만 정립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윤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 과 '정체성' 위에서만 정립될 수 있습니다. 환언(換言)하면, 바른 국가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거짓된 애국, 예컨대 국수주의(國粹主義)나 혈통주의 혹은 민족주의(民族主義) 애국심이 생기고,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기주의적 생각을 보편화하는 편협한 개인윤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군목이 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군대는 전투에 임하기도 전에 정신적으로 이미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물리적 충돌' 이전에 '정신적 혹은 신앙적 투쟁' 이 선행된 상태에서부터 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생 라합의 증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수 2:8-10).

따라서 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는—앞장에서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철저히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기초한 '신학적 윤리' (Theological Ethik) 혹은 '기독교인의 윤리' (Christian Ethik)이어야 합니다.[25] 왜냐하면 살아계

[25] 이 점에 관하여: Heinz-Horst Schrey, Art. 'Krieg IV: Historisch/Ethisch', TRE 20, 29-55.

신 하나님을 전제한 기독교인의 국가관 및 윤리관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否認)하는 민족주의적 혹은 혈통주의 '국가관' 에 기초한 애국심과 윤리관은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 국회의장이었던 르우벤 리블린(Reuven Livlin)의 유명한 비유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연립정부를 세우자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 어느 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전갈이 거북이에게 강 건너편까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거북이가 '나를 죽일 것이 뻔한데' 라고 생각하고 망설였습니다. 전갈은 "은혜를 입으면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착한 거북이는 전갈을 등에 업고 강을 헤엄쳐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가운데 이르자 전갈은 독침으로 거북이의 목을 찔렀습니다. 거북이가 죽으면서 "우리 둘 다 죽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고 전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전갈이 대답하기를, "나는 원래 천성(nature)이 그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거북이가 죽자 결국 전갈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26]

이와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나 혈통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천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거북이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는 철저히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국가관과 개인윤리' 여야 한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인이기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한(有限)이 무한(無限)을 품을 수 없듯이' (finitum capax non infiniti), 한 개인의 윤리관과 국가관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보편적 윤리, 곧 '신율' (theonomie)에 기초하여 국가적, 민족적 명령인 '타율' (hetelonomie)을 따라야 하고, 타율에 기초하여 비로소 자기 자신의 윤리 곧 '자율' (autonomie)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는 철저히 '신학적 윤리' 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 이일호, 《강소국 이스라엘과 땅의 전쟁》(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7), 12에서 재인용.

군선교신학 제9권 발제

# 기독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The Understanding of Nation and Faith of Christian Soldiers

강사문 Kang, Sa Moon

■ 서울장신대학교 석좌교수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서론

군인이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부름받은 자이다. 국가 안보란 국토, 주권, 국민의 생명, 재산과 문화를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즉 국가안보란 국가와 국가 간의 개념으로 적의 공격이나 침공으로부터 자기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국가안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소집된 존재들이 군인이고 그들의 집단이 군대이다. 그래서 군대란 이런 특수 목적만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수 공동체이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방법은 최신의 과학적 무기로 적을 제압하고 승리를 이끄는 것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 장병들에게 달려 있다. 이는 최신 무기가 우세한 미국이 월남전이나 최근 이라크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군 장병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장병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전심전력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 특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라를 지키는 기독 장병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군 복무에 임해야 되는가?

먼저 군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사명과 태도,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사명과 태도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군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신앙심이 별개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군병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즉 이중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주어진 과제이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나라의 국경은 있으나 동시에 우리는 나라의 국경을 초월한다. 전세계 기독 장병들은 서로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국제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한 민족공동체라는 과제 앞에 국군 장병으로서, 또 기독 장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다른 기독 군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가 주어진 과제이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 2. 군인의 국가관

군인의 목적과 사명은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므로 먼저 군인은 자기 국가를 왜 지켜야 하는지, 국가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요구된다. 사람은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 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 가치의 국가관(國家觀)으로 인식한다. 나라가 건재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愛國者)가 존경을 받고 기림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애국의 가치(價値)가 그 만큼 숭고(崇高)하기 때문이다. 애국심의 대상인 국가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자. 즉 국가란 무엇인가? 구약성경은 아래와 같이 국가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국가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는 바 그의 위임 통치의 장(場)이다.

1) 국가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는 바 그의 위임 통치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오랜 세월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독특한 언어, 풍습, 문화와 역사 등을 공유하게 된 공동체로서 혈연, 지연, 종족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을 갖고 있으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는 자연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의 상관관계, 즉 국가 구성원들 상호 간에 투쟁과 정복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도 국가의 지역 경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리적, 혈연적 한계로 인하여 정해진 국가와 민족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국가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국가는 자연질서 이상의 하나님에 의한 창조질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7장 26-27절에 보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도 모든 만민이 거하는 거주지의 경계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졌다고 말한다. 신약에서도 국가의 형성과 경계는 자연질서 이상의 창조질서에 속한 것임을 역설한 것이다.



국가와 함께 민족 개념은 더욱더 창조질서에 속한다. 국가(nation)의 정치적인 면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고이(גוי)'와 백성(people)을 의미하는 '암(עם)'은 의미상으로는 구별되지만 피차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통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라는 실체는 망할 수도 있으나 민족의 실체는 그리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민족주의의 발단이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립하여 형성된 주권국가의 생존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 맹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 8:2-5).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언급한다. 또한 디도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권한다(딛 3:1).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고 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를 경시하지 않으셨다. 세상 왕이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본래 왕이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로 선택되고 파견된 하나님의 사자(使者)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사울 왕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부음받은 자였고(삼상 9:16, 10:1), 바울은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다(롬 13:6). 다윗 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신 17:14-20)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한해서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들이고, 백성들이 왕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다(대하 36:22-23; 스 1-6장).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왕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 2) 하나님의 위임 통치 목적은 이 땅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위임 통치기구이다. 사울에게 위임된 국가는 사울 왕국이고, 다윗—솔로몬에게 위임된 국가는 통일왕국이다. 이 위임 통치된 국가들의 목적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정의 구현을 위한 정치행위는 곧 신앙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정치의 목적이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신정(神政) 정치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세운 것도 그 공동체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왕 된 자의 임무도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신 17:19-20).

이는 신약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일과 공의를 구현하는 것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즉 교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는 정치신학의 이상이 복음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과 병행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모든 권력의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정의 구현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려진 것이다. 한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불린다(롬 13:4).

또한 지상의 평화의 통치자이신 메시아 역시 그의 사명이 정의 구현에 있음을 예언자들은 언급한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렘 23:5, 33:15). "다윗의 왕좌와……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사 9:7).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 11:4-5).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이 땅 위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행위는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정의를 이루는 신앙행위와 무관할 수 없음을 증거한다. 즉 선택된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 구현의 도구로 쓰일 때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얼마 안 되어 버림을 받았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을 때 버림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일반 군인들은 투철한 국가관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기독 군인들은 국가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관이 요청된다. 더욱이 기독 군인들에게는 국경이 있지만 기독교 자체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기독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사명감은 더욱더 벅차다.

## 3. 기독 장병들의 신앙관

성경에서 지상의 국가관과 유비될 수 있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 한마디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징을 지상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敎會)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 공동체로 이해된다. 구약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베드로전서 2

장 9절에서 반복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와 맥을 잇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며(갈 3:7), 로마서 11장 17-24절에서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인 자들로 묘사된다. 성경에서 교회가 교회 건물이나 교파를 가리키는 경우는 없다.

특히 신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설명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전 12:12; 롬 12:4-5; 엡 1:22-23; 골 1:18). 믿는 자들은 이 몸의 지체들로서 그 안에서 특수한 기능을 갖는다(고전 12:12-31). 그리스도와 교인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된다. 이런 표현들은 교인과 그리스도가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며 그리스도와 교인들 간에 일체감을 갖게 해준다. 성경에서 교회와 지상 나라와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분리 결합된 집단을 이루었고(행 2:44-45), 소유를 공유한 적도 있으나 이런 습관은 곧 사라졌다. 주로 소종파와 같은 경향을 갖고 있었다. 당시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전력을 기울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 개념이다. 교인들의 지상나라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예수님의 국가관은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이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 지배자의 국가라 할지라도 이 이방(異邦)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役事)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출



19:6)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이스라엘의 선택(選擇) 또는 선민(選民)사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묶는 띠를 계약(契約)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목적도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대대로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권속을 택하신 것도 정의 구현을 위함이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義)와 공도(公道)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창 18:19).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의식과 책임감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 구현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보듯이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렘 18:1-11). 선택된 나라는 만국(萬國)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 만약 선택된 나라가 만국을 위한 사명을 망각할 때에 선택된 나라와 백성은 곧 우월(優越)과 자만(自慢)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나라에 대한 성경의 기본 원리는 어떤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렘 18:7-10).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렘 18:9-10).

따라서 지상의 나라는 자연질서(自然秩序)이고, 하나님 나라는 신적 질서(神的 秩序)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목적은 같으나 이루는 방법과 특성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산재된 나라들은 나름대로 그 나라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 이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합당하게 사용될 때에는 그 나라의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로서 하나님 나라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할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지역적 국경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의 평화와 구원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나라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다. 바울은 이스라엘 나라는 지상의 모든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유보된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롬 11:25-36). 그러므로 기독 군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기 나라의 국방에도 헌신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나 지역 교회가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기독 군인들에게는 국경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4. 기독 군인의 국방 의무의 자세와 사명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접하기 전에 한 나라 국민으로 운명지어진다. 기독교인의 신분을 인식하기 전에 이미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교회에 헌금을 내는 일 이전에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는 강제이나 교회 헌금은 자율적 의무이다. 어떤 나라의 국민이든 국민은 먼저 국가 공동체에 우선해야 하고, 이익을 추구해야 하



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생리이다. 한편 교인으로 그의 의무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 군인이기에 앞서 국가에 충성해야 할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동의 없이는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라 사랑은 국가 단위에 대한 충성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 군인들은 천국의 시민권(빌 3:20)과 대한민국의 주민권, 즉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의무를 갖는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기독 군인은 늘 이중 구조와 생활 속에서 이중 의무와 권리를 향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지상 나라에 대한 의무가 상치될 때이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애국자가 되느냐 매국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자기 국가와 민족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독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1)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의 공동 목표는 정의 구현에 있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나라는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양자가 동심일체라는 것이다. 이는 일원론적 사고유형에서 출발한다. 루터도 일원론적 사고를 지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두 팔이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오른팔이라면 지상 나라는 왼팔이다. 칼빈의 사고구조가 더 일원론적 사고 유형에 속한다. 칼빈은 지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권력기관으로 이해한

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는 각각 다른 기관이지만 다같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기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나라라면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지상 나라의 기능도 정의를 구현하고 악을 제거하는 데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도 주 안에서의 복종과 같다.

따라서 로마서 13장은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베드로전서 2장 13-14절은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등하고 충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나 지상의 나라가 각기 자기의 한계를 넘어 상대 영역을 침범할 때, 또는 나라가 나라의 위탁기능을 망각하고 외도를 할 때이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의 절대적 분리는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교훈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모든 교인들이 지상 나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암시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시된다. 권세란 지상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예로부터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하는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도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한다. 전도서 8장 2절에서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이유가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主)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한다(벧전 2:13-14).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악한 권세에도 복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주어진 하나의 답변은 무조건 세상 권세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 한해서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과거 일본 국가에 복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여러 애국지사들처럼 항거하다 순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러 상황으로 평가할 때 20세기 전반부의 일본 권세는 악의 화신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지상 권세가 적그리스도로 판명되기까지는 그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교자의 순교 정신만이 후세에 큰 교훈을 남겨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논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즉 루터의 논리대로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두 팔로 하나님의 큰 뜻에 헌신하는 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사참배와 같은 나라 권세의 요구에 대해 굴종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의 태도도 루터와 같은 견해이다. 주전 6세기 초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 예레미야는 유다 왕에게 더 큰 나라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렘 27:12).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의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관점은 세계 역사 운행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목적이 있으니, 곧 악한 자는 악한 때에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다.

제정일치시대에는 종교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를 주관하는 자가 동일인이고 양쪽 영역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왕이 곧 제사장으로 정치와 제의를 다 주관했다. 정치가 건전했으면 종교도 건전했고, 정치가 부패했으면 종교도 부패했다는 결론이 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다윗 왕국 전까지는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은 정치가 세속화되면서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듯이 종교와 정치가 완전 분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가 피차 견제하고 상호 협력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파수꾼으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동시에 지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지원할 때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직접 왕에게 권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라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같이했다.

실제로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the power)에 힘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땅의 권세요, 상대적 인간의 권세(a power)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때만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적이고 잠정적인 권세이다.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한계 내에서만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교회도 같은 논리에 부딪힌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할 때에만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조건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국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조건적, 한계적인 권세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인들은 양심에 따라(롬 13:5) 합리적,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즉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도움이 된다(행 5:29). 바람직한 것은 양자가 항상 한계적 존재임을 의식할 때 긴장과 충돌이 없다. 그러나 역사상 교회와 나라는 늘 긴장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



곤 했다. 그러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권세는 적그리스도로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와 나라의 관계는 나라가 적그리스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이원적이 아니고 일원적이다. 교회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변화시킬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비교하면 피차 다른 점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 구분 | 지상의 나라 | 하나님 나라 |
|---|---|---|
| 나라의 존재 기간 | 잠정적 나라 | 영원한 나라 |
| 창건 과정 | 전쟁을 통해서 창건 |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현 |
|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 물리적 힘 | 사랑의 힘, 영적인 힘 |
| 나라의 성격 | 때때로 적그리스도, 또는 악의 화신(잠 16:4)으로 변형 |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
| 통치 | 하나님의 간접, 가시적 통치 | 하나님의 직접 통치 |

2) 지상 나라의 국민과 지도자의 의무는 정의 구현과 국가안보다.

성경에서도 나라에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나라의 안보와 평안에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하여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져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그의 즉위 목적도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고 진술한다(삼하 8:15).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 즉 미쉬파트(מִשְׁפָּט, Justice)와 체데카

(צְדָקָה, righteousness)를 행하였다"고 한다. 정의와 공의의 구현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목적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왕상 10:9 하). 솔로몬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주어져 그들이 행함으로 백성들이 평강과 구원과 자비를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유다의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잘 준행하면 나라가 장구할 것이고 이를 준행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렘 22:3-5). 즉 왕들은 그들의 책무인 정의 구현 여하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됨을 보여준다. 나라의 존재 근거가 왕의 정의 구현에 있다. 다윗 왕국이 건재했던 것은 그의 보좌가 정의와 공의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사 9:6; 잠 16:12). 요시야 왕도 여호와의 명령으로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고 있다(렘 22:15-16). 이렇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이다(창 18:19).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부왕과 달리 그의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개죽음을 당하는 비운을 당하게 되었다(렘 22:13-19).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 정의를 구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유다 왕들이 할 일은 예레미야 22장 1-4절에 잘 언급된다.

>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이 말을 참으로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왕의 사명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까지 죄수를 석방하고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룸(misarum)에 해당된다. 또한 이것은 사회의 올바른 질서 확립이 왕의 임무임을 말한다.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평등사회(egallitarian society)를 확립하는 일이다. 정의와 공의란 단순히 올바른 재판(신 16:18)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글자 같으나 바브(ו)로 연결된 정의와 공의는 이어일어(二語一語)로서 공정한 사법 범주 이상의 정치와 삶 전반에 걸쳐 평등이 보장되는 바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의미한다. 더욱이 정의와 공의는 세계질서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런데 이방의 왕들이 즉위 때에 자유, 즉 미샤룸을 선포하는 것은 자기의 선함과 관용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데 그 사명과 목적이 있다. 왕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데 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제외한 다른 왕들은 그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비석이 없다.

### 3) 나라의 백성과 지도자가 할 일은 율법 준수와 국가안보다.

신명기 17장 18절은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해야 할 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옆에 놓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언급한다. 나라의 생존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애굽과 앗수르나 바벨론 사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언제나 양 대륙에서 강자가 침공할 때 조공을 바치고 생존권을 보장받았다. 아무 죄도 없지만 위협과 침공을 받았던 나라이므로 언제나 생존을 위해 어느 한쪽에 의존해야만 하는 사대주의 사고가 팽창해 있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모든 예언자들이 일관되게 왕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면 나라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존함으로써 생존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歷史)의 주(主)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존립과 안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유다 아하스 왕 때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전쟁이다(사 7-8장). 주전 734년 앗수르의 남진을 막기 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남 유다에 동맹을 권유했다. 이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거절하자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공격했다. 위기에 처한 아하스는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구원을 요청하여 위기를 극복했으나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곧 앗수르의 위성 국가가 되는 등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때 위기 모면책으로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이 임마누엘 신앙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아하스가 임마누엘 신앙을 거절했기 때문에 패망 일로에 접한 것을 알 수 있다.

믿음은 존재의 근거이다. 나라의 존립 역시 하나님께 의존하고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선다. 이는 출애굽의 홍해사건(출 14:13-17),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사 7:4-14)과 역대기 20장 12-17절의 여호사밧의 승리도 같은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사 7:9)는 말은 믿음에 생존과 안보의 근거가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곧 나라 존립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나라의 생존 여부가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있었다.

## 5. 기독 장병들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

### 1) 국가관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중 시민권을 가진 기독 장병들인 우리는 우선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3대 의무 중 하나라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간주하고 병역기피나 군 혐오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지상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상 나라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인하고 투철한 군인정신을 소유한 자일수록 신앙심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군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위에 굳게 세운 집처럼 정신전력의 군인상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중세의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강하고 담대한 군인이 될 수 있다. 나약한 군인이 아니라 어떤 적군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인이야말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 장병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해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과 같은 맥락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라에 충성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다 같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일이므로 군 체계상 계급사회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병영생활의 기초가 되어 억울한 대우를 받는 자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발랄한 군 생활을 영위하는 병영문화가 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의 지도자의 책임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므로 군의 책임자도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 2) 신앙관

기독 장병일수록 이원적인 사고 구조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등한시할 수 있다. 지상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것은 인정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신앙이 좋다고 말할수록 세상을 경원시하고 세상 일을 소홀히 한다. 세상 나라 일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상 나라나 하나님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의 나라나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 장병으로서 상기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 안보에 책임을 맡은 기독 장병들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절대 의존 신앙을 가져야 한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으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의지신앙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8장에서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언급했듯이 토기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토기와 같은 운명이기 때문이다. 토기장이인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국가와 민족 생존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 장병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지상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함으로 우리의 생존과 국가 안보가 보장되게 함으로써 참 군인상을 간직해야 한다.



## 6. 결론

6 · 25 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가 넘는 61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다. 또 언제 과거의 비극 같은 사변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은 긴장감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이 땅 위에 구현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 기독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A comment : The Understanding of Nation and Faith of Christian Soldiers

우기식 Woo, Ki Sik

■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Th. M.)
■ Fuller Theological Seminary(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연구교수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공군재경근무지원단 군종실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긍정적인 면

이 논문은 군의 가장 고유한 목적인 국가안보의 중심이 최첨단 무기체계에 앞서 장병들에게 있다는 점과 기독 군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의 상관관계를 명쾌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규명해 주고 있다. 특별히 몇 가지 논지에서 국가와 교회, 애국심과 신앙심 사이의 성경적인 연결고리를 탁월하게 논술해 가고 있다.

먼저 국가의 형성과 경계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기에 이것은 자연질서 이상의 창조질서라고 규명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국가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정치행위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정치행위를 신앙행위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신학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기독 신앙인 장병은 탁월한 국가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으로 군에서의 성경적, 신학적 국가관 교육에 그 근거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를 위임받은 목적은 같으나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과 특성의 차이가 있고, 이것을 이중 의무와 구조로 설명하면서 양자 간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다룸으로 논지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주장에 더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도 주 안에서의 그것과 같다는 부분과 기독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것과 더불어 결국 하나님만을 믿는 절대 의존적인 신앙관을 갖추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펼침으로 모든 기독 신앙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군 선교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군 내부에서 발생되어 온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는 불건전한 병영 일탈행위에 대한 사례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의 사명은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것이기에 이런 맥락에서 비록 계급사회이지만 억울한 대우를 받는 자가 없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조해야 함을 주문하는 것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군 사역자들의 활동 방향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

## 2. 발전되어야 할 부분

첫째, 개념의 발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다.

국가안보를 국가와 국가 간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적의 공격이나 침공으로부터 자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라는 안보관은 1980년대까지 통용되어 온 국가안보관이다. '안보' 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터 근심, 걱정, 불안을 제거' 하는 것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광의적인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국가안보에만 안보의 단어가 적용되지 않고 개인안보, 자연안보, 사회안보, 국가안보를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군인들의 임무 역시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로 적용되는 국가안보 개념은 '국내외 군사·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구성 3요소(국민, 국토, 주권)를 보호, 안정시키는 것' 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개념이 발전되어 가고, 군의 임무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반해 변화의 속도에 맞춘 적합한 신학적 연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어 군과 관련된 사역자들이 정확한 신학적 논리 근거를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 가치관과 국가 가치관의 긴장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간의 분쟁 시 양국 간의 기독 군인들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지상 나라에 대한 의무가 상치될 때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군이 가지고 있는 가치규범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가와 군대와 관계된 측면에서는 충성심이고, 둘째는 조직적인 측면으로서 군대는 법규, 규정, 수칙, 명령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이며, 셋째는 개인적 수준의 규범적 가치체계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군인은 본연의 임무 특성상 개인의 자율을 군 복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인권' 이란 용어보다는 '기본권' 이라는 용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물론 군에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그 주어진 명령이 명백하게 법규와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 모든 군인은 상관의 명령 및 법규와 규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군인 각자가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순응 여부를, 특히 저계급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법규와 규정하에 군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또 다른 차원의 수정, 개정, 제정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니엘과 요셉을 롤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그들이 속한 나라에 기여했던 사례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 간 이해 상충 시 발생되는 문제는 국군의 사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외부의 침략이나 내외의 폭력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신성한 의무를 완성하는 데 있다' 는 헌법 제5조의 조문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종합 의견

이 논문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관과 신앙관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철저한 성경적 이해 위에 매우 적극적으로 규명해 주고 있으며, 확신을 가

지고 군생활과 군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흐름의 전개는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이 논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군선교신학 제9권 발제

#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 A Study on the Patriotism and Individual Ethic in the War based on a Christianity National Point of View

주연종 Ju, Yeon Jong

■ 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군종목사
■ 총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Th.M.)
■ 미 풀러신학대학원 수학
■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Ph.D.교회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연구의 목적

군인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이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전투와 국지전,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고, 테러와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탄생한 유엔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1945년 창설 후 1990년까지 2,340주(週) 동안 지구상에 총성이 멎은 주간은 단 3주밖에 없었다.[1] 전쟁은 개인으로부터 가족, 부족, 민족, 국가 간의 갈등

을 푸는 정치행위의 마지막 수단이다.[2] 그렇다면 루소(Rousseau)의 지적대로 국가의 구성원 사이에 가장 강력한 유대요소인[3] 애국심은 전쟁에서 치열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애국심의 발현은 전투와 전쟁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역사상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전쟁은 수없이 많았다.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교황권을 발동하여 신성로마제국의 젊은이들이 대거 동원되었던 십자군 전쟁(1096년), 프랑스의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를 목적으로 개전된 위그노 전쟁(1562-1598년), 독일을 중심으로 전 유럽에 걸쳐 펼쳐졌던 30년 전쟁(1618-1648년),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진 영국내전(1640년)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종교전쟁뿐 아니라 세속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의든 타의든 전쟁행위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전쟁처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신 경우와 달리 세속적인 전쟁에서의 적군과 아군의 구분은 선과 악의 관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군의 존재 목적은 적의 위협을 제압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애국심은 이때에도 전투력의 핵심이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무엇이며 전쟁을 수행하는 단위인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애국심은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며, 정당한 애국심의 발현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여기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국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전쟁과 애국심의 상관관계를 살핀 후 기

1 국방부 군종실, 《군종업무지침》(서울: 국방부, 1999), 215.

2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김만수 역 (서울: 갈무리, 2006), 90.

3 박상섭, 《국가 · 주권》(서울: 소화, 2009), 79. 장 자크 루소에 의하면 조국애는 정부(情婦)에 대한 사랑보다 수백 배 더 강렬하고 감미로우며, 달콤하고 열렬한 감정으로서의 애국심은 이기심의 힘과 덕성의 아름다움으로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영웅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독교적 관점에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의 윤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국가와 전쟁

### 1) 국가관

#### (1) 유럽의 국가관

국가(國家, State)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양에서 오늘날의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13세기 이후 이탈리아에서였으며 14세기에 피렌체인들이 자신의 정부 형태를 'popolare stato' 또는 'popularis status'로 지칭함을 통해 그 의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물론 고대 로마 공화정 때부터 라틴어의 'status', 혹은 'stare', 즉 '서다(to stand)'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들이 어떤 제도나 정치 조직의 기본적 양상 또는 공공복리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4]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역사상 지금까지 존재했던 국가나 통치체는 모두 공화국 아니면 군주제였으며 군주 혹은 공화정 하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통치하는 단위로 존재했던 것으로 정의했다.[5]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의 《국가》는 'politeia'로서 이는 '국가'라기보다는 '나라의 구성', 혹은 '정부 형태', '나라의 체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6] 고대 그리스에서의 국가 개념이 근대와 현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4 박상섭, 29-30.

5 Niccolo Machiavelli, 《군주론》, 강정인, 문지영 역 (서울: 까치, 2003), 11.

6 Platon, 《국가》, 조우현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82), 13, 99.

### (2) 중국의 국가관

중국은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을 바탕으로 나라 이름도 중국(中國)이라 하였다. 그러나 한(漢)나라 때부터 유교를 국교로 삼아 과거시험을 채택하고 유교 이념에 기반한 관료제도를 정착시켰다.[7] 이 유교적 관료제도가 국민을 억압하고 하층민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종법제도(宗法制度)로 고착화되었다. 여기서 종법제도라 함은 왕과 제후 간의 관계를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하고, 본가(本家)와 분가(分家)의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또 종주(宗主) 존중과 동족의식을 강조하는 종법질서를 왕으로부터 씨족, 가(家),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적용한 광범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이 발전되어 종법봉건제도가 되었는데 종법봉건제도는 안으로는 동일 혈연에 기반한 종법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결속하고 밖으로는 조공을 통해 철저한 군신관계를 확립하였던 정치제도이다. 이런 종법제도하에서 전통에 대한 극단적인 존중, 선조에 대한 예(禮), 그리고 강력한 가부장제가 정착되었다. 부계사회와 적장자(嫡長子) 계승이라는 종법제의 기본은 4천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고대의 자연경제시대부터 '가정→가족→종족→사회→국가' 로 확대되었다. 시골의 촌장(村長)은 이 구조 속에서 세포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종법제도하에서의 중국은 전통적으로 통치는 있었지만 정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8]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국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최초의 왕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은(殷)나라의 기본단위는 읍(邑)이었다. 읍은 성(口) 밑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은 모양(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시대의 읍이라 함은 성을 세우고 그 안에 인위적으로 건설된 거주 지역을 의미한다. 대읍(大邑), 소읍(小邑), 도읍(都邑), 상읍(商邑) 등 1000여 개의 읍들이 누층적으로 존재했던 것을 보면 읍은 군사적인 방어체계를 갖춘 상하 지배 복종관계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주거 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도 대동소이하다. '國' 은 창과 울타리(口)로 둘러싸인 경작지를 형상화한 것인데, 이것이 주(周)대에 와서는 성곽으로 보호되는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를 의미하였다. 이후 전국시대에 國은 군주가 지배하는 영역을, 都는 군주가 거주하는 영역을, 그리고 鄙(비)는 정치적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립되었다.[9] 따라서 중국에서의 국가란 가(家), 즉 가정의 확대이며 군신(君臣)간, 사대부와 백성 간에는 혈연과 종법에 근거한 주종관계로 형성된 거대 공동체였던 것이다.

7 이채윤, 《중국 4천 년의 정신》 (서울: 시스컴북스, 2005), 23.

8 강준영, 《중국의 정체성》 (서울: 살림, 2004), 18-25.



### (3) 한국의 국가관

한국의 경우, 411년에 세워진 광개토대왕 비문에 '國' 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였으나 뜻이 모호했고, 좀더 근대적 의미에 가까운 용례로 사용된 것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인데 신라가 당을 지칭할 때 '國家' 라고 했으며, 신라 자신을 가리킬 때도 역시 '國家'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10] 이후 《삼국사기》에도 국가라는 용어가 40여 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차 국가라는 개념이 명확해져 가고 있고 사용 빈도도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國家' 가 무려 16,974회나 사용되었고, 그 의미도 기본 사회체제 혹은 사회질서를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왕조나 왕실 또는 정치 권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틀 또는 일정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를 지키는 일에 헌신한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되었다.[11]

9 박상섭, 93.

10 박상섭, 102-4.

근대 이래로 국가는 절대전제국가를 거쳐 입헌국가(자유법치국가), 그리고 대중적 민주복지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다. 비록 행정부가 점점 비대해져 가고는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도 근대와 현대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상의 논고를 종합해 보면, 국가란 특정한 지역공동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정치적, 지리적, 문화적, 혈연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내에 머무는 구성원들인 국민은 국가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려는 것도 당연하다. 공공재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 힘을 모으고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공적부조를 증대하려 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민과 외국에 대한 통제, 억압, 분쟁, 전쟁도 불사하는 극단적인 결정도 할 수 있다.

### 2)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국가관

국가는 특정한 지역공동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정치적, 지리적, 문화적, 혈연적 체계로 현실적으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그런데 국가지상주의 혹은 민족주의는 현대세계의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상대적, 배타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태도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승리하고 번영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국가교회(Land Kirche)는 히틀러를 메시아로 포장하고 아리안 민족주의(Nazism)의

11 박상섭, 110.

112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1985), 559.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는데, 이 작업을 주도한 이가 당시 독일군의 군종감이었던 뮬러(L. Muller) 목사[13]였다. 그리고 메시아로 포장된 히틀러의 주도에 의해 고백교회[14]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탄압을 받았고 순교하기까지 했다. 교회의 후원을 받은 국가권력이 교회와 목사를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본회퍼는 히틀러와 국가의 만행을 지켜보는 것이 죄스러워 히틀러의 암살을 모의하다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옥중에서의 그는 거의 죽음의 상태를 경험했고, 고문과 회유로 동지들을 고발하게 될 것을 스스로 우려할 정도였다.[15]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국가 혹은 정부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13 이신건, 《칼 바르트의 교회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9), 149. 뮬러는 1933년 9월 27일에 열린 국가 총회에서 국가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되었다. 독일군은 이 일로 인해 군종목사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상실했던 교훈을 근거로 현재까지 군목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히틀러의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현역 군목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은 채 민간 성직자를 위촉하여 군목에 준하는 종교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14 칼 바르트 등에 의해 스위스의 자펜빌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로서 독일국가교회와 대조되는 개념의 바른 신앙고백을 한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다. 현재 독일은 국가교회인 루터교와 고백교회의 후신인 자유교회(Frei kirche)가 있으며, 청년들을 중심으로 자유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국가교회는 국가의 종교국이 직접 관리하며 목회자에 대한 대우와 종교시설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은 일정한 액수의 종교세를 자진하여 납세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종교에 따라 그 종단의 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종교세는 납세액의 9.8%(2011년 현재)인데 이는 납세액과 별도로 추가로 납부하는 사항이다. 종교세를 내지 않으면 해당 종교로부터 장례식, 결혼식 등의 집례를 거부당하고 묘지 사용도 불허되어 종교상의 이유라기보다는 복지의 차원에서 종교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고백교회의 정신을 이은 자유교회는 종교세를 일체 교부받지 않고 있으며, 독자적인 건물과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 그들 스스로는 진정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의 양면성을 현재 독일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

15 Ederhard Bethge,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7), 181.

### (1) 어거스틴의 국가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국가를 이원하여 두 국가론을 전개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지상국가는 강도단과 다를 바 없으며 강대국의 정복전쟁을 "어떤 전쟁에서 다른 전쟁으로 옮겨 한 사람도 해할 줄 모르는 민족들을 다만 통치욕에서 짓밟고 굴복시켰으니 이것을 큰 강도질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하겠는가?"[16]라며 강도행위로 평가했다. 이어 어거스틴은 알렉산더 대왕이 체포한 해적이 알렉산더에게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지상국가를 어지럽히십니까? 나는 하나의 작은 배를 타기 때문에 강도라고 명명되지만 당신은 커다란 함대를 이끄셔서 황제라고 명명되는 것뿐입니다"[17]라는 대화를 인용하며 황제와 그의 전쟁행위를 강도단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폄하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역사상의 제국(帝國)들 특히 로마제국은 지상국의 대표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으므로 로마제국의 개창자로 알려진 로물루스(Romulus)를 숭배하는 것조차 비난하였다.[18] 어거스틴은 두 나라의 속성은 구별하지만 이 두 나라의 속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두 나라의 시민이 다 동일한 일시적인 선들을 행하며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과 소망과 궁극적인 가치는 다르다.[19] 다시 말하면 세속국가와 교회, 어느 한쪽도 하나님의 나라나 지상국가와 동일시될 수 없다. 교회와 국가 양쪽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국가적 요소가 함께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혼합된 요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원리와 출발점이 다르기에 대립구조를 명백히 드러내면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20] 따라서 어거스틴의 역사해석도 세계사 내의 이 두 나라의 모호한 긴장관계에 기초하고 있다.[21]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전제국가로서의 지상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지상 나라와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곧 교회로 동일시하고 있지도 않다.[22] 즉 정치적인 국가는 지상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군주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도 일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은 교회 역시 지상국가의 속성인 세속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국가는 정치적인 세속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혼합되고 불안전한 상태의 조직체로 존재한다.[23]

### (2) 로마 가톨릭의 국가관

로마 가톨릭의 국가관은 그레고리 1세의 교황 즉위(590년)로부터 시작되어 그레고리 7세에 와서 위상이 강화되면서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 즉 성속(聖俗)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레고리 7세는 성직매

16 Augustinus, City of God, Ⅳ. 9. (NewYork: Image Books Doubleday, 1958).

17 Augustinus, Ⅳ. 4. "What you mean by warring on the whole world. I do my fighting on a tiny ship, and they call me a pirate; you do yours with a large fleet, and they call you Commander."

18 Augustinus, Ⅳ. 10.

19 Augustinus. 15. 1.

20 주연종,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 연구" (Th. M. diss,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 1998), 14.

21 선한용, 《시간과 영원》(서울: 성광문화사, 1986), 262.

22 이에 대해 한철하는 그의 저서 《고대 기독교 사상사》(318) 에서 어거스틴의 City of God 20권 9장을 인용하며 어거스틴이 교회는 현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 나라라고 언급한 예를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으나 선한용은 에드워드 크란츠의 의견을 빌려 어거스틴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당시 로마교회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3 주연종, 17.

매의 금지, 성직자의 독신 강조, 재산감독권과 성직임명권 확보 등을 통해 교황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는 제국이나 권력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교회 우위의 사상을 확립했다. 그는 제국과 황제를 영적 권위인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복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탄의 발명품으로까지 생각하였다.[24] 그레고리에게 있어서 교황은 지상대권자이며 태양으로서 황제인 달을 비추는 지존의 존재였다. 실제로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와서는 유럽의 모든 왕들과 심지어는 왕후들까지 마음대로 교체시킬 만큼 교황주의적 신정정치의 형태를 실현하였고, 중세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교황과 로마교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25] 이와 같은 가톨릭 국가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학자로는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을 수 있는데, 아퀴나스는 이층구조적 자연신학의 관점에서 자연질서에 속해 있는 국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국민은 먼저 교회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영적 통치를 우위에 두었다.[26] 교회는 국가의 상위개념이며 교회는 영원하나 국가와 통치자는 유한한 조직에 지나지 않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헨리 4세에 와서 등장한 두 검(劍) 이론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두 개의 검이 하나님께로부터 교황과 황제에게 각각 내려졌는데 교황의 검이 명예와 품위에 있어서 국가의 검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이었다.[27] 교황 피우

24 Margaret Deanesly, 《중세교회사》, 박희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11-3.

25 김명혁,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기독교문화 진흥원 편, 《교회와 국가》(서울: 한기문출판사, 1988), 89.

26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York: Union Theological Seminary Press, 1970), 88.

27 최종고, 《국가와 종교》(서울: 현대사상사, 1983), 23.



스(Pius)는 1873년 7월 21일 Academia of the Catholic Religion 연설에서 "교황은 유리한 조건하에서 적절하게 행사할 권리가 있고, 제 국가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사항까지 판단 내릴 권리를 소유했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는 중세 이전부터 형성된 가톨릭의 국가관이 아직껏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28] 종교개혁기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1513-1521년)는 교황에 선출된 후 "하느님은 나에게 교황직을 주셨다. 그러니 마음껏 즐기자"라고 했고, 교황 우르바노 8세(1623-1644년)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점성가를 데려와 라테란 궁전에서 대규모 마법의식을 거행하는 등 지상대권자의 파행적 행동은 지속되었다.[29] 종교개혁 직전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1492-1503년)는 여러 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여섯 아들과 세 딸을 두었으며, 아들들에게 최고의 관직과 추기경 등의 성직을 부여하여 세속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도록 배려했다.[30]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축조를 위한 면죄부 판매를 감행한 교황들의 행적은 교회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세속군주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교황청은 지금도 독립국가(市國, City State)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독자적인 법률과 화폐를 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과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군대와 경

28 원종홍, "국가와 교회의 영역주권에 관한 연구" 《성경과 신학》 제19권, (1996. 4), 279.

29 P.G. Maxwell Stuart, 《교황의 역사》, 박기영 역 (서울: 갑인공방, 2005), 8.

30 P.G. Maxwell, 194. 그의 아들들은 추기경으로부터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성직과 관직을 오가며 세속군주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향유한 교황의 후광에 힘입어 권력을 확대해 나갔다. 피렌체에서 활동중이었던 신부 기롤라모 사보나 롤라가 교황의 이와 같은 타락을 비판하자 그에게도 추기경의 자리를 제안하며 무마하려 했으나 사보나 롤라는 "나는 추기경의 빨간 모자보다 피를 원한다"라고 하며 교황의 제안을 거부하며 그의 부정과 부패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그와 그의 동료들을 피렌체의 세뇨리아 광장 한가운데서 화형에 처하도록 했으나 자신도 독살, 혹은 병사의 의문사를 당함으로 절대 권력의 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종교개혁 이후 루터파에서 제작한 목판화에서 알렉산더 6세는 마귀로 묘사되어 있다.

찰, 경호원, 방송국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주요국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국가급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31]

교황은 한 국가의 원수(왕, 대통령, 혹은 총리)로 대우받고 있으며, 추기경은 국무총리, 주교는 장관, 기타 신부들은 부이사관 이상의 관직을 가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이 종교단체이며 동시에 국가 위의 국가 혹은 국가와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 (3) 개혁자들의 국가관

① 칼빈

로마서 13장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무정부주의자 혹은 세속의 국가나 관원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 오직 모든 지상적인 권세가 폐지될 때라야 제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높임을 받으며, 그들이 모든 인간적인 노예살이의 멍에를 벗어버릴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믿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느 때나 약간씩은 있다.[32]

더 나아가 칼빈은 바울이 위정자들에 대한 위상을 확립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천지간의 유일한 주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왕국을 낚아채려고 음모하는 자들을 합법적인 지도자와 지배자들로 인정하는 것이 얼핏 모순된 것으로 보였다. 추측하건대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위정자들의 권위를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확립하게 되었던 것 같다.[33]

칼빈은 세속국가의 존재와 권세자들의 통치를 인정했다. 칼빈은 어거스틴에게서도 보여졌던 두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의 통치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영적인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와 세속군주의 통치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속국가의 통치는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이 생각하는 국가 통치의 목적은

>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34]

로 정의되었다.

무정부주의자들 혹은 교회의 완벽한 통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그토록 완벽한 세속국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지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집권자를 부인 또는 배척함을 허용하지 않았다.[35] 그리고 정부형태는 귀족정치와 민주정을 결합한 형태를 선호했는데 이는

31 니노 로 벨로, 《백과사전에도 없는 바티칸 이야기》, 이영수 역 (서울: 생활성서사, 2001), 28.

32 존 칼빈, 로마서 주석 13장 1절.

33 존 칼빈, 로마서 주석 13장 1절.

34 John Calvin, Institute V. 20. 6.

35 John Calvin, Institute V. 20. 5.

사람의 결함이나 실패할 가능성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정권을 운영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견딜 만하기 때문이다.[36] 실제로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도했던 신정정치는 교회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교회와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37]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가 교회질서와 정치질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자 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순종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루터와 녹스와도 같은 입장에 있다.[38] 그러나 칼빈은 루터나 어거스틴처럼 인류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사탄 이 두 세력의 싸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두 세력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은 이 두 영역에서 동일하게 행사되며, 이것이 가시적으로는 교회와 국가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세속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국가를 의미하지만 영적인 통치와 영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교회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기는 하나 그것이 곧 두 개념 간의 대립과 투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중 통치를 받아야 한다. 영적인 통치는 양심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는 것으로 영적 생활에 속하며, 사회적 통치는 시민으로서의 사람 사이에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배우는 현세 생활에 대한 것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통치이다. 양자는 각각 구별된 세계이므로 두 세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통치자와 다른 법의 권위

36 John Calvin, Institute V. 20. 8.

37 W. Fred Grah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87.

38 주연종, 63.



하에 있는 구별된 두 세계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인간사회의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육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아니다.[39]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인 관리들과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성화의 삶을 통해 이를 세속국가, 즉 정부에 전달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활동의 정당성을 얻게 된다.[40]

② 루터

루터의 경우도 칼빈과 같이 두 정부론, 혹은 이중통치론의 관점으로 국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루터는 무정부주의나 국가와 군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항에 대해 견제했고, 하나님께서 세속의 관리를 두신 이유에 있어서도 국민 모두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국가의 특성상 세속의 관리가 악을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악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했을 경우에는 형벌을 받도록 하는 일을 세속국가가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41] 온 인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세상 국가에 속한 자들로 구분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진실한 신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세속 권력과 법이 필요하지 않다. 만일 온 세상이 참된 기독교인들, 말하자면 진실한 신자들로만 가득 차 있

39 John Calvin, Institute Ⅲ, 19, 15

40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윤리에 관한 연구" (Ph. D. diss, 총신대학교, 1996), 243.

41 마틴 루터, "세속권력에 대한 복종의 한계", 《루터의 정치사상》, 홍치모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5), 81.

다면 군주나 왕이나 권력이나 법률은 필요없게 될 것이다.[42] 반면에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하며 세속적인 법 아래에 있게 된다.[43]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법이 필요하고 세속의 엄한 권력도 있어야 하며,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모두 섞여 사는 세상에는 법과 질서가 유지될 권력과 체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루터도 이중통치, 즉 세속국가와 하나님 나라에 이중으로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두 소속된 국가의 주권자로부터의 통치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권세를 세우셨으니, 그 하나는 영적 권세로 성령께서 기독교인들과 의로운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시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세속 권세로 비기독교인들과 사악한 자들을 다스리시고 외적인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다.[44]

③ 기타 개혁자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John Knox)는 국가를 지상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며 백성들에게 신성한 종교를 보장하는 하나의 조직체로 이해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이 녹스도 무정부주의를 거부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초래된 강한 국가를 선호했다.[45]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인간의 죄로 인한 무질서한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통치 권위를 주어 국가를 제정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녹스에게 있어서 국가의 통치자인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의해 제한되었다.[46] 그렇다고 교회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도 반대했다. 교회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국가 문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국가 일에 성직자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47]

녹스의 정치사상은 그 후계자들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되었는데 1580년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James Melville)이 제시한 두 왕국 이론(the two kingdoms story)이 그것이다. 두 왕국이란 국가와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두 왕국은 엄격히 분리되며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속군주는 국가의 통치를 담당하지만 교회는 그의 통치 영역 밖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또 다른 왕국이므로 세속권이 절대로 관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임명한 성직자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단지 세속권력은 교회가 외부의 세력에 의해 위기에 처해졌을 때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48] 이러한 멜빌주의는 칼빈의 제네바 통치를 통해 수정되어 이중 통치론으로 발전되고 변경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스코틀랜드 초기 정치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다.

재세례파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온건함과 유아세례에 불만을 품고 국가교회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 국가와 교회의 완전 분리를 실천한 최초의 집단이 되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한 맹세와 군대 징집을 거부함으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 지목되었다.[49] 원시 기독교의 회복을 의도했던 이들의 시도들은 곳곳에서 벽에 부딪혔고, 1529년 슈파이어 의회에서는 재세례파의 지도자들과 이 단체에 가입하는 자들은 로마시대의

---

42 마틴 루터, 79.

43 마틴 루터, 81.

44 마틴 루터, 82.

45 John Knox, The Works of John Knox, ed. D. Laing, V. 1-6 (Edinburge: James Thin, 1846-64), 4:480-90, 500-507.

46 권태경, "존 낙스의 개혁사상 연구" (Ph. D. diss, 경희대학교, 1995), 98.

47 John Knox, 5:519.

48 김중락, "두 왕국 이론과 교회의 현실 참여", World View,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 2011. 7. 32-3.

49 Williston Walker, 328.

이단을 처단하듯 치안을 방해하는 선동자로 낙인찍어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50] 마틴 부처(Martin Bucer), 루터, 츠빙글리(Zwingli) 등의 개혁 지도자들은 이들을 과격하고 급진적인 운동세력으로 비난하였다.[51] 그렇다고 재세례파가 국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국법의 선한 역할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견해는 이전의 개혁자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의 결탁(alliance)은 교회의 타락에 가장 심대한 타격이 되었다고 보았고, 교회와 국가가 결합(join)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있어서 발목을 잡히게 된다고 주장했다.[52]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네덜란드의 목사이며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전 활동 영역에 펼쳤던 인물이다. 카이퍼 당시 국가는 국가지상주의 구현을 위해 국가가 교회나 개인의 신앙, 교육 등을 모두 장악해서 개인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있을 때였다. 카이퍼는 이에 맞서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의 도구이며,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교회뿐 아니라 국가나 가족 같은 곳도 포함되어 있었다.[53] 카이퍼는 영역 주권의 관점에서 국가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문화영역으로 보았다.

칼 바르트의 국가에 대한 견해는 일면 아브라함 카이퍼와 유사한 면이 있다. 바르트는 히틀러의 압제하에서 독일교회가 국가교회로 전락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백교회를 형성하면서 국가에 대한 관점을 형성했다고

50 Williston Walke, 327.

51 Williston Walker, 329.

52 William R. Estep, The Anabaptist Story (Grand Rapids: Eerdmans, 1996), 257-8.

53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서울: 킹덤북스, 2010), 259-11.



할 수 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개의 원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원 중 하나가 국가이며 교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있어서 교회든 국가든, 목사든 정치인이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신학활동, 목회뿐만 아니라 정당을 설립하고 정치적인 행위까지 할 수 있었다.[54]

### (4) 기독교 국가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국가란 인문지리적 행정단위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A국과 B국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혈연상 구분이 될 뿐이지 절대적 권위를 상대국에게 강요할 하등의 명분과 능력이 없다. 역사상의 국가는 영원하지 않다. 이집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스라엘, 몽고, 인도 등 전세계 국가 중 그 국호를 2천 년 이상 유지한 나라는 10% 내외이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세 이후에 탄생했거나 중국, 한국, 싱가폴을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중남미의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탄생한 신생국들이다. 국가의 권력, 즉 왕권도 영원하지 않지만 국가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통치가 있을 뿐이다.[55]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보다 어떤 통치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A국의 국민과 B국의 국민은 지상의 통치는 각각의 국가로부터 받고 있지만 A국과 B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국의 그리스도인과 B국의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국경과 문화가 제

54 이신건, 《칼 바르트의 교회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9), 155-6.

55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지상 나라로 3중 통치를 말하는 이도 있다.

한할 수 없는 영적 동질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56] 김구가 주장한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는 전세계인을 국경이 없는, 지구촌적 국민으로 규정한 정치사상이었는데[57] 기독교적 국가관, 기독교적 인류관과 유사하다.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Engels)는 전세계 프롤레타리아를 하나의 시민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 프롤레타리아의 세계적 유대였던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인터내셔널을 1864년 9월 런던에서 창립하였다. 창립 선언에는 "전세계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는 슬로건이 높이 주창되었다.[58] 이후 곳곳에서 공산주의자동맹이 결성되고 국경과 민족의 구분을 계급의 구분으로 나누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이분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단정하고 대립과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59]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가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역사 그 자체를 종결하는 마지막 혁명이 될 것이며,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소멸되고 지배계급도 폐지되는 것이다.[60]국가의 폐지를 통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데 새로운 질서하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구별이 없고 계급 없는 사회가 있을 뿐이다.

이슬람의 경우도 모슬렘, 즉 이슬람 신자 간에는 형제라 하며 이슬람 형제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슬람 국가 간 국제회의체인 아랍연맹(The Arab League), 이슬람회의기구(ICO), 걸프만협력협의회(GCC)를 두고 있는

56 엡 2:19

57 김구, 《백범일지》 (서울: 문학예술사, 1982), 256-7.

58 마르크스 · 엥겔스, 《공산당선언》, 서석연 역 (서울: 범우사, 1989), 50.

59 마르크스 · 엥겔스, 17-8.

60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서울: 돌베개, 2011), 81-2.



데 이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이상인 범아랍주의, 이슬람주의, 형제주의를 추구하고 있다.[61] 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이보다 더 강력한 초월적, 영적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보편적 인류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품는 사해동포주의적 아량을 가져야 하며 국가 간의 대립과 경쟁을 주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타국가에 대한 상대적인 승리를 지상의 목표로 삼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적국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기독교는 자기 국가를 절대화하거나 국가주의에 경도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혹은 정부가) 본래의 기능인 종교를 보호하고, 국민평화를 보장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며, 악인과 죄인을 엄히 다스림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62] 되도록 함으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허용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3) 전쟁과 국가

#### (1) 전 쟁

전쟁이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대로 무기를 동원한 정치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 조직화된 전력과 군사력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의지의 격렬한 충돌이다.[63] 손무(孫武)는 전쟁을 나라의 중대사로 보았다. 이는 백성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마당이며, 나라의 보존과 멸망을 결정짓는 길이므로 깊이 삼가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64] 현대전

61 송민호, 《중동정치론》 (서울: 진선미출판사, 1992), 228-9.

62 유시민, 31-2. 홉스는, 인간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이는 절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63 Harlan K. Ullman, "전쟁론: 항구적인 원칙들인가 심오한 형태의 변화인가", 《전쟁원칙의 신 사고》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연구소, 2006), 102.

은 총력전이며 그 파장과 후유증도 날로 커지고 있다. 현대전은 전자전, 정보전이라고도 하지만 실상은 경제전이다. 엄청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전쟁의 세 가지 특징, 즉 불확실성, 마찰, 우연 이외에도 현대전에서는 예산과 무기체계, 그리고 국내정치가 작용한다.[65] 현대국가 간의 전쟁은 종교, 외교, 경제문제가 정치 · 군사적인 문제보다 더 근접한 촉발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소한 외교 마찰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세계정부 혹은 정부들 위의 정부를 모색한 바도 있지만 유엔의 탄생 이외에는 별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상위에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인 것이다.[66]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초국가적인, 초민족적인 분쟁들이 경제와 이념, 종교 등으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고,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으로 인한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67]

### (2) 전쟁과 기독교

성경은 분쟁과 전쟁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사소한 다툼,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분쟁과 아브라함이 수행한 전투와 전쟁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루어질 아마겟돈 전쟁까지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전쟁으로 종식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8]

64 손무, 《손자병법》 (서울: 홍익출판사, 2007), 62. 손무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를 정치, 기후, 지리, 장수, 법제 등 다섯 가지로 꼽았다.

65 데니스 M. 드류,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진항 역 (서울: 연경문화사, 2000), 167-8.

66 Joseph S. Nye. Jr, 《국제분쟁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19.

67 Joseph S. Nye. Jr, 311-315.



구약에서의 전쟁은 영적인 의미, 상징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성전(聖戰), 즉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로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싸우셨다.[69] 구약성경에서만 전쟁이라는 히브리어 '밀하마'(Milhamah)가 300번 이상 나타나 있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기록한 부분도 200여 군데 이상이다.[70]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이라는 의미는 '군사들의 하나님' , 즉 '군사들의 대장' 이시라는 의미이다. 타인들에 의해 죽은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살해, 사형, 그리고 전사(戰死)이다. 따라서 전쟁이 어떤 명분을 가졌든지 심지어 아주 고상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쟁과 살인 모두 학대적 성격을 갖게 된다.[71]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성경적인 근거를 유지해야 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결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불의와 압제와 맞서는 절대자이시며 명백히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수백년간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며 신정정치(神政政治)를 받아들였다. 당시 근동의 왕들은 신들의 통치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을 지휘하시고, 법을 제정하셨으며, 집행까지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정정치기간 중 하나님은 최고의 군사령관이셨으며 최고의 재판장이셨다. 물론, 필요 시에는 이 두 권한을 위임받아 한시적으로 통치하도록 사사들을 세우셨으나 사사들은

68 창 3:1-16, 4:1-10, 14장, 마 24:6-7, 딤후 3:13, 계 16장-21장.

69 Peter C. Craigie, 《기독교와 전쟁문제》, 김갑동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48-9. 관련 성경구절로는 출 15:1-18 등이 있다.

70 Peter C. Craigie, 11, 49.

71 Peter C. Craigie, 81-2.

등장했다가 물러났고 왕이 아니었으며 여호와의 통치는 계속되었다.[72]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제기된 왕의 요구는 신정정치의 훼손과 여호와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모든 혜택 역시 폐기해 버리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원했으면 다른 민족들과 같은 사회를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무엘의 주장은 합당한 것이었다.[73] 그런 고로 왕정이 시작되고 난 후의 전쟁은 영적 의미에서나, 상징의 차원에서나, 성전의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되었고, 살육과 탐욕의 싸움판으로 변질되었다.

그렇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전쟁을 무조건 억제하고 이미 벌어진 전쟁은 조기에 종결짓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적 태도로 적합한 것인가? 과연 인류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의 답은 명확하다. 전쟁은 탐욕의 결과이며 죄의 결과이자 죄가 표현되는 과정이다.[74]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징벌을 하셨고, 인간의 탐욕과 죄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셨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기회로 삼게 하셨다.[75]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거나 금지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이 있을 것이며,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76] 인류가 전쟁을 금하도록 청구하는 기도는 평화의 시기에 인간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고 좀더 안정적

[72] Christopher J. H.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김재영 역 (서울: IVP, 2006), 314-5. 삼상 8장.

[73] Christopher J. H. Wright, 320.

[74] Martin Lioyd Jones,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 이광식 역 (서울: 지평서원, 2010), 116, 122. 약 4:1-2 참조.

[75] Martin Lioyd Jones, 116-124.

[76] Martin Lioyd Jones, 110. 마태복음 24:6-7 참조.



으로 쾌락을 즐기고 탐욕을 구가하기 위함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평화를 간구했던 유럽인들은 곧바로 쾌락의 길로 들어섰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똑같은 목적으로 종전을 간구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도였다.[77]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벌과 회복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C.S 루이스는《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전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는 전쟁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78] 즉 죽음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전쟁을 통해 수없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탄은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에 파견된 사탄 웜우드에게 본부에서 내려온 삼촌의 지령이다.

>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인들 있겠느냐.[7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의 전쟁은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신정정치하에서 여호와의 완전하신 통치의 행위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의 전사(戰死)는 거룩한 전쟁의 헌신의 결과로 인정되었고, 적군으로 전사한 자들은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자들로 여겨졌다.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의 용사 되심과

[77] Martin Lioyd Jones, 114.

[78] C. S. Lewis,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김선형 역 (서울: 홍성사, 2006), 40.

[79] C. S. Lewis, 41-2.

만군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지휘관이 되고 왕이 되어 탐욕을 채우고 살육을 자행하는 싸움판이다. 이 전쟁은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선은 존재할지 몰라도 절대 선과 절대적인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그리고 어느 시대에 있었던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시고 확대해 나가신다.

## 3. 전쟁과 애국심

### 1) 애국심과 전쟁에서의 살인

애국심이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대 요소이며, 이는 전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된다. 평시에는 국가 간 스포츠 경기를 통해 전쟁에서의 애국심에 준하는 감정을 표출하는데 그 용어가 전사(戰士), 작전, 전략, 용병, 군단(팀) 혹은 사단 등 전시의 군사용어와 동일하다. 실제 전쟁에서 애국심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살인행위가 불가피하다.[80] 그러나 성경은 살인을 금하고 있다(신 5:17).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 에서 '라싹' (rasah)은 '죽이다' 의 의미인데, 신명기 20장 10-18절에 나오는 '죽이다' 라는 단어는 '하락' (harag), 혹은 '카탈' (qatal)로 '살해하다' , ' 학살하다' 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 는 히브리인 동족 내에서 서로 죽이지 말라는 의미이고,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죽이다' 라는 동사는 이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국에 대한 살인은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81] 이는 현대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받아

80 유시민, 33.

81 Peter C. Craigie, 84-5.



들이기 어렵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종족과 인종, 성별과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과 이방인의 차별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82]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전시에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그리고 살인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전쟁에서의 살인도 살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애국심과 전쟁에서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2) 애국심의 특징과 윤리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국가는 유한하고 절대적이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이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발휘하기 위해 인간이 항구적으로 지켜야 도리인 윤리와 애국심이 충돌되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애국심은 자신이 속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지만 상대적인 성격이 있다. 다른 나라에 속한 국민도 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기 마련이고 각자의 애국심이 충돌될 때에는 분쟁이나 전쟁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결국 어느 한쪽의 패배가 불가피하다. 안중근, 김구 선생은 한국인들이 볼 때에는 애국자이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이며 암살자일 뿐이다.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국군은 우리에게는 애국자이지만 북한에서 볼 때는 적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83]

애국심의 두 번째 특징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그 감정을 품은 사람에게마저도 언제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독일군은 독일에 충성하고 독일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해 다

82 고후 5:17, 엡 2:11-19.

83 유시민, 117.

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학살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독일군 내에서조차도 암살단이 만들어져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 정당성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년이 지난 지금 독일 국민 가운데 나치에 충성하고 애국심을 불태웠던 독일군의 만행에 대해 아직도 애국적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대동아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모하고, 이를 애국적 행동이며 뜻깊은 죽음으로 애도하고 있다. 이렇듯 애국심은 장소와 시대, 인종, 민족성에 따라 상대적이고 불완전하게 작동한다. 그러므로 윤리와 충돌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어떤 경우에 애국심은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 4.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 1) 전쟁과 국가와의 관계

전쟁은 국가단위의 무력을 통한 도발행위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평소에 국가의 성격을 바르게 규정하고 그 규정된 성격대로 국가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의 여부가 국가가 전쟁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한 국가가 전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성격을 가진 국가보다 전쟁을 감행하기가 쉽고 호전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보다 일인 독재 국가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보다 군주국이 호전적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그와 같은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고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가가 그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살인과 탐욕을 채우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서 전쟁이 도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가혹한 윤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도 있다. 현대전의 성격상 총력전이 불가피하므로 총력전적 요소들, 즉 경제, 국내정치, 무기체계, 군사력, 국제외교 등에 있어서 전쟁 없이도 분쟁을 조절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쟁은 국가의 성격과 성숙도, 위기관리체계 여부와 상관성을 가지며 발생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2) 개인 윤리와 전쟁에서의 애국심

전쟁은 윤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의 죽음은 가장 무섭고 쓸쓸하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 중에는 상대방이 누구이며 왜 서로가 죽이려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살인행위를 하는 자들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군인이 2,500만 명, 민간인이 2,400만 명이 희생되었다. 전시에서의 죽음과 부상은 인간 존중의 결함을 극명히 보여준다.[84] 그리스도인은 전쟁에서도 윤리적으로 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며,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를 강조하고 있다.[85] 나라를 지키고 애국심을 표현해야 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묵인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징벌적 차원에서 전쟁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생산하는 과정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윤리를 지키며 전장에서 애국심을 표현하며 전투를 수행하기

---

84 Peter C. Craigie, 82.

85 창 1:28, 엡 1장, 고전 10:31 등.

위해서는 첫째, 성전(聖戰)이라 할 정도로 명분이 충분한 전쟁이 되어야 한다. 약탈군, 침략군은 명분이 없고 사실상의 도적단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86] 그리스도인들이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게 될 때에는 정의의 군대, 의의 병기가 되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장에서도 가급적 평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87] 셋째, 가능하면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하고 심리전이나 선전전을 통한 승리의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민간인, 부녀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전우들과 부하들에게도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미온적인 전투로 전쟁기간을 늘이기보다는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해 종전을 앞당긴다.

## 5. 결론

현대사회와 현대국가는 신정국가가 아니며 신정정치가 행해지고 있지도 않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세속국가의 관료나 정치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은 지금도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팽배한 물질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자국 이기주의로 문화전쟁, 자원전쟁, 식량전쟁, 경제전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이런 세속국가의 불완전함 속에서 이중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同心圓)적 구조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속 국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86 John Calvin, Institute, V. 20. 11.

87 John Calvin, Institute, V. 20. 12.



있는가에 대한 영적 자각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세속국가의 일원으로서 성전도 아닌, 명분도 미약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결과로 전쟁이 도래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 참전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의 병기로 자신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통치의 예외적인 장소와 환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야 징벌로 도래한 전장에서 추가적으로 죄를 산출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애국심을 표현하는 현장에서 이기심과 탐욕,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윤리적 요구를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애국심이 윤리보다 앞서지 못하며, 애국심의 대상인 국가도 하나님의 계명만큼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타국의 침략을 억제할 뿐 아니라 침략이 있을 때에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을 조기에 승리로 종식하기 위해 군대는 교육과 훈련에 매진해야 하며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사악한 세속국가는 살육을 통해서라도 탐욕을 채우려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바 군사력에 의해 탐욕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쟁을 원치 않을수록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군선교신학 제9권 논찬

#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에 대한 논평

A comment : A Study on the Patriotism and Individual Ethic in the War based on a Christianity National Point of View

오덕교 Oh, Doug Kyo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Ph. D.)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역임(전임강사)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총장 역임
■ 현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분망한 가운데도 옥고를 마련한 발제자 주연종 목사님에게 찬사를 드린다. 발제자는 뛰어난 문장력, 해박한 지식, 그리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국가관과 전쟁윤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가 연구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이 논문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국가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전쟁과 개인윤리의 적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서론과 결론 각 1장, 본론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제자는 1장의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을 밝힌 후, 2장 '국가와 전쟁' , 3장 '전쟁과 애국심' , 4장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에 대해 다루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2장 '국가와 전쟁' 에서는 1. 국가관, 2.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국가관, 3. 전쟁과 국가를, 3장 '전쟁과 애국심' 에서는 1. 애국심과 전쟁에서의 살인, 2. 애국심의 특징과 윤리를, 그리고 4장에서는 1. 전쟁과 국가의 관계, 2. 개인윤리와 전쟁에서의 애국심에 대해 다루었다.

발제자는 논문의 절반이 되는 9쪽에 걸쳐 국가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는 먼저 고대 로마의 공화정과 르네상스 시대의 마키아벨리 등 유럽의 세속적인 국가관을 소개한 후 중화사상과 유교적 관료주의가 중심을 이루는 중국의 국가제도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국가관은 종법주의가 고착되었고, "종법제도하에서의 중국은 전통적으로 통치는 있었지만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 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광개토대왕 때에 이르러 '국가' 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후《조선왕조실록》에 국가라는 말이 16,000번 이상 등장함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가진 국가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발제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가졌던 국가지상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비판함으로 기독교적 국가관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국가관을 논한 후 그의 국가는 정치적인 세속국가로 혼합되고 불완전한 상태의 조직체라고 보았다. 로마 가톨릭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기관으로 보았고, 교회를 국가보다 상위개념으로 이해했음을 지적했다.

발제자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우위적 로마 천주교회에 반대하면서 통치자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교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혼동하는 것을 금하였음을 지적했다. 곧 칼빈은 재세례파의 무정부주의 또는 지상에서의 완전한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사상을 비판하고, 국가와 교회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함을 밝혔음을 지적한 후 루터, 존 녹스, 앤드류 멜빌

과 재세례파, 아브라함 카이퍼, 칼 바르트 등의 국가관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발제자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국가관으로 김구가 주장한 사해동포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러한 사상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상향으로 삼았던 "국가와 민족의 구별이 없고 계급이 없는 사회"와 동일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가보다는 신앙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이슬람 공동체인 아랍연맹 또는 이슬람회의기구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이슬람공동체를 평하고, "기독교는 보편적 인류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품는 사해동포주의적 아량을 가져야 하며 국가 간의 대립과 경쟁을 주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자는 '전쟁과 국가'라는 항목에서 전쟁을 "무기를 동원한 정치행위"라고 규정한 클라우제비츠의 논리를 따르면서 현대전의 특성, 현대전의 종류, 현대전을 촉발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한 후 구약에서의 전쟁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전쟁을 탐욕과 죄의 결과이자, 죄가 표현되는 과정, "신정정치하에서 여호와의 완전하신 통치 행위" 또는 "여호와의 용사 되심과 만군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지휘관이 되고 왕이 되어 탐욕을 채우고 살육을 자행하는 싸움판"으로 규정하였다.

발제자는 3장에서 전쟁과 애국심을 다루면서 성경이 살인을 금하였음을 주장하고, "애국심은 자신이 속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지만 상대적"이라고 하면서 불완전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나라를 지키고 애국심을 표현하는" 행위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지만, 전쟁과정에서 "죄를 다시 생산하는 과정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쟁은 약탈이나 침략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명분이 있어야 하고, 전장에서 가급적 평화를 위해 수고해야 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하고 심리전이나 선전전을 통한 승리를 추구하고, 민간인과 부녀자, 어린이와 노약자를 해치지 않으며,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의 병기로 자신을 사용해야 하며," "애국심이 윤리를 앞서지 못하며 애국심의 대상인 국가도 하나님의 계명만큼 영원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발제자를 통하여 국가관, 애국심, 전쟁, 그리고 개인윤리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재고할 점이 조금 있음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논문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발제자는 논문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전쟁, 특히 국가관을 다루는 데 할애하였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3장이 1쪽, 4장이 2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논문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장을 본론으로 하여 나누고, 3장과 4장을 결론부분에 삽입하였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둘째, 소제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제자는 2장 1절을 국가관, 2절을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국가관으로 구분하였다. 2절에 비추어 볼 때 1절은 그에 대비되는 국가관이므로 1절을 세속적 국가관으로 명명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셋째로, 어떤 사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시대적 순서 또는 사상적 순서를 따라 서술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2.1.1의 '유럽의 국가관'을 다루면서 13세기의 피렌체인들의 국가관, 고대 로마의 국가관, 그후에 마키아벨리를 다루었는데 먼저 고대 로마의 국가관을 논한 후 마키아벨리를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사실상 13세기와 14세기의 피렌체인들의 국가관은 마키아벨리의 국가관을 다룬 것이다.) 그리고 2.2.2 로마 가톨릭의 국가관을 다루면서 중세의 아퀴나스를 논한 후 근세의 교황 피우스를 설명하고, 다시 중세 후반 또는 종교개혁시대의 교황들의 국가관을 다룬 것도 그렇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국가관을 다룰 때에도 칼빈, 루터가 아니라 루터, 칼빈의 순서로 서술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루터가 칼빈보다 1세대 전의 개혁자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주제(소제목)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한 예로 2.2.4 '기독교 국가관' 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국가관, 이슬람의 국가관을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고, 구별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리고 이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문제성을 지적하고 싶다. 발제자는 전쟁과 애국심을 다루면서 성경이 살인을 금하고 있음을 들어서 전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애국심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았다. 곧 유시민의 글을 인용하면서 "안중근과 김구 선생은 한국인들이 볼 때에는 애국자이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이며 암살자일 뿐이다.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국군은 우리에게는 애국자이지만, 북한 편에서 볼 때는 적군에 지나지 않는다" 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옳지 않다고 본다.

성경이 살인을 금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성경의 교훈이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전쟁도 틀렸고, 하나님도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는 계명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살인을 금한 것이지, 전쟁을 금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범죄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악을 벌하기 위해 검을 주셨기 때문이다(롬 13:1~4). 또한 애국심을 상대화하여 안중근과 김구를 일본 편에서 보면 테러리스트라고 하였는데, 이는 발제자가 침략군과 약탈군은 명분이 없다고 한 정당한 전쟁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조선 침략은 침략이요, 약탈이었기 때문에 안중근과 김구의 투쟁은 만인(일본인을 포함)이 평가할 때 의거이며, 6 · 25 전쟁에서 북한의 침략자로부터 목숨을 바친 국군들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애국자인 것이다.



바쁜 시간을 내어 귀한 논문을 작성하신 주연종 목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의 헌신과 연구를 통하여 전군 신자화 운동이 크게 일어나길 기대하고, 신앙 전력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군선교신학 제9권

#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 Augustine and 'Just War'

이규철 Lee, Kyu Chul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Div., Th. M.)
■ 피츠버그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대학원(Ph.D.)
■ 군종목사
■ 안동성결교회 담임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서론

전쟁에 대한 어거스틴의 사상은 역설적(逆說的)이다. 어거스틴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추구했다.[1] 어거스틴은 전쟁을 혐오했다. 전쟁이 많은 욕망을 일으키는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말로 전쟁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2]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 전쟁은 때때로 평화를 되찾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슬픈 의무였다.[3] 전쟁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 역설적 입장은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지향한 개인적인 평화주의에다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에서 강조한 '질서의 체제 안에서의 평화'[4]를 지키기 위한 공적인 전쟁의 정당함을 결합시킨 '정당한 전쟁'(Just War)으로 집약된다.

이 연구는 어거스틴이 표방한 정당한 전쟁의 역설적 입장을 해명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어거스틴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1 '버트'(Donald X. Bert)의 분석에 의하면, 어거스틴의 저작에는 평화를 일컫는 'pax'라는 단어가 2,500번 이상 나타난다. 이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적 의미의 평화와 그리스-로마적 평화 이해를 공히 수용하고 종합한 어거스틴의 마음은 언제나 평화를 희구하는 기도로 충만하였다. 한편 어거스틴에게 있어 히브리적 평화를 대변하는 '샬롬'(Shalom)은 '안녕'(well-being), '번영'(prosperity), 그리고 '안전'(security)의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폭력과 갈등의 단순한 부재(不在)를 넘어 완전성과 영원성을 지향한다. 이와 함께 헬라적 평화를 대변하는 '에이레네'(εἰρηνη)는 '질서, 부분들의 통합'이라는 뜻이며, 로마인들이 사용한 'PAX'는 '협약, 합의'라는 의미의 평화이다. Donald X. Bert, "Peace", Allan D.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99), 629-632.

2 Augustine, Letters of Augustine, 229. 2, Schaff, Philip.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 (Buffalo: The Christian Literature Company, 1886). LETTERSOF AUGUSTINE는 이하 LETTERS로,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이하 NPNF로 함.

3 Letters, 189. 6.

4 어거스틴은 '질서의 체제 안에서의 평화'에 대해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신체의 평화는 그 구성 부분들을 그 합당한 질서에 따라 배치했을 때 이루어지며, '비이성적 영혼'(irrational soul)의 평화는 그들 욕구(appetites)들의 질서에 따른 충족에 있으며,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의 평화는 인지(cognition)와 행동의 질서 있는 일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육체와 영혼의 평화는 살아 있는 피조물의 질서 있는 삶과 건강에 의존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는 믿음 속에서의 질서 잡힌 복종, 영원한 법의 예속으로 이루어진다. 인간들 사이의 평화는 마음과 마음이 일치할 때 얻어진다. 가정의 평화는 함께 사는 사람들 간에, 즉 주관하는 자와 따르는 사람들 간의 호응 여부에 달려 있다. '천상도성'(Heavenly City)의 평화는 완벽한 질서와 조화 안에서 하나님을 즐기는 공동의 협력이다. 전 우주의 평화는 질서의 평정함에 있다. 그리고 질서란 동등한 것과 동등하지 않은 것들을 그 받은 바 몫에 따라 그 각각의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Augustine, The City of God, xix, 13, NPNF, vol. II.

전쟁에 대한 제 관점들을 정리한다. 뒤이어 어거스틴이 그의 주요 저작에서 표방한 정당한 전쟁에 대한 논점을 추적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정당한 전쟁에 대해 어거스틴이 거듭한 숙고와 성찰의 본질적 구형(構形)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끼친 제 전쟁관

### 1) 키케로

가이슬러(Norman L. Geisler)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전쟁과 관련하여 표방한 태도는 행동주의(Activism), 평화주의(Pacifism), 정당한 전쟁에 참여하는 선별주의(Selectivism) 등으로 집약된다.[5] 임덕규에 의하면, 정당한 전쟁론의 초기 완성자인 어거스틴의 경우 구약의 거룩한 전쟁과 그리스와 로마의 도덕적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특히 그리스의 전쟁이념[6]을 계승한 로마의 정당한 전쟁론[7]을 정립한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8]의 사상은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5 Norman L. Geisler, Ethics: Alternatives and Issue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 House, 1971), 158. 가이슬러에 따르면, 행동주의는 하나님께서 국가의 정부를 제정하셨기에 기독교인이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전쟁에 참여하는 태도이다. 평화주의는 일체의 전쟁행위를 거부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선별주의는 모든 전쟁에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전쟁과 같은 일정한 전쟁에 참여한다. 이는 만약 기독교인이 그 정당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보다 큰 선을 거절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6 임덕규,《기독교인과 전쟁》(서울: 집문당, 2002), 39-42. 임덕규에 의하면, 공동의 문화와 공동의 언어에 의해 형제국가라는 관념을 강하게 가졌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 사이의 전쟁을 막심한 재난으로 생각하고 먼저 중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 실패하고 부득불 전쟁이 발생한다면 평화의 회복이라고 하는 목적 아래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쟁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플라톤에 의해 '정전' (just war) 규약으로 형식화되었다. 플라톤에 의하면, 쟁투(爭鬪)의 목적은 평화의 회복에 있다. 따라서 정의를 위한 폭력이라 할지라도 폭력은 최소한의 정도로 제한되어야 했다. 정당한 전쟁의 정당성은 '정의의 옹호' (Vindication of justice)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었다. 임덕규에 의하면, 그리스적 정당한 전쟁 개념의 약점은 정의의 개념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데 있다.



키케로에 의하면, 명분이 없는 전쟁은 단순한 해적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키케로는 전쟁법들이 최대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협상을 통하는 것(토의)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토의는 인간의 고유한 것이고, 힘은 야수의 고유한 것이므로 더 우월한 것인 협상이 통하지 않

7 전쟁에 대한 로마인의 접근은 보다 법률적이었다. 로마인들에게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법적 기초는 계약적 의무였다. 계약은 상호 간에 의무와 권리를 약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했을 시는 법의 판결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사실 로마가 지중해 연안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방법은 도시나 국가 간에 차별관계를 갖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것에 준거하여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로마인들은 피정복지를 식민지(Colonia), 자유시(Municipia), 동맹시(Socii)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통치했다. 러셀(F. Russell)에 의하면, 로마에 있어 정당한 전쟁이란 상대방의 가해적 행위를 통한 계약 위반이 전제되어 있다. F. Russell, The Just War in the Middle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4-5.

8 Anthony Everitt,《로마의 전설-키케로》, 김복미 역 (서울: 서해문집, 2003), p. 4-5. 안토니 에버릿(Anthony Everitt)에 의하면, 라틴어가 널리 교육되던 시대에 키케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식함을 과시하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키케로는 공인의 삶을 살았던 가장 내성적인 인물이었으며, 행동하는 사상가이자 지식인이었다. 역사 속의 많은 호소력 있는 인물들은 성공만큼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나 키케로의 격정적 생애와 그가 거둔 승리와 실패가 그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키케로가 죽은 후에도 그의 삶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연설과 철학은 당대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예견한 것처럼 유럽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키케로의 사상은 세대를 거치면서 문명화된 가치체계의 기본 틀로 자리잡았다. 그리스도교의 교부 철학자들은 키케로를 훌륭한 이교도의 표본으로 간주했다. 키케로는 비록 중세 때 더 유명했지만, 페트라르카에 의해 재발견되면서 르네상스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들은 키케로의 인도주의적 회의론을 즐겼는데, 로크(Locke)와 흄(Hume) 같은 영국의 사상가들도 키케로에게 신세를 졌다.

을 때, 최종 단계에 이르러 보다 열등한 무력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전쟁은 불의가 행해짐이 없이 평화 속에서 살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지만, 일단 승리를 거둔 후에는 전쟁 중에 잔인무도했던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보호해 주어야 한다……그리고 우리는 무력으로 정복한 사람들에 대해 배려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 장군들의 신의를 믿고 도망해 온 적의 병사들도 비록 그들이 공성(攻城) 망치로 우리 성벽을 파손시켰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로마인들 사이에 정의감이 대단히 많이 함양되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정복한 국가 또는 민족을 신의로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받아들인 우리는 조사의 관습에 따라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이다[9]

키케로에게 있어 정의로운 전쟁은 비록 원수에게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이 동반된 정의가 지켜지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키케로에 따르면, 한 국가가 적대국에게 공식적인 전쟁 선포를 하지 않은 채 일으키는 어떤 것도 정당한 전쟁이 아니다.

또한 전쟁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로마 시민의 전쟁을 주관하는 사제단의 법에 가장 확실히 신성하게 기술되어 있다. 여기를 보면, 전쟁이 적에게 만족할 만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거나, 또 사전 경고나 공식적인 선전 포고도 없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어떤 전쟁도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포필리우스(Marcus Popilius Laenas, B.C. 172년 집정관을 지냈으며 리구리아 산지인들을 정복함)는 속주를 통치하는 장군이었는데, 그의 군대에

9 Cicero, De Officiis, I. xi, 34-35, 《키케로의 의무론: 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허승일 역 (서울: 서광사, 1989), 34-35.



'노 마르쿠스 카토' (Marcus Porcius Cato Censorius maior, 234~149 B.C.)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필리우스는 그의 군대 중 일개 군단을 해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 바로 그 군단에 복무하고 있던 카토의 아들 역시 제대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카토의 젊은 아들은 전쟁을 워낙 좋아하여 군대에 계속 남아 있게 되었다. 그때 카토는 포필리우스에게 서한을 보내 만약 귀관이 본인의 아들을 군대에 계속 남아 있게 허용하고자 한다면, 아들 녀석으로 하여금 귀관에게 병사로서의 제2의 충성의 서약을 하게 하라고 간청하였다. 카토는 그 이유로, 첫 번째의 병사 선서는 제대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적과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전쟁을 시작할 때 지켜야 할 법은 매우 엄숙하게 준수되었던 것이다.[10]

키케로에 의하면, 평화의 수립이나 전쟁 선포에 형식적인 책임을 지닌 성직자들의 단체인 페스티알레스(Festiales)가 전쟁 개시 여부를 주관하도록 하는 로마의 관습적 규약을 존중하는 것이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어져 온 정당한 전쟁개념은 정의의 옹호와 평화의 회복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쟁은 평화적 이상 실현을 위한 중재가 실패로 끝난 후에 펼칠 최후의 수단이다. 단 전쟁이 영구 평화의 회복을 방해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이 아니기에 전쟁행위는 규약(code)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했다.

### 2) 초기 교부들

전쟁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교 주요 지도자들의 입장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정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 때문이다. 이장식의 조사에 따르면, 초기 사도시대(주후 30~70년)의 문서들은

10 Cicero, De Officiis, I. XI, 36.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유혈 행위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더불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군대에 자진해서 혹은 강제적으로 입대했다는 기록이 없다. 동시에 지도급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군인들에게 군대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거나 암시한 적도 없다.[11] 이를테면 유세비우스(Eusebius Pamphilus)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6-70년에 일어난 유대전쟁 때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를 받아 펠라(Pella)라는 마을로 도망하였다.[12] 반면 에세네파는 이때 그들의 평소의 미온적인 애국심과는 달리 로마에 항전하는 전쟁에 참가하여 무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로마의 침략군과 항쟁하였다.[13]

속사도이자 로마교회의 3대 감독인 클레멘트(Clement)[14]는 전쟁과 군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클레멘트는 군대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가르쳤다.

11 이장식, 《기독교사상사(1)》(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1), 296. 이장식에 의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식구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의 직업 전환의 필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당시의 군인들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였다.

12 Eusebius Pamphilus,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iii, 5, 3,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1). 이장식의 해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도망한 행위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적인 애국심이 그들의 심중에서 이미 식어진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장식, op. cit., 296.

13 이장식, Ibid.

14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로마교회에는 바울과 베드로 이후의 초대 감독 리누스(Linus), 2대 감독 아넨클레투스(Anencletus)의 뒤를 이어 클레멘트가 3대 감독으로 있었다. 클레멘트는 복된 사도들을 친히 목격했으며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으므로 사도들의 교리가 항상 그의 귓속을 울리고 있었으며, 사도들이 전해준 것들이 그의 눈에 선했다. 클레멘트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고린도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 형제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자 로마교회는 고린도교회에 서신을 보내 그들이 화평하게 지내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믿음과 교리를 되살리기 원했다. Eusebius Pamphilus, op. cit., v, 6.



>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열정적으로 군복무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명령에 복종하자. 우리 군대의 권위자들 밑에서 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훈련, 그들의 준비, 명령을 수행하는 그들의 복종을 주목하자. 그들 모두가 제독, 사령관, 백부장, 오십부장 등은 아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의 지위에서 황제나 지도자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위대한 사람은 작은 사람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작은 사람 역시 위대한 사람 없이 존재할 수 없다' (The great cannot subsist without the small, nor the small without the great).[15]

또한 클레멘트는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세계 만민 사이의 평화를 기도하였고 또 국가의 지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16]

평화를 그리스도교의 불가피한 특징이며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간주했던 교부 이그나티우스(Ignatius)[17]는 평화의 띠로서의 성찬식에 관해 설교하는 가운데 교회가 지향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임을 역설했다.

15 Clement, 'THE FIRST EPISTLE OF CLEMENT TO THE CORINTHIANS', xxxvii, Alexander Roberts, James Donaldson, ed., 'THE ANTE-NICENE FATHERS', vol. I(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85). 이하 'THE ANTE-NICENE FATHERS'는 'ANF'라 함.

16 Clement, Ibid., LVIII.

17 A. M. Ritter, 《고대교회》, 공성철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6), 63. '하나님을 모신 자' (θεοφόρος)라는 별명을 가진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다. 110년 직후, 당시 시리아 총독으로 있던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오리엔트 지역에 대한 로마 통치의 무게를 싣기 위해서 시작된 지역적인 그리스도인 박해 때에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되어 약 115년경에 순교하였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 일곱 개의 서신을 작성하였다. 그 중 다섯 편은 소아시아 교회들(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필라델피아, 서머나)에게, 하나는 서머나 감독인 폴리캅에게, 다른 하나는 제국의 수도 로마교회를 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성찬식)와 그의 영광을 위해 더욱 자주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주 만날 때 사탄의 세력이 무력해지고 그의 파괴적인 힘이 여러분의 신앙의 일치 안에서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평화 안에서 모든 적의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하늘의 권능에서 나온 것이든 땅의 권능에서 나온 것이든 간에…….[18]

이그나티우스는 전쟁으로 인한 적의를 극복하는 묘책으로 평화를 강조했다.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교회는 바깥 세상과 화평을 꾀하는 데 특히 진력을 다하여야 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초기 교부들처럼 우주적 평화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이라고 믿었다. 이처럼 이그나티우스가 교회의 안전책으로 평화에 대한 사랑을 지향하고 표방한 것은 '로마의 평화'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존립하는 방안에 대해 변증가로서 강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황제 앞에서까지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박식한 학식을 동원한 철학자이자 순교자로 유명한 저스틴(Justin Martyr, 주후 100-165년)은 《제1변증서》에서 초기 교부들의 일관된 입장에 동참하여 평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 특색임을 확고하게 피력하였다.

다른 인간들보다 훨씬 더 우리(그리스도인들)는 평화를 위한 전쟁에서 당신들의 조력자들이요, 동지들입니다. 왜냐하면 포행자요, 소유욕에 휩싸인 자 또는 음흉한 자 및 덕성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고, 각자가 자기 행동이 벌어들인 만큼 영원한 심판 아니면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19]

18 Ignatius, Epistle to the Ephesians, XIII, ANF., vol. I.

19 Justin Martyr, The First Apology of Justin, XII, ANF., vol. I.



저스틴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전쟁의 종결에 대한 예언을 예로 삼아 그리스도교의 전파야말로 모든 전쟁을 종결짓는 구원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20] 그리고 세상에 살인과 전쟁의 씨를 뿌린 것은 악한 천사와 악마의 후손들이라고 지적했다.[21] 평화에 대한 사랑을 강력하게 표방한 저스틴의 관점은 전쟁의 공포를 미워했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평화주의를 반영한다.

클라우제(Robert H. Clouse)의 분석에 따르면, 신약시대 이후 주후 170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군으로 복무한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당시 로마제국은 보편적 징병제도를 가지지 않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군역 봉사에 대한 압력도 없었기 때문이다.[22] 기독교의 보편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병사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한 인격체가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 아니라 전형적 로마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교부들은 전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강력하게 표출했는데, 터툴리안(Tertullianus Quintus Septimus Florens, 주후 150-212년)[23]이 대표적이다. 그린스데일(S. L. Greensdale)의 분석에 의하면, 터툴리안은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군복무 문

20 The First Apology of Justin, XLVII.

21 The First Apology of Justin, LVII.

22 Robert H. Clouse, War: Four Christian View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81), 11-12. 임덕규, op. cit., 51에서 재인용.

23 곤잘레스(Justo L. Gonzalez)에 따르면, 터툴리안은 207년경에 아프리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몬타누스주의자가 되었다. 그가 왜 이런 과정을 밟았는지 분명치 않으나 그는 몬타니즘이 계층질서적 교직 제도가 커가는 것을 막는 힘이 되며 회개한 죄인들을 다루는 데 당시 교회들이 느슨한 데 대해서 항변하는 정신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몬타니즘의 이러한 면은 터툴리안에게 강하게 호소하여, 그로 하여금 항상 과도한 도덕적 엄정성을 주장하게끔 영향력을 끼쳤다. Justo L. Gonzalez, 《기독교사상사(1)》,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88), 210.

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교부이다.[24] 터툴리안은 《변증론》[25]에서 현실적 전쟁의 양 측면에 대한 이해를 환기시킨다. 터툴리안에 의하면, 전쟁은 승리자와 패배자, 하나님과 인간, 일반 가정과 신전, 그리고 군인과 민간인과 성직자를 구별하지 않고 파괴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역사상 모든 왕국들의 성립과 확장을 주도한

24 그린스데일(S. L. Greensdale)의 분석에 의하면, 주후 197년부터 220년까지 터툴리안이 남긴 31편의 저작 중 11편에 그의 전쟁관이 피력되어 있다. 전쟁과 그리스도인 군복무를 언급한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변증론》(Apologeticum, 197), 《스카플라에게》(Ad Scaplam, 212년), 《백해 도피론》(De Fuga in persecutiones, 211-212년), 《우상숭배론》(De Idololatria, 198-203년), 《병사의 화관론》(De Corona militis, 211년), 《인내론》(De Patientia, 198-203년), 《유대인 논박론》(Adversus Judaeos, 198-203년), 《마르키온 반박론》(Adversus Marcionem, 208-213년), 《철학자의 외투론》(De Pallio, 209-210년), 《영혼론》(De Testimonio Animae, 208-213년), 《육신의 부활론》(De Resurrectiones Carnis, 208-213년). 이들 대부분은 전쟁과 연관하여 간접적이고 단편적인 언급들이 대부분이며, 《변증론》과 《우상숭배론》등이 비교적 긴 논의를 진행했다. S. L. Greensdale, "General Introduction to Tertullia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5, ed., J. T. McNeil and H. P. Van Dusse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3년), p. 21. 이하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는 LCC로 함.

25 기독교로 개종한 터툴리안이 자신의 신앙을 변호한 작품인 《변증론》(Apology)은 주후 197~200년 사이에 집필되었다. 여기서 터툴리안은 기독교인들을 무죄한 자로 여겨 수색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죄인으로서 처벌하라고 명령하는 트라얀 황제의 일관성 없는 박해정책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가를 지적했다. 터툴리안에 의하면, 이것은 '자비로우면서도 잔인한 행위'이며 '그냥 넘어가면서도 처벌하는' 원칙이 없는 '스스로 도피하는 놀이'에 불과한 행정이라고 토로했다. Tertulliann, APOLOGY, 2, ANF., vol. III.

터툴리안이 《변증론》에서 펼친 변증적 논조는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평화 유지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기능에 대한 신뢰(APOLOGY, 30). 둘째, 그리스도교의 선교가 모든 병영(castra ipsa)에까지 전해져 이제 그리스도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은 이교의 신전뿐이라는 사실에 입각한 그리스도교의 선교적 확장과 그리스도교의 비폭력적 특성에 대한 홍보(APOLOGY, 37). 셋째, 브라만 교도들이나 염세적인 은둔자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는 건전한 사회 책임 수행 의지의 표명(APOLOGY, 42).



요인이다. 그러기에 터툴리안은 전쟁을 주장하는 '황제[26]와 나라 전체의 안녕과 로마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 왕들과 지배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당신들에게 모든 것이 평강하게 하라(딤전 2: 2). 왜냐하면 나라가 흔들리면 그의 다른 지체들의 요동과 함께 우리도 그 불행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이다.[27]
>
>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와 같이 나라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pro omni statu imperii) 그리고 로마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더 높은 당위성이 있다. 지구를 위협하는 무서운 재난, 곧 기가 막힌 고통을 몰고 올 세상의 종말(clausula)은 오직 로마제국에 허락된 시한(Romani imperii commeatu)으로 말미암아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살후 2:6). 우리는 이것을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미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로마의 존영(Romanae diuturnitati)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28]

터툴리안에 따르면, 전쟁을 통한 국가들의 흥망성쇠에는 창조주의 징계와 섭리가 작용한다. 따라서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신뢰는 창조주의 섭리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터툴리안의 이런 입장은 그의 후기 저작에서도 지속된다. 터툴리안의 《영혼론》에 의하면, 전쟁은 기근이나 천재지변과 같이 지나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치료제이다.[29] 《육신의 부활론》

26 Tertulliann, APOLOGY, 33. 터툴리안은 황제를 주님께서 선택하신(elegit) 자로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툴리안에게 있어 '황제는 오히려 우리 것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우신 분'(noster est magis Caesar, a nostro deo constitus)이기 때문이다.

27 APOLOGY, 31.

28 APOLOGY, 32.

에서는 같은 검(劍)이라 할지라도 도적행위에 사용될 경우와 전쟁행위에 사용될 경우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고 역설했다.[30]

주목할 점은 터툴리안의 초기 저작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사회에 동화되는 것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삶의 결속에 좁지만 실제적인 한계가 상존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터툴리안의 《우상숭배에 관하여》는 이 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인간의 맹세, 그리스도의 군기(signum)와 사탄의 것, 빛의 진영과 어둠의 진영은 서로 화해할 수 없다. 하나의 동일한 영혼이 하나님과 시저에게 동시에 매일 수 없다. 분명 모세는 지팡이를 가졌고, 아론은 에봇을 갖춰 입었고, 세례 요한은 가죽 띠를 둘렀으며, 여호수아는 군대의 선두에 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주님께서 칼을 뺏은 자(마 26: 51)는 전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평화 시에만 칼 없이 섬길 것인가?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의 도리(forma observationis)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 백부장도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 뒤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무기를 빼앗으시며 모든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 그 제복은 허락되지 않은 직업(illicitus actus)의 표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금지되었다.[31]

터툴리안의 《마르키온 반박론》에 따르면, 전쟁은 반역적인 백성들을 징계하는 창조주의 수단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32] 동시에 터툴리안은 구

29 Tertulliann, A TREATISE ON THE SOUL, 30. ANF., vol. III.

30 Tertulliann, ON THE RESURRECTION OF THE FLESH, 16. ANF., vol. III.

31 Tertulliann, ON IDOLATRY, 19. ANF., vol. III.



약의 전쟁에 대해 '보복의 법' (lex talions)라고 비판했다.[33] 캄펜하우젠(Campenhausen)에 따르면, 터툴리안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교 숭배에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는 그 당시 군대의 엄격한 규율과 군대의식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교의 위치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34] 이런 견지에서 터툴리안은 전쟁에 대해 상대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평화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여 그리스도인의 군복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오리겐' (Origen)은 《켈수스 반박론》[35](*Contra Celsum*)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호전성이 강하다' 는 켈수스의 반(反)그리스도교적 공격에 대해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반박하였다.

> 우리는 자신들의 적들을 공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때 사용했던 검을 부스러뜨리고 전투에서 사용하던 창을 밭가는 쟁기로 바꾸라는 예

32 Tertulliann, THE FIVE BOOKS AGAINST MARCION, I. 24. ANF., vol. III. 《마르키온 반박론》은 터툴리안이 몬타누스파로 전향한 즈음에 작성(208-213 A.D.) 되었다.

33 "누가 칼을 가지고 진실, 온유,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전쟁의 통례적 임무는 온유와 정의에 반대되는 속임과 사나움과 불의들이 아닌가" 라고 터툴리안은 반문했다. Ibid., III. 14.

34 Hans Frhr. von Campenhausen, "Christians and Military Service in the Early Church", Tradition and Life in the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8), 163.

35 하르낙에 따르면, 《켈수스 반박론》은 주후 178년경 이교도 철학자 켈수스(Celsus)가 저술한 반(反)그리스도적 사상이 농후한 《진리 담론》(ΑΛΗΘΗΣ ΛΟΓΟΣ)에 논박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진리 담론》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포르피리(Porphyry)의 저술들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그리스도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 저술 중 하나라고 전해진다. Adolf Harnack, History of Dogma, vol. 2 (New York: RUSSEL AND RUSSELL, 1958), 341.

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나라들과 맞서 칼을 뽑지 않으며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36]

특히 오리겐은 "그리스도교의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국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를 탈출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들 또한 로마제국에 대하여 모반할 수 있는 호전성이 충분하기에 로마제국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켈수스의 비난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 오리겐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호해야 할 국토와 국가와 조상의 유업과 성전과 재산과 국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기도 했으며, 관리가 되어 죄인들을 처형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멸망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치적 국가로 존재하는 한 군사적 보호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같은 국가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무력으로써 자신들의 국가적 존립을 유지해야 했던 구실과 필요성이 제거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았으며, 고대적인 의미의 국가를 세우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로마의 통일제국을 허락하셨으며 그리스도교회로 하여금 전쟁의 방해 없이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하였다. 오리겐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혈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만 종사케 하는 방향으로 역사의 진행을 이끄셨다.[37]

오리겐에게 있어 전쟁은 근본적으로 암흑의 권세와의 싸움이다. 오리

[36] Origen, ORIGEN AGAINST CELSUS, V. 33, ANF., vol. IV.

[37] ORIGEN AGAINST CELSUS, VII. 36.



겐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을 군대라고 칭한 마귀들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위에 마귀들이 많다는 것과 그 마귀들이 악한 사람들을 괴롭혀 악한 사람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처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 임을 알고 있으면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마귀들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38]

특히 오리겐은 그리스도교의 비폭력적 자세를 로마제국 내의 비공민적 자세라고 규탄하는 켈수스의 비난[39]에 대해 명료하게 대답했다. "비록 황제가 요구한다 해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καί συοτρα τεύεν αὐτῶ, ἄν ἐπείγη, καί συστρατη γεῖν).[40]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된다면 야만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가장 순종적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에 가장 온유한 백성들

[38] ORIGEN AGAINST CELSUS, VIII. 34. 오리겐은 에베소서 6장 11-12절과 디모데후서 2장 4절 등에 근거하여 '영적 전쟁'과 '영적 군사'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39] 초대 그리스도교회가 견지한 비폭력적 자세에 대해 켈수스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회가 몸담고 있던 세속사회가 신약성경의 신앙적 관심사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켈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제국의 기생충이다. 이는 그리스도교회가 제국을 유지시키는 일에는 아무것도 공헌하지 않으면서 로마가 제공하는 축복에만 동참한다는 것은 공정한 처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ORIGEN AGAINST CELSUS, VIII. 55.

[40] ORIGEN AGAINST CELSUS, VIII. 73. 오리겐의 요점은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불참한다는 비난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처신한다면'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문화가 파괴되리라는 추론을 논박했다.

로 변화될 것이기에 황제가 홀로 외롭게 되어 천하가 무법자의 손에 떨어지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고 강조했다.[41] 이런 차원에서 오리겐은 '제국의 병사들은 단지 전쟁의 증후들과 싸우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파괴와 증오심의 장본인인 마귀와 싸우는 영적 군대이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싸우는 그리스도교 사제들의 특권이 허용되어야 함'을 호소했다.[42] 결국 오리겐은 국가의 현실적 존립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과 전쟁의 불가피성을 상대적으로 용인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교의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전쟁과 군복무를 반대하였다.

### 3) 콘스탄티누스 황제

베인톤(Roland Bainton)에 따르면, 교회사에 있어서 평화주의의 시대는 콘스탄티누스(Flavius Valerius Constantinus, 274. 2. 27~337. 5. 22)의 황제 즉위와 함께 종결되었다.[43] 쾌팅(B. Kotting)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밀라노 칙령'(313년, Edictum Mediolanense)을 내린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와 교회의 화해를 터놓았으며, 많은 분야에서 국가의 통치기관과 지도적인 교회 기구 사이의 일치된 거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다.[44]

워커(Williston Walker)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스스로 자신이 순교자들의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는 로마제국을 하나로 통일시켜 유지하고자 한 그의 정치적 열망을 이루는 데 그리스도교가 가장 유용한 종

41 ORIGEN AGAINST CELSUS, VIII. 68. 여기에 덧붙여 오리겐은 "로마 국민 모두가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도한다면 의인 50명으로 5개 도시의 구원을 보증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적군들을 물리치실 것이며 아예 전쟁이 발생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Ibid., VIII. 70.

42 ORIGEN AGAINST CELSUS, VIII. 74.

43 Roland Bainton, "The Early Church and War", Harvard Theological Review 39(1964), p. 10.



교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45] 프란젠(August Franzen)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는 이교적 국가예식의 대사제(大司祭)인 폰티펙스 막시무스(Pontifex Maximus)로 머무르면서도 '교회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온 힘을 기울였다.[46]

44 B.K.[redacted]ting, "교회와 국가", 《고대교회와 동방교회》, 이신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185. 쾌팅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재임 시 펼친 그러한 일련의 정책은 역사 속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를 교회에 대한 이교적 국가들의 박해라는 치명적 위협을 최종적으로 제거한 교회의 해방자로 본다. 이에 반해 일부 다른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가 교회 안에 또 다른 위험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는 콘스탄티누스가 국가와 교회가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교회에 이권을 제공함으로써 교회의 내적 자유를 박탈했으며, 교회의 본래적 사역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인간적 기구들과 권세들과의 거리 유지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회에 대해 콘스탄티누스가 펼친 정책에 의해 교회의 감독들은 더 이상 국가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동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들을 친구와 형제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콘스탄티누스의 교회정책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 이는 콘스탄티누스의 정책을 원칙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황제와 다른 생각을 지닌 감독들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영향을 배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45 Williston Walker, 《世界基督教會史》, 강근환 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101.

46 August Franzen, 《교회사》, 서영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2), 83-84.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이교의 제관(祭官)들과 같이 과세(課稅)를 면제하여 주었고(312-313년), 십자가형을 폐지시켰으며(315년), 유언장을 수리할 권한을 교회에 부여하였다(321년). 그리고 같은 해에 주일예배를 국법으로 지정하였다. 319년부터 '신의'(神意)와 장례를 점치기 위한 이교적 희생제를 비롯한 부도덕한 예식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범죄자 처벌 수단으로서의 검객(劍客)의 시합도 폐지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는 319년 교황에게 라테라노 궁전을 선사하고, 라테라노 대성전의 건축을 계획하게 했다. 또한 그는 320년경 '비아 고르넬리아' 거리, 이교인의 큰 묘지 복판, 바티칸 언덕에 있는 베드로 무덤 위에 베드로 대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어 예루살렘의 성묘(聖廟) 위에 대성전 기초공사를 하였고, 또한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통하여 베들레헴의 성탄교회를 건축했고, 트리어의 황제궁전의 2층 교회 등 여러 교회의 기초공사를 하였다. 특히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극히 이교적인 특징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330년에 이르러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그의 새로운 기독교적 수도(首都)로 창설하였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콘스탄티누스의 친화정책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로마제국의 급속한 유착을 가져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인의 군복무 문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오만규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에 대한 콘스탄티누스의 친화정책은 이교적 경향이 강한 이전 황제들이 그리스도교와 대립각을 세웠던 차원에서 진행된 우상숭배 강요라는 종교적 장애들을 사회와 군대에서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다.[47] 이로써 그리스도인 병사들에게 우상숭배로 인한 가책이 없어져 군복무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그런데 캐둑스(C. J. Cadoux)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병사들에게 우상숭배로 인한 가책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유혈(流血)에 대한 신앙적 가책의 문제는 여전히 군복무 문제의 이슈가 되었는데,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 윤리를 강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비켜갔다.[48]

### 4) 암브로시우스(Ambrosius)

캄펜하우젠에 의하면, 암브로시우스는 귀족 출신으로는 처음이자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평생토록 헌신한 최초의 라틴 교부였다.[49] 러셀(Bertrand Russell)에 따르면,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 교회의 입장을 강화하고 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50] 특히 암브로시우스는 '교회가 지상의 국가에서 독립해 있다'는 교리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러한 사상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중세를 지배하는 세계관의 중심축이 되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점에서 정당한 전쟁과 관련하여 어거스틴의 완벽한 멘토가 되었다.[51]

암브로시우스는 여러 권의 저작과 편지를 남겼다. 암브로시우스는 발렌티니아누스(Valentinian)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정(神政)적 성격의 '그리스도교화(化) 된 로마'의 정체성을 설정했다.

로마 시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의 군주를 위해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가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황제는 전능한 하나님에게 봉사해야 한다.[52]

특히 암브로시우스는 '정의'[53]를 모티프로 하여 키케로의 《의무론》을 개작한 《성직자의 의무에 대하여》(*De Officiis Ministrorum*)를 저술했다. 그

47 오만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군대》(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111.

48 C. J. Cadoux, The Early Christian Attitude to War: A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Christian Ethics (London: Headley Brothers Ltd., 1919), p. 578. 오만규, Ibid., 112에서 재인용.

49 Hans Frhr. von Campenhausen, 《라틴 敎父 硏究》, 김광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122. 김광채에 따르면, 암브로시우스(339-397년)는 트리에르(Trier)에서 갈리아 지사를 역임한 아우렐리우스 암브로시우스(Aurelius Ambrosius)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그에게는 어거스틴과 같은 천재성도 없었다. 그렇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였다. 김광채, 《교부 열전(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374.

50 Bertrand Russell, 《서양철학사》, 한철하 역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463. 러셀에 의하면, 암브로시우스와 동시대의 사람들로서 서방교회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이는 제롬과 어거스틴이다. 제롬은 서방교회에 라틴어 성경과 수도원 생활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어거스틴은 종교개혁 때까지 교회의 신학을 확립했고, 종교개혁 이후의 루터와 칼빈 교리의 많은 부분이 어거스틴에 의존했다.

51 Roland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Nashivile: Abingdon Press, 1960), 33. 베인톤의 분석에 따르면, 정당한 전쟁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전쟁이론은 암브로시우스에 의해 형성된 후 어거스틴에 의해 완성되었다. 정당한 전쟁에 대한 어거스틴의 입장은 아퀴나스(T. Aquinas)에게 답습되었고, 오늘날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쟁윤리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진다.

52 Ambrose, Letter 17: The Victory of Victory, 1, LCC., vol., V.

53 암브로시우스는 이사야 28장 16절에 근거하여 정의의 기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선언한다. 그에 따르면, 부정한 죄(iniquity)는 우리의 악한 일들이 특성화된 것이며, 정의는 우리의 선한 일들로 특색을 이룬다. Ambrose, The Duties of Clergy, OLIVER O onovan & Joan Lockwood O onovan, Ed., FROM IRENAEUS TO GROTIUS: A Sourcebook in Christian Political Thought 100-1625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99), 86.

린슬레이드(S. L. Greenslade)에 의하면, 《성직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스토이시즘과 구약성경을 결합한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 성직자 직분을 위한 신분 윤리와 도덕론에 대해 논한 것이다.[54] 라토레트(Kenneth S. Latourette)의 요약에 따르면, 암브로시우스는 이 책에서 키케로의 견해를 대부분 수용한 정당한 전쟁론의 입장을 개진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악을 제어함에 있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관의 칼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모든 전쟁이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군주의 권한하에서 그것이 수행되어야 하며, 불의에 대한 징벌 및 평화의 목적이라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복수심이나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특히 암브로시우스는 전쟁에 참여하는 대상에 있어 평신도와 성직자들을 구분하였다. 평신도들은 로마 시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쟁에도 참가해야 한다. 반면 성직자는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자이기에 전투 행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55] 결과적으로 보편적 병역 의무와 정당한 전쟁에 대한 암브로시우스의 이 관점은 후대에 걸쳐 다수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던 정당한 전쟁의 기본원리가 된다.

## 3.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여러 면에서 암브로시우스에게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56]은 그의 여러 저작에서 암브로시우스의 관점에 기초하여 정당한 전쟁에 대한 그의 사상을 개진했다.

### 1) 주요 저작에서의 정당한 전쟁 논의

#### (1) 《자유의지론》(*De Libero Arbitrio*)

《고백론》(*The Confessions*)에 따르면, 《자유의지론》은 387년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은 후 로마에 머물 때 그의 친구 에보디우스(Evodius)와의 담론 형식을 통해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도덕적 악의 근원이자 원천인 '악 그 자체'에 관한 논의이다.[57]

특히 어거스틴과 에보디우스는 《자유의지론》에서 살인행위의 본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리고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살해행위는 악'이라는 논의의 일치에 이른다.[58] 그렇지만 어떤 살해행위까지를

54 S. L. GREENSLADE, EARLY LATIN THEOLOGY, LCC., vol. V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177. 암브로시우스에 따르면, 성직자는 외양으로도 위엄 있고 진지한 성품을 나타내야 하되 속되게 굴면 안 되었다. 특히 암브로시우스는 고대의 역사적 모범 대신에 가급적 기독교적이고 성서적인 모범을 제시하되 구약을 중심으로 대치하였다.

55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PER & ROW Pub., 1975), 244.

56 '두든' (F. Homes Dudden)의 분석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밀라노 교회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됨으로써 세 가지 영향을 받았다. 첫째, 어거스틴 자신이 마니교 교리체계의 근본적인 불합리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둘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의 영향으로 마니교도에 대해서 기독교를 지적으로 변호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셋째, 암브로시우스의 신사적이고 겸손하면서도 의지가 강한 인격적 모습은 어거스틴의 궁극적 회심에 영향을 미쳤다. F. Homes Dudden, The Life and Times of St. Ambrose, vol. I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35), 328.

57 Augustine, ON FREE WILL, Retractations, I. ix, LCC., vol. VI. 어거스틴은 제1권 4장에서 악의 근원을 욕망(Libido)라고 밝혔다(확정하였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욕망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노력에도 잃을 수 있지만 붙들어야만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인데, 선인과 악인 사이의 구별점이기도 하다. 선인(善人)은 이 애착을 떨쳐버린다. 하나님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된 어떤 것이나 그들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으로 억압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에 의하면, 피조된 어떤 것에 육욕적으로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도달하는 데 일차적인 장애물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힘임을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58 ON FREE WILL, I. iii. 8.

살인범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 일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 어거스틴 : 따라서 모든 죄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쾌락의 지배라고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니라네. 다른 말로 한다면 죄가 아닌 살인도 있을 수 있는 거지.
>
> 에보디우스 :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면 때로는 죄 없이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적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손에서 뜻하지 않게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기가 미끄러질 때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제게는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
> 어거스틴 : 동의하네. 하지만 이것들은 통상 살인이라고 하지. 그렇지만 이것을 말해보게. 노예가 주인에 의해서 두렵게 고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인을 죽였다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살인자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는 자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 에보디우스 : 그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의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법을 따르거나 법과 상반되게 행한 것이지만 그의 행위는 어떤 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59]

어거스틴은 살인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법을 어기는 경우가 도덕법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쉽게 동의한다.[60]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법률적 금지조항만으로 도덕과 윤리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정당방위(Self-Protection)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자기방어를 위해 가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법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정당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61] 어거스틴에 따르면, 만일 한 사람의 생명

[59] ON FREE WILL, I. iv. 9.

[60] ON FREE WILL, I. iv. 10.

[61] ON FREE WILL, I. v. 12.



을 더 죽이지 않기 위해 정당방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갈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거스틴은 전장에서 어떤 이를 죽이거나 혹은 범죄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하다가 혹자(或者)를 살해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 어거스틴은 이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를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를 인정했다.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행했을 경우이며, 정당한 전쟁에서의 살상이나 사형 집행인의 형 집행 등이 이에 해당된다.[62]

그런데 어거스틴에 따르면, 법이 완전히 허가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63] 이러한 논점에 의거, 어거스틴은 비록 법적으로는 정당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 자신의 목숨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결국 《자유의지론》에 따르면, 개인이 개인을 살인하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부당하다. 어거스틴은 이 점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견지해 온 철저한 평화주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정당방위 차원에서의 살인행위의 경우 기독교 윤리와 통념적 법의 차원에서 합당

[62] ON FREE WILL, I. v. 12. 어거스틴은 공익적 차원에서 살인자라 부를 수 없는 세 부류를 지목했다. 첫째, 시민의 보호를 위해 투입된 전쟁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 둘째, 정의와 어떤 힘에 종속되고 순응하는 관리들의 명령을 따르는 경찰, 지역 평화 수호자들, 공무원들. 셋째, 법적으로 죽일 수도 없지만 죽일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적인 시민들.

[63] 예를 들면, 강도에 직면한 한 개인에게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 강도를 죽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는가 하면, 그 강도 만난 자가 도덕적으로 강도를 죽일 수가 없기에 도리어 강도에 의해 죽임(피살)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한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윤리적 딜레마에 처한다.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문제에 대한 통찰을 통해 그의 평화주의적 입장을 수정한다.

(2)《마니교도 파우스투스 논박》(*Contra Faustum Manichaeum*)

어거스틴의 눈에 비친 마니교는 '찬란한 환상의 공허한 찌꺼기' 에 불과한 두드러진 이단이었다.[64] 호퍼(Stanley Romaine Hopper)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그가 한때 마니교의 추종자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마니교를 반박했다.[65] 어거스틴이 400년경에 집필한《마니교도 파우스투스 논박》은 구약을 공격하는 마니교의 수장이었던 파우스투스(Faustus)의 작품에 대한 반박(反駁)이다.[66]

어거스틴은 정당한 전쟁과 관련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애굽인을 죽인 구약 이야기에 대한 파우스투스의 비평' 에 반박하였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모세의 그 살인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랐던 신약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양자에게 가해진 모든 경우의 폭력은 정복되어야 하고 또한 뿌리 뽑아야 할 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특이하게도 모세와 베드로의 그런 폭력을 전적으로 혐오하거나 폭력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단지 어거스틴이 모세의 경우

64 《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보기에 마니주의자들의 언설은 그저 '찬란한 환상' 에 불과하다. 때문에 마니교들의 환상에 비하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하늘이나 혹은 땅 위의 실제적인 물체가 훨씬 더 확실한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Augustine, Confessions, III. 6. 10, 선한용 역,《고백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대항한 것에 관해서는 논자의 졸고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반박(反駁)",《군선교신학(6)》 98-123을 참조하라.

65 Stanley Romaine Hopper, "마니교 반박 저술들",《아우구스티누스 연구핸드북》, 현재규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197. 어거스틴은 이원론에 근거한 마니교의 주장에 대해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와 하나님의 본성, 세계의 본성, 선과 악의 문제들' 과 같은 신학 난제들에 대한 해제와 논증으로 반박했다.

66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NPNF., vol. IV, 155.



나 베드로의 경우에 대해 반대한 것은 조급한 다혈질과 같은 성격적인 결함이었다.[67]

어거스틴에 따르면, 전쟁에서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악은 '폭력에 대한 사랑(love of violence), 복수심이 가득한 잔인성(revengeful cruelty), 사납고 무서운 적개심(fierce and implacable enmity), 거친 저항과 권력에의 욕구(wild resistance, and the lust of power)' 이다.[68] 고로 어거스틴에게 있어, 한 국가나 지배자가 지나치게 탐욕적이거나 공격적일 때 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전쟁이다. 특히 어거스틴은 대중의 복지를 위한 개인적인 폭력에 동의하고 하등 반대하지 않았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황제는 인류의 평화와 그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군인들로 하여금 군사적 의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쟁을 수행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69]

나아가 어거스틴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히 군인의 존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국가를 용인하셨다고 보았다.

병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 자신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67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xx. 70. 어거스틴은 검을 빼어든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 아무런 흠도 지적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검을 가지라고 했지 사용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언급할 뿐이다.

68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XXII. 74.

69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XXII. 75. 어거스틴에 따르면, 모든 인간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출현한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의거, 하나님 외에는 권세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의 질서에 순복해야 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개개의 군인에게 있어 그 명령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어거스틴은 그 전쟁과 전쟁 중에 내려지는 명령이 정당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군대 계급 내에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임무이다. 이는 비록 부정당한 전쟁 속에 있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명령을 따랐기에 결백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세례 요한이 답하였다.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결코 무기를 버리고 군 복무를 포기하라고 권유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다. 백부장이 예수께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길 간청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하신 반면 백부장에게 군직을 떠나라고 명하시지 않았다.[70]

어거스틴에 따르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인의 존재를 용인한 것은 군인의 복무 특성이 그의 상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71]

한 걸음 더 나아가 어거스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Do not resist an evil person)는 마태복음 5장 39절을 인용하면서 파우스투스가 펼친 '위장적 평화주의'[72]에 대해 반박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요구하신 것은 '몸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내부적 경향'(not a bodily action but an inward disposition)이다.[73] 레너한(David A. Lenihan)의 분석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내부적 명령이다.[7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거스틴은 오리겐의 전통을 따르는 평화주의자

70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XXII. 74. 어거스틴에게 있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인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현실적 평화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군대로 대변되는 국가와 그리스도교의 협력적 관계 설정의 근거가 된다.

71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XXII. 75.

72 전쟁과 관련된 마니교도의 주요 양상은 평화주의였다. 특히 파우스투스는 구약역사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의 수치스러운 개인적 삶과 구약의 군주주의를 신랄하고 모욕적으로 비판했다.

73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XXII. 76.



라고 레너한은 평가했다.[75]

(3) 편지들

①《마르켈리누스에게 보내는 편지(138)》

마르켈리누스(Marcellinus)[76]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설교가 국가의 전통에 대한 교리에 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마르켈리누스가 질문한 것에 대한 어거스틴의 답변이다.[77] 어거스틴에 따르면, 마르켈리누스를 곤란하게 한 가르침은 산상설교이다.[78] 어거스틴은 마르켈리누스의 질의에 대해 키케르가 시저(Caesar)에 대해 "그는 실수 이외에 어떤 것도 잊지 않았다"(He never forget anything but wrongs)라는 고전적 예찬으로써 답변

74 레너한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산상설교에 대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법전이 아니라 마음속 선(善)과 덕(德)의 신성한 자리 속에서 지시되는 개인적 영성이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개인의 마음 내부의 상태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재성과 주관성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평화주의를 연속시키고 있음을 분리하지 않는다. David A. Lenihan, "THE JUST WAR THEORY IN THE WORK OF SAINT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19) 1988, 46.

75 Ibid.

76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London: FABER & FABER, 1967), 292. '브라운'(Peter Brown)에 의하면, 마켈리누스(Marcellinus)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어거스틴에게 영적 조언을 구한 로마 황제의 장관으로서 '가톨릭정치의 새로운 세대의 전형자'이다.

77 David A. Lenihan, op. cit., 46. 레너한에 따르면, 마르켈리누스의 이 질문은 세속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에서 양심을 따르고자 하나 그러하지 못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 오늘날의 크리스천에게 시사점을 던진다.

78 산상수훈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되갚을 수 없다. 누군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놓아야 한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악에 직면하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대리자로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결국 마르켈리누스가 어거스틴에게 질문한 것은 '기독교 지도자가 기독교 종교를 잘 신봉하고 있을 때도 큰 악이 그 국가에 떨어질 수 있는가'이다. Augustine, Letter 138, II. 9, NPNF., vol. I.

했다.[79] 어거스틴에게 있어 산상수훈은 외부적 행동보다는 인내를 견지하고 영혼의 숨겨진 장소에 간직한 친절한 감정 같은 내부적 마음의 상태에 대한 가르침이다.

나아가 어거스틴은 성경이 그리스도교인의 군대 복무에 반대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했다.[80] 어거스틴에 의하면, 만약 성경이 군대의 개입을 반대할 의도가 있었다면 일단의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기를 버리고 군복무를 완전히 버리라"는 대답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군인들은 단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81]는 대답을 들었다. 특히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군인들에게 권고한 것은, 군인이 명령을 이행하는 자이지 폭력범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서적 근거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인이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허용하되 막아서는 안 된다고 어거스틴은 강조했다.

② 「보니페이스에게 보내는 편지(189)」

브라운에 의하면, '보니페이스' (Boniface)는 423년 아프리카 총독이 된 장군이었다. 그는 서방의 불명예스러운 황제들의 난맥상 속에서 황제를 꿈꾸는 그런 부류의 인물이었다.[82] 보니페이스는 군사적 소집의 도덕적 적합성을 찾고 있었고, 어거스틴은 그에게 조언의 편지를 보냈다.

먼저 어거스틴은 보니페이스에게 사랑이 율법의 핵심임을 환기시켰다.[83] 나아가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인이 군대직업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이 점에 대해 '예수와 백부장과의 대화'[84] 기사를 분석하여 입증한다.[85]

또한 어거스틴은 물리적 힘으로 군사적 적과 싸우는 것은 기도로써 영적인 적과 싸우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여겼다. 어거스틴은 전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전쟁은 정당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86]

더불어 어거스틴은 보니페이스에게 "비록 전쟁 중에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보니페이스에게 보내는 편지》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는 '전쟁의 목적이 평화'에 있다는 점이다. 어거스틴의 이 메시지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87]는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궤를 같이한다.

③《다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229)》

어거스틴은 사망[88]하기 1년 전 다리우스(Darius)백작[89]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지라도 평화가 훨씬 더 우

79 Ibid.

80 Letter 138, II. 15.

81 누가복음 3:14.

82 Peter Brown, op. cit., 422.

83 Letter 189, I. 2, NPNF., vol. I.

84 마태복음 8:5-13.

85 Letter 189, I. 4.

86 Letter 189, I. 5.

87 마태복음 5:9.

88 포시디우스(Possidius)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354~430년) 가운데 거의 40년(391~430년)을 사제와 주교로 살았지만, 그는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이 유언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Possidius,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31. 1-6, 이연학, 최원호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89 어거스틴은 428~429년에 보니페이스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파견을 나온 다리우스 백작에게 높은 찬사의 서신을 받았다. Letter 230, NPNF., vol. I.

수하고 훌륭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어거스틴은 야만인들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에 경의를 표하면서 전쟁으로 얻는 평화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얻는 평화가 더 귀하다고 강조했다.[90] 어거스틴은 전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화평케 하는 자를 축복했다.

④《구약 칠경 발췌 주해》(*Quaestiones in Heptateuchum*)[91]

레너한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구약 칠경 발췌 주해」에서 여호수아와 관련하여 전쟁행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준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만약 그 전쟁이 정의롭다면 기독인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기독인은 참여하면 안 된다.[92]

레너한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이거나 '전쟁이 응징(膺懲)을 목적으로 할 때' 가능하다.[93] 특히 후자의 경우는 중세 때 가장 유력한 정당한 전쟁을 주장한 '아퀴나스' 이론의 근거가 된다.

⑤《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

어거스틴이 13년에 걸쳐(413~426년) 집필한 필생의 대작인《하나님의 도성》곳곳에 정당한 전쟁에 대한 그의 진솔한 사상이 듬뿍 서려 있다.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은 로마 시조로 추앙받는 로물루스(Romulus)를 비롯한 역대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자로 받아들여 로마의 역사를 인정했다.

90 Letter 229, I. 2, NPNF., vol. I.

91 Allan D. Fitzgerald, "Quaestiones in Heptateuchum", Augustina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99), 692. 피츠제럴드(Allan D. Fitzgerald)에 따르면, Quaestiones in Heptateuchum은 카르타고에서 열린 아프리카 주교회의가 열린 419년에 저술되었다.

92 David A. Lenihan, op. cit., 48.

93 Ibid., 49.



> 로물루스가 왕이었을 때에 밀레도의(행 20:17) 탈레스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 그보다 먼저 신학적 시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오르푸스가 가장 유명했다. 현인들은 헬라어로 소포이(Σοφοί)라고 했는데, '지혜있는 사람들' 이란 뜻이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한 열한 지파가 갈대아에 정복되어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라고 한 다른 두 지파는 유대 땅에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유지했다. 로물로스도 행방불명되어, 죽어서 신으로 추대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이 관습은 키케로 때 이미 쇠퇴했고, 케사르(가이사들) 때 까지 예가 없었다. 가이사들 때에는 사람들이 무지했다기보다 아첨하기 위해서 그들을 신으로 추대했던 것이다. 키케로가 로물루스를 극찬한 것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속기 쉬웠던 때가 아니라 이미 문명과 인지가 발달한 때에 로물루스가 그런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94]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로마세계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전쟁의 상흔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 도성의 본질은 영원한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인간의 도시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고질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 승리하는 사람들에 의해 패배한 사람들은 항상 압박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전쟁을 언급할 때마다 탄식했다.[95]

그런데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 같은 인간의 투쟁은 선한 면이 있다. 그것은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 평화의 달성에 있기 때문이다.

94 Augustine, THE CITY OF GOD, XVIII. 24, NPNF., vol. II.

95 THE CITY OF GOD, XVIII. 54. 어거스틴에 따르면, 전쟁은 인간 존재의 일부분임에 틀림없는데, 이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다. 고로 전쟁이 우리 존재의 일부분이고 동시에 어떤 전쟁은 정당하다는 데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은 탄식했다. THE CITY OF GOD, XIX. 7.

그러나 이 지상의 도성이 원하는 것들을 악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성 자체가 한 공동체로서 모든 인간적인 선보다 나으며, 그것은 지상적인 선을 즐기기 위해서 지상적인 평화를 원하며,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자가 부족해서 서로 불만인 집단들이 항쟁하다가 어느 한 편이 정복한 후에는 대적이 없고 평화를 즐길 수 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고생스러운 전쟁을 하며 소위 혁혁한 승리를 얻는다.[96]

어거스틴에 의하면, 지상의 평화는 항상 깨어질 수 있기에 불안하다. 그에 반해 천상의 평화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안식과 행복이다. 따라서 천상의 평화 유지를 위해 지상 평화의 파괴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용인될 수 있다.[97]

어거스틴은 전쟁의 정당성을 '압제자의 부정당성' 에서 찾는다.

곧 한 국가나 지배자가 지나치게 탐욕적이거나 공격적일 때 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한 가정의 가장(家長)이 드는 채찍에 해당하기에 그 정당성을 가진다.[98]

만일 어떤 가정의 성원이 불복종 때문에 가정의 평화의 적이 된다면, 인간 사회에서 허락되는 정도 안에서 징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놓아둘 때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96 THE CITY OF GOD, XV. 4. 어거스틴에 따르면, 전쟁의 목적은 평화이다. 이 세계의 평화는 전쟁의 산물이며, 그것의 값은 소위 영광스러운 승리다.

97 THE CITY OF GOD, XIX. 12. 《마니교도 파우스트 논박》에 따르면, 모세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현상적 평화와 타협하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천상의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XXII. 74.

98 THE CITY OF GOD, XIX, 16.



나아가 어거스틴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쟁은 사실상 정당하다고 평했다.[99] 어거스틴에 따르면, 비록 역사의 정황이 울적하다 할지라도 이 사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근심하는 것은 선(善)이다. 그럼으로써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끝이 없는 하늘의 평화를 더 열렬히 추구하게 된다.[100] 이리하여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평화 예찬[101]을 노래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폭력이 가져다주는 평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일시적인 평화를 주었기 때문이다.[102]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평화가 연동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도성은 지상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 모든 국민 사이에서 시민을 모집해서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순례자 사회를 형성한다. 지상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풍속과 법률과 제도가 다른 것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이런 것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모두 지상 평화라는 한 목적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런 차이점들을 제거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유일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방해만 되지 않으면, 오히려

99 THE CITY OF GOD, V. 24 어거스틴에 의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땅에 공화국 사회를 가져오고 전폭적이고 영속적 평화를 수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고로 비록 십계명에서 살인을 처방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나 국가의 권위(황제)에 의해 전쟁이 실행된다면 살인도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사람들 사이의 왕국 건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은 황제를 세울 뿐만 아니라 화려한 황제의 일시적 영광과 함께 이교도 로마의 덕을 보상하기까지 한다.

100 THE CITY OF GOD, V. 24.

101 평화 예찬은 아무리 노래해도 부족하지 않다. 평화는 하나님의 도성이 지향하는 목적이기에 우주적으로 사랑받는다. 요동하는 전쟁의 바로 그 목적은 마침내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쟁은 영화와 평화로 가는 다리(bridges)이다. THE CITY OF GOD, XIX. 12.

102 THE CITY OF GOD, XIX. 13.

보존하며 채용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성도 순례 도중에 있는 동안 지상 평화를 이용하며, 신앙과 경건을 해하지 않으면 생활필수품을 얻는 문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합의하고자 하며, 지상 평화가 천상 평화에 이바지하게 한다.[103]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 두 도시가 서로 얽혀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평화에 근접하기 위해 지상의 바벨론의 평화를 추구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의 영원한 평화를 끈기 있게 기다린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성은 믿음으로 그리고 온 세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의 비전 속에 있다.

### 2) 어거스틴의 정당한 전쟁론의 본질적 구형(構形)

어거스틴의 정당한 전쟁론은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견지한 평화주의에다가 키케로와 암브로시우스에 의해 다듬어진 공적 전쟁의 정당함을 결합하여 숙성시킨 신학적 숙고의 산물이다. 이에 어거스틴의 정당한 전쟁론의 본질적 구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의 달성에 있다.[104]

둘째, 정당한 전쟁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다.[105]

셋째, 신약에 나타난 평화주의적 표현이 결코 구약의 성전(聖戰)이나 징벌 전쟁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106]

넷째, 지상에서 평화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와 그리스도교의 관계

103 THE CITY OF GOD, XIX. 17.

104 어거스틴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불가피성과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는 근거를 구하지 않고 궁극적인 천상의 평화와 연결시켜 논의의 폭을 확장했다.



는 배타적이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이다.

다섯째, 전쟁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모든 전쟁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107]

여섯째, 전쟁은 하나님의 창안물이 아니다. 도리어 전쟁의 궁극적 책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여러 악들'에 있다.

일곱째, 실질적인 전쟁 결정권자는 국가의 원수(왕)에게 있다.[108]

여덟째, 비록 법적으로는 정당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

105 "Just wars are usually defined as those that avenge injuries." 이는 어거스틴이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여 정당한 전쟁의 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징벌은 증오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사랑의 선택이기에 전쟁은 징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적에게라도 관용과 정의, 경건의 정신을 베푸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렇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으면 도리어 가해자들이 안전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악이 강화되는 불행한 일이다. 고로 어거스틴은 '악을 징벌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오히려 지독한 심판'이며 '탐욕에 재갈을 물리는 바른 정부가 있다면 전쟁의 방법조차도 정당화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Letters, CXXXVIII, 9-15.

106 어거스틴에 의하면, 구약 자체가 행동주의적이라면 신약의 경우는 내면적 자세를 가르친다. 이를테면 성경은 검(劍)을 가지라거나 혹은 갖지 말라고 당부하는데, 이는 상황에 따른 다른 대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적극 주도하는 자세를 보이는 구약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는 신약의 인고적 자세는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XXII. 74-79.

107 전쟁 중에는 그릇된 전쟁과 정당한 전쟁이 있다. 어거스틴은 정당한 전쟁의 요건으로 '탐욕에 대한 제어, 피해에 대한 응징, 도덕적 질서의 파괴에 대한 문책' 등으로 요약하였다.

108 어거스틴의 이 견해는 세상의 잠정적인 질서 유지권을 왕들이 행사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한번 전쟁이 결정되면 병사는 국가의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옳은 지시건 그릇된 지시건 간에 복종할 의무만 지닌다. 비록 바르지 못한 왕의 통치 아래 전쟁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잘못은 왕에게 있지 그 상황에서 의무를 행하고 있는 병사의 잘못은 아니다. 이는 모든 권력은 신(神)으로부터 온다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더불어서 이는 통치자의 폭정이라 할지라도 혼란과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어거스틴의 신념의 반영이다.

앗을 만큼 자신의 목숨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109]

아홉째, 정당한 전쟁론의 구형은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평화의 연동성에 있다.

## 4. 결론

어거스틴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했다. 하지만 그는 지상 도성에서의 전쟁을 불가피한 현실로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을 향해 '일방적 전쟁 지지론자' (militarist)라고 비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어떠한 경우의 전쟁이든지 그 전쟁은 그 자체로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거스틴은  자유와 복지, 그리고 평화를 수호하는 목적이 이끄는 정당한 전쟁을 허용했다. 이런 점에서 정당한 전쟁론에 대한 어거스틴의 입장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어거스틴은 단순히 국가 방위나 분쟁 해결 수단의 유용성 차원에서 정당한 전쟁을 판단하지 않았다. 도리어 어거스틴은 정당한 전쟁을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평화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재평가함으로써 평화주의의 탈현실적 한계를 넘어섰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당한 전쟁에 대한 어거스틴의 숙고는 지상의 도성에서 현실적으로 치르는 전쟁의 윤리성과 한계성을 넘어 하나님의 도성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학적 성찰이다.

109 전쟁은 결국 죽임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므로 살상의 정당성과 무고한 자의 죽임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정당한 전쟁이라도 살해행위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견지해 온 철저한 평화주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질서와 정의를 기초로 한 그의 정당한 전쟁론의 논지가 일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 윤리의 측면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악인은 죽지 않는 데 비해 무고한 자가 죽는 일이 일어나는 현실적 상충점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군선교신학 제9권

#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The Identity of 144,000 in Revelation 7 and 14

김추성 Kim, Choo Sung

■ 총신대 교회음악과(BM.)
■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 미국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Ph.D.)
■ 백석대학 기독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최근 신천지라는 신흥종교가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사용한다. 또한 신약의 다른 책보다 해석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오용하여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신들의 공동체로 유인하고 있다. 신천지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한다. 군 장병들도 이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가장 애용하는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십사만 사천에 대한 말씀이다. 신천지는 십사만 사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사실상 신천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흥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오용하

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십사만 사천에 대한 말씀이다.[1] 따라서 이 논문은 십사만 사천에 대한 신천지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 속에서 십사만 사천의 문제를 주목하며 일곱 시리즈 심판, 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순환주기를 고려하고자 한다.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 1. 신천지의 십사만 사천 해석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다른 책보다 해석하기 어려운 책임에 틀림없다. 학자들 간에도 부분적으로 다양한 이견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요한계시록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여전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베일에 가려 있어 전혀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책은 더 이상 아니다.[3]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는다면 한마디로

1 최병규, "한국 이단들의 요한계시록 오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 이단들의 요한계시록 오용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정통 견해 제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08).

2 한국교회에는 오랫동안 세대주의 입장에서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대주의 내에서도 많은 반성이 있어왔다.

3 요한계시록에 대해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다음의 책들이 기본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Vern Poythress, The Returning King: A Guide to the Book of Revelation (New Jersey: P & R, 2000);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University, 1994); Grant Osborne,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Robert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7);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9).



이만희의 우상화 신격화 해석이다.[4] 이만희는 자신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인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다. 이만희 자신이 성육신한 예수요, 요한계시록을 성취하는 자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만희를 영접해야 천국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요한계시록의 실상, 500). 이것은 매우 황당하고 참람한 해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서 피조물 된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할 수 있는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 누가 감히 자신이 성육신한 예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유독 대한민국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가까이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을 자신과 그를 따르는 신천지 교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다. 사실상 신천지의 해석은 성경해석학의 가장 기본적 원리인 역사적, 문법적 해석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만희는 성경 원어는 물론이고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주장만 있을 뿐이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도 자신과 신천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 7장 2절의 "해 돋는 데"를 희한하게 해석한다. 이만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해 돋는 곳이며,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동방이라고 주장한다.

> 본 장의 동방은 하늘에서 (계 4장) 본 동쪽 지역이며,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곧 하나님의 인 맞은 십사만 사천 명이 있는 시온 산이 있는 지역이다(계 십사:1-3). 우리나라(대한민국)라고 해서 이 장의 해 돋는 곳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나라가 해 돋는 곳이 아니라는

4 김추성, "이단들의 요한계시록 오용 비판과 요한계시록 주해: 1-11 장," 한국 이단들의 요한계시록 오용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정통 견해 제시.

것을 증명할 성구도 없다. 하늘 영계에 올라간 요한은 하늘에서 본 해 돋는 동방이 어디인지 알 것이다.(천지창조, 204)

이만희는 본문의 해 돋는 곳은 요한계시록의 성취 현장을 말하며 이 마지막 역사의 현장인 동방은 범죄한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만희는 본문의 해 돋는 곳은 대한민국이며 특히 과천 소재 신천지 공동체를 지시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황된 해석이다. 본문에서 해 돋는 곳이 대한민국 과천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만희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나라가 해 돋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성구는 없다고 했으나 반대로 성경 어디에도 대한민국 과천이 해 돋는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구도 없다. 이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해석이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해석이다. 본문의 해 돋는 곳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흔히 막간으로 분류되는 장으로 일곱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기록한 장이다.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는 분명히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이며 요한계시록에서 9회 이상 등장하고 있다. 8장 3절에서 다른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 여하간 이 천사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천사임에 틀림없다. 해 돋는 곳은 동쪽으로부터와 동의어로 볼 수 있으며, 동쪽은 구약에서 빛의 근원이며 낙원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다(창 2:8, 겔 43:2, 4). 따라서 여기서 해 돋는 곳은 악의 세력과 대비된, 다름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부어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십사만 사천이 누구인가? 이만희에 의하면 십사만 사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영적 새 이스라엘의 목자를 뜻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책을 맡을 새 목자이다. 한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성도가 된다. 즉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십사만 사천은 목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요한계시록 7장 9-17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는 영적 새 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십사만 사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서로 다른 무리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십사만 사천의 무리에 들 수 있는가? 십사만 사천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이만희에 의하면, 오직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여야 한다. 계시록이 성취되는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지키는 자만이 영적 새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속하는 참 선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만희가 주장하는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만희의 해설을 보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신천지 예수교는 1991년에 초림의 주 보혜사(신천지 예수교 교주)의 피로써 새 언약(신약)을 했다"(종교세계의 관심사, 11). 초림의 주 보혜사인 이만희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새 언약의 주요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6장과 같이 산천을 심판한 후 대언자 사도 요한 격인 목자를 중심하여 열두 제자(지파장)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사방에서 추수하여 하늘에서 온 (계 10장)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치므로 그들이 인 맞은 영적 새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나라와 제사장이요 백성인 것이다"(천국비밀계시, 십사3). 영적 새 이스라엘에 속하려면 사도 요한 격의 목자인 이만희를 목자로 모셔야 한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바로 자신을 목자로 모셔야 한다고 이만희는 주장한다.

이만희는 2천 년 전에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1966년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 소재 청계산하 일곱 별(일곱 목자)이 있는 일곱 금촛대 길 예비 장막성전에서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1966년부터 시작하여 십사년이 지난 1980년부터 사단의 멸망의 기간 마흔두 달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일곱 금촛대 장막 성전의 역사가 끝이 나고 198( )년부터 성경대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천국비밀계시,

456). 이만희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치는 사건은 오늘날 경기도 과천 소재지 신천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하루속히 십사만 사천의 수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단 삼단 핍박 말고 인치는 때에 먼저 와서 십사만 사천에 참예하는 것이 더욱 큰 복이다" (계시록의 진상 2, 128).

이미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만희를 영접해야 천국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만희에게 성육신했기 때문에 이만희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이만희를 배척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약속하시고 다 이루신 것을 먼저 예수님께 보이시고 증거하게 하셨듯이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예언하시고 오늘날 이룬 것을 먼저 사도 요한 격인 목자에게 보이고 증거하게 하신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요, 사도 요한 격인 사명자는 예수님의 대언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종들은 대언의 목자 사도 요한 격인 그를 계시록에서 찾아 증거를 받아 인 맞아야만 천국백성이 된다. 이것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뜻이다" (천국비밀계시, 35-36).

이만희가 성육신한 예수라는 가르침은 사단의 거짓 교리이다. 예수께서는 이미 세상 끝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경고하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 24:5).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 24:26). 예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예수께서는 다시 성육신하실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이다. 이 땅에서 예수



행세를 하는 자는 모두 거짓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신약 전체의 가르침이다. 물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신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네 생물과 24 장로에 둘러싸여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신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9-10).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며 강력한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계 1:7).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 임하였다는 것 역시 허황된 거짓말에 불과하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엄청난 우주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벧후 3:12).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이다.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단과 그의 하수인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경배를 받고자 할 때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십사만 사천을 자기네 공동체에 적용시켜 해석하는 것은 신흥 종교집단들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미 여호와 증인, 안상홍 등도 십사만 사천을 신천지와 비슷하게 해석하였다.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신흥종교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이 선착순 세일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긴박감을 조성해서 선량한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하며 자신들이 마치 특권층에 속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신천지는 십사만 사천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십사만 사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12지파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십사만 사천이 문자적이라면 대한민국의 신천지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할 수 있겠는가? 십사만 사천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십사만 사천을 가리킨다면 12지파 역시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12지파가 응했다면서 자기네 집단을 지역을 따라 12지파로 구성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열두 지파를 보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을 따라 구성된 12지파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요한 지파(강동, 안양, 신림, 사당), 베드로 지파(순천, 광양, 군산, 목포, 전주), 맛디아 지파(대전, 서산), 야고보 지파(부산, 마산), 안드레 지파(부산, 김해, 울산, 창원), 다대오 지파(대구, 포항), 시몬 지파(영등포), 성북 야고보 지파(창동, 포천), 빌립 지파(원주, 춘천, 강릉, 속초, 동해), 마태 지파(부평), 도마 지파(화정), 바돌로매 지파(부천).

## 2. 주요 견해들

그렇다면 정통 교회에서는 십사만 사천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그 주요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십사만 사천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총수를 의미한다. 전형적 세대주의 견해를 대표하는 월부드(Walvoord)는 열두 지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이들은 바로 민족적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5] 세대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민족적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해서 취급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십사만 사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하늘의 무리와 다른 무리이다. 십사만 사천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총수를 의미하며, 후자는 이방인 구원자들의 총수를 뜻한다. 십사만 사천이 새로운 이스라엘 혹은 교회를 의미한다면,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을까 반문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신약에서는 이미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규정하고 있다. 교회를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적용해서 정의하고 있다(벧전 2:9).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의 통일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십사만 사천을 마지막 시기의 성도들, 혹은 짐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성도들로 보는 견해가 있다. 마운스(Mounce)는 십사만 사천을 역사의 마지막 시기로 들어가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보기도 하였다.[6] 그들은 마지막 박해 시에도 충성스럽게 남아 있을 것이다. 이들이 인침받는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준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이들은 다섯 번째 재앙, 즉 황충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견해 역시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나 십사만 사천의 충만한 의미를 약화시키는 약점이 있다.[7] 이 외에도 십사만 사천을 순교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

[5] John F. Walvoor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Chicago: Moody, 1989), 141-44; Robert Thomas, Revelation 1-7 (Chicago: Moody, 1992), 476.

[6] Robert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7), 168.

[7] Osborne, Revelation, 312. 두 번째 견해는 요한계시록 6-7장의 문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Osborne이 지적하듯이 "there in more than one layer of meaning."

마지막으로, 십사만 사천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을 의미한다.[8] 숫자의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이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십사만 사천은 12지파에서 각각 만 이천명씩 인 맞은 자들을 뜻한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 이천명씩 인을 맞을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문자적으로 몇 명 채우려는 것이 의도가 아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며,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이방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십사만 사천은 어느 특정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을 12지파의 이름을 빌려서 언급한 것은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통일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연장선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과 나라, 종족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가졌던 언약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교수인 포이스레스(Poythress)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을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 각자를 보살피심을 강조한다"[9]고 지적하였다.

## 3.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 속에서의 십사만 사천

십사만 사천의 정체성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십사만 사천을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십사만 사천은 전혀 새

8 Ibid., 315. "Both the number 14,400 and the list of tribes are symbolic of the complete number of saints God has called out from the world to form his army."

9 Poythress, The Returning King, 118.



롭고 독립된 일꾼의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이 미래 역사의 시간표 (Time Table)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요한계시록의 순환적 주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10]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반복적 병행어법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라는 주제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책의 서두에서 요한계시록은 일차적으로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임을 밝히고 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 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계 1.4).

일곱 교회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다. 물론 우리는 이 책이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주후 1세기 상황에서 주후 1세기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2-3장에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역사적 상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각 편지의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후렴구같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3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

10 제1주기 : 일곱 인, 4:1-8:1
제2주기 : 일곱 나팔, 8:2-11:19
제3주기 : 상징적 인물들과 추수사건, 12:1-14:20
제4주기 : 일곱 대접, 15:1-16:21
제5주기 : 바벨론 심판, 17:1-19:10
제6주기 : 백마 심판, 19:11-21
제7주기 : 백보좌 심판, 21:9-22:5
제8주기와 절정 : 새 예루살렘, 21:9-22:5

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3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교회와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순환적 구조가 있다고 이미 지적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2-3장은 지상에서 고난 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3장과 4-5 장은 지상의 현실과 하늘의 실재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요한계시록 4-5 장을 일명 '하늘 보좌 환상' 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하늘의 성전 환상'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수많은 천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장엄한 찬양과 경배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찬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되풀이되는 매우 중요한 찬양이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늘 환상을 기록함으로 지상의 교회를 위로하고자 한다.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막간으로 불리며, 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존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십사만 사천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8절에 등장하는 십사만 사천은 요한계시록 7장 9-17절에 기록된 천상의 흰 옷 입은 무리와 대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십사만 사천과 천상의 무리는 서로 다른 무리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땅과 하늘의 대조를 통하여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 천상의 무리는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위치와 특권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은 단순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11]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순교는 최상의 증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이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실한 증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증거하셨듯이 이들도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주요 주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 옛 뱀이요, 사단인 용은 메시아이신 여인의 아기를 삼키려고 했으며,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분노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전투하고자 시도한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사단의 하수인인 두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13.1-10)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13.11-18)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십사장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었던 십사만 사천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막간의 주요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당하는 고통, 영적 전쟁, 승리가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2-십사장 전체의 문맥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 즉

11 김추성, "요한계시록 11:3-13의 두 증인," 신학정론 6 (2010), 65.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여지며 장소인 동시에 공동체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높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 4. 요한계시록 7장 1-8절

요한계시록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를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몸체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소위 일곱 심판 시리즈라 불리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일곱 심판 시리즈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6.1-17. 첫 번째 인-여섯 번째 인
7.1-17. 막간
8.1-5. 일곱 번째 인
8.6-9.21. 첫 번째 나팔-여섯 번째 나팔
10.1-11.십사. 막간
11.15-19. 일곱 번째 나팔
12.1-15.8. 막간
16.1-21. 첫 번째 대접-일곱 번째 대접



위에서 보듯이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을 일곱 심판 시리즈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막간이라고 부른다. 여섯 번째 인(계 6:12-17)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마 24:29). 그날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의 날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인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으로 끝나고 있다(계 6:17).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의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십사만 사천 인이다. 사도 요한은 막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기록하고 있다(계 7:13).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은 파괴를 저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단 7:2; 렘 49.36).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는 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2-3절에서는 성도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인을 맞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인은 소유, 보호, 특권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에스겔 9장 4-6절에서 이마에 표 있는 자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성령의 인치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곱 인과는 다른 것이다.

일곱 인은 심판과 관련된 것인 반면에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인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알리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을 뜻한다.[12]

또한 요한계시록 7장 5-8절에 기록되어 있는 열두 지파의 이름을 살펴

12 Grant Osborne, Revelation, 310.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유다 지파가 처음에 등장한다. 대체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는 르우벤 지파부터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저자는 기독교적 재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3] 즉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민족적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위치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요셉과 므낫세가 함께 포함된 것이 독특하다고 보여진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인데 므낫세만 언급하고 있다. 요셉만 나오든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나와야 하는데, 요셉과 므낫세가 함께 나오고 있다.

셋째, 단 지파가 생략되어 있다. 단 지파가 생략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우상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사기 18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단 지파가 라이스에서 우상을 취하였고 그들의 가정에 도입하였다.[14]

넷째, 구약에 열두 지파가 모두 18회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요한계시록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15] 여기서는 민족적 구분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견해는 설득력이 약하다. 12지파는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벨론 유수 이후, 10지파가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10지파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상징한다.

---

13 Christopher R. Smith, "The Portrayal of the church as the new Israel in the names and order of the tribes in Revelation 7.5-8," *JSNT* 39 (1990), 114.

14 Osborne, *Revelation*, 314.

15 George Eldon Ladd, *A Commentary of the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91), 114.



## 5. 요한계시록 7장 9-17절의 셀 수 없는 큰 무리

요한계시록 7장 9-17절은 하늘 예배에 대한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2-3장과 4-5장이 대조되고 있듯이 여기서도 땅과 하늘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반복적 대조의 좋은 예이다. 요한계시록 7장 1-8절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다면, 7장 9-17절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도들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것으로 성도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의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는 요한계시록 4-5장의 하늘예배에 등장하는 무리들과 병행적 구조를 지닌다. 다른 색채를 지니고 있으면서 결국 하늘의 성도들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우주적 경배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늘의 경배와 찬양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십사만 사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이다. 십사만 사천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이스라엘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다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하나님 백성의 우주적 성격을 강조한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승리하심을 찬양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계 7:12).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이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자들이다. 흰옷은 믿음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무리들이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던져진 질문, 즉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주어지고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해서이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된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피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자칫하면 공로사상, 자기 의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릴 수도 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둘째,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셀 수 없는 무리를 순교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거나 목베임을 당했다는 증거는 없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순교자도 포함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클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보상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Shekinah)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할 것이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구름기둥, 불기둥, 지성소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의 백성과 함께 충만히 거하신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영원토록 추방된다. 다시는 어두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 어린양이 저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 6.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의 십사만 사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과 여인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



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13.1-10),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13:11-18)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다시 십사만 사천 명에 대한 기록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의 십사만 사천과 다른 무리로 볼 수 없다. 요한계시록 7장의 십사만 사천과 요한계시록 14장의 십사만 사천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십사만 사천은 어린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 장면은 7장 9-17절에 등장하는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 서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십사만 사천 역시 어린양과 시온 산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 모습은 십사만 사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십사만 사천은 따로 존재하는 무리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용하는 반복-병행어법적 표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5장의 천상의 우주적 경배와 찬양, 7장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의 찬양, 14장의 십사만 사천의 새 노래와 찬양, 그리고 19장에 등장하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우주를 진동하는 찬양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배자들은 서로 전혀 다른 무리가 아니다. 물론 그 때 그 때 다른 강조점과 다른 모습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십사만 사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그들은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은 13장 16-18절에 나오는 이마에 짐승의 인 맞은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짐승 경배자들과 대조적으로 십사만 사천은 어린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된 자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구분하는 두 무리를 볼 수 있다. 즉 한 무리는 이 땅에 속한 자, 짐승의 인을 맞고 사단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를 가리키며 이들

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한편 또 다른 무리는 어린양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하나님과 어린양을 경배하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이며 이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둘째,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이것은 독신을 강조하는 구절로 해석되기도 하였다.[16] 이것은 신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절을 강조하는 것이지 독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도덕적 순결. 영적 순결이며 육체적 순결을 포함한다.

셋째,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며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 자들이다.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께 속한 자들이다. 이들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무리들, 요한계시록 15장 2절, 7장, 19장에 나오는 찬양하는 무리와 병행이 되는 무리들이다. 특별한 엘리트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물론 단순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십사만 사천의 특별한 자격을 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의 다양한 측면을 밝히고 있다.

16 참고. Daniel C. Olson, "Those who have not defiled themselves with women" : Revelation 14:4 and the Book of Enoch," CBQ 59 (1997): 492-510.



## 7. 결론

요한계시록 7장과 십사장에 등장하는 십사만 사천은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볼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을 나타낸다. 이들은 신천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여러 신흥 종교단체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신흥 종교단체는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십사만 사천은 종말론적 찬미와 경배의 공동체요, 완성될 영광의 하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믿음의 장병들은 허황된 신흥종교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선교신학 제9권

#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 Task of Korean Church in the Conflicting Context of Multi-Culturalism & Nationalism

임성빈 Yim, Sung Bihn

■ 장신대 교수, 기독교와 문화
■ Professor,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21세기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는 남과 북의 통일이다. 그러나 더욱 평화스러운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또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남과 북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토대인 민족주의와 이른바 단일민족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다문화시대에 대한 신앙적 해석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다문화사회를 가능케 하는 배경으로서의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성격과 민족주의에 대한 신학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화 동향 소개와 신학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건설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하나님 나라 섬김을 위한 도구로서 세워짐에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 1.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상황과 과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2010년 현재 120만 명, 이들의 2세는 12만 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초 · 중 · 고교에 다닐 나이의 7~18세 청소년은 4만 6,159명. 그러나 실제 초 · 중 · 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3만 1,788명뿐이다.[1]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인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도 크지만 그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다는 면에서 급격한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용력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제기한다. OECD국가 중 한국의 거주 외국인 수 증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를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사회를 향한 변동이 현실화됨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는 2050년 98만 2,7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손을 합친 인구는 216만 4,800여 명으로 늘어나 총인구의 5.11%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 세대로 갈수록 다문화 진행 속도가 빨라져 2050년에는 영아(0~2세) 3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 된다.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인종적, 민족적으로 완전한 다문화사회가 된다는 얘기다(한국일보 2011-5-12). 실제로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크게 늘었다. 20101년 다문화가정 학생은 3만 40명으로 2005년(6,121명)보다 5배 가량 늘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1] 동아일보, 2011-5-23

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 2. 다문화사회의 배경: 가속화되는 세계화

다문화사회의 부상은 우연한 사회현상이 아니다. 다양한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문화사회를 촉진하고 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주목하여야 할 만한 요소는 가속화되는 세계화 현상이다. 아파두라이(Appadurai)의 통찰력 있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은 다문화사회를 촉진하는 세계화의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3]

문화의 지구화의 첫 번째 차원으로 아파두라이는 인간환경(Ethnoscapes)을 제시한다. 이것은 변화하는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한다. 예컨대 여행자, 이민자, 도망자, 망명자, 외국인 노동자 등을 말한다.[4] 시 · 공간의 압축으로 대표되는 가속화되는 세계화는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와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국 다문화사회를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매체환경(Mediascapes)을 말한다. 이는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전자매체의 능력을 말한다. 매체환경은 이미지들, 이야기들 그리

2 "다문화가정의 4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에 밀집돼 있는데다 다문화가정은 이혼 비율이 일반 가정의 7~8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언어와 경제적 문제, 가정 불화의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11-4-2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31% 정도가 학교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다. 숫자로는 1만 명 이상의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 울타리 밖에 방치된 셈이다.

3 Appadurai, Difference in Global Cultural Economy, in Mike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1990), 296.

4 Ibid., 297.



고 인간환경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목록을 전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데, 그 세계 안에는 세계의 상품과 세계의 뉴스와 정치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 그것들은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고안된 이미지 중심적이고 이야기에 근거한 설명들이다.[5] 이러한 매체환경은 결국 지정학적 차이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문화들을 한정된 시 · 공간 안에서도 포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가능하게 하였다.

세 번째로, 이념환경(Ideoscape)인데, 그것은 주로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차원에 관한 것이며, 많은 부분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반이데올로기 운동과 관계되어 있다. 사실상 이것들은 계몽주의 세계관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몽주의 세계관은 사상의 연결, 용어와 이미지들, 넓은 의미의 자유, 복지, 권리, 주권, 대표성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민주주의로 구성되어 있다.[6] 다문화사회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이로부터 모색할 수 있다.

네 번째 차원으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술환경(Technoscape)이다. 이는 기술의 세계적 현황으로 기술이 이전에는 넘나들 수 없었던 경계선을 극복하고 현재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술의 불균등한 분배,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환경의 특성들은 점진적으로 분명한 경제적인 규모와 정치적인 조정 또는 시장의 합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금 통화와 정치적 가능성과 그리고 단순노동과 고도의 숙련된 노동의 유용성 등의 복잡한 관계들에 의해서 이끌려질 것이다.[7]

마지막으로 문화의 지구화의 다섯 번째 차원으로 아파두라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금융환경(Finanscapes)이다. 세계자본의 축적방법과 상황

5 Ibid., 299.

6 Ibid., 299-300.

7 Ibid., 298.

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선물시장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자금들이 시초를 다투면서 초고속으로 유동하고 있다.[8] 이것은 사람들이 직접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요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결국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변동은 결국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다문화사회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가속화되는 지구화에 따른 지역적 통합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국가들의 문화 변동 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대중 전달 매체산업이 문화의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생산과 유통형태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와 다양한 문화들의 혼재라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했다. 대중매체가 인간관계를 상징과 대용화폐에 의한 관계로 전환하였을 때, 그것은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관심을 공유하기만 한다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정한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의 상당 지역이 하나의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속화되는 세계화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특정 국가와 그에 속한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 다문화현상을 통하여 상대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단일민족, 단일국가, 단일사회라는 틀에 의하여 갇혀 있던 것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해방적이며 독특한 문화의 발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의 다양성은 사회 · 경제적 분열이 점

8 Ibid., 298.



차 확대되는 것과 맞물려 평등의 이상과 실제의 불평등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개인이나 전통사회는 자신만의 문화와 정체성 속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사회의 부상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함께 민족주의와의 건전한 만남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요청하게 된다.

## 3.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의 부상

다문화시대를 맞아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러한 상황을 무시할 경우 과격주의에 빠져버리게 된다. 예컨대 유럽에서의 '민족부흥' 운동은 다문화시대를 배경으로 부상한 것으로 정체성과 문화 확립이 운동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유럽계 백인들의 '민족부흥'은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9]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 형태의 부적절한 대응은 사회적, 정치적 통합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다문화주의가 주장된다.[10]

### 1) 다문화사회의 부상과 대안들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11]에서는 민족 · 문화적 갈등 뒤에 경제적 문제와 이유가 숨어 있다. 문화적 갈등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라기보

9 마르코 마르티니엘로(Martiniello, Marco),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옮김, (한울, 2008), 29.

10 Ibid., 41.

11 Ibid., 65., 킴리카(Will Kymlicka)는 두 가지 유형의 다문화사회－1) '다민족'(multinational) 사회와 2) '복합인종'(polyethnique)사회－로 구별했다.

다는 결과이다. 문명들 사이의 경계는 헌팅턴(Huntington)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더 나아가 헌팅턴은 상이한 문명권 속에 속하는 국가들의 연합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문명들 사이의 관계가 증대된다고 해서 갈등이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다.[12]

유럽의 경우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접근방식이 시도되었다. 그 하나는 하나의 단일문화적 총체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나 지역들은 공동체적 연대를 통하여 열악한 영역으로 부가 이동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의 동력이 저하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13] 여러 민족문화로 이루어진 국가는 문화적 통합의 부재로 인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사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러한 국가들이 여러 가지 실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단일문화체계를 추구하는 근본배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분석이 단일민족국가의 쇠락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만으로 다민족국가의 몰락이 설명될 수 없으며,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문화적, 민족적 차이에 접목될 때 정치적 갈등과 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14]

역사상 이민자 통합의 문제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동화주의 대 다원주의, 개인주의 대 공동체주의, 평등주의 대 차별주의 등의 이원적 대립으로 전개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대조적 대응모색은 프랑스식의 '동화주의' 모델과 영미 계통의 '다원주의' 모델로 나뉘어진다. 프랑스에서는 자코뱅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문화적, 민족적, 종

12 Ibid., 51.

13 Ibid., 53, 55.

14 Ibid., 57, 59



교적 다양성의 문제는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개인은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서 동등하다. 개별적 특수성이나 공동체적 정체성은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이 되며 공적인 무대에서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만이 우선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미 계통의 다원주의적 전통에서는 고유의 문화가 사회 전체에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노력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우세하다. 각각의 공동체는 고유의 특수한 권리의 존중과, 그 구성원들을 위해 가능한 많은 권리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반영되는 결과를 낳는다.[15]

동화주의적 사회는 대부분 자기 영토 내에서 탄생한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jus soli) 정책을 시행한다. 새로 국적을 취득하는 자들은 공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역사적으로 학교와 군대는 동화를 위한 두 가지 제도였다.[16]

다원주의적 접근은 재정 지원을 통해 소수집단의 문화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적과 민권에 대한 정책은 속지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이미 특정한 문화에 소속됨으로써 시작된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수립에 관심을 가진다.[17]

결론적으로 동화주의적 모델과 다원주의적 모델의 효력을 주장하며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도처에서 아직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와 인종차별, 주거지의 격리가 심화

15 Ibid., 68-69.

16 Ibid., 72-73.

17 Ibid., 75.

되는 '게토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사해동포적 경향이 그 반대편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를 동화주의와 다원주의의 이분법적 모델로 구분짓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주의적 주장과 개별주의적 주장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8]

### 2)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동화주의와 다원주의 사이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정책과 국민들의 합의정서, 즉 국민정서는 어느 한편으로의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문화사회의 부상과 함께 아직 형성 중에 있는 국민정서와 국가정책이 하나님 나라의 그것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 대안에 대한 모색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오늘의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대안이 엇갈릴 수 있는 주요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프티 로베르(Petit Robert)는 다문화주의를 간단하게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19] 문화영역에서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라는 영역이 인종, 민족, 성의 문제로 억압받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예술적 생산을 강조하면서 문학, 영화, 회화 등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주도하였다.[20] 정치학에서의 다문화주의란 우선 사회 안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다시 말하면 다양한 문화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장려하는 공적인 시도를 지칭한다.[21]

현실 정치상황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또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채택한다. 이 모든 정책은 직접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하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민족적, 문화적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22] 교육 분야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어느 정도 구조화된 공공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벨기에에서 가톨릭 학교는 공공기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슬람 학교라는 개념은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욕의 엘리스 섬 이민 박물관의 창립 역시 국가의 다문화적 역사에 대해 대중들을 의식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23] 특별히 미국에서는 '차별수정계획' (affirmative action) - 긍정적 행동이란 의미로, 미국 내 흑인, 소수민족, 여성의 고용이나 고등교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별수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24] 민족, 인종에 따라 할당 인원을 강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목표는 사회의 모든 층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실을 전제하면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한, 혹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집단들의 대표성을 보완함에 있다.[25]

이러한 다문화성을 포괄하기 위한 공적 개입의 영역과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적인 재원 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문화주의는 재분배의 문제가 되며, 또한 사회정의의 문제가 된다. 어떤 경우에 다문화주의는 상이한 소수집단

18 Ibid., 84-85.
19 Ibid., 88.
20 Ibid., 92-93
21 Ibid., 93.
22 Ibid., 95-96.
23 Ibid., 96-97.
24 Ibid., 98.
25 Ibid., 99.

들이 단결하여 자신들만의 특수한 권리를 주장하고, 정부가 특별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 독립정부를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려는 무리한 시도마저 감행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특정한 민족과 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집단은 결국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며, 자기들의 문화나 정체성이 무시되는 것을 거부한다.[26]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강경' (hard) 다문화주의는 '온건' 다문화주의 내에 존재하는 피상적인 다원주의를 극복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고전적 개념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27]

### 3)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과제

'다문화주의자' 들은 내적으로 강력한 동질성을 갖는 사회집단들이 보유하는 일관된 문화, 서로 간에 확연히 구별되는 문화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누어진 사회체계를 전제로 한다. 소수민족, 민족집단, 문화공동체 등으로 지칭되는 이 집단들은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와 거리가 클수록 더불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

동화주의자들에게 통용되던 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본질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접근은 인류학의 발전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그 권위가 실추되었다. 문화는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정신적 모태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정치적 구성의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28]

[26] Ibid., 100-103.
[27] Ibid., 106.
[28] Ibid., 113.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이들 중 문화에 대해 본질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개념을 채택한 이들은 문화적 상대주의로 빠져들게 되었다.[29] 또한 다문화주의자들 중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은폐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를 읽는 유일한 도구를 문화라고 주장함으로써 문화, 경제, 사회의 영역 간 상호작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게다가 지나치게 모든 사회문제를 '문화화' 하는 것은 국가가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려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을 은폐하는 것이 아닌지도 심각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30]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정의 4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에 밀집돼 있는 데다 다문화가정은 이혼 비율이 일반 가정의 7~8배에 달한다고 한다. 언어와 경제적 문제, 가정불화의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책임적 대안은 다문화사회를 통합적으로 포괄할 만한 공공정책과 민족, 인종, 문화, 종교에 관련된 차별의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한 법률을 제정하고 적용함이 요청된다. 그러나 법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들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사회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합의를 토대로 하는 문화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31]

## 4.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재등장

가속화되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다문화사회가 현실이 되고, 이에 따른 다문화주의가 부상하는 오늘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민족주의는 세계 곳곳

[29] Ibid., 115.
[30] Ibid., 123.
[31] Ibid., 147-148.

에서 매우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며 또한 기능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는 현실 정치와 사회 갈등에서 주요한 대립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나아가 평화에 위협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족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정체성 유지의 위협이며, 결국에는 사회구조 유지에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다문화적 상황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는 매우 조심스럽게 시도되어야 한다. 예컨대 나치 독일의 폭압적이고 파괴적 민족주의, 구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지역에서 부상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특정 종교와 결탁된 호전적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부정적 경계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역사는 미국 독립을 가능케 하였던 민족주의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의 전후 독립을 가능케 하였던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민족의 문화적, 정치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유엔협약(the 1966 Covenant of the United Nations)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난해한 과제이다. 특정한 민족 범주의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안에 자리한 사람은 더욱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이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경우에도 민족주의와의 조우에서는 나름대로의 당파성을 온전히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의 분쟁, 북아일랜드에서의 분쟁, 옛 유고의 공산주의 정권 몰락 이후의 처절한 분쟁과 9 · 11 이후에 대두되는 문명의 충돌론 등을 통하여 우리는 종교와 민족주의적 갈등이 혼재되었을 경우의 비극적 사태를 목격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민족을 초월한 보편성(Catholicity)이 뚜렷하였지만, 특별히 1848년의 아우그스부르그(Augsburg)와 베스트팔렌(Westphalia) 조약 이후로 점차로 교회도 민족적, 정치적 경계에 의하여 나누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도 그들의 신앙적 확신에 따라 민족과 국가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32]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역시 민족주의는 매우 다양한 역할과 평가의 대상이다. 일본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부상하는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적 부상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 민족이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통합적 가치와 목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라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기독교의 한국사회에서의 역할과 평가에도 반영된다. 어떤 이들은 한국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민족주의적 종교가 되어 초월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또 다른 이들은 한국 기독교가 민족주의적이 아니라는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민족주의란 무엇이며, 교회는 민족주의를 어떠한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 1) 민족주의에 대한 신학적 반성

민족주의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반응이 예시하듯이, 성경 자체 안에서도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획일적인 증언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매우 상반되는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대조적인 증언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성경은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인류의 사명에 대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창 1장; 벧전 2:9-10).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노아의 자손들로 하여금 전세계에 흩어져 충만할 것을 원하셨

32 Gregory Baum, Nationalism, Religion and Ethics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1), 4-5.

다(창 9:9;10). 그러나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였다(창 11장).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은 각 특성에 따라 흩어져 살 것을 명령받았고, 그것은 교만한 죄성를 억제하려는 방법으로 묘사되었다(창 11:1-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민족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기보다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곧 민족을 인간의 역사적 책임의 맥락에서 묘사한다. 민족과 문화는 종말에도 나름대로의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묘사된다(사 60장, 계 21-22장).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결과를 축복으로 전환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33]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의 민족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 잘 나타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행 17:26-27).

### 2) 민족주의와 보편주의의 관계성 모색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민족주의와 보편주의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간이 개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나 문화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류 공동체에 통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에밀 뒤르껭(Emile Durkheim)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인류의 다수 민족 상태를 본래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외양에 있어서 국제적

33 Paul M. Marshall, "Nationalism",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ed. Banks & Stevens (IVP, 1997), 681.



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부버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처음부터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옹호하였고, 그의 생애 내내 이러한 입장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다.[34]

민족주의적 요소를 간과한 획일적 보편주의는 일종의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됨을 주목하여야 한다. 사실상 획일적 보편주의는 전체 인류에게 동일한 규범을 강요하는 교만한 특수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틸리히(Tillich)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막시즘은 문화적 뿌리와 민족적 정체성을 반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인류개념을 제시한다고 하며, 이것은 곧 인류 진보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버와 틸리히 등의 신학자들은 민족주의와 동반되는 편협성과 교만함은 결코 사해동포주의나 세계화와 세계시민의식 등의 획일적 보편주의로 극복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였다.[35]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족주의의 한계 극복은 인류의 다(多)-민족(pluri-national)적 상황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버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 바 있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수의 민족들로 창조하셨다."[36]

## 3.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의 조화 모색 : 기독교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기독교 사회윤리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자아 존중의 확보와 함께 '타자' (the others)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정된다. 적자생존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적 사고가 인류 역사를 주도한다면 타자와의 평화로운 공존은 불가능하다. 특별히 약자를 위한 연대가 터

34 Ibid., 111.

35 Ibid., 113.

36 Ibid., 114.

전을 상실하게 된다. 나와는 다른 타인들과의 정의로운 관계와 궁극적인 화해는 인류 공동체의 연대감과 공동체적 헌신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건전한 신학은 화해자로서의 하나님이 민족들을 정의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인도한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타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읽어줄 수 있는 공간의 마련 여부가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민족주의는 그것이 사회정의와 부의 공평한 배분을 지향할 때 윤리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정의와 자유가 동반되지 않는 민족주의는 또 다른 억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가 19세기 들어서는 종교가 차지하였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한스 콘(Hans Korn)의 주장은 일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종교와 민족주의의 유기적 관계성에 주목하는 에릭 홉스바움(Eric Hobsbawm)은 1990년대 들어서 민족주의는 소수 이데올로기보다는 '대중적 힘' (mass force)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더욱 종교와 민족주의의 상관성이 심화되었음을 주장하였다.[37]

그러므로 민족주의가 정의롭게 기능할 수 있는 종교적, 신학적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에서 퀘벡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쟈끄 그랑메종(Jacques Grand' Maison)은 정당화될 수 있는 민족주의 형성을 위한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이 민족주의가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갱신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가?

(2) 이 민족주의가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되었는가 아니면 상당기간 동안 기본적인 인권을 저해하는 소외를 유발해 왔는가?

[37] Eric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67-68.



(3) 이것이 인간의 평등과 부의 재분배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4) 이것이 건전한 경제발전과 인간의 삶을 안정적 상태로 도달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5) 이 민족주의는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정체성과 자유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6) 이 민족주의가 나라가 다른 문화들이나 전체 인류와 더욱 개선된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7) 이것이 소수 민족들에게 전체로서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가?

(8) 이것이 민주주의와 그 대표성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민족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집단들의 정당한 자율성을 인정하는가?

(9) 이것이 이민자들에게도 평등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전체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가?

(10) 이것이 인간의 소명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와 맥락을 조성하면서 권위 있는 진정한 통합적 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38]

우리는 이러한 평가적 질문들을 참조하여 민족주의의 건설적 기능과 보편성과의 조화를 담보하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족주의는 더욱 정의롭고 더욱 개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39]

(2) 민족주의는 소수 민족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추구되어야 한다.

(3)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들과 협력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

[38] Gregory Baum, op.cit., 107.

(4) 민족주의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학적' 주장을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5. 다문화시대 교회의 역할: 기독교 문화 형성의 과제

오늘 우리는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대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늘의 한국 기독교회는 다문화사회를 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세계화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서 '우상적이지 않은 자기존중' (non-idolatrous self-esteem)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라는 화해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아니 보다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한국 기독교' 의 정체성 확립이다. 사실 한국과 기독교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다. 즉 한국이라는 개별성(particularity)을 통하여 기독교라는 보편적인 진리(the universal truth)를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 한국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개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우리 문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유념하여야 할 것은 우리 문화 자체가 품고 있는 다원성이다.

39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던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진정으로 자신의 조국과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조국이 사회정의를 포용하여야 한다는 큰 열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30년대 뉴욕에서 생활하던 틸리히를, 나치를 신봉하던 저명한 신학자 히르쉬(Hirsch)가 조국의 배신자로 비난하였을 때, 틸리히는 히르쉬보다 자신이 더욱 조국 독일에 충성스런 삶을 살고 있노라고 답하였다.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열망하는 이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21세기적 정황은 이러한 다원성을 더욱 촉진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다문화시대의 기독교적 민족주의 문화란 특정한 민족과 문화를 절대화하는 우상숭배적 경향을 경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민족과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정신에 기초하여 각 문화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화를 말한다. 기독교 문화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양한 민족과 문화들 사이의 '더욱 건설적인 통합' (more constructive hybridization)까지도 추구하는 모험적 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군선교신학 제9권

#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A Nationality with walked in Korean History

김수진 Kim, Soo Jin

■ 장로회신학대학교(Th.B.)
■ 일본 도시샤대학 대학원(Th.M.)
■ 미국 풀러신학교(D. Min.)/미국 코헨신학교(Th.D.)
■ 한영신학대학교 교수
■ 한국목양문인회 회장 역임
■ 개신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한국교회역사연구원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독립협회와 한국교회

### 1) 독립협회를 중심한 신앙의 애국자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사람을 길러내는 것보다 값진 것은 없는데 바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낸 것이다. 먼저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2일 서재필(1864-1951년)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서재필의 호는 '송재' 이며, 영어명은 제이슨(P. Jason)이다. 서재필은 전남 보성에서 출생하여 7세 때 서울에 올라와 외숙인 판서 김성근 밑에서 한학을 배웠고, 1879년(고종 16년) 전강에



장원하였다. 이 무렵부터 김옥균, 서광범 등 개화 인사들과 교분을 갖게 되었다. 1883년 일본에 건너가 도야마육군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후 국왕에게 사관학교의 설립을 진언하여 사관장이 되었다.

그후 서재필은 1884년 12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과 갑신정변을 일으켜 병조참판이 되었으나 정변의 실패로 1885년 일본에서 루미스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1896년 귀국 후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로 서재필이 중심이 되고 순 한글신문의 효시이다. 제4면은 영문으로 하여 조선의 사정을 외국에 알리는 데 힘을 썼다.

이때 서재필을 중심으로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 남궁억 등 개혁파 세력이 중심이 되어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칭하였으며 독립협회의 창설과 함께 1897년 11월에 국민의 성금으로 종래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 단체는 독립문 건립을 시작으로 민족의 자립을 강조하며 열강의 이권침탈에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전제군주국가 체제에서 벗어나 입헌군주국가 체제로 변혁하기 위한,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897년 2월에는 러시아 영사관에 머물러 있던 고종에게 환궁할 것을 호소하여 이를 결행하게 하였으며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황제의 칭호' 를 사용하도록 청원하며, 외국인 고문과 교관 초빙을 맹렬히 반대하였다. 또한 지하자원 개발권 및 철도부설권을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것도 외국 자본주의 밑에 국가경제를 예속시키는 처사라고 규탄하였다.

또한 독립협회 주최로 열린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열려 러시아인 고문과 군부 교련 사관의 해고를 요구하였고, 이승만, 홍정하 등의 청년연사가 열렬한 연설을 하여 대중의 여론을 일으켰다. 만민공동의회는 양반급 인사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한 사

람들의 모임이었다. 1898년 10월 28일 종로에서 모였던 공동의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이 열변을 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나는 대한의 천한 사람이고 무지 몰지각합니다. 그러나 충군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하고 평안한 길이므로 관민이 합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장대로 받친즉 힘이 부족하지만 많은 장대로 합한즉 그 힘이 심히 강합니다. 원하기는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대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만만세를 누리게 합시다.[1]

그러나 이 대회는 정부의 매국적 행위를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주장과 개혁사상을 보수세력이 바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이들은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존속하다가 이 조직도 1899년 초에 해산되었고, 만민공동회 회원들은 잡혀 들어가 종신형을 받고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은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로 이어졌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도미한 후에 독립협회의 해산으로 폐간되고 말았다.[2]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말하라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을 들라 하면 안창호, 김구, 이승만, 김규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모두가 초기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선교사들이 한 일 중 가장 손꼽을 만한 귀한 일은 한국의 위대한 인재들, 애국자들뿐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수없이 길러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세계개혁교회연맹,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증언》 (세계개혁교회연맹, 1989) 27.

2 조향근, 《세계대백과사전 제 6권》, 28.



### 2) 신민회를 통한 애국운동

신민회가 비밀리에 조직된 것은 1907년 4월 20일경이었다. 신민회 창립을 주도한 안창호가 미국에서 귀국한 지 2개월 만에 결성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항일 비밀결사단체가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상동교회를 중심한 상동청년학원과 같은 기존의 항일민족단체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신민회 창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물을 보면 상동청년학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기탁, 이갑, 유동렬, 이동휘, 이동녕, 전덕기 그리고 안창호 등 발기인 7인은 직·간접적으로 상동청년학원과 연관을 맺고 있다. 상동청년학원은 한국 기독교 최초의 감리교 기독청년회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배출되었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 신민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목적은 상실되어가고 있는 '국권 회복' 을 위한 일이었다.
>
> 이들은 비밀결사단체로서 내적으로는 중세적 봉건 왕조를 청산하고 근대적인 공화정을 설립하며 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후 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3]

이런 신민회의 조직과 회원 개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독립운동에 기독교가 참여한 시기는 독립협회가 시작되던 시기부터로 신민회는 그 운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중심된 운동이었다. 1907년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가고 정부의 차석에는 일본인들이 앉아서 군경과 나라의 법까지 낱낱이 인계하고 광산과 산림과 토지를 빼앗기고 있을 때 조직된 것이다.

3 윤경로,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서울: 역민사, 1997), 32.

슬프다 동포여 아는가 모르는가. 꿈을 깨었는가. 수 평의 초가집도 나의 것이 아니며, 수 궤의 산소도 나의 땅이 아니며, 문전의 뽕나무와 석류도 나의 초목이 아니며, 동구밖의 시냇물도 나의 물이 아니다. 내 몸이 죽어서 묻힐 땅이 없으며 나의 자손이 자라서 거주할 방이 없으니. 우리 이천 만 동포가 기왕에 실기함과 장래의 통곡함을 불금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혈관의 피가 약동하는도다.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 연합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 자유함으로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신민회가 원하는 바이며 신 정신을 깨우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4]

신민회 사건은 일제의 한국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이요 공격이었으며, 일제는 거짓으로 105인 사건을 만들어 기독교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선교사들을 연루시켜 추방하려 하였다.

105인 기소자 123명 중 장로교인이 81명, 감리교인 6명, 조합교인 2명, 천주교인 2명, 기타 2명으로 총 93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신민회의 지도급 인사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5]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참다운 애국운동의 근원은 한국 개신교였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떤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도 진리를 사수하며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이 계속 태어나도록 신앙적 애국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신앙적인 애국자와 인재를 길러내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간 선교사들의 업적을 귀감 삼아 우리나라 안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 나간 선교사들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힘써야 할 것이다.

4 세계개혁교회연맹, op. cit., 40-42.

5 윤경로, op. cit., 35.



### 3) 성경 번역과 한글 보급 운동

#### (1) 로스와 매킨타이어 번역 성경

성경의 한글 번역과 한글 보급으로 문맹을 퇴치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1876년으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선교사 존 로스(Rev. J. Ross)와 존 매킨타이어(Rev. J. Macintyre) 목사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처남 매부지간으로 토마스(Thomas) 목사의 순교 소식을 스코틀랜드에서 듣고 크게 자극을 받아 특별히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1872년, 이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만주 우장에 선교본부를 두고 우리나라를 향하여 기도드리며 선교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들이 고려문까지 가서 한국 사람들을 찾던 중 때마침 새로운 학문에 호기심을 가진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 네 사람의 한국인 청년들이 복음을 받고 성경 번역에 협조자가 되었다.

또한 서상륜이 만주 우장에 갔다가 장티푸스를 앓게 되어 이 선교사들의 간호로 완쾌된 후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 번역에 협조하고 있는 네 사람의 젊은 학자들과 함께 1881년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의 협력을 받아 1882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주선으로 심양에서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인쇄가 되어 나왔다. 이것이 최초의 한글 성경 출판이다. 성경을 읽히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공부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독신자는 누구나 글을 알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 기독교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후 신자들을 깨우쳐 믿음을 갖게 하고 동시에 문맹을 깨우치는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나라를 문화국가로, 기독교인

들을 문화인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2) 언더우드(Underwood)를 중심한 성경번역위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잠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수정을 만나서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서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 그는 로스역 성경이나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성서를 새롭게 번역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로스역의 지나친 사투리와 그 난해성을 보고 성서 번역의 체계적인 착수를 위하여 1887년 2월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번역에 앞서 가능한 한 빨리 성서를 번역한다는 것과 순수한 한글(Pure Korean)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때 성서 번역은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란 칭호를 깊이 연구하게 하여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하게 한 명석한 문학 연구도 추진하였다.[6]

> 1887년에 성서번역위원회가 번역을 시작하여 1900년에 신약을 완간했으며 1910년에야 구약이 완간되었다. 이렇게 해서 밤낮 없는 수고로 13년 만에 성서의 개역 수정판이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7]

한글학자이며 새문안교회 집사로 봉직한 최현배 박사도 "어리석은 백성이 날로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거룩한 뜻이 여기서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8] 또한 한글 학자로 "한글의 중흥을 이룬 주시경은 배재학당에서 공부하다가 우리말, 한글을 배워 알고 한글 연구로 일평생을 보냈던 것이다."[9]



>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간소하고 재치 있는 글이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 한글을 남달리 사랑하고 완전하게 쓰고 있는 실정이다. 부녀자들의 허리띠 틈에 일상어로 된 신약성서 책이 꽂혀 있고 사랑방 책장 위에도 언문의 성경이 올려져 있다.[10]

주시경은 배재학당에 입학하면서 신학문과 함께 기독교 신앙에 접하였다. 그는 배재학당 재학 5년 동안 한글 연구의 기초를 닦으며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배재학당을 졸업하면서 세례를 받고 정식 기독교인이 되었다. 배재학당을 졸업한 후에는 선교사 어학 선생, 간호원 양성소 교사, 정동교회 청년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독교 계몽운동, 민중 선교에 깊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상동교회 안에 있던 상동청년학원 교사로 부임하면서 전덕기를 비롯한 민족 운동가들과 폭넓은 교제를 나누었고, 민족운동의 연장선에서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였다.

주시경의 신앙과 사상은 기독교의 유일신관을 기초로 만민평등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실천윤리에 바탕을 두었다. 그는 민족의 개화와 발전도 모든 지혜와 권력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서 구했으며, 한글을 통해 그 당시 민족의 역사적 과제였던 국권 회복과 민족의 자주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일제시대의 시련과 형극 속에서도 국학 연구에 있어서 백낙준 박사의 공로는 실로 지대한 것이었다.

---

6 예장역사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교회사》 상권, 140.

7 Ibid., 200-201.

8 Ibid., 201.

9 Ibid., 201.

10 Ibid., 202.

그는 1927년 한국 개신교 선교역사를 발행해 냈지만 그것은 개화기를 망라한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한 체계적인 서술이었다. 그는 일제하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희전문학교에서 조선 어학을 선택과목으로 교수하게 하고 조선사를 동양사 속에서 겹쳐 강의하게 하고, 조선어학을 한문 속에서 함께 학습하도록 용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런 모험의 결실이 정인보의 조선문학원류 초본이 되었고, 또한 최현배 박사의 품사론이었다. 실로 조선학 연구가 연희전문학교에서 시작된 것은 이러한 배경과 지도자들이 있었던 귀한 역사의 흔적이다. 이 밖에 평양 숭실전문학교의 양주동 박사의 조선 고가 연구(1942년), 그리고 장로교 김윤경의 조선 문자급 어학사(1938년), 장로교 이윤재 선생의 조선어 표준말 모음 등이 우리 교인들의 국학 업적으로 꼽힌다.[11]

초기 선교사들이 당시 천하게 취급받으며 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던 한글을 성경 번역의 언어로 선택한 발상부터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이 성경 번역을 한글로 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문서를 한글화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한글의 성경 번역으로 온 국민들에게 한글을 보급함은 물론 우리나라 한글 학자들을 길러내어 발전시킨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오늘 우리 교회들의 사회에 대한 무력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반성케 한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무관심에서 이런 무기력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적 열정의 약화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지, 양면적 반성을 하게 된다. 대부흥운동에서 보듯, 먼저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

11 Ibid., 489-490.



시켜나간 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지켜나갔듯이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 할 것이다.

## 2. 초기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적 활동

### 1) 헌신적 봉사

한국선교에 있어서 의료선교는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국민의 육적인 치료뿐 아니라 놀랄 만한 영적 치료의 열매를 맺었다. 알렌(Allen) 의사에 이어 수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생명을 바쳐가면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알렌 선교사가 병자들을 치료하게 되니 한국인들은 새로운 서양 의술의 필요성을 느꼈다. 알렌은 생명이 위독했던 민영익을 치료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후에 왕실 의사가 되고, 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민영익의 도움으로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개원하고 이곳에서 언더우드, 헤론(Heron), 그리고 감리교 의사였던 스크랜턴(Scranon)이 의료선교에 임하였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 선교는 의료선교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혜원은 1900년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Cleveland)의 실업가 세브란스(L. H. Severance)가 거금 1만 5천 달러를 희사함으로 남대문 밖 지금의 서울역 앞에 대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현대식 건물을 짓고 이전하였다.[12]

그후 광혜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불렸다. 계속해서 곳곳에 신식 병원이 세워졌는데 주로 선교사들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알렌과 같이 일하던

12 The Annual Report ,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for 1886, 268.

스크랜턴이 정동에 '시의원'을 설립하여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여인들을 위해 일하였고, 1886년 북장로교 엘러스(A. Ellers)는 왕후의 시의가 되었고 고관부녀들의 의사가 되었지만 그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녀자들을 치료하였다.

특히 1887년 10월에는 하워드(M. Haward)가 시병원에서 여자환자들을 돌보다가 몸이 약하여져 귀국하고 1885년 이 땅에 와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던 장로교의 헤론 의사가 1890년 7월 세상을 떠나니 그는 한국을 위해 일하다가 생명을 바친 최초의 의사였다.[13]

초기 선교사를 살펴보면 의사들이 많이 과로로 숨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봉사하다가 이런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순교적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숨진 의사들이 많았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이 땅을 찾아와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전국적으로 놀라운 의료활동을 하였다.

평양은 1892년 홀(Dr. William James Hall) 의사 부부가 와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홀 의사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폴웰(Dr. E. D. Follwell)이 그 뒤를 이어 봉사하였고, 그후 1898년 홀 의사의 부인 로제타 홀 의사가 와서 남편을 기억하여 기홀 병원을 세우고 사역을 하였다. 대구는 1899년 존슨(Dr. Johnson) 박사가 요양원을 세우고 일하다가 건강 관계로 1903년 귀국한 후 널(Dr. M. M. Null) 의사가 와서 봉사하였으며, 부산은 1891년 브라운 (Dr. Brown Hugh) 의사 부부가 요양원을 세우고 일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후 1893년에 어빈(C. H. Irvin) 박사 부부가 와서 일하였다. 원산은 1892년 맥길(Dr. W. B. Mcgill)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01년 충남 공주로 옮김으로 하아디가 맡아 일하다가 그의 조력자였던 로스(Dr. J. B. Ross)가 맡아서 충성하였다.[14]

13 성갑식 편, 《그리스도교대사전》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3), 1161.



전주예수병원은 1898년 마티 잉골드 선교사(Dr. Mattie B. Ingold)에 의해 처음 진료를 시작한 이래 전주 시민들의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써 왔다. 1900년대 의료시설이 전무했던 이 지역에서 전주예수병원은 한 해에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전주 시민의 신임을 얻었고,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동한 전주 기독인들이 먼저 이 병원을 예수병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처럼 당시 의료선교는 선교의 효과도 컸지만 적은 수의 의사들이 맡겨진 과중한 일을 해야 하는 격무의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보면서 쉴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활동하다가 과역으로 인한 건강의 손실로 죽는 일뿐 아니라 견디지 못하여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선교지로 오는 형편이었다. 광주 제중원의 경우 "놀란(Nolan)의 사면 이후 중단되었지만 1907년 윌슨(R. M. Willson)에 의해 재개되었다. 병원이 열리자 환자들이 쇄도하여 몰려왔다. 1910년 병원 시설이 불비하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의 그래함 장로 부처는 1911년 세상을 떠난 자기 딸을 기념하는 뜻으로 당시 일만 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보내어 병원 건축기금으로 사용하게 하여, 1912년 그래함 기념병원(Ella Lavine Graham Memorial Hospital)을 세웠다. 이 병원은 3층이나 되는 벽돌 건물로 50명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잘된 근대적 병원이었다."[15]

14 Ibid., 1161-1162.

### 2) 초기 의료선교사들의 순교적 활동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병원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 조선 의사들의 활동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조선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1877-1910년)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박에스더는 볼티모어에서 양의학을 공부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진맥조차 자유롭게 받지 못하던 100여 년 전 여성환자들을 위해 살았으며, 많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게 되었던 봉사정신이 투철한 의사였다. 박에스더의 본명은 김점동으로 그녀는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의 집안일을 돕던 광산 김씨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서양 선교사 집에서 일을 하는 만큼 김점동은 비교적 일찍이 서양문물에 눈을 뜰 수 있었다. 김점동은 10세에 정동에 있던 이화학당에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하였으며 총명하고 영리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어학에 뛰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 이름을 에스더로 바꿨다. 에스더는 당시 이화학당 교장이던 스크랜턴의 소개로 의료선교활동을 위해 미국에서 온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의 의료활동 통역사로 활동하던 중, 셔우드가 언청이 수술을 흉터 없이 완벽히 해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는 자신도 의술을 배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하였다.

에스더 김점동은 닥터 셔우드 홀 선교사의 의료활동을 돕던 박여선을 소개받고 나이 17세에 결혼하였다. 이때 김에스더는 서양 풍습에 따라 남편 성으로 이름을 박에스더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미망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로제타 셔우드 홀을 따라 남편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박에스더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얼마 지나

15 G. T. Brown. Mission to Korea (USA: PCUSA, 1962), 71.



지 않아 볼티모어의 여자 의과대학에 최연소로 입학하였고 졸업 후 의사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에스더는 동대문 인근에 특별히 마련한 여성전용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여 부임 첫해 10개월간 3천여 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휴일도 휴가도 없는 나날이었다.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성환자가 있으면 언제 어디라도 찾아갔다.

그리고 이듬해 셔우드 홀이 세운 평양의 기홀기념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박에스더는 병원에서 환자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평안도와 황해도를 두루 다니며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벽지의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그녀는 엄동설한에도 당나귀가 끄는 썰매를 타고 환자를 찾아나섰다. 박에스더가 펼친 의료활동은 미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병이 들면 무당을 찾아가 푸닥거리를 할지언정 의사를 찾아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박에스더는 말 못할 대접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해나가던 박에스더이지만 미처 자신의 몸을 돌보지는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생명을 앗아간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는데 당시 의학기술로 손을 쓸 수 없는 병이었다. 결국 1910년 34세의 박에스더는 자신이 돌보아야 할 많은 여성환자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개화 초기 여성으로 태어나 남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한 미국 유학을 감행한 후 의사가 된 박에스더, 자신의 열정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소진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삶은 시대를 넘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 3) 불치의 한센환자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

한센환자들의 아픔은 한 인간으로서 더없는 절망과 큰 아픔이었다. 집안 식구와 친척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쫓겨나서 소외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치료를 위

하여 사람을 살육까지 한다는 거짓 소문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진실로 대해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을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다.

> 1933년의 상황을 보면 부산(1911년), 대구(1913년), 여수(1911년)의 나병 수용 환자는 전체 추산 2만 환자 중에서 재원 부족 때문에 1,723명에 불과하였다.[16]

이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 국립 소록도 요양병원에는 1,047명이 수용되고 있었음을 살펴보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그 당시 한센환자들을 위한 대부분의 기금이 '인도 아시아 나병선교회'에서 보급되었고 장로교 역시 한센환자를 위한 헌금은 극히 미약하였다.[17]

그러나 한센환자들을 위한 병원 설립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은 광주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위대한 사랑의 봉사 사건은 오웬(C. C. Owen, 오원) 의사[18]가 중병에 걸려 광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목포의 포사이드(Dr. W. Forsythe, 보의사) 의사가 윌슨(Wilson) 의사의 보고를 받고 오원 의사 치료차 광주로 가던 나주지방 노상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말을 타고 광주 쪽으로 약 20킬로미터 되는 지점에 왔을 때 한 비참한 한센환자(여

16 Annual Report on Administration of Chosen, 1932-1933. 98.

17 H. A. Rhodes, History of Korea Mission Presbyterian in U.S.A. 1884-1934. 314.

18 1898년 가을에 배유지(Eugene Bell) 목사 가족과 오웬 의사가 목포에 옴으로 목포 지역 선교가 시작되었다.



자)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딱한 정경을 보던 포사이드 의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북받쳐올라 돕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하여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가 타고 있던 말에 그녀를 태워 광주로 데리고 왔다. 1909년 4월 5일 밤 포사이드 의사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오웬 의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포사이드 의사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접근하기조차 꺼려하는 그녀를 부축하여 길 아래로 내려올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오웬 의사의 부인은 남편이 순회여행 때 쓰던 도구 일체를 주며 보살폈고, 포사이드 의사도 정성껏 치료해 주었으나 그녀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

> 그녀의 죽음은 선교사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 나병환자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헌금을 모아 우선 5-6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집 삼간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윌슨은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나병협회에 편지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다행히도 나병협회에서 2천 달러를 보내오자 1911년 나병환자 수용소 건립 허가를 받아 1912년 병원을 개원하여 45명을 수용하였다.[19]

포사이드 의사는 1904년 우리나라에 와서 "1905년 3월 전주에서 60리나 떨어진 시골에 부자 양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생명이 위독하여 치료해 주러 가서 치료하고 너무 늦어 그 집에서 저녁을 지내는 동안 강도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포사이드 의사를 칼로 마구 찔러 목과 귀에 심한 상처를 입고 죽은 줄 알고 버린 채 달아났다. 이 소식을 들은 선교부가 전주로 이송하여 목숨은 겨우 건졌으나 그의 상처는 이곳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미

19 G. T. Brown, 71-62.

국으로 귀국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한편 포사이드 의사의 치료를 받아 완쾌된 부자 양반이 전주 이씨 문중의 저명한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이 회복되자 가마를 타고 교회에 나감으로 양반과 지식층이 교회 출석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게 되어 전주교회는 성장을 거듭하였다. 1909년에는 52명이 세례를 받고, 7명이 유아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56명이 원입교인으로 등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20]

포사이드 의사는 1909년 다시 목포 제중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광주 봉선리에 한센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다. 포사이드 선교사의 사랑에 감동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나라 손양원(1902-1950년) 목사의 한센환자들을 향한 위대한 생애는 우리에게 또한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경남 함안군 칠원에서 손종일 장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13년 호주 장로교의 맥크레이(F. J. I. Macrae, 맹호은)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1918년 2월 서울로 상경하여 중동중학교에 다니며 안국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1924년 3월 일본에 건너가 나카다(中田重治) 목사로부터 큰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것을 각오하여 매일 밤 열심히 기도하던 중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조국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귀국하여 경남성경학원에 입학했다. 1935년 4월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에 열중하였는데 신학교에서도 뜨거운 기도생활과 성경 읽기로 유명했다.

졸업한 다음 부산지방 시찰회 강도사(준목에 해당)로 일하며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설교하며 반대운동을 벌였는데, 당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경남노회는 그에게 안수조차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전도사 자격까지도 박탈하였다. 그후 1939년 7월 15일 전남 여천군 애양원 한센환자들의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버림받은 나환자들의 몸을 씻기

20 Ibid., 64-66.



고 상처 난 손과 발을 싸매주었으며, 때로는 입으로 더러운 피고름을 빨아주기도 했다. 거듭되는 신사참배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던 그는 마침내 1940년 9월 25일 연행되어 1941년 7월 광주형무소를 거쳐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자, 곧 청주형무소 독방에 수감되어 고생하면서도 주님을 뜨거운 일념으로 섬기며 오로지 감사 충만하여 수감된 사람들과 간수들에게까지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해방이 되어 1945년 8월 17일 6년 만에 출옥하자 애양원교회에서 다시 한센환자 목회에 혼신의 힘을 쏟던 중 1946년 3월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6 · 25 전쟁 때 여수 시 미평 돌짝밭에서 순교를 당하였다.

>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 8:2-3).

예수의 제자 세리 마태는 이천 년 전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한센병은 지금 많은 약들이 발명되어 초기에는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큼 손을 내밀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포사이드 의사가 나병원을 세울 때의 상황은 치료 불가능한 매우 위험한 병이었으며, 손양원 목사가 섬길 때에도 치료 불가능한 시대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며 극진한 대우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 4) 결핵 치료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

결핵은 제2차 세계대전 치료약인 마이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치명적

인 병이었다. 결핵은 그 시대에 치명적인 질병이었지만 우리나라에 결핵 병원이 설립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결핵을 위한 병원이 1920년 3월 세브란스 병원의 스타이즈(F.M. Stites)가 세운 것이 최초의 것이요"[21] 1925년 평양의 진료소 그리고 1928년 시설이 월등했던 결핵요양원이 해주에 세워졌다.

>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 집중과 함께 사회의 공업화, 가정의 어려움, 중노동과 영양부족 등 각종 원인으로 결핵환자들이 날로 늘어났다. "2,500만 인구 중 5할이 결핵 감염자요 100만 명 가량이 결핵환자라는 엄청난 통계였다."[22]
>
> "이러한 결핵 박멸 운동을 위해 구세의원의 홀(S. Hall) 부부가 덴마크의 결핵 박멸 방법을 따라 '크리스마스-실'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1932년 부터였다.[23]

우리나라의 결핵은 대부분 농촌생활의 중노동에 의한 과로와 영양실조에 의한 것이었다. 결핵이 발병하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못하므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병균이 옮아 전염되어 온 가정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었다. 당시 치료방법으로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요양하며 오랜 기간 동안 요양을 거쳐 치유되기도 하였지만 그럴 만한 환경을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결핵뿐 아니라 불치의 병으로 알았던 많은 질병으로부터 치료가 가능한 시대를 살

21 연세대 역사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사》 (서울 : 연세대, 1969), 134.

22 결핵박멸운동에 참여하라, 《기독신보》, 1932.12.14일자.

23 S. Hall,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Missionary Council of Laymen Associates, (Virginia, 1978) 436. 이 실은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에게도 보내 답신이 왔다.



아가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3. 계몽운동에 앞장선 기독교

### 1) 어두운 산간벽지 선교

1907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를 조직하고 이를 기념해서 첫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도서 산간벽지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기풍 목사는 1908년 봄 처음 섬에 상륙했을 때 몰매를 맞았음은 물론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산기슭에서 밤을 새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주도 300여 마을 20여만 명의 생명을 위한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었다."[24] 1913년 전라노회는 제주 선교를 전라노회에 넘겨달라는 청원을 총회에 하여 허락받고 제주도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서백 선교사 부부와 최의덕 선교사 내외를 파견하여 교회의 형편도 살피고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때 모인 집회는 낮에는 성경연구반에 "유서백 부인이 1회, 최의덕 부인이 1회에 실시하였는데 첫 번은 70여 명, 두 번째는 49명의 자매들이 열심히 공부하였고 교인 평균 수효는 190명으로 저녁부흥집회에는 약 300명 가량이 모였다."[25]

전라노회는 제주도 선교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새 전도목사로 윤식명 목사를 임명하고, 이기풍 목사는 북쪽지역을, 윤식명 목사는 남쪽지역을 맡게 하였다. 그동안 집이 없어 고생하던 윤 목사는 여러 선교본부의 선교사들이 헌금하여 보내온 돈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선교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에 법환리라는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가던 중에 태을교(보천교) 교도들로부터 윤식명 목사와 원용혁은 무수한 몽둥이 찜질을 당하

24 제주선교70년사 발간위원회 편, 《제주선교 70년사》 34.

25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라노회, 4회 회록〉 1910.

여 중상을 입고 위험하게 되었는데 중문파출소와 면 직원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서귀포의 소천의원에 입원시켜 1개월 후에 간신히 퇴원하였으나 완전하지 못하여 목포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윤식명 목사는 왼쪽 팔에 장애가 남았고, 원용혁은 머리 상처로 탈모되어 대머리가 되었다. 제주 선교의 특징은 외국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한두 차례 인도해 주는 일은 있었지만 선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책임을 맡아 진행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17년 전라노회가 전북노회와 전남노회로 분할하자 제주도 산북지역은 전북노회가 산남지역은 전남노회가 맡아 진행하였다.

1914년 이기풍 목사는 오랜 동안의 과로로 인한 신병 때문에 그 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안정을 필요로 했다. 노회에서는 1년 동안 휴양하면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후 1915년 9월부터 제주도 산간지역 선교를 최대진 목사가 대신하였다. 그의 사역으로 제주 형제자매들이 합동하여 70일 동안 전도하였는데 복음서 2천여 권과 전도지 1만 장을 배부하여 믿기로 작정한 이가 40여 명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라노회는 당시 재정난으로 제주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중단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최대진 목사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자신이 바울 사도처럼 자비량 선교를 하겠다고 버티며 노력해 보았으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5개월 만에 제주를 떠나야만 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교회와 여전도회들이 특별헌금을 하여 중단된 지 몇 개월 못 되어 어려운 제주도에 김창국 목사를 보내어 선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전라노회 중 목포선교본부의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가 맥콜리(H. D. McCallie, 맹현리) 선교사가 시작한 도서선교였다. 이들 부부는 수년간 이 사업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투신하였는데 그가 선교한 지역은 목포 앞바다에 널려 있는 섬으로 남서쪽으로 160킬로미터, 북동쪽으로 24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10만여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교였다. 비록 소형선박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많은 섬들을 순항해야 하는 그에게 해상 교통상의 어려움은 실로 지대했을 것이다. 1910년 그의 보고서를 보면 95개 섬에 있는 500여 개의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한 끝에 교회 3곳, 예배처소 25처소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맥콜리 선교사의 도서선교는 간호사 출신인 아내의 도움으로 가는 곳마다 진료소를 개설하고 주민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놀라운 선교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 2) 결혼 연령 제한으로 국민건강 및 성생활 보호

1907년에 조직된 독노회는 우리나라 교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습관을 고쳐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회는 1908년 부인이 둘인 사람에게는 학습과 세례받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하였고, 데릴사위나 민며느리들이 있는 교인 징계를 1910년에 결의하였다. 결혼의 신성을 강조한 교회는 1911년 혼인증서를 만들어 교회에 비치하게 하였다. 1914년에는 조혼의 폐를 막기 위하여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 이상에 결혼하게 하였다."[26] 이렇게 하여 가정을 지키며 국민의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였으며, 성생활의 질서와 가정의 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유교의 오랜 전통으로 남녀의 불평등 사상이 극심하여 부부 간에도 차등을 두고 살아가는 나쁜 습성을 고쳐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동네 외인들이 흉볼지라도 이후부터는 밥 먹을 때에 부인들도 방에 들어와 남편과 같이 편안히 앉아서 먹기로 작정하고 또한 부부간에 높고 낮은 말 하는 것도 좋지 못하니 서로 같은 말로 대접하기로 작정하였다.[27]

---

26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 제2회 회의록〉, (1908), 15.

27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라노회,4회 회록〉, (1910). 12.

한국교회는 초기 교회 안에서도 남녀를 사이에 두고 칸막이를 하기도 하였으나 남녀가 같이 교회당에 출석하여 찬송가를 함께 부르게 됨으로 남녀평등의 사상이 실현되어 가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여자라는 사상을 얻게 됨은 예수교의 덕입니다. 여자들에게 남자와 같이 교회직원의 선거권이 있고, 여자에게도 교회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교인 명부에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개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재혼을 허락한 것은 예수교였습니다. 재혼은 여자의 죄악이라는 사상을 깨뜨려주어 조선 여자에게 귀중한 자유를 준 것은 실로 예수교였습니다." 또한 과부의 재혼도 갑오경장 이후 1897년 시인할 수 있도록 확고히 해나감으로 기독교의 근원적인 여성 해방과 인류 평등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권과 여성들의 해방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 4. 교육을 통한 계몽운동

### 1) 학교 교육으로 개화된 민족

한국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의 초등학교는 서당 정도에 불과했다. 서당이란 한문이나 가르치는 기초적인 학교였지만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녀는 당시 10% 미만인 양반 자제나 여유 있는 집 자녀들뿐이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처지였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을 알고 책을 깨우칠 수 없는 문맹의 수준이었으니 우리 민족의 문명과 개화 수준에 대하여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 먼저  학교의 형태로 교육을 시작한 선교사는 언더우드였다……. 그는 1886년 2월 정부의 허가를 얻어 고아원을 설립하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고아원 학교를 키워서 대학과 신학교까지 성장시키려고 했다고 헐버트(Hulbert)에게 이야기하였다."[28]

초기 선교사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초기부터 높은 교육정책과 방안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 왔지만 특히 총회를 조직하고 학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더욱 철저히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 곧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자녀들을 교회학교에서 공부하도록 가르치고 교회 내 자제 중 우수한 자를 교회가 도와주어 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가르치는 일을 힘써 하게 하되, 교사만 아니라 학교 임원까지 공부하게 도와주도록 권하였다. 그리고 이미 있는 학교를 폐하지 아니하도록 힘쓰며 새 학교도 설립할 것인데, 만일 고등학교를 새로 설립하려면 적당한 곳에 협력하여 설립할 것이며 각 학교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되 성경과 기도를 특별히 가르쳐야 하며 국어 교육에도 힘을 쓸 것을 의결하였다.[29]

그리고 이 시대에 벌써 기독교인들의 계속 교육과 평생 교육 및 민족의식 교육을 강조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교육에 치중하여야 하며, 평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등교육을 실시하되 종교적 경건과 민족의식을 그 중추로 하여야 한다"[30]고 가르치며 실천해 나아갔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는 교회에 교회학교를 세워 주일에는 주일학교를 통해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평일에는 교회를 학교로 활용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또한  교회학교를 통하여 밤에는 야학을 하면서 부녀자들에게 그리고 한글을 알지 못하는 성인들에게 한글 보급을 하며 문맹퇴치운동을 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일학교는 1890년에 조직된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시의 주일학교는 장년들을 망라한 일종의 사경반과 흡사하였

28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라노회, 4회 회록〉 (1910), 12.

29 〈조선예수교장로회 전라노회, 4회 회록〉 (1910), 12.

3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cit., 255.

다. 1907년에 와서야 전통적 의미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사연합공의회(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가 세계주일학교연맹과 교섭하여 한국에서 주일학교 일을 전담할 사람을 요청한 바 있다. 이것이 결실되어 1912년 2월 서울에서 선교연합공의회와 한국교회 및 예수교서회의 대표자들 13명이 모여 '한국 주일학교 실행위원회' 를 결성하였으며 아울러 '만국 통일 주일공과' 를 편찬하였다."[31] 그리하여 주일학교가 날로 발전해 감으로 "주일학교 참가자 수가 정상 교회 예배 참석자 수보다 보편적으로 더 많았다. 경기도 지방 교인수는 9,915명이었는데 주일학교 학생은 14,700명이었다."[32]

이 주일학교운동은 한일합방이 되어 위기 상황에 놓인 나라와 교회에 "새 시대에 호소의 통로일 뿐 아니라 교회 내 청년들의 훈련기관이 되었다. 1913년 4월 19일 경복궁 뒤뜰에서 주일학교 전국대회가 열렸을 때 14,700명이 운집하였으며 이를 바라보던 관리들은 그 수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14년 모든 교파를 합한 주일학교 상황은 전체 주일학교 수가 2,392개교였고, 학생수는 119,496명이었다. 장로교가 주일학교에서 60%, 학생수에 있어서 67%를 차지하고 있었다.[33]

한국교회는 교회를 통한 우리말 한글성경을 보급하며 전 국민을 교육함과 동시에 대학을 세워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 설립을 통하여 놀랍게 활동

31 J. G. Holdcroft, Sunday School Work and Nethods, The Christian Movement, (1914), p. 499.

3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회 회의록〉 (1913), 37, 68. 1913

33 The Coner Stone of Independence Arch, Editorial Department, The Korean Repository, Nov. 1986. 458.



하였다.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1920년에 비해 1921년에는 학생수가 45% 증가하고 있었다. 기독교계 학교 학생수는 1921년 53,821명으로 1920년 87%까지 증대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3 · 1운동 때 나타난 기독자들의 애국적이요 두려움 모르는 고난을 이기는 태도를 본 영향 때문이었다. 장로교 총회가 1920년 총회 안에 '고등교육 장려부' 를 설치하여 각 노회에서 중등학력과 독실한 신앙이 있는 청년을 선택하여 외국으로 유학 보낼 일을 결정하게 된 까닭이 이 급격한 교육열의 폭발에 있었다.[34]

1920년 기독교 학교의 수적 증가는 전대미문의 일로 전라도 한 기독교 학교는 300%가 넘어 기숙사와 교실난을 가져왔다. 아펜젤러도 처음부터 교육사업 중 영어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였고, 이 기관을 통하여 수많은 인재들이 길러졌다. 1886년 6월에 학생 2명으로 자기 집에서 학교를 시작하여 10월에는 20명이 공부하였고, 1887년에는 고종이 '배재학당' 이란 이름을 주어 성장시켜 나갔다. 1887년 9월 정동 근처에 조그만 초가집을 구입하여 '벧엘교회' 를 세웠고 10월 8일 첫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가 감리교의 처음교회인 정동감리교회이다. 아펜젤러는 1888년에서 1890년까지 8도 중 6도를 도보로 걸으며 전도하였는데 아마도 7천 2백 리를 걸었을 것이다. 주로 교회 설립을 위한 후보지 물색과 노방전도, 개인방문 등을 위해 열정적인 방법으로 전도여행을 하였다.

애국가가 교회관계 의식에서 제일 처음 불려진 것은 1896년 11월 21일의 독립문 정초식 때의 일이다. 그 때 배재학생들이 '조선', '독립' 및 '행진' 이

3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352-353.

란 노래를 불렀고 감리교 아펜젤러가 기도를 맡았다. 이때 참집된 인원은 5천 명이었다.[35]

1896년 고종의 탄신일에 교회가 경축 기도일로 모였는데 1896년 2월 각 교회에서 "대군주 폐하와 조선인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미와 기도를 할 터이요 오후 네 시에 모화관에 모여 애국가로 노래하고"[36]라고 독립신문에 기록되었다. 즉 경축일 행사 때 찬송가와 애국가를 함께 부른 것이다. 그는 교육사업과 전도사업 다음으로 성경 번역에 큰 관심을 가졌다. 1902년 6월 첫 주에 목포에서 성서번역위원들이 모이게 되어 참석을 위해 일본 상선인 '구마가와마루 배' 로 조사 조한규와 방학으로 고향 목포로 가던 여학생 하나가 동승하고 있었다. 이 배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인천을 향하여 오던 일본상선 '기소가와마루 배' 와 충돌하여 순식간에 침몰되어 갔고 아펜젤러 목사는 구명선으로 탈출하였으나 같이 가던 일행이 보이지 않자 그들을 구하러 다시 배로 들어갔는데 그때 배가 완전히 침몰되고 말았다. 그는 45세의 젊은 나이에 17년간의 한국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 희생자가 26명이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딸 엘러스는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며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느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1909년 웨슬레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고향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교편을 잡고 있는 동안 그는 깊이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의 거룩하고 숭고한 순교자의 정신을 자신이 이어받아야겠다고 생각하여 1915년 30세에 한국 선교사로 지원하여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그리하여 그는 이화학당에

35 The Coner Stone of Independence Arch, Editorial Department, The Korean Repository (1896. 11월호), 458.

36 〈독립신문〉, 1896년 9월 1일자.



서 영어와 역사를 맡았으며, 언제나 불쌍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그는 1919년 3 · 1 운동 당시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과 고문당하는 소식을 듣고 보면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한 스승이요, 자매였다. 1922년에 그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이화학당 학교기금을 모금하여 1924년에 땅 5만 평을 구입하고 1925년에는 이화전문학교를 여자대학으로 승격시키려고 했지만 일본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이화 전문학교'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취임한 후 학교를 정비했으며 낡은 껍질을 벗기고 새 시대에 맞도록 모든 시설들을 확충해 나갔다. 그의 아들 헨리 아펜젤러도 배재학당 교장으로 열심히 일하였다. 초기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들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달란트를 통하여 각 도시와 지역에서 충실하게 우리 민족 개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세운 새뮤얼 모펫(Samuel Austin Moffett, 마포삼열)은 1864년 1월 25일 미국 인디애나 주 메디슨 시에서 태어나 1888년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후 1889년 3월 26일에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부의 문을 두드렸다.

조선은 중국에 소속된 하나의 작은 왕국이며 깊은 산 숲에는 곰과 호랑이들이 득실거리고 사람들은 미개한 야만인들이며 도전적인 데다가 해적과 같고, 일부다처주의가 일반화되어 있고, 부패한 불교가 왕성한 종교적 나라이다. 또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37]

이러한 미지의 나라, 무지의 나라, 야수와 야만인이 있다는 한국을 그

37 Ibid., 60-68.

는 선교지로 선택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까? 당시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하였다. 그러나 "그는 1889년 4월 15일에 선교부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12월에 미국을 떠나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1890년 1월 20일, 그의 25세 생일날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그는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평양을 선교지로 삼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나갔다. 마포삼열이 평양에 선교본부를 세우려 할 때 평양 인구는 약 1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38] "1893년 2월 말엽에 마포삼열 목사는 이길함 목사와 함께 평양으로 떠나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다가 1893년 11월에 평양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39] 마포삼열은 선교본부를 평양으로 옮긴 후 '사경회' 를 통하여 교인들의 성경공부와 전도인들을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평양장로회신학교는 한국교회 성장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 증가일로에 있는 교회의 요청에 의해 교역자 양성이라는 지상과제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890년 마포삼열이 한국에 온 그해 6월 초기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사역하던 네비우스(Nevius)를 초청하여 선교방법론을 듣던 해이기도 했다. 네비우스의 많은 강의 중 사경회를 중요시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여 교인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이 시작되었고, 1892년에는 서울에서 사경회 형식으로 '신학공부반' 을 조직하여 한 달 동안 지도자 양성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의주에서는 여름철에 사경회를 시작하였다. 이들 중에서 서울의 신학반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의 요구가 대단하였다. 그리하여 마포삼열 선교사는 1900년 서울에서부터 실시해 오던 신학공부반을 정규 신학교로 승격시켜 볼 생각으로 미국 선교본부에 교역자

38 Ibid., 73-104.

39 Ibid., 145-147.



양성기관인 신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선교본부에서는 신학교 설립을 허락함과 동시에 필요한 기금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그리하여 '선교사공의회' 에서 신학교 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합의하게 되었다. 그는 1901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 '성경연구반' 이 모체가 되어 '평양장로회신학교' 를 설립, 교장을 맡아 성장시켜 나갔다.

마포삼열은 1903년 10월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두었던 평양 제중원 자리에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있어 부지를 내놓고 숭의여자학교를 설립하게 하였다. 1906년 한국에서 대학의 필요성을 더욱 느껴 숭실학당 내에 대학부를 신설하고, 1907년 정부의 인가를 얻어 최초의 대학을 운영하였는데 이것이 숭실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는 1919년 '신교육령' 이란 이름하에 시기적으로 미션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어려운 1918-1928년에 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그가 세운 세 학교를 일컬어 '삼숭' 이라고 하였다. 이 무렵 그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던 맥코믹( Mrs. Nettie F. McComick) 여사로부터 5,500달러(1만 1천 원)의 기부금을 얻는 데 성공했다.

맥코믹 여사는 이전부터 한국의 선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포삼열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돕고 있었다. 교정은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 언덕에 5천 평을 마련하고 정초예배를 드리고 몇 달 만에 완공되어 마포삼열의 집에서 이곳으로 학교를 옮겼다. 맥코믹 여사는 기숙사를 위해 1910년에서 1912년 사이에 1만 달러를 보내주었다. 1920년부터 학생수가 날이 갈수록 더해 신학교가 협소하여 가르칠 수 없게 되자 이 실정을 듣고 맥코믹 여사는 1922년 3만 5천 달러(7만여 원)를 보내주어 1922년 5월 15일 정초식을 가지고 새로운 양식의 신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하여 평양의 대소집회가 이곳에서 열릴 수 있었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초대 교장으로 임명을 받고 회갑을 맞던 1925년까지 24년간 목회자 양성

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40]

1935년 3월 야쓰다께가 평안남도 지사로 부임하면서 기독교 학교에 먼저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신학교도 신사참배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함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평양장로회신학교뿐 아니라 숭실전문학교와 숭실중학교, 숭의여자중학교 이사장인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그리하여 그는 뒤를 이어 신학교 교장이 된 로버트(S. L. Roberts, 나부열) 선교사와 맥큔(G. S. McCune, 윤산온) 선교사와 밤 깊도록 협의한 끝에 "폐교가 되더라도 신사참배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런 일로 고민한 끝에 심신이 쇠약해지고 식음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는 그 이상 견디지 못하여 35년간 섬겨오던 신학교 이사장직을 사면하고 말았다. 그는 폐교된 평양장로회신학교를 바라보면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몰라서 하나님을 등진 백성이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서양 귀신이라고 하였고, 그가 찾아오던 그날엔 "여리고의 도성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던 평양이었지만 그가 평양을 떠날 때에는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주일 아침이면 평양은 교회당 종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평양을 중심한 주위에는 1천여 교회가 별과 같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은퇴할 무렵 15만 명의 신자가 생겼고, 1천여 교회에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800명에 달했으며, 졸업생들은 그를 영적 아버지로 모셨다. 그는 세계선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업적은 모두 마포삼열의 도보전도의 열매였다. 그의 도보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한 사랑의 발걸음이었다. 그는 조선 교회사뿐만 아니라 조선 근대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장본인이다. 그

40 H. A. Rhodes. History of Korea Mission Presbyterian in USA, 1884-1934, 438-439.



는 우리나라가 정신적 무장이 없어서 넘어진 민족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신적, 도덕적 자각과 사회정의의 생활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의 평양을 예루살렘으로 만든 마포삼열 박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잊을 수 없는 은인이요, 개척자요, 선각자였다. 때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했고, 어떤 때는 여리고의 험한 길을 걸어야 했으며, 산을 넘을 때면 발이 부르터 피가 흘렀고 산을 내려오면 이미 날이 저물어버렸다. 지각 없는 악한의 돌팔매에 쓰러져 피를 흘리면서도 그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폭도의 습격을 수없이 받으면서도 한마디의 저항도 하지 않았던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는 한 사람이라도 지나쳐버리기를 아쉬워하며 같이 걸으면서 예수를 전하였고 아무리 협소한 골짜기나 오솔길이라도 거기에 인가만 있으면 두 발로 걸어서 찾아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걷기를 좋아했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조선의 산천을 구경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 걸어야만 조선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거리의 사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려고 노력한 충성된 종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통하여 위로는 대학에서부터 아래로는 각 교회마다 교회학교를 세워 국민을 개화해 나갔으며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길러 내었다. 선교사들은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와 문맹을 없이하여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차원 높은 교육정책을 실천하였다.

### 2) 여성 교육으로 세계적 한국 여성으로 성장

여성 교육으로 세계적인 한국 여성을 길러낸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전도회를 통한 운동과 교회 밖에서 일반 기독교 여성 학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교회 안에서의 여전도회를 통한 교육

과 전도활동은 1886년 여의사 엘러스(A. J. Ellers)가 제중원에 부인과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인간애적 차원에서 병의 치료를 시작하였다. 장로교 의사 헤론 선교사도 서울 동부에서 전도하고, 성경반을 가르치며, 여러 사람을 믿게 하고, 1896년 재봉틀을 가르치며 전도하였다. 기포드(D. L. Gifford, 기보) 선교사 부인도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쳤고 그래함 리 선교사 부인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도 서울과 황해도 장연에서 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우리나라 각 지역 선교본부에서 수많은 선교사의 부인들과 여자 선교사들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1899년에는 서울의 교인 237명 중 114명이 여인들이었다.[41]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들이 1892년부터는 개별 전도에 무급으로 나섰고, 심지어 성경공부반에서 교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전에 없던 새 역사의 모습이었고, 이후 이것은 교회의 선교정책이 되었다. 조선교회의 노회 단위 여전도회가 조직된 것은 1915년부터요, 전국연합회 창립은 1928년의 일이었다.[42] 1926년 캐나다 연합장로교 소속 맥도날드(D. A. MacDonald)가 "제도의 결함이 있어서 여자의 숨어 있는 재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 자체가 그 위대하고 유용한 국민을 빼앗음이 될 뿐 아니라 정신상, 도덕상으로 생기는 직접 손실을 자취함이라"[43]고 가르치고, 원산을 중심한 함경도 지역의 선교를 맡았던 캐나다 선교부가 여전도사에게 목회권을 주도록 함경노회에서 총회에 요구하였으나 총회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4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140.

42 Ibid., 448-449.

43 Ibid., 449.



자신의 직분에 의존하지 않고 교회 모든 영역에서 겸허하게 활동해 왔으며 말씀 공부와 함께 교회 성장에 앞장서 왔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한 대학 수준의 교육은 이화대학을 세운 "메리 스크랜턴(M. F. Scranton)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제조업을 하던 남편과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에 그의 나이 40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16세 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조선 의료 선교사로 같이 온 의사 스크랜턴(W. B. Scranton)이었다. 스크랜턴 대부(大夫)는 1886년 6월 52세의 나이로 입국하여 16채의 초가집과 빈터가 있는 땅(6,120평)을 450달러에 사서 '이화학당' 을 짓고 그해 11월에 여학교를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1887년 가을 명성황후로부터 '이화학당' 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44]

>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살 생활환경에서 가정 부인으로서의 모범이 되게 하고 또 친척과 친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45]

그는 6년 후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동대문에 여성교회를 설립하였고, 1895년에는 남대문에 '상동교회' 를 설립하였다. 상동교회는 애국 인사들이 많이 활동한 애국운동의 본부 역할을 하였다. 그는 1896년에 과로로 잠시 미국으로 귀국하였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1897년 한국에 돌아와 감리교 여선교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전도활동을 계속하던 중 1929년 10월 8일 9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의 희생적인 삶을 기리기 위해서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무덤 앞에 이화

44 Ibid., 104.

45 Ibid., 104.

학당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놓았다. 조선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활동은 이화학당을 세운 스크랜턴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화학당은 한국 여성 교육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김활란 박사의 소명적 생애를 통하여 여성 교육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김활란(1899-1964)은 1918년 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슬리언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석사 학위를 받고 각종 기독교회의 등에 조선 대표로 참가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1930년 그는 두 번째의 미국 유학길에 올라 콜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1931년 철학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46] 1939년 그는 마침내 이화여전 교장에 취임하여 개교 53년 만에 이화여전으로는 2대 교장이 되었다. 일제는 미션계 학교에도 신사 참배와 가미다나(神棚) 제사 등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폐교 처분을 내렸다. 당시 미일 관계 악화로 미국인들을 스파이로 모는 등 박해가 심해지자 1940년 이화에서 가르치던 선교사들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3년 일제의 탄압은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이화대학 본관 지붕에 달린 십자가를 떼어내고, 창설자 스크랜턴의 동상도 철거해 버리고 일본군대를 주둔시키기까지 했다. 1945년 4월에는 '이화대학'을 '경성여자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꿔버렸다. 김활란 박사는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그들의 간악한 핍박 속에 자유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으며, 젊은 조선 여성들에게는 정신근로대(위안부) 등 일제의 총칼에 위협을 느껴 일제를 협력했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사랑이신 주님은 한 날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끊임없이 붙들어주셨다. 부족한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라고 하였다.[47]

46 성갑식, op.cit., 154.

47 김활란 외 4인, 《나는 왜 기독교를 믿는가?》(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7). 7-8.



> 우리는 그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죄를 숨김 없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 신앙생활보다 더 기쁘고 만족한 생활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남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남을 지배하기를 또한 원치 아니한다.[48]

김활란은 지난날의 일제 말엽에 지은 죗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은퇴 후에 이화의 교직원과 학생들로 "금란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전도했다. 그리고 1970년 2월 10일, 71세 생일을 앞두고 당뇨와 동맥경화증을 앓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싫다. 더 풍성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환송해 주는 환송예배를 장례식 대신에 해주기를 바란다."[49]

1994년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해로 총회에 헌의안을 제출한 지 62년 만에 여자 목사와 장로가 탄생함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상 획을 긋는 해가 되었다. 여성 안수가 되지 못하여 국제화시대에 다른 나라 교회와 교단 여성들은 국제대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한국 여성 지도자들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었다. 다른 나라 여성지도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며 성찬을 집례하는데 우리 한국 여성 지도자들은 그 사역을 하지 못하다가 장로와 목사직을 받게 되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직분의 문제로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오늘 한국 여성은 세계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게 되었다.

### 3) 산업 발전을 향한 적극적 계몽운동

초기 선교사들과 교회는 나라 전체에 만연한 빈곤과 경제적 모순의 문

48 Ibid., 10-11.

49 성갑식, op.cit., 155.

제를 보면서 대단한 도전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교육시켜 나갔다. 당시 우리나라는 관청의 가렴주구로 국민은 나태와 빈곤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산업 발전과 경제 향상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 물산장려 계몽운동은 3·1 운동 직후 일어난 운동으로 민족운동과 문화운동을 일으켜 앞날을 대비하려 했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조만식, 김동원, 이승훈 등 기독교 인사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운동이다. 이 운동의 주요 내용은 토산품 애용 운동, 일화배척 운동, 외래품 배척 운동이었으며 장로교 소속의 면려청년회, 장로회 총회 농촌부, 각 노회에서도 이 운동을 채택하여 발전시키는 등 기독교 내에서도 이를 하나의 신앙운동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50]

>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 우리 생활은 파괴될 것이다. 우리가 무슨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참으로 사람다운 발전을 희망할 수 있으리오? 우리 생활의 제일 조건은 곧 의식주 문제, 즉 산업적 기초가 파멸을 당하여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다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같은 경지에서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장려 운동을 계몽하기 위하여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고 첫째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이와 같은 각오와 이와 같은 노력 없이는 조선 사람이 그 생활을 유지하고 그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으리오.[51]

당시 우리나라는 조그만 농사일에도 관청의 가렴주구가 심하였지만

50 세계교회협의회, op. cit., 83.

51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교문사, 1984) 668-670.



동시에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정직과 성실의 상업윤리 및 근로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부터 가르쳐 나갔다. "참 종교를 신봉하는 실업가는 자기 신용을 금전보다 몇 배나 존중히 여기는 고로 계약을 지키며 불완전하거나 좋지 못한 물품은 제조하지도 아니하며 팔지도 아니하며, 물건 값에 추호도 에누리가 없으므로 한 번 명예를 얻으면 필경은 큰 공업을 성취키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52]라고 가르치며 계몽해 나갔다. 또한 교회는 유통거래의 합리성, 상품의 우수성, 신용, 그리고 실업인이 가져야 할 윤리성 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청교도적 윤리와 자본주의의 근원적인 모습임을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의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스며들자 그들은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과 이웃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로 성장해 나갔다. 그리하여 당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생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895년에서 1903년에 우리나라의 항구를 통한 무역고는 1895년 백 만 달러에서 1903년에는 천사백 만 달러로 성장하고 있었다.[53]

나라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사회적인 기반이 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반은 이런 풍토가 전혀 조성되지 못하였고, 근면한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건은 관공서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나태해지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 아래서는 산업 발전과 경제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교사들과 지도자들은 "스스로 돕고 스스로 번영시킬 줄 아는 능력을

52 〈그리스도신보〉, 1912. 8월 30일자.

53 W. E.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1907, 신복용 역 (서울: 탐구사, 1976), 191-192.

가르쳤으며, 이러한 교훈은 성경적 복음에서 비롯되었다. 장로교의 대담하고도 적시에 실시된 자조자립정책이 이런 정신에 촉진제 구실을 하였다."[54] 장로교 발행의 〈그리스도신보〉는 그 창간호부터 국민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산업인 농업과 농민들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계몽해 나갔다. 그리하여 미국 공사 실(J. M. B. Sill)의 글을 실으면서 농사 개량법을 연재하였다.

> 이후 신문에는 농사의 이치를 여러 번 기록할 것이니 이 법을 자세히 보고 이 이치대로 농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었다. 장로교뿐 아니라 감리교에서도 그리고 침례교의 펜윅크(M. C. Fenwick)의 농업기술 전문가의 글들을 신문에 연재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사과나무 재배의 기술을 가졌던 다위(G. W. Dye)의 글도 계속 실어 농사법을 보급하였다. 이러한 글들은 한 분야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시간 절약과 능률의 극대화와 안전에서부터 소를 기르고 새끼를 낳게 될 때의 방법과 외양간 짓는 방법, 면화와 직물, 기름 짜는 방법, 파 심고 양털 짜는 방법, 토양 이용법과 농업 지식 전달과 농업 개화에 이르기까지 당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나갔다. 사과 재배법과 벌레 구충법을 가르치며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교회마다 과수원을 하나씩 두어 자립정신도 기르며 여유 있는 생활로 나아가게 하였다.[55]

한국교회는 산업화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다고 하여도 사회 전반에 걸친 분야에 교육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고 혁신적이거나 혁명적인 방법을 거부하였다. 기독교의 사회개혁은 복음적 정신의 내적 윤리의식

5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169.

55 Ibid., 71-172.



으로 그 추진력을 삼고, 민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전통에 대한 존경, 그리고 왕을 존경하며 충군적 기상으로 애국심을 가르치면서 내실에 차고 넘쳐서 필경 밖으로 나타나는 점진적 개혁으로 이끌어갔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강력한 운동이었다.[56] 교회가 바라는 것은 다만 개인 인격의 재생,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의 정화, 정부의 안정이나 겨레의 복리에 불가결한 정직과 도덕, 그리고 정의의 통치와 가르침이었고 비전이었다. 교육에 의한 개혁은 얼른 보면 멀고, 느리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길은 실수가 없는 길이요, 가장 완전한 결실을 얻는 길임을 배워야 할 것이다.

### 4) 산업의 주축을 이룬 농촌 계몽운동

개신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온 의사이며 목사였던 귀츨라프(K. F. A. Gutzlaff)는 1803년 7월 독일 포메라니아(Pomerania) 지방의 피리츠(Prytz)에서 유태계 독일인으로 태어났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발상지였던 할레(Halle)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가 네덜란드 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32년 7월 17일이었다.

> 그가 서해안인 충청도 홍성 고대도에 상륙하여 약 40일 동안 있었는데 이것이 개신교 선교사로서 처음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57]

그들은 통상을 원한다는 청원서와 선물들을 보냈는데 귀츨라프는 서울에서 회답이 오는 동안 한국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감시가 소홀할 때 섬 사람들에게 성경과 의약품을 나누어주었다. 또한 이곳에 머무는

56 Ibid., 173.

57 새문안교회 당회, 《새문안교회 70년사》 (서울:종로구 새문안교회, 1958), 13.

동안 한국 역사에 뜻깊은 일을 하였는데 성경, 전도지, 약의 종자 등을 그곳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동시에 감자 씨를 나누어주면서 그 심는 방법과 재배방법을 가르쳐준 것이다. 이에 따라 감자를 재배하게 하여 우리 민족의 배고픔을 모면할 수 있게 한 것은 귀츨라프의 공헌이 아닐 수 없다.[58]

캐나다 선교본부 맥케이(R. P. McKay)는 1908년 초에 이런 글을 남겼다. "선교사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제의 무도한 잔학 행위나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으로 보인다. 나는 20세기보다는 중세기를 방불케 하는 이런 일제 압제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온통 저항한다."[59]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일제는 서울과 특히 평양에서 군사 수용을 구실로 막대한 농토를 수탈하였다. 서울에서도 남산과 한강 사이의 광대한 옥토에서 농민 150호를 무일푼 보상 없이 철거시키고 평양의 의성에서는 3천 에이커의 농장을 강탈한 사건이 1905년에 일어났다.

> 평양에서만 1904년 234,000 정보, 1905년에는 580,000정보의 수탈과 200여 농가구의 무보상 추방으로 강탈을 자행한 일제 군부는 1906년 7월에는 누계 8,000여 농민들을 추방하고 3,400,380 정보의 농토를 계속 수탈하였다.[60]

이러한 일제의 강탈행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은 1920년대에도 조금도 큰 진보를 보이지

58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1》 (1997, 교문사), 129.

59 H. B. Hulbert, Japanise and Missionaries in Korea (New york, Doubleday, 1906), 206.

6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1984.



못했다. 일제의 체계적인 농촌 수탈정책으로 가혹한 농촌경제는 날로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비싼 물가고로 인하여 한 끼니 이상 먹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었으며, 추운 겨울철에 땅에 굴을 파고 추운 겨울을 멍석으로 지새는 이들을 보노라면 터지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한 선교사는 말하고 있다.

> 조선 농촌의 심각한 문제는 소작농의 절대 빈곤에 있었다. 1925년 전 농토인구의 76.8%가 소작농이었다. 호당 평균 수입이 102원에 평균 지출 105원이란 역조였고 해마다 채무는 쌓여 면할 날이 없었다. 그들은 반 이상의 쌀 수확, 35% 이상의 밭 수확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다. 거기에 세금, 비료, 지주에게 선물까지 하고 나면 3분의 1도 남지 않았다. 이러한 처절한 경제적 궁핍으로 한국 백성의 반이 기아상태를 목격해야 했고, 나무 열매나 초근으로 연명하며 땅굴에서 사는 이 백성의 가난과 비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61]

이렇게 일제에 강제 수탈당하고 도탄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 선교사들이나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교회는 실망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을 해나가야 했다. "1924년 북한지역의 기독교 가구는 40%가 평균 60원의 빚을 연 3할 이자로 지고 있었으며 서울 부근에서는 80%가 평균 100원을 연 4.8할의 이율에 빚지고, 남한지역에서 81% 기독교인 가구가 그들 수입보다 많은 빚을 지고 3.6할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여기 좌절의 심리학이 깊이 깔리지 않을 수 없었다."[62]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소득이 없을 때 인간은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교회의 농촌계몽운동은 1926년 4월 YMCA에서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61 Ibid., 375-376.

그들의 설립 목적은 "우리는 조선에서 농촌사업이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우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협력할 것이며 그들 일상과제에서 정신적 과제를 도우려고 한다. 우리는 촌락에서 문명 퇴치에 전념할 것이며, 농촌 인구의 필요한 다른 교육과정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개선된 농업방법, 가정의 향상, 마을산업, 협동정신의 합법적이고 우애 넘치는 표현을 통해서 경제적 조건 향상을 위해 일할 것이다." 기독교 청년회는 교회를 돕고 그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출발하였다.[63]

한국 농업 선교의 선구자 러츠(D. N. Lutz)는 북장로교 파송 농업 선교사로 1921년에 내한하여 과수원 재배의 혁신적 개량, 언덕진 산전의 개간과 콩류의 재배 및 목축, 토양 분석, 깡통산업에서 결정적 공헌을 남긴 인물이다. 지방 교회치고 과수원을 소유하고 경작하지 않는 곳이 없으리만큼 되었던 것도 그의 영향 때문이었다.[64]

한편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농촌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분은 김용기(1912~1988년) 장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경기도 양주에서 중농인 김춘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어느 전도인으로부터 받은 전도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영생 얻는 진리"에 감동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양반 가문에서는 드물게 예수교인이 되었다. 이 지역

62 E. S. Brunner, Rural Korea, "A Preliminary Survey of Ecnomic, Social and Religious Condition", The Report of the Jerusalem Meeting of international Mission Conference (1928) Vol. IV, op.cit., 110-111.

6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443.

64 Ibid., 442-444.



은 일찍부터 선교사들의 전도가 시작되었던 곳으로 1902년에는 양주군 와부면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주로 클라크(C. A. Clark, 곽안련)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그가 1919년 14세 때에 양주에 있는 광동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이 학교는 몽양 여운형 선생이 설립한 학교였다. 그는 이 학교에서 성경, 산술, 지리, 역사를 배웠고, 여기서 여운형을 만나 참다운 지도력에 대한 훈련을 쌓게 되었다. 그는 19세에 광동중학을 졸업하고 중국의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만들어 볼 생각도 했으나 심양(봉천) 서탑교회의 이성락 목사의 지도를 받아 귀향하였고, 성경을 탐독하면서 강화도 마이산으로 가서 40일간 기도에 몸을 던진 적도 있었다.

그가 23세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창세기 3장 16절에 근거하여 "농사꾼이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58세에 돌아가셨다. 그 유언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인일수록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역대로 지식인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무식한 촌민들만 이 농사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문명 등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되어 결국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꾼으로 지낸 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언이 큰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농사짓기에 나선 후 농촌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가 꿈꾸었던 '이상촌'은 10가정이 이루는 촌락으로 계획하였다.

김용기는 경기도 광주에서 돈놀이하는 사람을 찾아가 담보 없이 4백원을 빌렸다. 빌린 돈에서 90원으로 마을 너머의 평당 3전 하는 산 3천 평을 사서 개간을 시작하여 과목을 심고, 젖염소 한 마리를 사서 키우며 개간에 뛰어들었다. 개간사업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것은 '할 수 있다'는 확신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뒤 5회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 그리고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그의 이상촌에서 특별히 주

목되는 것은, 이 이상촌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동지애로 뭉쳐 자신감을 얻었고 이 이상을 조선 전체적으로 전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상촌은 일제 강점하에서 민족애로 뭉쳐진 공동체로 그들이 이상촌을 설립하려고 한 것도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는 한국의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식민지 백성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사회적 민족 모순을 해결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상촌은 민족 해방 운동자들의 은신처 역할도 감당하였으며, 저녁에는 단파 라디오를 통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이상촌 마을의 각 집 문전과 정원에는 대여섯 그루 이상씩의 무궁화가 있었을 정도로 그들의 민족의식은 남달랐다.

그의 농민운동사에서 그가 본격적으로 이상촌 건립을 목표로 농민운동에 나서는 것은 1930년대 중반인 1936년경으로 일제가 '국가총동원법' 을 제정하는 등 '전시비상체제' 를 강화하던 시기였다. 말하자면, 한국 농민에 대한 일제의 수탈정책이 조선과 일본이 동조하고 '농공병진' 이란 명분하에 한국을 강점하고, 토지소유관계를 근대화한다는 명분 아래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동양척식회사' 를 설립하고 빼앗은 토지를 관리케 하면서 일본인을 이민시켰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토지와 경작권을 빼앗기고 러시아와 만주로 살 길을 찾아 이주하는 자들이 많았다.

한국인들은 일제가 너무도 무참하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착취함으로 각 곳에서 '소작쟁의' 를 일으키고 있었고, 일제는 소작쟁의를 막기 위하여 1932년에 '조선소작조정령' 을 제정했다. 1930년대에 들어 일제는 제2, 제3차 미곡증산계획을 세웠으나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고, 농촌진흥운동과 자력갱신운동을 벌이며 '조선소작조정령' (1934년)을 반포하였지만 농촌의 상황은 더 어려워갔다.

이 무렵에 김용기는 이상촌 운동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고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농촌운동은 일제의 전시 체제 강화로 농촌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어 농민들이 신음하면서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



던 한국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북돋워주는 운동으로 등장하였다. 그의 이상촌 운동은 기독교 계통의 농민운동으로 문맹 퇴치, 농사 개량, 부업 장려, 농사강습회의 개최 및 농촌 지도자 양성기관의 설립 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의 이상촌 운동은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일제가 강요하는 공출을 피하기 위해 공출하지 않는 고구마 생산을 장려하였던 것은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사상' 에 나타난 대로 기독교적인 신앙과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농업을 하나님이 내신 천직으로 알고 거기에 몰두했던 선각자였다. 그의 농촌 농민운동은 다른 기독교 농민운동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의 기독교 신앙과 합리적인 사고와 지식, 실천적인 활동이 한국의 농촌사업, 농업경영, 농민의 계몽과 교육에 미친 공헌으로 그는 일찍이 성자로 추앙받던 의료계의 장기려와 함께 한국 기독교계가 배출한 훌륭한 농민 운동가였다. 해방 후에 '가나안농군학교' 를 통해서도 기여한 바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조선 농촌운동가이며 애국자요, 목사였던 배민수(1896-1968년)는 충북 청주에서 의병의 아들로 출생하여 3 · 1운동 때에도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1년 2개월 동안 투옥당했으며, 1928년 미국에 건너가 유학한 후 1934년에 귀국하여 농촌선교에 뜻을 두고 장로교 총회에 농촌부를 신설하고 초대 총무가 되어 본격적인 농촌운동을 전개하였다.[65]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농우회를 조직하고 이것을 민족운동의 기본단위로 하려고 시도했다.

한국교회는 1934년 장로교가 농촌 순회 지도를 하면서 5,447명에게 가르친 것 역시 영적인 교육과 함께 육적인 지식이었고, 1935년 순회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은 15개소 4,500명에게 지도하여 영적 감회가 넘쳐 통회함

65 세계개혁교회연맹, op. cit., 358.

과 동시에 지도받은 대로 실시하겠다고 결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1925년 우리나라 소작농은 76.8%로 절대 빈곤 상태였으며, 추운 겨울을 멍석으로 지새야 하는 이들을 보노라면 터지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다고 글을 남긴 선교사들이 있다. 일제의 이런 착취를 보는 선교사들과 직접 겪어야 하는 한국교회는 무장 투쟁은 삼가면서도 정신적 강인함과 정의감으로 정당한 합법적 처우를 요청하며 관철해 나아갔다. 이렇게 나라의 실정을 바로 잡아가려고 진력하였으나 국민은 갈수록 어려움에 빠졌다. 그들은 농촌사회를 좀먹고 있던 낙망과 좌절에서 일어서도록 하면서 동시에  악습과 미신적 숙명론을 극복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강인한 결단력의 인격을 갖게 하는 데 노력하였다.

## 5. 소외당한 자를 위한 계몽운동

### 1) 고아들을 위한 자선사업

1886년 언더우드 목사는 "고아원을 자기 집에 세우고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김규식 박사도 그 고아 중에 하나였다. 언더우드의 가정에서 고아원을 할 때 그의 부인이 그들을 어머니처럼 돌보며 헌신했으며 과로로 지쳐 미국에 건너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고아원은 후에 '예수교 학당' 으로 개칭되었고, 후에 경신학교로 발전하였다."[66] 1900년 다른 선교사들도 자선사업에 눈을 돌려 서울의 모화관(고아원)에 20명이 넘는 고아를 수용하였다. 선교사들이 불쌍한 고아들을 모아 생활하게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교육 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또한 생업을 위한 교육도 하였다. 농사하는 일, 물건을 제조하는 일, 여자아이들에게는 가사 돌보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등을 가르쳤다.

66 성갑식, 《그리스도교대사전》, 702.



1904년 군산에서 일하고 있던 전킨(W. M. Junkin, 전위렴) 목사가 너무 몸을 돌보지 않고 과역하였기 때문에 이질이 재발하여 선교회에서는 그의 건강을 도와줄 목적으로 그를 전주 서문밧교회로 전임시키고 전주 근처 20리 이상의 순회전도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의 불붙는 열정은 사그라질 줄 몰랐다. 1906년에는 전주 서문밧교회를 크게 전축하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전주 부근에 6개 예배처소를 설립하였다.

포사이드( Dr. W. Forsythe) 의사와 더불어 고아원을 만들어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선교부에서는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바쳐 봉사한 군산에 그의 시신을 안장하였다. 그의 무덤 옆에는 전일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세 아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의 아내는 비문에 한글로 쓰기를 "전 목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 이라 하였다.[67]

초기 선교사들은 이런 일을 하였지만 한국교회나 실업인들 중에서는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구세군은 이미 1919년 거지들을 위한 시설을 구세군사관학교에 마련할 수 있었다. 장로교회는 1935년 12월 1일 김익두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 '삼동회' 를 피어선 성경학원에 설치하여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방과 따뜻한 처소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무료 숙박을 하게 하여 위급한 일을 막아보려 하였다.[68]

1919년 1월 오긍선(1878-1963년)이 서대문 옥천동의 옛 언더우드 구제원의 터를 3천여 평 구입하여 경성보육유원을 설립하였고 1931년 경성 양로원과 함께 견실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69]

67 G. T. Brown, Ibid., 47-48.

6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편, op. cit., 423-424.

교회의 고아들을 돌보며 교육하는 일은 일제시대보다는 6 · 25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미국의 기독교 기관들의 협력을 받으며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밥 피얼스(Bob Pierce) 박사가 전쟁 중에 있는 한국을 방문하여 고아원을 설립하여 많이 도우며 미국 여러 기관의 협력을 얻어냄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한국 전쟁 고아의 모습을 전하며 한국을 도울 사람을 찾는 일을 사명으로 느껴 행동한 것이다. 이런 호소를 통하여 한국에 와서 직접 일한 사람은 말리 홀트 부부였다. 이들은 밥 피얼스 박사의 간곡한 목소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 직접 한국에 와서 살면서 부모처럼 고아들을 도왔을 뿐 아니라 1955년부터 지난 45년간 26개국에 20여만 명의 어린 생명에게 부모를 연결해 주었다.

### 2) 양반과 천민의 계급의식 타파와 한 형제자매 실현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특히 5백 년 유교의 전통 안에서 양반과 상민의 엄격한 차이가 있어서 서로가 한자리에 앉아 식사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나라였다. 이런 사회 신분제도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천민의 해방운동을 기독교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려고 노력하였다.

> 1895년 4월 12일 서울 반잿골에 사는 백정 일동이 정부에 호소하는 진정문 하나를 보냈다. "우리는 5백 년 동안 광대보다도 더 비참한, 가장 천한 사람들로, 갓이나 망건도 쓰지 못하면서 사회의 천대를 받아 이제 그 비통이 마음에 와 뼈에 사무쳤습니다. 이제 조정이 옛 악습을 폐기하는 작업을 한다 함에 불초 무릎 꿇고 소청하오니 팔도에 공문을 보내 백정들을 더 이상 구박 못하게 하고 우리로 갓과 망건을 쓰도록 해주십시오." 이 백정들은 이 후에도 여러 번 진정서를 다른 조건으로 해서 제출하였고 1896년 3월(음력)에는 그들도 호적에 올려지도록 간청 역시 윤허되었다."[70]

이들의 아픔 중에 가장 컸던 것 중 하나는 "삼척동자 아이들이 우리에게 하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71]

이런 대담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곤당골에 사는 백정 박 씨와 지 씨였고,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회변혁의 구체적 제도 개혁을 수행하게 한 사람이 바로 무어(S. F. Moore, 모삼열, 1860-1906년) 선교사였다. 그는 1892년 9월에 한국에 온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맥코믹 신학교 출신으로 고종에게 전도할 정도로 열정의 사람이었다. 실상 교회는 이 진정서를 보내고, 허락이 나서 전국에 공포문을 보내고 그 허락이 나붙을 때까지 특별기도제목으로 삼아 계속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 진정은 곧 수락되고 갓과 망건을 자유로 쓰되 내적 교양의 향상도 아울러 갖추라는 내부의 교시가 동봉되어 있었다. 1898년 3월에 수원 지방에서만 백정과 그의 가족들이 합하여 12명이 신앙을 고백하였고 그 부근에서 교회를 창설하는 데 앞장섰던 백정이 여럿이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부수고 한국교회는 양반과 천민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였다.

69 Ibid., 424.

70 대한예수교장회총회 편, op. cit., 123.

71 세계개혁교회연맹, op. cit., 35.

### 3) 우상 타파로 국민정신 계몽

당시 양반들과 지배적 소수자(dominant minority) 밑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던 민중은 생을 자포자기하며 고려시대 이후 성행해 온 풍수사상과 고래로 우리 민족의 심성을 잘못 이끌어 온 무속사상(Shamanism)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 1898년 한국 사람들이 미신에 영적인 노예가 되어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 쓰는 비용이 그해 국가의 세금 수입의 거의 세 배나 달했었다.[72]

그 결과 백성들은 극심한 빈곤으로 삶이 말이 아니었고, 위로는 대궐로부터 아래로는 가장 보잘것없는 오막살이에 이르기까지 미신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클라크(Rev W.M. Clark, 곽안련)는 샤머니즘(Shamanism)은 교육받은 계층보다도 보통이나 무학 계층의 사람들의 종교라고 하였고, 기포드 목사(Rev D. L Giford, 기보)는 오늘 샤머니즘은 한국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종교라고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조상 숭배 사상은 살아 계신 부모에게 드려야 할 효성을 살아 계실 때에는 온전히 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드리는 일에만 치중하였다. 이러한 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조상 숭배와 제사가 미신화되어 제사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우상 행위로 전락되어 있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철저히 제사를 금지시키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성을 다하도록 지도하였다.

---

72 Chang Ki Lee, The Early Revival Movement in Korea (1903-1907) (Utrecht: Universiteit Utrecht, 2003), 144-145. 이 책은 우트레히트 대학에 제출된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이다.



>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런 귀신과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살며, 우상을 숭배하던 한국 사람들에게 영적인 해방을 가져다주었다.[73]

기독교가 변혁시킨 커다란 사회 개혁 중 하나는 이러한 우상 숭배 사상을 무너뜨린 것이다. 미신적 굴종에서 벗어나 광명의 빛을 본 사람들의 감격과 변화된 삶의 기록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우상 숭배의 집행자들이었던 무당이나 관수들의 회개가 많았다. 교회가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우상이나 미신의 폐해를 조리 있게 가르치며 우상이나 미신이 우리를 불운이나 불행으로 몰고 간다는 허황된 망상과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르쳤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 이러한 무속신앙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전국적으로 퍼져 많은 국민이 몰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과 사명을 재인식하게 된다.

### 4) 술, 담배, 금창과 아편의 금지로 국민 건강 보호

한국교회의 절제운동은 금주, 금연, 금창(禁娼)뿐 아니라 아편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술은 당시 전 국민의 정신을 마비시켜 버릴 위기에 도달해 있었으며, 아편이 전매행정 처리로 취급되고 있는 심각성을 보면서 교회는 철저하게 절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금주 시위행렬까지 행하기도 하였다. "술이 있고서는 경제학자들이 부국론을 부르짖고 사회주의자들이 계급 철폐와 평균 분배를 외친다고 하여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더 빚어낼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교회는 영적인 부활을 강조하며 사람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근본적인 악성을 개조하여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절제운동은 '오직 조선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것

---

73 Ibid, 144-145.

으로 "동포여, 조선 안에서 술 담배로 소비되는 돈이 총합 103,893,824.00 원이다. 동포여, 우리의 당면한 대문제를 해결함이 오직 금주 단연함에 있는 것이다. 이 액수는 백 평 기와집 94,448채, 그리고 519,469명의 생활비, 소학교 800교, 고등학교 600교의 교육비로 각각 환산되었다."[74]

1890년 중반부터 술에 대한 교회의 철저한 금지가 시작되었다. 1897년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통하여 교회가 그것을 금하게 된 배경을 볼 수 있다. 인간성 왜곡과 삶의 혼돈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 교회 금주의 핵심이었다. "술로 인하여 패가하고 망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듣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 교회는 술을 많이 먹는 것을 금하는 것만 아니라 한두 잔이라도 금하고 또 그뿐 아니라 술장사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 재화를 크게 해치는 것이 술이므로 옳게 생각하는 사람은 술을 없이 하기를 힘쓸 것이니 술은 수고하여 모은 재물을 빼앗으며 걸인과 죄인을 만들고 집을 망치며 협잡과 퇴물과 사경에 도달하게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하고, 유익한 곳에 쓸 돈을 해로운 일에 허비하여 항상 궁색하게 하니, 만약 술에 없애는 재물을 일상생활에 쓰면 다 흥왕하고 돈 없어서 어려워하는 일이 구름처럼 없어질 것이니 경제상으로나 도덕상으로나 술은 없이 할 물건인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두니 이상한 일입니다.[75]

초기에는 경제적, 도덕적 이유와 새 역사의 사명감을 강조하였으나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주와 금연의 성경적 근거를 들면서 더욱 강화해 나갔다.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 교회법의 불이행, 부모형제에 대한 잘못된 말들, 자신의 몸에 대한 해독을 말하며 금하였다. 그리

7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 427-428.

75 〈회중신문〉, 1987.12.29



고 담배에 대해서도 "담배를 과히 먹는 사람은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염통이 벌럭벌럭하고 수전증이 나고 안력에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많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1910년 교회는 신체상, 정신상, 경제상 해독이 많음과 우리 영혼의 거룩한 집을 더럽히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금지해 나갔다.

아편에 대한 교회의 투쟁도 철저하였다. 오히려 정부의 금지조항이 느슨하다고 보아 몇 해 안에 백성의 씨가 없어질 만큼 위험한 사회적 병균인 것을 고발하며 교화해 나갔다. "일제는 1918년 아편 재배를 위하여 18만 2천 불의 총독부 예산을 세워 야만적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한 선교사는 자기 선교구역 안에서만 13개소의 아편 재배 밭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76]

> 1905년 평양의 한 일본인이 경영하는 약방에서 연 평균 하루 30원 어치의 아편을 매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 교회 병원에서 한 달 평균 35인 정도의 회생 불가능한 아편 중독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물론 전에 청국 상인이 아편을 조선에 밀매하였다. 그러나 그 피해는 지금 같지 않았다. 교회의 저항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하다.[77]

술과 담배의 절제로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겪는 많은 아픔들이 있다. 그러나 술과 담배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더욱 조심하며 삼가는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 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여 가정을 지키며, 건강을 지키며, 창기와 짝하는 죄악을 강조함과 동시에 아편이 일반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어지럽히려고 하던

7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op. cit., 164.

77 Ibid., 164.

일제시대에 시기에 맞는 정책을 선언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 6.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 1) 고난과 절망 속 이민 동포와 동행하는 한국교회

러시아 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고국 강산을 이별하고 의지할 것 없이 외로운 나그네로 불쌍히 죽지 못하여 살아가는 생명이 50만 명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최관흘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 만주를 찾아가는 한국의 실향민들은 엄동설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헌옷을 걸친 무언의 사람들 한 떼가 열 혹은 스물, 쉰씩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눈 덮인 산 언덕을 넘어 힘없는 발길로 걸어갔다. 만주의 나무 많고, 돌 많고 버려진 땅에, 생사를 걸고 이들은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여럿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기도 한다. 부녀자뿐 아니라 청년들까지도 얼어서 죽어가고 있다.[78]

한국교회는 1909년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 유학생들을 위해 파송하였으며,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창립총회가 조직된 후 그 기념으로 미국 선교사들도 어려워하는 지역인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외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교포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돕는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 온 것이다.

78 Ibid., 276.



### 2) 반일사상과 애국하는 교회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명성황후를 그의 침전 옥호루에서 일본 무장인들 손에 무참하게 숨지게 하고 그의 시신을 경복궁 뒤뜰 녹산에서 재가 되도록 소진되게 하였다. 이 충격은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였으나 이런 살인범들을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나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고종 황제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왕실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반일애국의 인도주의적인 길을 걸어갔다. 명성황후 사건 당시 통역을 맡았던 게일 선교사는 국왕이 처절한 모습으로 흐느껴 울며 명성황후를 일본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면서 누가 이 비참함에서 구원해 준다면 머리털을 잘라 신발을 짜서 국모의 죽음을 갚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할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일본 사람 몇을 붙들어 오긴 했지만 모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 버렸고 고종 황제도 일본이 두려워 세자를 데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간이나 도망 가 지내야 했던 처절한 시대 상황이었다. 아관파천은 "을미사변 후 극도의 불안함에 빠져 있던 고종 황제가 스스로 결심하여 결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신교는 이처럼 나약하고 위태로운 황제를 황제답게 모셔야 함을 온 국민들에게 알게 하고 황제의 신원을 살피며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황제가 아관파천 상태에 있을 때 "1896년 9월 2일 고종의 탄신일을 맞아 서울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경축행사를 개최하였다. 교인들은 모화관에서 경축회를 가지며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리 준비한 찬양가로 "높으신 상주님"가를 부르며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직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황제를 바라보며 그가 서야 할 자리에 서도록 기도한 것이다. 또한 1897년 2월 20일 고종이 아관에서 현 창경원으로 환어할 때에도 교회는 태극기를 높이 달고 전 국민이 뜨겁게 왕실에 충실하도록 하며 기

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했다.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국왕의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공분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밤을 지새우며 위험을 막아주기도 하였다. 초기 수적으로는 매우 미약한 조선교회였지만 알렌과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이 왕실과 국권이 가장 위험한 시대에 왕실의 협력자로 일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왕실이 이처럼 나약했을 때 국민의 생활과 삶은 어떠했는가!

> 재산은 강탈되고, 부녀자들은 욕을 보고, 남자들은 강제노동에 혹사되며 억울하게 구타된다.[79]

교회가 반일하는 것은 그들의 비인도적이며 강제적인 강탈을 막으려는 정당방위였지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1904년 노일전쟁 때 "서울과 특히 평양에서 군사 수용을 구실로 막대한 농토를 수탈했다. 서울의 경우도 남산과 한강 사이의 광대한 옥토를 징용하고 거기 농민 150호를 무일푼 보상 없이 철거시켰고, 평양의 의성에서는 3천 에이커의 땅을 역시 강탈한 사건이 1905년 여름에 터졌다."[80] 이뿐 아니라 "평양에서만 1904년 234,000정보, 1905년 580,000정보 수탈과 200여 농가구의 무보상 추방으로 강탈을 자행한 일제 군부는 1906년 7월에는 8천여 농가구를 추방하고 3,400,380 정보의 농토를 계속 수탈하였다."[81] 일제는 이러한 강탈행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농토를 수탈당하고 집을 몰수당하여 오갈

[79] Missionaries and Politics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1910. 3월호.), 230.

[80] 〈대한매일신보〉, 1905. 10. 18.

[81] The Pyung Yang Land Case, The Korea Review (1906. 7월호)



데 없게 된 이들이 살 곳을 찾아 간 곳이 만주나 시베리아였다. 조선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장투쟁은 삼가고 정신적인 강인함과 정의감으로 정당한 합법적 처우를 요청하였다. 나라의 위기를 맞아 나라를 탈취하려는 일본의 만행에 동조할 수 없었고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것이다.

일본은 독일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그들의 죄악을 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모든 범죄를 은폐하며 사죄하지 않는 야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이 언제 진정한 참회를 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보며 진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을 행했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애를 발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리라고 생각된다.

군선교신학 제9권

#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1]

## The Hindrance Element in the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안명준 Ahn, Myung Jun

■ 합동신학대학원(M.Div)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Th.M..)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 남아공 Univeristy of Pretoria (Ph.D.)
■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 역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서론

지금 세계는 매순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학문명의 발전과 변화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변화와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사상적 경향과 삶의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즉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 방식이 해체되고 있다. 지금 현대사회는 탈권위주의, 탈전통주의, 탈이성주의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1] 이 논문은 2007년 제9호 조직신학연구에 발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기존의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현상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국교회 역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세상의 물결의 세파에 밀려 요동치고 있으며,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로 인해 정상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교회는 노년 성도들과 어린아이들로 구성되어 교회 존립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으며,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점점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목회자들 역시 많은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가정적 파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벌써 많은 신학적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점점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으며,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며, 교회를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신학자들에게 듣기를 원치 않고, 듣기 좋고 부담 없는 인간의 감각적 소리들로 가득한 영혼의 웰빙 하우스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멀지 않아 한국교회는 그 근본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교회는 스스로 자성하며 1907년의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 번 이어받기를 소망하였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2]이란 무엇

[2] Jonathan Edwards는 부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revival of religion is a blessed outpouring of the Spirit of God, in awakening and converting sinners, and in enlightening, quickening and building up saints in faith, holiness and comfort." R. E. Davies, "Revival, Spiritual,"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ed., W. Elwell (Grand Rapids: Baker, 2001)

인가?

부흥이란 문자 그대로 쇠(衰)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일까? 한국교회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로 교회 성도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참된 성경적 부흥이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온 세상에 넓히는 영적 운동이다.[3]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며,[4]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땅 끝까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죄의 세력이 강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위기의 현상이 나타나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멀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헛된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무지로[6]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파괴된다.

3 막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행 1:3-4,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행 2: 42-47.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6: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5 J. I. Packer는 부흥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한다. "Revival, Theology," New Dictionary of Theology, ed., Sinclair B. Ferguson and David F. Wright (Downers Grove: IVP, 1988), 한글번역판은 "부흥의 신학,"《아가페 신학사전》(서울: 아가페, 2001).

6 호 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논문은 한국교회가 성장과 성숙에 불안을 느끼며, 복음 전파와 선교 그리고 구제에 있어서 역동성을 잃어가는 위기의 시점에서 그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흥의 저해 요소들을 알아본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J. I. Packer)는 부흥의 장애물로서 불신앙(unbelief), 이교신앙(misbelief), 무관심(apathy), 죄(sin)를 말한다.[7] 그의 경고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부흥의 장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학문화되는 것과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 양적 팽창주의, 개교회 중심주의, 교회 분열,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 소홀, 근본주의 신학과 이원론, 교회의 세속주의, 그리고 투명성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8] 필자는 이미 몇 년 전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이런 요인들을 지적하였다.[9] 심지어 한국교회는 종교의 성스러움까지 잃어버렸다고 지적되고 있다.[10]

7 New Dictionary of Theology.

8 "목회자가 하나님 닮아가야 부흥: 숭실대 부흥 모색 세미나" [국민일보 2007-05-06 15:21],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인격이 바로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3일 주관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나겸일(주안장로교회) 목사는 "아무리 교회가 성장한다 해도 목회자의 인격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며 부흥은 목회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나 목사는 이날 강의에서 한국교회 성장이 멈춘 이유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학문화되는 것과 기도의 열정이 식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흥을 위해서는 보수 신앙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재 교수 · 손인웅 목사, 교계에 쓴소리: 교회 양적 성장 한계……내실 기할 때," [국민일보 2007-04-29 18:28], "교계 원로인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와 한신대 명예교수 김경재 목사가 한국교회를 향해 고언(苦言)을 던졌다. 이들은 27일과 28일 충북 영동군 단해교회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조직신학자 대회' 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 이후기를 맞아 회개와 화해를 통한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한국교회는 1960년대 이후 초고속 성장에 도취되어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성장 이후의 교회와 신학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면서 양적 팽창주의, 개교회 중심주의, 교회 분열,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 소홀, 근본주의 신학과 이원론, 교회의

세속주의, 투명성 부족 등이 한국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성장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올바른 교회론의 정립, 포괄적이고 입체적 선교 전개, 교육 목회의 강화, 나눔과 섬김의 목회 실천, 예배와 설교의 부단한 갱신, 교회 조직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교회는 재부팅 중" "성경통독은 미래교회의 새로운 가치" [연합뉴스, 2007-05-21 18:59], "교회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교회는 재부팅 중입니다.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저서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를 펴내고 미국 개신교계에 끊임없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세계적 기독교학자 레너드 스윗 드루대 석좌 교수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윗 박사는 먼저 현재 교회들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컴퓨터에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이면 '조각모음' 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재부팅하듯 교회도 재부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부팅' 을 통해 제거해야 할 요소를 A(actional, 유인적) · P(propositional, 명제적) · C(colonial, 강압적)로, 부활시켜야 할 가치를 M(missional, 선교적) · R(relational, 관계적) · I(incarnational, 성육신적)로 정리했다. 스윗 박사는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음에도 지금 교회들은 사람들을 자꾸 안으로만 끌어들이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교리나 명제적 진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교회의 생각을 따르라는 식의 강압적 방식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9 안명준 외,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서울: 이컴비즈넷, 2006), 13-34. 최근 웨슬리학회 신학자들의 회개와 갱신을 위한 선언도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웨슬리학회 신학자들 한국교회 물질주의 회개합니다", [국민일보 2007-05-25 18:28]. "한국웨슬리학회가 25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교회의 물질주의와 기업주의를 회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회의 회개와 영적 갱신을 위한 선언문' 95개 조항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선언문을 모델로 한 것으로 회개와 관련된 80개 조항, 갱신을 위한 15개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한영태 전 서울신대 총장 등과 성도 700여 명은 이날 선언문을 교독하며 존 웨슬리의 회심과 100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회고하고 크리스천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선언문 초반부는 한국교회의 전체적 흐름을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제1항과 2항은 각각 '우리는 한국교회의 물질주의화를 회개한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기업주의화를 회개한다' 등으로 경쟁적 교세 확장에 매달려온 점을 반성하는 내용이다. 이어 3~8항은 교회의 세속주의와 이기주의, 배타주의를 꼬집고 있다."

10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연합뉴스 2006-11-30 17:05].
"개신교가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종교의 성스러움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와 경제지상주의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사회학자 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는 30일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 · 실천신학대학원 교수)와 연구모임 '일상과 초월' 이 주최한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



## 2. 부흥의 방해요소들

교회의 수적 증가와 목회자들의 과잉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점점 많은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여러 언론보도에 나타난 것들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믿음보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

근대 이후 인간은 신을 버리고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하고 주체적 기준으로 여겨왔다. 계시의 권위보다는 인간 이성의 권위를 더 중요시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자율성을 더 강조하였다. 성경의 사건과 내용을 믿기보다는 파괴적인 역사비평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체하여 종교적 문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믿음 위에서 역사하는 인간 이성이다.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중생한 크리스천이 이성을 계시에 의해서 바르게 사용할 것을 인정한다.[11] 그러나 현실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고 오성에 따른 현실세계에서 인간 이성만을 의존하고 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는 인정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관을 믿지 않는다.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는 외부에서 오기보다는 오히려 크

톨릭 성장' 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한국 개신교가 당면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11 fides quaerens intellectum, 또는 credo ut intelligam.

리스천 자신의 내부적 요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구원의 믿음은 환영하지만, 이성을 굴복시키고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동은 회피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사막에서 자신들의 삶을 마감한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동반한다. 그 행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낸다. 이성이 지배하는 삶은 믿음이 종속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그의 말씀을 의심케 하며,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한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말하기를, 교회는 가난한 자를 위해 우선적 관심을 가지며, 공의를 주장하고 불의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한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라면 가난하고 억울한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약 2:14)라고 했다. 그는 또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 2:22)라고 했다.

### 2) 도전의식과 거룩한 열정의 상실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적그리스도적 환경과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세속주의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고 타협한다.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유럽 교회도 이런 세속화의 파도 속에 묻히면서 서서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다.



1980년도 이전의 목회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요즘 세대의 목회자들은 힘든 것에 쉽게 포기하고 교회를 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술과 방법을 찾는다. 이처럼 교회도 성결과 구별 그리고 비성경적 문화들을 거부하는데 거룩한 열정을 상실하고 쉽게 교회 성장 방법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영화 "알렉산더 대왕"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진 자가 역사에서 영광을 차지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12] 그의 비전의 열정이 그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전의식에 대한 열정이 식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종 바울로 변화된 것은 주님이 그를 불러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13] 그 사명은 땅 끝까지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복음의 능력은 개인을,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속화의 물결 속에 묻히면서 동시에 사회와 국가는 부패와 흑암으로 빠져든다. 교회는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하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속화된 교회를 치료하고 부패된 사회의 구조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정석 박사는 교회가 세속화되면 미래는 없다고 한다. 그는 세속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유럽 종교사회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마틴(David Martin)은 세속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고,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세속화되는 제1단계에서는 교회가 흥왕하고 교인도 증가하지만, 점차 그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제2단계에서는 급격한 탈교회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실

---

12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대사 톨레미(안소니 홉킨스)의 내레이션에서 "The glory in the memory of man always belongs to the one who follows great visions."

13 행 9:6: σοι τί σε δεῖ ποιεῖν.

로 기독교가 복음을 상실한다면 아무 능력도 실체도 없다.[14]

### 3) 말씀 연구에 소홀함

수년 전 한국을 방문한 강해설교의 대가 데니스 레인(Denis Lane) 목사는 교계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요소로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된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더불어 교회의 신학도 성경으로부터 떠난 점을 말하였다. 오늘날 위기에 있는 한국교회도 바로 데니스 레인이 영국교회를 진단한 것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종교개혁은 루터의 말씀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15] 단지 말씀을 통한 축복만 기대하고, 우리의 삶의 위로를 위하여 말씀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뿌리는 사경회인데[16]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킨 것이다.[17] 오늘날의 부흥회는 부흥사 자신의 의도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

14 http://www.jsrhee.com/UE/, "세속화된 교회는 미래가 없다."

15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5-21 18:59, "성경통독이란 성경을 구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스토리를 생각하며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의 한 방법. 즉 성경을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적 방법으로 읽는 것이다.
스윗 박사는 "성경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읽고 함께 감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서구 사회는 성경을 분석적이며 이분법적 시각에서만 다뤄왔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분석만 한다면 결국 그 대상을 죽이는 것밖에는 안 된다"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성경통독'의 방법 속에 MRI가 모두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회개와 성화의 역사로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시는 그 저자인 성령님의 의도를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인간의 신비스런 경험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현 부흥회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멀어지고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신비적이며 풍유적인 해석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강조해야 한다. 말씀은 교회의 기초요, 신학의 기초, 기독교 윤리의 기초이다. 성경은 구원을 위하여 명료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성경은 그 자체로 구원을 위하여 충분하기에 다른 교회의 보조물(전통과 회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로마교회를 개혁하였다. 성경은 교회를 검증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칼빈은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명령되었다고 한다(강요 4.1.5).

16 정일웅, "사경회와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의의," 11-29, 〈한국개혁신학회 제22회 정기학술심포지엄〉, (2007, 5), 12.

17 "한글교육 · 성경읽기 병행 평신도 중심 전도 폭발력 : 한국교회 성장 비결," [국민일보 2007-02-02 18:14]. 그는(머핏 목사)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과, 기독교 신앙과 교육에서 성경을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이라면서 "특히 나의 아버지(마포삼열 선교사)를 비롯한 초기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면서 성경 교육에 힘썼고, 한국인 목회자와 평신도들까지도 성경공부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고 초기 교회의 모습을 전했다. 머핏 목사는 "특히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면서 "사경회(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읽고 분석하는 모임이란 뜻)를 통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사경회에 참석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주효했다"고 꼽았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어서 한국 성도들의 신앙관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약한 신앙관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교회 안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지만 신학자나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보이는 현상만을 중시하여 성경 안의 기본교리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회자의 깊이 있는 성경 해석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성경에 근거한 신앙고백서나 교리서와 같은 좋은 역사적 문헌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성경의 뼈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4) 개혁의 거부

세상은 나날이 변화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기존의 전통과 방식을 지나치게 고수하다 귀중한 세월 다 보내고 뒤늦게 고치려고 한다.[18] 변화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기독교의 본질을 변화시켜 타협적으로 변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변질이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적응(accommodation)시키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 적응원리를 사용하셨다.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약한

18 http://www.inbora.com/ez2k/ezboard.cgi?action=read&db=board7&dbf=1224. 하용조 목사 설교, "영국의 데니스 레인 목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집 가까운 곳에 아주 큰 웅장하고 옛스러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니스 레인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과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찼었는데 요즘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건물이 좋아서 조금씩 고치면 더 나을 것 같았는데 성도들의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문화에 맞춰진 교회이기 때문에 오래 전에는 성도들이 그곳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곳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모두 얻기 위함이라고 했다.[19] 그의 부르심을 위해 자신의 전도방식을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아도 교회의 사역은 시대와 문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루터는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관을 변화시켰다. 잘못된 교회와 사회는 항상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이 말씀 앞에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바르게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인류의 변질된 죄악의 문화도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니버는 문화의 변혁자로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킨 변혁의 주체라는 것이다. 변화를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바람직한 성경 해석자는 성경과 자신이 사는 시대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의 사고를 시대에 맞게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성(transformation)이란 개혁신학의 강력한 힘이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에 묶여서 정지된 신학이기에 기존의 자신들의 전통의 변화를 허락하지 않으며, 개인의 성경 해석을 금하지만, 개혁신학은 성경에 의하여, 성경을 향하여 항상 새롭게 온전하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학이다. 따라서

19 고전 9: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전 9: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개혁신학에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은 성경이라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 시대에 맞게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해석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준 중요한 교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었으며, 자신들은 이것을 사역의 소명으로 보았다. 따라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행위는 교회를 개혁하는 출발점이 되며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된다. 루터와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의 경우에서 그들의 올바른 성경 해석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세워진 개혁 교회는 사회와 역사를 주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20]

목회자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화는 복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며,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대화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며, 받기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권위적인 자세보다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언제까지나 산 위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오도록 부르기보다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죄악을 물리치고, 썩어가는 곳에서 희생의 모습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기다림보다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봐주며 새롭게 치유하는 능력의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보다는 직접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다.[21]

20 안명준, "21세기를 위한 해석자," http://theologia.co.kr/ 논문, 18.

21 눅 8:1, "그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 5) 기복신앙

기독교는 복을 구하고 받는 종교가 아니다. 물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마 6: 33).[22] 현세의 축복을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아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은혜로 알려주어야 한다. 번영의 신학에서 고난과 감사의 신학으로 움직이게 역할을 해야 한다. 몇 년 전 〈주간 기독교〉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 축복이 온다는 생각은 샤머니즘을 통한 부정적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정적 영향을 말하는가?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물질관). 그러나 샤머니즘을 통한 예수와 물질적인 정비례는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는 위험을 만들었다. 그렇게 행해진 것이 바로 '예수=복(물질)' 이라는 도식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복' 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때, 가령 올바른 믿음의 신자가 질병을 얻었다든지 가난하든지 하면 그 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한 것은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다.[23]

기독교의 진정한 축복은 종말론적인 것을 한국교회는 실천할 필요가

22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3 http://www.theologia.co.kr/기독교윤리.

있다. 현세에서 모든 육적 축복을 추구한다면 무속신앙과 별 차이가 없다. 교회의 봉사와 축복관계로 바르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교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는 기복종교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현세적인 축복으로 저평가된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상실되는 것이다.

### 6) 기독교 세계관의 부재

잘못된 이원론을 갖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이원론적 사고로 행동한다. 이것이 극단화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지나치면 광신적 종말론자로 기독교 공동체에 큰 피해를 준다. 반대로 참된 기독교의 이적과 신비를 부인하고, 자연신론자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환상의 에덴동산지기가 된다. 추방된 인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 현대 생명공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영생은 보장되지 않는다. 생명이 길면 길수록 인간은 죄의 동산을 피의 강으로 넘치게 할 것이다.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서 문화와 세계관의 강조는 더욱 시급하다. 문화란 인간이 사용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말씀으로 변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칼빈은 제네바 도시의 문화형식을 성경적으로 변화시켰다. 쉴더(K. Schilder)는, 그리스도는 문화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이퍼(A. Kuyper)는 하나님의 주권이 교육, 정치와 문화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와 이웃 그리고 세계가 어울려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24] 이런 공존을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회가 이웃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오늘날 기독교 문화의 무지를 한탄하면서 사회 변화를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역설하였다. 크리스토퍼 슈뵈벨(Christoph Schwobel)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복음을 해석하고 실천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면서 "대사회적 실천운동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25] 스위트 교수(Sweet)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과 더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하셨다"며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대립하지 말고 다름과 탁월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6]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는 관점, 혹은 어떤 전제를 통해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거듭난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천지 창조, 인간 타락 그리고 만물의 회복을 성경에 나타난 구속 계시에 근거하여 인간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먼저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과 세계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정립된다. 이런 정립을 위해서 먼저 성경적 세계관의 전제가 필요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보이는 세계와 영적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의 섭리

---

24 하워드 스나이더, 《천국의 선언》, 안명준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25 〈국민일보〉 2007-03-30 16:07.

26 〈경향신문〉 생활/문화 | 2007.05.17 (목) 오후 6:18.

에 의해 보존되며, 하나님에 의해 설계된 뜻에 의하여 목표를 향하여 간다는 믿음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아담의 죄로 오염되고, 인간의 삶은 왜곡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 바깥에서는 구속사적, 목적론적, 발전적인 역사를 알 수 없다.[27] 역사는 하나님의 여러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방식인 것이다. 물론 구속사는 세속사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님이시다. 시편 103편 19절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고 한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다. 그분에 의해서 과거의 모든 것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도 결정된다. 새로운 세대는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역사의 모든 것은 그분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 움직여 가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28] 한국교회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 7) 다양한 전도방법의 부재

한국교회는 기존의 노방전도방식(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나 기타 전도지를 사용하여 전도하는 방식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많은 불신자들이 전도의 내용에 관심두지 않고 기존 전도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노방 전도 방식은 교인들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개교회의 숫자적 증가를 위한 전도가 아닌, 진정한 부흥을 위한 전도의 방법론이나 이론,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교회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인간적인 기술과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

27 J. 캄퍼이스, 《교회사가 비춰주는 종말론과 정경》 (서울: 도서출판영문, 1992), 173.

28 안명준, "종말론과 해석자," 《복음과 신학》 (2004), 7.



실이다.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방식이 더 중요하다.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도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는 '전도학 강의' 에서 "대상자와 인간관계를 맺고 두터운 정을 쌓으며 그 신뢰로써 전도 대상자를 구원의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며 " '한국형 전도원리' 가 필요하다" 고 일깨우고 있다.[29] 최근에 한국적 전도 방식으로 오이코스 방법은 관계 중심적 새로운 전도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30]

전도는 소리로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과 실천과 사랑이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웃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함께 공존하며 나누는 행사를 통하여 교회의 존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커버넌트 신학교 바르스 교수의 문화 전도방법은 문화를 접촉점으로 전도하는 방법이다. 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수가 성 여인과의 대화는 기존의 사회통념을 깬 존중이다.
2. 상대방을 이해하라. 전도 전 예상되는 반응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3. 언어를 준비하라. 사도행전 17장, 22-26장에서 필요한 언어구사가 요구된다.
4. 복음을 위한 접촉점을 만들라. 복음을 받을 대상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5.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라.
6.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라.

29 http://www.godpeople.com/〈뉴스미션〉 02-15 07:10.

30 http://www.oikoskorea.com/. " 'οἶκος' 는 집(house)과 그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친척, 고용인, 방문객까지도 포함하는 확장된 가정)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행 16:31). 오이코스 전도는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직장동료, 클럽회원 등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는 인간 유대 관계망을 따라 매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형 관계 중심 생활전도입니다."

7. 도전적으로 하라.
8. 상상력을 사용하라.

전도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다양하며 실제적인 성경적 전도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8) 목회자의 위기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의 핵심에 목회자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31] 목회자는 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며, 위기의 영향력에 가장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바로 목회자들로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점(목회자의 교회관과 목회사역)과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핵심에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이다.[32] 이런 비판적인 인식은 교회 내부와 외부에 의해서 비쳐지고 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은 조심스러운 일로 함부로 인신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성경적 근거에 따른 비판은 언제나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교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목회자들 가운데 객관적으로 존경받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언론에 비판적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평신도들과 많은 불

31 "목사 권한 너무 크다" 〈문화일보 2006-11-30 14:08〉. "목사의 인사권 전횡 및 불투명한 재정 운용, 목사의 성 문제, 강단의 사유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갈등이나 목사와 장로의 갈등, 교인들의 직분 매매, 교회의 배타성과 정치세력화……"

32 2004년 10월 2일 방송된 KBS 시사교양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46회〉, "선교 120주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기 교파/자기 교회 중심(40.3%), 교회의 대형화/ 성장제일주의(23.9%), 자격이 부족한 목회자(12.6%), 비민주적 의사 결정/ 불투명한 재정 운영(9.5%), 세습(5.8%)이다.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부흥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부흥의 걸림돌이 바로 목회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성직자들의 부패와 부도덕 그리고 타락은 결정적으로 교회 부흥에 타격을 준다. 목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켄터베리 교회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L. Sayers, 1893-1957)[33]의 작품 〈The Zeal of the House〉가 있다. 그 내용은 건축가 윌리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에 탄 새 예배당을 지금까지 세워진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으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공 전 사고로 그는 고해성사를 통해 그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가엘 천사는 윌리엄의 죄로 사고가 난 것을 지적한다. 그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예배당 공사에 열심을 내었다고 책망을 받는다.

교회 부흥은 결코 목회자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교회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34]

33 Rev. Henry Sayers의 딸인 그녀는(British novelist, essayist, medieval scholar and anthologist) 영국 옥스퍼드 출신으로 신학적 드라마도 썼다.

34 이종윤, "오늘의 위기와 교회의 사명,"《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서울: 이컴비즈넷, 2005), 256-257.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피나는 수련을 통해 만들어진 이상적 지도자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섬기는 종으로서 사명에 찬 사람들이다. 그들의 행동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방법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의 동기로 삼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따라서 그의 소유권, 회수권, 감사권, 사용권을 인정하고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성경)에 절대 복종하며 청지기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지도자들이었다."

### 9) 공동체 의식의 파괴

지금 한국교회는 사사기 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개교회 중심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 그런 경향의 결과로 이단들도 기세를 부리고 있다. 한 몸으로서 한국교회가 아니라 각자 믿고 따르는 규칙이 다른 기독교 종교로 둔감한 현실이다. 주장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분열과 장벽이 심해 질 수밖에 없다. 지교회도 모든 공동체 회원이 각자의 소신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파괴될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두가 모여야 한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다스려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파의 벽이 높고, 개교회주의 성격이 강한 한국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일체의식 속에서 하나 됨의 교회운동이 필요하다. 물론 교리와 예배의 형식이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에 일치하는 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는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슈뵈벨 교수는 "한국교회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근거해 전파 사역에 집중할 때 연합과 일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35] 올바른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하나로, 한 몸으로, 형제와 자매로, 영적 가족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3. 결론

부흥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것은 부흥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위에 임재하여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다. 이런 부흥에 있어서 방해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무지

35 [국민일보 2007-03-30 16:07].



하여 일어난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의식을 바르게 갖지 못한 것이며,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고, 성직자들이 올바르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흥이란 잘못된 세계관을 말씀으로 수정하고, 이 세상이 결코 천국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자가 깨어 충성스럽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말씀의 해석자요,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는 더욱더 겸손히 섬기며, 신뢰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질문해 보자. 무엇 때문에 부흥을 원하는가? 그것이 나의 존재의 부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부흥의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경고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부흥의 방해 요소들을 하나씩하나씩 제거하는 것이다.

군선교신학 제9권

# 군목과 지도력
## Chaplain and Leadership

안광춘 Ahn, Gwang Chun

■ 서울신학대학 B.A 및 동 대학원(M.A.)
■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D.MIN.)
■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연구

## 1. 서론

군대는 군목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군목은 장병의 어버이로서 신앙을 지도하며, 전인적 교사로서 그들의 사표가 되며, 전선에 함께 종군하고 숨져가는 장병의 마지막 여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이다.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와 싸우는 사상전에서 군목이 필요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교계에 군목을 파송해 주기를 요청했고, 한국교회는 이에 응하였던 것이다. 이제 한국군에 군목이 파송된 지 63년이 된다. 지금까지 군인의 길을 걸은 사람은 남자들이었다.



이제는 여자도 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전에는 간호병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전투병과 장병으로 여군이 복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녀는 누구나 군에 복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군목제도도 논의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 또한 타종교의 지도자들도 종군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군목이 군에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군목제도와 역사

### 1) 군목제도의 시작

한국군의 군목제도는 6 · 25 한국전쟁으로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했다. 당시 민간 성직자들이 군문을 찾아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위문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 주었다. 한편 UN군에 종군한 윌리엄 쇼(William Show) 군목과 조지 미카엘 캐롤(George Michael Carrol) 신부가 한국군도 군종제도가 있어야 할 것을 한국정부 요로에 역설해 주었다.[1] 그래서 1950년 12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은 각 군에 종군 목사를 두도록 지시하였다. "종군 목사가 각 군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사람을 택하여 들어가게 하라."[2]

이 지시에 의하여 육군은 1954년 1월 12일 군종업무를 창설하였으며, 1951년 2월 28일 정식 군종업무를 시작하였다.[3] 그리고 공군은 1952년 8월 7일 육군 군목에 의하여 군종업무가 창설되었다. 해군은 1948년 9월 15일 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의 요청으로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목이었던 정

1 국방부 군종위원회, 《군종약사》, (서울: 미문사, 1963.)
2 대비지(대통령 비서실 지시) 국방신 제29호(1950. 12. 21).
3 육본일반명령 제31호(1951. 2. 7).

달빈 목사를 초빙하여 군목으로 종군케 하였다.[4] 해군은 해안 경비대 시절부터 군목을 두었고[5] 1950년 12월 6일 해군본부 작전명령에 의거 정식으로 해군은 군목실을 창설하였다.[6] 해병대는 1951년 3월 1일 사령부 참모장 김대식 중령이 당시 서울신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현 서울신학대학교전신) 장창덕 목사를 초빙하여 군종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장창덕 목사는 진해에 피난 와서 해병학교 문관으로 있으면서 군종업무를 개척하였다.[7]

### 2) 군목제도의 역사적 근거

군목제도는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시사회는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였으므로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종교지도자가 제사행위를 통하여 승리를 기원하며 병사들을 격려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다.[8]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이며 임금인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개선하는 장병을 위로하고 축복하였다.[9] 구약의 제사장은 전쟁의 승리를 미리 예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임무를 맡았으며[10] 특별한 의식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며 기도로 병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였다.[11] 그러나 이것은

4 홍은혜, "바다사랑 36년" 〈재해〉 36호 병쇄, 8.

5 해안경비법 제7조에 "군목을 둘 수 있다" 고 규정.

6 해본작편명, 제 33호.

7 안광춘, 《해군 군종사》 해군본부, 1976, 10.

8 창세기 4: 19-20.

9 사무엘상 14:37.

10 김장석, "군선교신학 신학수립을 위한 시도", (장로회신학대학 목회대학원 학위논문, 1975), 38.

11 신명기 20: 1-5.



어디까지나 정치형태의 한 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오늘날 군목의 기원은 5세기경 프랑스 군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12]

프랑스 군대에서는 영어로 채플린(Chplain, 불어로 Chapelain)이라 불리는 장교가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거룩한 옷' 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거룩한 옷' 에 대한 일화가 다음과 같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13] 프랑스의 마틴(Martin, 주후 316-400년)이란 군인이 아민(Amiens) 성 문을 지나가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 걸인을 만나게 되었다. 동정하며 돈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져보았으나 동전이 한 푼도 없었다. 그는 차고 있던 칼로 자기의 외투를 두 조각으로 잘라서 한 조각은 추위에 떨고 있는 걸인에게 주고 나머지 한 조각은 자기가 걸쳤다. 그날 밤 마틴은 꿈속에서 반조각의 외투를 걸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세례를 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 프랑스 왕들은 그가 죽은 후 그의 외투를 거룩한 성자의 유물로 보존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갔다. 그것은 이 외투가 '거룩한 옷'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장병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사기를 크게 앙양시켰다. 그리하여 거룩한 옷을 보관하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곳을 '채플' (Chapel)이라 불렀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며 거룩한 옷을 지키는 자를 채플린(Chaplain)이라 부르게 되었다. 마틴이 베푼 자비와 동정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군목(Chaplain)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군목은 위로와 긍휼로 장병들에게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장병들의 신앙을 지도하여 삶과 죽음을 이해하도록 하였다.[14]

12 김택규, "군목의 본연의 사명과 업무개요", 〈군종〉 46-47 집, (1966.7), 84.

13 U.S. Army, "The History of The Navy Chaplain", Corps, Vol. 1(1949), 2.

14 안광춘 "군목전선", 〈해군〉 251 호(1975. 9), 118.

이와 같은 견해는 제수잇 장군 제임스 레네쯔가 북아프리카에서 터키군을 정벌하는 스페인 장교 쥬앙 라세르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5]

> 내가 믿기는 귀하가 이번 정벌에 종교적 지도자를 종군시키면 우리 주님이 공경을 받고 위안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와 좋은 모범으로 설교와 고해를 청취함으로 병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이를 도와줌으로 이 사람들은 놀라운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장병들에게 싸워야 할 정당한 동기를 가르쳐주며, 장병들 간의 싸움을 막고 노름을 방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 중에 그들의 임무를 더 잘 성취할 것입니다.

### 3) 군종업 무의창설 요인

군대의 발전과정에서 장병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야기되는 인간문제가 많아지고, 사상적 갈등, 그리고 월북음모사건 등이 노정되었다. 여기서 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와 애국정신을 무장시켜 줄 전인적 교사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군인의 정신적 지도를 위하여 장교로서 군목을 임명하고 교회는 군대 안의 선교를 위하여 목사로서 군목을 파송하게 되었다.[16]

김일환 국방 차관이 군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군목월보〉 창간을 축하하며 보낸 "축사"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17]

15 신양섭 "세계의 군종업무", 〈기독교사상〉 15권 2호(1971. 2), 50-51.

16 안광춘, 〈해군군종사〉, 8.

17 김일환, "창간 축사" 〈군목월보〉 1집(1952. 8), 해군본부 군목실, 3.



> 첫째로, 전민족적 수난을 받고 있는 불운의 전쟁을 통하여 조국은 폐허가 되었고, 도덕과 윤리는 여지없이 유린을 당하였고, 모든 사람의 양심은 파괴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하여 허물어진 양심의 지침과 도덕과 윤리의 재건자가 되라.
>
> 둘째로, 사선을 넘어 주야로 삼면의 바다를 응시하며 묵묵히 초계근무에 몰두하는 전우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확고한 사생관을 넣어주어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진실한 삶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사생관의 명확한 확신이 없어서는 이 전쟁을 완수치 못할 것이다.
>
> 셋째로, 오늘도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전우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주어라. 슬픔과 우울에 잠겨 있을 때, 고독할 때, 그리고 심신이 고통을 당할 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어 환희의 싹을 트게 하는 핵심이 되라.
>
> 넷째로, 불의의 적의 총탄에 맞아 병상에서 신음하는 백의용사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리스도의 참된 봉사를 본받아 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하라.

이와 같이 군목업무에 대한 기대는 대단한 것이었다. 존 엠 알포드(John M. Alford) 제독에 따르면, 군대의 사기를 위해 군목은 중대한 부분을 맡고 있다. 알포드 제독은 인간문제에 있어서 훈련된 지도자인 군목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지역의 점검과 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기를 바랐다.[18] 프레이저(Fraizer) 군목에 의하면, 군대는 군목으로 하여금 타장교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19]

18 J. M. Alford, "군종장교의 필요성", 〈군종〉 35집(1962. 12), 25-26.

19 이계호, "군종제도의 군사적 의의", 〈군종〉 35집(1952. 12), 36.

## 3. 군목의 과업(활동)

1968년 해군사관학교 특별간부 후보생 과정을 수료하고 해군군목으로 임관된 필자는 해병도서방어부대(백령도) 군목으로 발령을 받았다. 부임하기 위하여 해병대 사령부 사령관께 임관 및 부임신고를 드렸다. 그때 사령관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되는 말이 있다.[20]

"목사님이 군대 계급장을 달았다고 계급으로 호칭되는 것이 아니라 군목님으로 호칭됩니다. 다만 계급은 봉급을 그 계급과 호봉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군목으로 장병들 가운데 일해 주시고 목사님이 계셔서 좋은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목은 장교로 임관되지만 계급으로 불려지지 않는다. 초창기 촉탁 군목이 종군할 때는 민간인 성직자가 문관으로 복무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부대 영문 출입도 어려웠다. 또한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된 후에는 계급으로 호칭되거나 십자가를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 군목은 금색 십자가 금장을 좌편 옷깃에 착용하고, 계급장은 오른쪽 옷깃에 착용한다. 그래서 반은 목사고, 반은 군인으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목사로 일하는 것이다.

### 1) 종교활동

군목은 설교자로서 예배를 인도한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등 정기적 예배와 출전예배와 승전예배 그리고 장례예배 등 특수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관한다. 설교는 성경을 본문(Text)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만을 설교해야 한다(골 1:25).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설교하도록 부름받았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전해 주었다고 하였다(행 20:27).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충성스럽게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21]

20 해병대 사령관 강기천 대장의 인사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가 호소력을 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는 안 된다.[22] 군목은 설교자로서 겸손해야 한다.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는 "성경은 말합니다(The Bible says)"라고 말씀의 권위로 설교했다. 겸손의 전위(轉位)가 있어야 한다.[23] 스펄전(Spurgeon) 목사는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정신에서 나온 목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수평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설교를 하라고 말했다.[24]

### 2) 전인교육

군목은 병영에서 장병들에게 '인격지도교육' 을 실시한다. 인격지도교육은 월별로 제목이 주어지지만 군사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시키는 일반교육이 아니다. 인격지도교육은 원만한 인격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갖도록 하는 전인교육이다.[25]

교육은 '만남과 대화' 이다.[26] 인간은 계속 만남을 갖고, 만남은 항상 너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떤 관계를 '나와 너' 가 갖느냐에 따라 인격이 형성된다. 이것은 계속해서 만나고 반복해서 교육하며 자아를 발견하

21 John R. W. Stott, 《설교자상》, 문창수 역, (개혁주의 신학협회, 1990), 27.

22 Ibid., 29.

23 Ibid., 31.

24 찰스 스펄전(Charlse H. Spurgeon), 《찰스 스펄전 목회광맥》, 송삼용 역 (두란노, 2010), 217.

25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교육》(1981), 124-126.

26 Henri H. Neuwen, 《새시대의 사목》, 성찬성 역 (성바오로, 1988), 49-50.

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수시로 자극해 주는 것이 인격지도교육이며, 전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27]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초청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철학이다. 인격지도교육은 예수님의 교육철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28]

### 3) 개인 상담

군목은 장병의 개인 신상에 대한 상담과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상하복종문제에서 오는 문제점, 명령전달체계에서 오는 문제점, 개인의 고민 등 군대문화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을 들어주고, 지도해 주고, 해결해 주는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유폐된 환경과 억눌린 복종의 요구 속에서 생활하므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번뇌, 고민, 우울, 권태, 갈등 등이 언제나 잠복해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병영에서 상담자가 있어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상담은 단순히 지시나 문제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며, 본인(내담자) 스스로 자기 문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상담자로서 군목은 내담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끝까지 문제를 들어주며, 공감해 주며, 또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주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조언할 때는 내담자가 긍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자로서 돕는 것이다.

27 김요셉,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두란노, 2007) 참고.

28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교육》, 124-126 참고.



### 4) 위로하는 일, 방문하는 일

'논, 밭에 심겨진 농산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고 한다. 또한 '병영의 장병들은 군목의 군화소리를 듣고 강건해지며, 군목의 기도소리로 영혼의 평안을 갖는다' 고 한다. 병원의 전상환자 및 일반환자, 격오지, 초소, 작전상황실, 내무반, 함정 등의 장병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문하는 일이 군목이 할 일이다. 교도소, 헌병대 영창, 야전의무실 방문은 귀한 사랑의 섬김이다. 그들은 방문으로 위로를 얻는다. 범법자에게 용서를, 슬픈 자에게 위로를, 방황하는 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일은 군목의 사역 중에 보람 있는 일이다.

군목의 군화소리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며 병영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다준다. 군목이 하는 일은 행정 업무까지 통틀어서 군종업무라고 한다. 군종업무는 곧 행정업무이다. 군목은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시키며, 참모 간에 협조도 요청하고 실천사항을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업무도 잘 수행해야 한다.

이제는 각 종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군종활동을 하고 있다.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의 신부, 불교의 법사가 함께 생활한다. 여기에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군종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대의 단결과 승리를 위하여 지휘관에게 좋은 의견을 건의하며, 서로 간에 교량역할을 하는 화해자로서의 역할, 더 나아가 '한 알의 썩는 밀알' 로 희생할 수 있는 충성하는 군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 군목의 지도력

### 1) 군목의 사도직

군목의 삶은 사랑을 맴도는 삶이다. 군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또한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께 전해야 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

도록 특히 부름받는 사람이다.

사도직이란 무엇인가? 사도적 사랑(Apostolic Charity)을 가진 사람이다.[29] 에밀 브리에르(Emile Briere)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의무 수행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매순간 노력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직 · 간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사도직을 감당하는 군목은 형제적 사랑(Fraternal Charity)을 가진 사람이다. 다정한 이해심을 가진 군목과 더불어 자신의 좌절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용납될 수 있는 '화를 터뜨릴'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다.[30]

심리학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고 말한다. 그러면 정신적 질병도, 정서적 동요에 기인하는 신체적 불편도 적어질 것이라고 한다.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가르친다. 군목들은 형제적 사랑으로 장병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충심으로 남자답게 손을 꽉 잡은 그런 다정한 악수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에 접촉이 긴장을 풀어주고, 위축되었거나 괴로운 장병의 긴장을 진정시켜 주며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것이다.[31]

군목의 사도직은 장병을 영적 지도하는 것이다. 영적 지도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다.[32]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라는

29 Emile Briere,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 전달수 역 (성모출판사, 1994), 93.

30 Ibid., 52. 형제적 사랑은 보다 높은 거룩함을 낳는다. 형제적 사랑은 보다 높은 신체적 건강을 낳는다. 형제적 사랑은 보다 큰 정신적 평화를 낳는다. 형제적 사랑은 거룩함, 신체적 건강, 정신적 평화의 성장을 위해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31 Ibid., 53.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나' 는 하나의 피조물임을 깨닫는 것이다. 군목은 영성지도자로서 장병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며,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33] 그래서 장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군목의 사도직은 말씀과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장병들의 전인격을 사랑하는 것이다.

### 2) 군목과 섬김

군목은 섬기는 지도자이다. 하나님은 군목으로 하여금 종의 심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해군의 어머니 홍은혜 권사는 시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하신 교훈 중에서 '걸레의 삶' 을 살라고 이르신 말씀을 이야기하였다. 걸레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깨끗하게 하는 섬김의 종으로서 조국에 봉사하라는 당부였다. 그리하여 부군 손원일 제독이 초대 해군참모총장이 되었다고 하셨다.[34]

하나님의 종은 주님의 시중을 드는 것이 본분이다.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 당황하고 있을 때 그는 홀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선원이 그를 깨워 고향이 어디며,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의 종이요"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을 밤낮 모시며 장병들을 섬기는 군목은 종의 심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35] 또한 섬기는 지도자를 '목자' 로, 한 마리의 양을 극진한 사랑으

32 김한옥, "영성과 이웃 섬김" 《제15회 기독교 학술원 학술대회》, (기독교 학술원, 2011), 7.

33 William A. Barry & William J. Connlly, 《영적 지도의 실제》, 김창재/김선숙 역 (분도출판사, 1995), 44-45.

34 홍은혜, 《은혜의 항해》 (토기장이, 2010), 78-79.

로 돌보는 목동의 심정을 가진 군목으로, 선한 목자였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36]

군목 스스로가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작심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군대와 장병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시고(마 20:26-28) 그 말씀대로 사셨다.[37]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자기 삶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또한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다.

군목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섬기는 지도자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발견한다. 첫째, 섬김이다. 섬김은 중심적인 것이며 명령이다. 섬기라고 군목을 세우셨다. 어떻게 섬기는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된다. 그분은 종의 완전한 모형이시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고, 자기를 비우셨으며,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빌 2:7-8). 그분은 종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셨다. 둘째, 내어줌이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섬기는 지도자로서 군목은 장병들에게 나누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5 J. Gibbons, 《사제의 길》, 김대성 역 (가톨릭출판사, 1976), 9.

36 방효익, 《사제로 산다는 것》 (성 바오로, 1997), 87.

37 오성현, "섬김의 리더십", 〈서울신학대학보〉 2011. 3. 9일자.



## 5. 군목과 나라 사랑

군목은 군인의 한 사람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군인은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며 모든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는 국민의 일원이다. 참된 군인은 훌륭한 국민이 되는 길임을 깨닫고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한다.[38]

### 1) 군인정신

군인정신의 바탕은 애국심이다. 군인정신은 한마디로 군인이 갖추어야 할 이상적 정신자세이다.[39] 군인정신의 중요성은 군인의 됨됨이와 그가 속한 군대의 우수성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패 모두가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군인정신은 애국심을 바탕으로 군인이 나라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다.

1957년 11월 26일 최초로 제정되고 1976년 9월 17일 개정되어 국방부 훈령 제212호로 공포된《군인의 길》전문에서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과 더불어 존재한다"고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며,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인 조국을 지킴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40]

군인정신의 요소는 명예심,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책임감 등이다. 이와 같은 정신을 갖도록 군목은 장병들을 교육하고 기도하여 정신전력으로 승화시키는 일을 한다.

38 '국군의 교육이념'

39 '군인복무규율'의 군인정신 참조

40 국방부, 〈군인생활수첩 군인의 길 해설〉, 96 참고

### 2) 정신전력

신념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간직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이다. "쟁취하려고만 하면 승리는 나의 것이 된다"고 믿게 해주기 때문에 기적을 낳는다. 그러므로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정복할 수 있다"고 에머슨(Emerson)은 말했다.

정신전력은 군인정신이 기타의 무형적인 요소와 종합하여 나타나는 전투력이다.[41] 정신전력은 신앙에서 온다. 믿음의 군대는 승리한다. 다윗의 군대, 기드온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는 믿음의 군대였기에 승리하였다.

신앙은 전력이다. 6·25 전쟁 시 통영에 괴뢰군이 내려와서 포진하여 언제 점령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병 1전투단 단장 김성은 대령은 진해함에서 부대원을 함정에 승조시켜 통영으로 항해 중이었다. 김성은 단장은 군함 갑판 포대 아래 엎드려 기도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다. 그는 새벽 5시에 통영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하루 만에 통영을 탈환하고 적을 저지하였으며, 한국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외신이 전했다.[42]

도솔산 전투는 1951년 6월 4일 해병 1연대와 인민군 제5군단 12사단과 32사단이 도솔산을 두고 치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해병대 전 장병이 전장에서 함께 기도드리고 도솔산 고지를 점령했다.[43]

이어서 1951년 8월 29일 중동부 전선 김일성 고지 전투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였다. 이것은 모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셔서 승리했다고 장병들은 확신했다.[44] 이처럼 6·25 전쟁 중에 치른 진동리 전투나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서울 탈환 등의 승리를 가져다준 것은 하나님이셨다.

41 육사, 《한국 군인정신》, 육군사관학교(1978), 288.

42 "김 부대장의 기도와 통영작전의 대승", 〈기독신문〉(1951. 7.15 일자).

43 조인복, 《해병 발전사》 (해병대사령부, 1961), 73.



군목은 참호 속에서, 함정 갑판 위에서, 고지 정상에서 기도했다. 신앙의 군대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조국에 평안을 가져다주었다. 육, 해, 공군에 앞장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전장에서 기도하는 군목과 함께해 주셨다. 신앙이 전력이며 군목은 기도로 장병을 용사로 만드는 사람이다. 오늘도 모든 군목은 신앙을 통해 장병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온몸을 다해 충성하도록 애국의 혼을 일깨운다. 신앙의 부대는 반드시 승리한다.

## 6. 결론

군목은 장병의 전인적 교사요, 영성 지도자이다. 부대의 장병들을 위하여 사도직을 감당하며 종으로, 목자로, 청지기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이다.

필자는 서부 전선 최전방 부대에 초빙되어 6·25 기념 반공강연을 마치고 부대 장병들과 함께 영내 식당에서 점심식사시간을 가졌다. 그때 부대장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군목들이 야전군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군목이 부대본부교회에 안주하여 로만칼라가 있는 사복을 입고 목회한다는 것이다. 오늘 부대교회는 머슴교회가 되고 '십자가의 도', 즉 '머슴의 도'를 실천하고 전방에 흩어져 있는 예하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섬기는 목자의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45]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전우

44 박동열, "나의 신앙체험" 〈불기둥〉 4호, (1956. 3), 26-27.

45 송명선, 《머슴교회》 (두란노, 2007), 99.

간에 서로 귀히 여기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군대병영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6·25전쟁 당시 UN군이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피난민들을 마리너스호에 승선시켜 피난시키게 되었다.[46] 그때 연합군 군목이었던 옥호열 군목이 북에 남게 될 교인들을 걱정하며 함흥시내의 교회들을 찾았으나 교회 문은 잠기고 불은 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함흥시 광화리 교회만 불이 밝혀져 있어 문을 두드리고 백여 명의 교인을 데리고 흥남부두에 와서 1950년 12월 19일 오후 4시. 해군 수송함(L.S.T)에 태워 거제도로 피난시켜 주었다. 그들이 거제도 성내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다가 서울 수복 후 교인 전체가 상경하여 서울 충무로에 세운 교회가 충무로성결교회이며, 지금 강남에 있는 충무교회이다.[47] 서울 충무로성결교회는 미8군 공병부대 라스나 군목이 옥호열 군목에 의하여 함흥에서 피난 온 교인들인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건물을 세워준 교회이다.

군목은 출애굽 여정의 인도자이다. 군목의 발걸음이 닿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군목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군목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46 빌 길버트(Bill Gilbert), 《기적의 배》, 안재철 역 (자운각, 2004) 참고.

47 백수복 편, 〈충무교회 50년사〉 (충무교회, 2000), 245.



군선교신학 제9권

# 전쟁에 대한 기독 윤리적 고찰
## The War: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김동연 Kim, Dong Yun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Th.M.)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M.A.)
■ 육군 리더십센터 상담학교관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결코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 오늘날보다 더 전쟁이 창궐했던 때는 없었다. 이런 전쟁에서 죽는 사람의 80%가 시민이다. 1700년 이래 전쟁의 빈도와 그 파괴성은 계속 심해져 왔으며, 20세기에 와서는 극에 달해 전쟁으로 인한 사망 대부분이 20세기에 일어난 것이다(90%). 이제는 더 이상 시민과 전투군을 구분할 수 없다. 현대전이란 기본적으로 무차별한 것이 되었다.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전쟁에서는 힘의 극대 사용과 폭력 적용 때문

에 도덕적 힘이 작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자들의 이상도 발효되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정당전쟁론은 최후수단으로 전쟁을 허용하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그 자체로 수행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표준을 내세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것이며, 전쟁을 하는 가운데 내세운 표준은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이다.[1]

그러므로 전쟁이 있는 한 평화는 없다. 물론 전쟁이 없는 것만이 평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에는 전쟁이 없어야 하며 바꿔 말하면 전쟁이 있는 곳에나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전쟁이 억제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불안들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원자전에 집중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45년 이래 1982년 12월까지 계속 실시된 핵 실험은 총 1,375개에 달한다. 1,200개는 미국과 소련이 한 것이고, 나머지 175개는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등에 의한 것이었다. 1963년 이래 대기 중에서의 핵 실험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지하 핵 실험은 계속되었다. 이렇듯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금지조항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전면적인 핵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훑어보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핵 전쟁이 일어나면 남반구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반구에서도 사실상 중요한 모든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수백 만이 폭발과 화염폭풍으로 죽을 것이다. 방사능 낙진은 더 많은 사람을 서서히 죽게 할 것이다. 방대한 지역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며, 시체에 접촉했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곤충들이 질병을 급속히 퍼뜨릴 것이다. 오존층 또한 심각한 파괴를 입을 것이며, 핵 겨울로 지구의 기온은

1)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뉴스앤조이), (2002).



급격히 내려가고, 지구 전체 생물권이 붕괴될 것이다. 계속해서 엄청난 농작물이 수확에 실패할 것이고, 기근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오랜 기간 계속되는 생태계 변화의 영향으로 생활상태는 영구히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엄청난 상황을 완전히 표현해 줄 적당한 단어가 없을 지경이다. 핵 전쟁은 일종의 마지막 사건이 될 것이다.

오늘날 미 · 소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되고, 핵무기의 일부가 소거되고, 다양한 지역분쟁이 다소 희망적인 분위기가 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에 지리적,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뜻깊고도 희망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훨씬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현재 핵무기 비축문제는 여전히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계속 폭탄이라는 유령과 '아마겟돈' 에서 피에 젖은 최후 전쟁이 있으리라는 망령에 시달리며 살게 한다. 현재의 5만 5천 개의 핵무기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1만 6천 메가톤(이는 TNT 160억 톤에 상당하는 것이다)인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 막 자멸하려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 게다가 1982년 이래 두 초강국은 이미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비축해 왔으며, 일격에 이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지금도 적극적으로 시험에 시험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핵무기 소유국들도 자기네 병기고에 넣을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우연히 - 사람이 잘못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 핵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핵 전쟁의 가능성도 간과될 수 없으며 어떠한 핵 전쟁도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분쟁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은 역사의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전쟁이 창궐하고 있다. 이 분쟁들은 인종적, 종족적, 부족적, 종교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며, 단일민족 국가들 내부에서나, 지역적으로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군대가 그 나라의 지배종족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힘을 가진 정부가 그 나라 안의 다른 종족들을 없애기 위해 이 군대를 이용한다.

전쟁은 세계의 군비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군비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고 있다. 이 비용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 비용은 정부와 직결되어 있는 강력한 군 산업시설과 관련되어 있다. 통계에 의하면, 미화로 1백 8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이 매분마다 전세계의 군비로 쓰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최소한 지난 25년간 끊임없이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그에 더해서 막대한 양의 돈이 새로운 형태의 화학전 및 세균전 개발을 위해 투입되었다. 이 모든 비용은 단순히 어마어마한 재정의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수의 불평등 위에 세워진 제국적 구조를 지탱해 주고 있다. 이 구조 안에서 세계 인구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세계 총생산량 중 극히 일부를 나눠 가지려 서로 싸워야 하는 반면, 부유한 나라와 그 국민들은 더욱더 부자가 된다. 한편 오늘날 제3세계의 국방예산은 1960년보다 7배나 올랐다.[2]

이러한 전쟁과 핵 위협의 시대에서 전쟁이라는 말 앞에 어떤 미사여구를 붙인 전쟁도 비기독교적이다. 특히 핵시대인 오늘에는 더욱 그러하다. 전쟁은 그 자체가 평화를 깨는 폭력이다. 예장 합동 측의 〈기독신보〉는 세계 100여 개국 400여 도시에서 열린 '국제반전평화의 날' 시위를 보도하면서 "어떤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누구와의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고, 악은 선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3]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전쟁관이다. 만일 그런 전쟁관이 옳다면, 6 · 25전쟁 시 남한은 이북의 침입에 손을 들고 있어야 했고 미군의 인천상륙작전도 없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남은 벌써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세계 적화(赤化)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만을 이롭게 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정당성이 있는

2 폴 마샬, 《정의로운 정치》 진웅히 역 (IVP, 1997).

3 〈기독신보〉, 2003. 2. 19, p. 1.



전쟁이 있다고 본다. 국가가 보유하는 군대는 그것 때문에 존재해야 한다. 오늘날의 전쟁들은 이런 차원에서 판단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 2. 본론

### 1) 전쟁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였던 전쟁은 동 · 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여러 가지로 규정되었다. 서구에서 전쟁론의 대가라 하는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의 기념비적인 저서 《전쟁론》(*On War*)에서 전쟁을 "적으로 하여금 아군 측의 의지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힘의 행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클라우제비츠에게 있어서 전쟁은 '국가 정책의 연장'이었고, 이는 국가의 외교와 함께 국익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처럼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본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는 서구를 전쟁의 빈발과 비인간적 대량 인명 살상과 파괴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내려온 동양적인 전쟁술의 고전인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손자에 의하면, 전쟁은 군중의 생사가 결정되는 분기점이자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것이므로 전쟁은 차선이었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다. 아울러 전쟁은 속임수라고 보면서 전투원의 섬멸을 통한 무모한 전승보다는 상대의 교전 의지의 마비를 목표로 한 양동, 심리전, 기습, 포위, 차단, 우회 등이 전쟁의 기술로 자주 사용되었다.

### 2) 전쟁의 섭리적 이중성

그러나 전쟁의 개념이 어떠하든 현상적인 면에서의 전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대규모적 살인과 장애의 발생에 다름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

가 사이의 의지의 격돌과 신체의 마모와 손상을 보며, 피해 가족의 절규와 전투원 간의 윤리의 망실, 물질문명의 손상과 무형문화의 파괴를 발견한다. 전쟁은 불가피하게 대규모의 살상과 파괴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 전쟁을 미화시켜 왔다. 대량 살상무기인 전폭기를 '자유의 투사' 라고, 자살특공대를 '가미가제' (神風)로, 그리고 러시아와 독일군 6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탄넨베르그의 대회전을 '추수일' 이라고 핵미사일을 아기사슴 밤비(bambi)로 수식하였다.[4]

국가의 미화와 수식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훼손' 이다. 이는 "살인하지 말라" (출 20:13; 신 5:17; 마 5:21)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반역이다. 그러나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죽이고, 헐며, 찢고, 미워하며 전쟁할 때가 있다(전 3:1-8)고 말하면서 이 비극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전 3:11)고 말하였다. 실제로 하나님은 용사가 되시어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고, 혹은 용사들을 세워서 전쟁터에 보내심으로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셨다. 그는 친히 이집트의 강군을 격파하시고 여리고와 아이 성의 정복전쟁에 앞서 가셨으며, 산헤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자신의 천사들로 일시에 섬멸하셨다.

전쟁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식이다. 하나님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예비(욥 38:22-23)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며 처벌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지상에 세우시고 장군과 군벌과 정복자를 통하여 새로운 문명을 후원하여 세우게 하신다. 전쟁을 통한 한 민족사의 종결과 새 역사와 문명의 발흥은 필

4 마틴 로이드 존스,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실까》, 박영옥 역 (목회자료사, 1991). 22-25.



요악을 사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적 이중성이다.

### 3) 전쟁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인류는 일찍부터 많은 전쟁을 치러 왔다. 영토의 확장이나 경제적 동기나 지배권을 위한 전쟁으로부터 종교와 이념의 실현을 위한 전쟁까지 인류 역사는 다양한 전쟁을 경험하였다. 특히 20세기 초엽과 중엽에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다.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전세계에서 7천8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5] 전쟁의 참혹한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는 원자폭탄을 비롯하여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로 인해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전쟁은 참혹한 일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 (1) 정당전쟁이론

성경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전쟁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국가 혹은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요 19:11). 사도 바울도 국가와 통치자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할 것을 교훈하였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

5 최석, "전쟁", 《동아 세계 대백과사전》, 24권, 481.

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롬 13:1-4).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딛 3:1). 사도 베드로도 교훈하기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벧전 2:13-14)고 하였다.[6]

국가나 정부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로 주신 기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통치자들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옛날 헬라 철학자 플라톤의 생각대로, 국가는 백성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물론 자기 나라에 불만족한 자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는 사회의 혼란을 막는 도구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無政府)보다 낫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우리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과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물론 국가나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악한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더 높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6 프란시스 쉐퍼, 《기독교 선언》, 김정훈 역 (보이스사, 1982). 28-33.



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가 나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렸다(출 1:17, 21).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복종치 않았다(단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유대인 공회의 명령에 복종치 않았다(행 4:18-20).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국민으로서 국가와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

둘째로, 군인은 결코 나쁜 직업이 아니고 경건한 군인이 가능하며 세속 국가에서 군대 조직은 필요하다. 세례 요한은 군대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군인들에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誣訴, 거짓되이 비난]하지 말고 받는 요(料, 봉급)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했다(눅 3:14). 예수께서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간구한 한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셨다(마 8:5-10). 성경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해 증거하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천사의 증언을 기록하였다(행 10:2, 4). 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로마 총독 베스도의 심문을 받았을 때,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행 25:8-11). 군대는 악한 조직체가 아니고 사회질서와 평안을 위해 필요한 조직체이다.

셋째로, 정당한 전쟁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전쟁이란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전쟁을 말한다. 한 국가가 상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기 나라와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하는 정당 방위적 전쟁이나, 또는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침략했거나 악한 테러를 일삼는 나라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응징하는 전쟁 등은 정당한 전쟁이다. 국가가 이러한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려 할 때 모든 국민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공의의 응징에 대해 가르친다. 이것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의 정당성에서 확인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창 9:6). 또한 성경은 정당 방위를 옹호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출 22:2).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다(눅 22:36).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행한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다(창 14장). 또 유다 왕 아비야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공한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패하게 하셨고(대하 13:15-16), 여호사밧 때에도 침략한 이방 나라를 패배케 하셨다(대하 20:22-23, 29).

물론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은 선한 일이므로 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 적군에게서 빼앗을 것을 먹을지니라"(신 20:10-14). 이와 같이 합법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포로들이나 여성과 어린이의 학대나 민간인 살상 등을 피해야 하며, 특히 오늘날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은 금해야 할 것이다.[7]

넷째로, 개인적 보복과 공적 보복은 구별되어야 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교훈(마 5:38-44)이나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롬 12:19-21)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개인적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눅 23:34; 행 7:60)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하는 사랑의 동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사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을 부정하는 구절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적인 보복적 살인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적인 사형 집행이 정당하듯이, 국가는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조 2항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관리들의 직분에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각 국가의 건전한 법들에 따라 특히 경건과 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서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정당 전쟁론의 실제 사례 - 미가와 단 지파

정당 전쟁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독교 평화주의는 구약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잠정적 제안은 이론적으로 정당 전쟁론이 더 일관성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평화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정당 전쟁론은 현실적으로 평화주의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찾아볼 수 있을까. 사사기 17장의 미가 이야기와 18장의 단 지파의 이주 이야기를 통해 실제적 사례를 살펴보자.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어머니의 은을 훔쳤던 미가는 어느 날 어머니가 은을 훔친 자를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된다. 그후 미가

7 스티븐 모트, 《복음과 새로운 사회》, 이문장 역 (대장간, 1992.) 134-151.

는 자신이 어머니의 은을 훔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은을 어머니께 돌려주었다.

은을 훔친 사람을 저주했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도둑이었음을 알게 되자 말을 바꾸어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다. 그리고 되찾은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자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가는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을 신당에 모시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후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던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찾아온다. 미가는 그가 레위인임을 알고, 자신의 집을 위해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한다. 레위인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가의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 미가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가. 그의 신당에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신상이 여전히 있었다.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의 이주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께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긴 단 지파는 살 곳을 찾아 '라이스' 라는 지역을 정탐하러 갔다. 라이스 지역을 살펴보러 갔던 정탐꾼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고, 그곳에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나중에 무장한 육백 명의 단 지파와 함께 미가의 집을 찾아와 레위인에게 한 집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더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한다. 레위인은 내심 기뻐하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가의 신상을 들고 단 지파와 함께 라이스로 간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라이스 땅을 주셨다고 확신하며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 자신들의 성읍을 세운다.

단 지파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사람



들을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이스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신명기 7-8장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살면 그들도 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라이스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사사기에 없는 것으로 보아 라이스는 심판과 정복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었다.[8]

우리는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했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해 은을 거룩하게 바치자고 했지만, 결국 미가의 이름을 높이는 신상을 만들었다. 레위인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신앙적인 말로 포장했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사기 17장과 18장은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부르짖던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사기 읽기를 통해 미가, 레위인, 단 지파가 얼마나 엉터리였고 자신들의 일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도 비슷하게 다가오는 점이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2) 성서의 평화주의 이론

#### ① 구약성서에서의 샬롬(Shalom)과 평화사상

구약성서에서 평화의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 '샬롬(Shalom)' 은 포괄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명사 '샬롬' 은 성경에서 287회 사용되

8 오스카 쿨만, 《국가와 하나님 나라》, 민종기 역(여수룬, 1996.) 215-229.

었고, 여기서 파생된 동사는 '샬람' 으로 '평화롭게 하다' , '평화롭다' 이다. 명사 샬롬은 '안전하게 하다' , '끝나게 하다' , '완전하게 하다' , '끝마치다' 등의 여러 형태로 쓰이는 동사형 '샬렘' 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샬롬이란 말이 평화란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을 때 그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본래 바라보았던 것은 총체성, 연합, 완전성, 충만성이 가득한 세상 혹은 인간사회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샬롬의 일차적인 의미는 '어떤 유기체나 인간 공동체, 민족, 가족 등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안전하게 존재하는 것' 을 뜻한다. 더 나아가 샬롬은 전쟁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획득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전쟁에서의 승리 자체를 의미하였다.[9]

샬롬은 공동체적인 조화로운 삶을 즐겁고 효과 있게 하는 모든 원천들과 요인들을 가리킨다. 샬롬은 위협의 한가운데서 존재하는 평안이며, 전쟁과 한발과 맹수들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이다. 그 평안은 행복한 날에 느끼는 목가적 평안이 아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항상 직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과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 얻는 물질적, 육체적, 역사적 평안이며, 초목과 열매와 원수들 가운데서 체험되는 '구원' 이다.

샬롬은 또한 연대적인 평안이다. 그 평안은 모든 공동체, 다시 말하면 소년이나 노인, 부자나 빈자, 힘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안전과 번영이다. 우리는 샬롬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함께 서 있으며 그 삶의 선물을 함께 받아야 한다. 샬롬은 단 한 사람도 결코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감싸는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와 통일" 이다.[10]

구약성서에서 평화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는 '총체의

9 프란츠 알트, 《산상설교의 정치학》, 남정우 역(보리, 1988.) 17-20.

10 알란 크라이더, 《그리스도의 길》, 한화룡 역(IVP, 1992.) 29.



상태' 또는 '완전함의 상태' 로 개인의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경제적 번창과 정치적 안정까지도 포함하는 사회 지향적인 정치적 대망이다. 그러나 구약의 샬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교적, 전승사적으로 해석된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약성서의 평화사상은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샬롬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종교적 성격을 띤 것으로 히브리인들에게서 샬롬은 일종의 종교적 개념이었다. 샬롬은 결코 인간적 성취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어떤 존재론적 상태가 아닌 야웨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의 현실 안에서 이해된 개념이었다. 그래서 샬롬은 야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야웨는 평화이시다(삿 6:24). 야웨가 평화의 창시자이시며 평화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며 완성하신다(시 29:11, 35:27; 욥 25:2; 민 6:26). 샬롬은 야웨 하나님이 그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낸 구원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의 평화계획' 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안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평화를 야웨의 선물로 이해하였다.

둘째, 평화는 정의와 연결되어 있다. 즉 정의로운 평화이다. 정의는 하나님의 평화의 전제이며 내용이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이 시편 기자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는 시적 형식으로 정의와 평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한다(시 85:10-13).

예언자 이사야는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고 말한다. 정의는 평화를 가져온다(사 32:17). 이사야는 평화로 다스려지고 정의가 거닐며(사 61:3),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정의가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리는(사 48:18) 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때, 억눌리고 박탈당한 자들이 힘과 존엄성을 얻게 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즉 샬롬의 수립이 이루어진다. 공평과 의의 귀결이 샬롬이다. 곧 기쁨과 평안의 안식이 지속된다.

그러나 불평등과 압제는 잠시도 평화로울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그러므로 평화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11]

셋째, 평화는 관계적 개념이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하나님과 자연이 바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상호 친교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통치자이며, 관리인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자연의 대리자이며, 자연의 관리자인 인간의 사명은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이런 책임적 존재인 인간의 타락은 평화를 파괴시켰는데 그것은 곧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파괴였다.

구약에서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에서의 샬롬이라는 윤리적 용어는 계약관계에서 유출된 것이다. 이 계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평화의 계약' (겔 34:25-31)이며, 그 관계에서의 신실함, 곧 정의롭고 신실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그런 사귐의 친구관계가 샬롬을 가져다준다.[12]

넷째, 구약의 평화사상은 미래 지향적 기다림이다. 이것은 메시아적인 기다림이며, 평화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을 말한다(사 2:2-4; 미 4:1-3). 미가는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 4:3-4)라고 했다. 그리고 메시아는 궁극적인 평화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사 9:1-6, 11:1; 미 5:1). 이사야에 의하면, 평화의 왕 메시아는 정의를 구현함으로 평화를 성취한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사 9:5-6).

다섯째, 구약의 평화사상은 실천적 개념이다. 평화의 현실은 야웨의 사랑과 진실이 화평을 이루어 구현되는 현실, 이른바 야웨의 임재와 거주하심이 인간의 응답과 결단을 통하여 보유되는 그 현실이며, 평화는 야웨의 사랑과 진실을 모방함으로써 카오스(무질서)와 소외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가는 실천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직분과 창조의 질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책임적 존재로 다른 생명체와 함께 동료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의 윤리는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던 '평화의 계약' (겔 37:26; 사 54:10)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구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의 '샬롬' 은 갈등과 적대관계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야웨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확립해 가는 사회구조, 이른바 야웨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운동과 상응한다.[13]

② 신약성서에서의 '에이레네(eirene)' 와 평화사상

신약성서에서는 평화라는 말이 희랍어 '에이레네(eirene)' 로 사용되었다. '에이레네' 는 본래 세속 그리스어로는 전쟁의 반대 상태 내지 전쟁의 종식을 뜻한다. 평화는 질서와 법이 유지되는 상태이며, 여기서 복지가

11 쟈크 엘룰, 《무정부와 기독교》, 박건택 역 (개신교신학연구소 1994.) 139.

12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CUP, 2000.) 33-8.



13 Ibid. 87-9.

비롯된다. 그래서 세속 그리스어로서의 에이레네 개념은 전쟁의 지속 상태에서 하나의 막간으로서 이해된 사건들의 상태로, 평화의 시간 혹은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본래 휴전을 뜻한다.

신약성서에서 '에이레네'는 모두 91회 나오는데 복음서에만 24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에이레네'는 신약성서에서 그 의미의 폭이 세속 그리스어보다 더 광범위한데, 그 이유는 그 단어가 기독교 신앙과 경험의 배경 속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어 샬롬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에이레네' 개념은 정리하기가 어렵다. 신약성서의 기록 자체가 서기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이때 기독교가 부딪쳐야 했던 정치적 상황이나 문제들에서 중요한 변화를 찾아 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당시 로마제국 자체가 충돌이 없는 로마의 평화(Pax)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신약성서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대 이스라엘과는 달리 그 스스로의 역사를 갖지 않았고, 로마제국 안에서 유대교 내의 소수 종파주의자로 생각되어 정치적 힘도 없는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레네'의 개념은 구약성서의 '샬롬'과는 달리 그 개념의 전승사적 고찰은 할 수 없으며, 신약성서의 '에이레네' 사용의 출발, 목표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빛에서부터 개념이 파악되어야 한다.

신약성서에서 평화 사상은 그리스도의 평화(골 3:15)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선물(롬 1:7; 고전 1:3)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대 속에서 획득되고 유지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요, 평화의 왕으로서 왔다(히 7:2). 예수가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눅 2:14)라고 천사들이 예수의 세상에 오심을 평화로 규정했다.

신약성서에서 평화는 전쟁의 반대로 이해되고(눅 14:32; 행 12:20), 외적



인 안전(눅 11:21), 무질서의 반대 상태(고전 14:33), 사람들 사이의 화해(행 7:26; 갈 5:22; 엡 4:2), 메시아적 구원 개념으로 이해된다(눅 1:79, 2:14, 19:42).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신약성서의 평화사상은 화해와 연관되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화해의 사건이라는 것이다(엡 2:14).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가져온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롬 5:1). 그러므로 신약성서에 나타난 평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이며, 인간의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한다.

이런 인간과 세상의 구원 상태로서의 평화는 인간 상호관계의 새 질서를 포함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전 7:15).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가 선포되게 하신 후, 인간은 평화의 수립자가 되었다(마 5:9).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평화이며(롬 4:17), 그것은 인간들 사이의 화해로서의 평화를 내포한다.[14]

결론적으로 성서에서의 평화사상은 정의로운 평화이다. 이 정의로운 평화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행해야 하는 하나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이며 구원인 동시에 예수 자신이 평화이며, 평화의 수여자이고, 화해로서의 평화이다.

### (3) 오늘날의 평화사상

21세기를 맞아 인류의 과제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미국의 시인 휘트먼(Whitman)은 "평화는 언제나 아름답다"고 했다. 평화는 인류 모두의 염원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국가, 평화로운 인류, 평화로운 세계를 희망한다.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점철사며 평화 갈망의 역사다. 지난 20세기에 세계는 두 번

14 박건택, "쟈크 엘룰 연구" (총신대학신학대학원, 1995.) 29-30.

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라는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20년 후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 새로운 세기는 과연 평화의 세기가 될 것인가[15].

기독교에서 평화는 성서적 복음 선포의 중심주제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히 7:2). 평화란 무엇인가. 오늘날 평화연구에서 평화의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다. 소극적 의미의 평화란 전쟁의 부재, 곧 전쟁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 폭력, 궁핍, 부자유, 불안이 없는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사회정의가 행해지고 있는 상태, 사회정의의 현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삶을 위해 능력과 수단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상태로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규정된다. 기독교의 평화개념은 소극적, 적극적 평화개념을 연결시키면서 정의의 강조를 통하여 적극적 평화개념을 우선시킨다.

기독교의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시편 기자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는 시적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정의가 평화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시 85:10).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사 32:17). 정의가 평화를 창조한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기독교의 평화는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다.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회는 평화를 건설해가는 평화수립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증언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만

15 K. Barth, Ethics. trans., G. W. Bromiley (Vail-Ballov Press, 1981.) 34-5.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다(마 5:9).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과 교회에 맡겨진 책임이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의 정치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폭력의 거절이다.[16]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는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리 최후의 폭력의 거절로 이해한다. 그가 피하고자 한 잔의 의미는 처음부터 그를 유혹했던 메시아적 폭력을 거절하는 것이다. 사복음서 모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는 것을 보고한다. 요한은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자 예수가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며 베드로를 제지했고, 마태는 하나님께 로마의 열두 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와 폭동의 주동자인 바라바를 대조한다. 예수의 잔은 폭력의 거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의미한다. 예수는 폭력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거절하시고, 비폭력적인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길을 선택하셨다.[17]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역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대가였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증오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용서와 의로움과는 무관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용서를 그 육체 안에서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18]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폭력의 거부와 비폭력적 섬김의 정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요더에 의하면, 전쟁의 문제는 현대 기독교 윤리학을 평가하는 시금석

16 《현대기독교 윤리학의 동향》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41-8.

17 김기현, 《요더의 예수의 정치학》 〈복음과 상황〉 151.

18 K.G. Greet, The Big Sin. (Basingstoke Hants, England: Marshall Morgan & Scott, 1982.) 223-7.

이다.[19] 전쟁에 대한 입장에 따라 그의 신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칼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의 스승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을 때, 그들의 신학과 윤리에 대한 깊은 회의와 함께 새로운 길을 로마서를 통해서 모색하였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의 경험과 현재적으로는 분단의 고통과 함께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태도는 그 신학과 윤리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정당한 전쟁론(Just War Theory)을 지지하였다.[20] 정당한 전쟁론은 한마디로 교회가 역사를 통제하기 위해 힘과 폭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콘스탄틴주의적인 가정의 수용이다. 콘스탄틴주의가 초대교회가 견지했던 평화주의를 포기하게 하고 현실적인 정당한 전쟁론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수의 평화주의는 먼저 폭력의 거부이며,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강제력의 거부이다. 그 초점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정당한 수단마저도 포기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던 것처럼, 때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 폭력과 전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평화주의의 단 하나의 정당한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양

19 Girdstone, R. B. Synonyms of the Old Testament. (Michigan:Eerdmans Pub., 1981.) 339-41.

20 신원하 "존 하워드 요더의 사회윤리학", 〈목회와 신학〉 (1984. 5월호.) 79-85.



립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Lord)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쟁과 폭력의 문제에서도 그분의 가르침과 행위를 본받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추종해야 할 규범이자 모범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룬 삶의 양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오직 단 하나의 요지, 단 하나의 주제는 - 게다가 그것은 일관되고 보편적으로 - 우리의 모범이 예수라는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 말이다."[21]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공유하고 참여해야 할 영역은 바로 평화주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제와 폭력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단념하시고 비저항적 사랑의 예시라면, 제자의 십자가는 강제의 정당화, 곧 전쟁과 폭력의 정당화가 아니라 거부여야 할 것이다.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방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폭력의 유혹을 거절하고, 자기 비움과 원수 사랑의 실천을 사회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역시 다르지 않다. 그것은 증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대가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안의 하나님의 사역 곧 아가페와 십자가의 사역에 참여 또는 모방의 삶을 살아야 한다.[22]

정당한 전쟁론은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함으로써 비강제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폭력의 사용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강제력을 동원하여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명백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단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지적처럼 "부

21 김세윤, 《예수와 바울》 (두란노 2001.) 152-6.

22 Ibid., 132-5.

당한 사건이나 조건에 직면했을 때 폭력에 의지하려는 것은 폭력 본래의 직접성과 신속성 때문에 빠지기 쉬운 엄청난 유혹이다." 그러나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서야 한다. 역사로부터 물러설 수는 없다. 단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력이 아니라 약함이어야 한다.[23]

### (4) 평화주의와 기독교 현실주의

평화주의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생명을 빼앗는 것에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군 복무와 참전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이 입장은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동을 거부한다. 설령 그것이 더 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이들의 평화 이해는 비폭력 무저항이다. 이것은 콘스탄틴 이전의 첫 삼 세기 동안 교회의 지배적인 견해였다.[24]

평화주의는 종종 악에게 저항하지 말며, 악을 없애기 위해 악을 쓰지 말라는 예수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평화주의는 콘스탄틴 이후 '시민 의무의 불복종' 이라는 비판 아래 교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교회에서 밀려나 이단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 위클리프파, 에라스무스, 슈벵크펠트, 톨스토이, 슈바이처, 여호와의 증인,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등이 평화주의자이며 특히 재세례파, 퀘이커파, 형제단은 '역사적 평화교회' 라고 불린다.

평화주의는 입장과 태도가 다른 점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비폭력주의이며 대개는 무저항을 평화로 생각한다. 그러나 무저항이라 할 때 이것은 정의가 결여된 개념이다. 평화주의자들에 대한 오류와 비판은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 현실주의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에 의해 이루

23 Ibid., 150.

24 신동식, "프란시스 쉐퍼의 사회개혁론 연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97.) 113-7.



어졌다.

라인홀드 니버는 톨스토이 식의 평화주의와 무저항주의자들의 사회는 강제력이 없는 무정부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조직될 수 있다는 확신을 환상으로 취급하며 평화주의자들을 현대판 기독교 완전주의자들로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평화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사랑과 법과 죄 사이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인류 사회를 위한 영속적인 평화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양심과 통찰력으로 촉진된 비전이었지 집합적 사람들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집단에게 기대하는 것 사이를 구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개인으로는 도덕적이나 집단으로는 비도덕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견지에서는 최고의 이상이 무사성(unselfishness)이나 사회의 관점에서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가 된다.[25]

이러한 니버의 입장을 기독교 현실주의라 하는데 니버에게 있어서 현실주의는 정치적 현실주의이며 이상주의와 대조되는 말이다. 그에 의하면, 현대의 평화는 현존하는 권력의 불균형 안에서의 휴전에 불과하다. 평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사회적 평등의 정의이다. 평등한 정의가 사회의 가장 합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이기적이고 야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는 평화 수립 과정에서 강제적 요소들이 인간의 부정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망하는 미래 사회는 완전한 평화와 정의가 있는 이상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의는 있되 그의 공동사업이 전적인 불행이 되지 않도록 강제력이 십분 비폭력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위하여 정의를 희생시키고 또 공동체 간의 평화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평화와 정의 수립은 사회전

25 R.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Archon Books, 1989.) 177-9.

략에 의존해야 한다. 또 전략 가운데 평화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폭력 사용을 인정하는데 이 방법은 또한 부정당한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니버의 평화 이해는 이런 관계들로 인하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사회 안에서의 평화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의 인간관에서도 기인한다. 인간은 먼저 죄인이라는 인간 본성의 낙관적 견해를 수정하고 '인간은 사회적인 피조물' 을 개조한 데서 나온 것이다.

사회의 궁극적 목적인 평등한 정의를 통한 균형 있는 힘에서 나온 평화는 또한 그 평등 속에 사랑의 법이 반영되어 있어서 평등한 정의는 사랑과 변증법적으로 관계되어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나 이 평등의 원리는 완전하게 실현되어야 하지만 실현될 수 없고, 다만 우리의 삶 속에 타당하고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화주의는 사회에서 중요한 정의개념을 소홀히 했다면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현대적인 정당 전쟁론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론은 오늘날 같은 핵 위협의 시대에서 핵의 비축과 개발을 정당화시켜 주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26]

## 3. 결론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평화를 이룸으로써 가능한 적대관계의 극복이 산상설교의 중심을 형성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표상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인류의 본래적인 죄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폭력의 행위이며, 따라서 "인류의 구원은 공동의 삶에 봉사하는 평화에 있다" 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제사장 문헌군(P문서)의 전승에 의하면, 죄는 땅 위에서 폭력을 행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홍

26 제람바즈,《핵전쟁과 평화주의》, 항영철 역 (생명의 말씀사 1987.) 59-67.



수를 내리신다. 유대교의 해석들도 파라다이스의 이야기를 원죄론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아벨에 대한 가인의 형제 살인과 함께 죄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성서에 따르면 이 가인이 첫 도시 건설자였다(창 4:17). 르네 지라르(Rene Girard)가 지적했듯이, 이 문헌들에서 사회건설과 폭력이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무릇 인간사회는 폭력에 바탕해 있다는 - 어느 경우에는 대개 몰락되고 마는 - 인식을 엿보게 한다. 지라르에 따르면, 폭력의 혼돈을 억제하려는 바로 거기서 사회가 생겨난다. 그러나 이 억제가 달성되는 것 자체도 또다시 폭력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인간사회는 이미 그 뿌리에서부터 폭력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27]

또한 창세기 6장 13절에 의하면,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무법천지' 는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은 폭력의 행위와 압제의 확장에 있다. 창세기 6장은 인간과 신 사이의 교만한 중간존재를 낳기 위하여 천사들이 여자와 결합하였다는 고대의 신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창세기 6장 4절에 의하면, '세상에서 폭력적인 자들' , '독재자들' 이다. 이들은 바벨론과 이집트에 있는 실재적 지배자들인데, 이들은 자신을 종교적으로 '신의 아들' 로 숭배케 함으로써 그들의 폭력적 통치권을 정당화시키고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백성을 복종시킨다. 하나님에 대립하며 삶을 폐기시키는 폭력의 행위는 창세기 6장에 의하면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그 속에 살아 숨쉬는 모든 육" 위에 엄습한다. 그것은 먹고 먹히는 법칙 속에 있는 동물의 세계 위에도 엄습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홍수가 "모든 육" 위에 내린다.[28]

27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 Marcus Dods (New York:Modern Library, 1990.) 30-7.

28 Ibid. 33-7.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폭력행위의 제한을 설정하셨다. 첫째, 인간은 무생물적인 자연에 이르기까지 생활계에 주어진 창조 속성을 파괴하지 말며, 둘째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도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생명과 그 나름대로의 생활권 안에 들어 있는 생활 가능성이 보존되게 하며, 셋째 인간 이외의 생명 살해는 기본적인 생활 요구와 인간의 몸과 생명에 대한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탈피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폭력의 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적 제한도 극복하는 창조의 평화는 지혜의 '메시아' 가 비로소 가져온다. 이시야에 의해 악이 극복될 뿐 아니라 악으로 악을 보복하는 법칙이 극복될 것이며, 폭력의 행위가 극복될 뿐 아니라 폭력적 저항을 통한 그의 제한도 극복될 것이다(마 5:46). 그러므로 평화와 폭력문제는 "메시아의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규범이 있을 수 없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의 악순환의 극복을 다음과 같은 산상설교에서 '제시' 해 주고 있다.

>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앙갚음하지 말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들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들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마 5:39-42).

이 산상설교에 의하면, '원수 사랑' 은 이웃 사랑의 완전이며, 하나님께 상응하는 형식이며, 땅 위의 지속적 평화에 이르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극복하는 길은 그의 악을 묵살하는 데 있다. 악은 상대자와 저항력을 잃을 때, 우리가 자진해서 악을 참고 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참을 때 그 힘을 잃고 기진하게 된다. 이때 악은 괴롭게 할 대상을 잃기 때문이다. 제자는 악을 악으로 알아야 하고, 예수가 한 것



같이 악은 악하다고 증거해야 한다. 그 까닭은 이렇게 하는 길만이 악한 자를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악인에게 제자는 오히려 맞서지 않고 참음으로 악이 끝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폭력의 약함이요, 여기에서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 극복' 이 시작된다.

바울도 산상설교를 받아들여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롬 12:21)고 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삶의 존재양태이며, 사랑은 윤리의 최고 규범이다.

원수 사랑은 복수하는 사랑이 아니라 창조적 사랑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고 했다. 이것은 곧 원수 사랑은 모든 차이, 불평등, 대립의 종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이란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살고 분열을 극복한 하나님의 행위이며, 이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화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가 우리의 평화이고, 평화는 화해 곧 원수 사랑으로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 극복이다.[29]

현대전은 방사능 무기, 생물학 무기, 그리고 화학 무기를 동반한 인류와 생태계의 파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와 핵투발 수단 및 전자전 장비의 발전은 재래전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뒤바꿔 놓았다.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행사하는 살상능력은 이제 가공할 단계에 이르러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전쟁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핵무기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하여 인종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를 파멸시킬 만한 상호 공멸의 실제적인

---

29 앙드레 트로끄메 "예수와 비폭력혁명" 양명수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6.) 77-82.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포스런 현대전의 전망 속에서 평화의 추구는 이제 상투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중립선언이나 그리스도인의 도피적 반전운동이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핵 위협 아래 있는 나라의 핵 억제력의 확보와 강력한 방위력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싸울 날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추구를 위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의 주님 되신 하나님과 한 국가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가 내의 가증한 범죄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도 전쟁에서 패배한 동서고금의 타락한 국가는 한 국가의 영적 건강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적절한 평화 추구의 수단이었음을 성경이 논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군대이며 한 나라의 가장 믿을 만한 '병거와 마병' 임을 깨닫고 주님의 평화를 지켜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군선교신학 제9권

#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 A behind story of Evangelization for Soldier in Korean Army

정성구 Chung Sung Kuh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및 대학원(Th.M.)
■ Vrije Universiteit(Drs.Theol.)
■ Geneva College(D.Litt.)
■ Debreecen Reformed University(D.D.)
■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Ph.D.)
■ 전 총신대학교 학. 총장, 대학원장, 신대원장, 목회대학원장
■ 전 대신대학교 총장, 대학원장.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 현 칼빈대학교 석좌교수,한국 칼빈주의연구원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흔히 군목들은 군선교를 황금어장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하는 동안에 군인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직자인 목사를 만나게 되고, 장병들과 군목의 인격훈화나 설교를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복음을 접하게 된다. 사실 군선교 또는 군복음화운동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군 신자화운동에는 진중세례식이 갖는 의미도 대단했다. 이 진중합동세례식이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후방교회의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지

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심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군목들까지도 진중합동세례식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진중합동세례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숫자나 건수 올리기에 급급하다면서 진중세례식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고 들었다. 물론 초기 진중합동세례식을 할 때와 지금은 병영문화도 달라졌고, 군복무기간도 1/3이 단축되었다. 세상이 바뀌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IT산업의 발달로 매우 살기 편한 이른바 N세대 젊은이들과 군목들의 세계관이 40년 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년 전 진중합동세례식을 통해서 전군신자화운동을 앞에서 이끌었던 필자는 그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뒤이어오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1964년 총신대학교 신대원 1학년 때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군종장교후보생 시험에 합격했다. 군종병과가 생긴 후에 주로 군목 자원을 일반목회자에서 지원한 목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1963년에는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서 목사 안수 때까지 군복무를 유보했다가 목사안수 후에 즉시 입대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이는 국방부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좋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군대를 가야 하므로 목사로서, 장교로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복무기간은 장교 임관 후 3년이었다. 나는 바로 그 첫 케이스가 된 셈이다. 나는 1968년 11월에 목사가 되었고, 1969년 3월에 소집되어 논산훈련소를 거쳐 육군 보병학교 특수 간부 28기와 군종 25기로 중위에 임관했다. 그리고 나는 육군 종합행정학교까지 마치고 난 후 보병 26사단 76연대에 배속되었다. 1968년에 북한의 124군부대 출신인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파괴하기 위하여 기습 공격하다가 체포되었다. 북한의 124부대는 혹독한 훈련으로 무장된 자들로서 장단지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을



비호처럼 움직이는 특수군이었다. 북한의 124군부대의 침투를 당한 후에 우리 군도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그래서 나도 육군보병학교 시절 모래주머니를 장단지에 차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당시 일군 야전사령관 한신 장군이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 국군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력강화', '신앙전력화' 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것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기도 했다. 이런 메시지는 일선 부대장과 군목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떨어진 셈이었다.

그런데 1970년 봄에 이미 합동 측에 속한 군목이었던 이상강 대위가 진중세례식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3366부대 즉 보병 26사단 76연대를 복음화하기 위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당시 연대장은 김복동 대령으로 육군 장교 중에 가장 촉망받는 선두주자였고, 막 주월 한국군 보안사령관을 끝내고 대령으로 진급하자마자 우리 부대의 연대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불교신자였지만 군목이었던 나에게 군종업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을 뿐 아니라, 군복음화 사업의 전권을 나에게 다 맡겼다.

우선 나는 부대 장병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체계화했다. 먼저 전 장병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이었다. 기드온 성서협회의 도움으로 전 장병이 신약성경과 시편이 있는 포켓성경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상의 왼쪽 상단 주머니에 필수적으로 소지하도록 했다. 이것은 신 · 불신 간을 막론하고 우선 성경을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귀히 여겼다. 그런데 나는 장병들이 성경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공부를 시켰다.

우선 군종과에는 '3366부대 성경통신과' 를 개설하고 질문지를 만들어 대대별로 중대별로 하달하면, 장병들이 성경을 보고 답을 쓰도록 했다. 답지가 도착하면 점수를 매겨서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계속 했다. 이는 생전 처음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접하는 것이었지만 장병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 오늘날의 교회에서 학습세례를 줄 때 몇 시간의 교육으로 억지 신앙고백을 받아내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제대로 된 것이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포켓성경과 똑같은 사이즈의 찬송가를 만들기로 했다. 그 이름 하여 〈야전 찬송가〉라 했다. 사실 일반 교회 성도들이 큰 찬송가를 갖고 다니지만 실제로 늘상 부르는 것은 불과 40여 곡밖에 안 되는 것에 착안해서 찬송가 600곡 중 40곡을 엄선해서 축소하고 사진판으로 출판했다. 당시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군 찬송가는 커서 교회당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야전 찬송가도 상의 왼쪽 주머니에 성경과 더불어 소지하다가 내무반 예배 시 함께 찬송을 제창하고 중대끼리 시합을 하기도 했다. 그때 〈야전 찬송가〉의 서문에 김복동 연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추천사

금번 우리 부대는 전 장병 신자화의 일환책으로 국제 기드온 협회의 도움으로 전 장병이 성경 한 권씩을 갖게 되었고, 또 찬송가의 필요를 느껴 오던 바 군종과에서 〈야전 찬송가〉를 발행하여 이제 전 장병이 성경과 찬송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신앙의 힘이 군지위에 있어서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야전 찬송가〉를 추천하오니 이 책이 장병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제3366부대장 대령 김복동"

그리고 〈야전 찬송가〉의 머리말에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는 당시 진중합동세례식을 위한 준비와 부대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이 어떠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먼저 〈야전 찬송가〉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장병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모두 함께 사용할 찬송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40여 곡을 수록한 〈야전 찬송가〉를 발행합니다. 훈련장에서나 내무반에서, 바쁠 때나 틈날 때 항상 찬송하며 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를 만들도록 도와주신 연대장님과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후방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① 왼쪽 상의 호주머니에 성경과 함께 항상 휴대할 것 ② 이 찬송가는 각종 예배 시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전 부대 장병들이 성경과 찬송을 함께 읽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만화 〈일병 김산호〉를 발행했다. 나는 우리 부대 안에 만화가와 인쇄업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김복동 연대장에게 건의해서 몇 주간의 휴가를 주어 제작하도록 했다. 읽을거리가 마땅치 않던 시절에 각 내무반에 비치된 〈일병 김산호〉는 인격훈화의 성격을 띠면서도 암시적으로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아마 연대급 부대에서 이러한 출판물들은 처음이라고 본다. 후일 나의 아이디어를 취해 국방부 군종실에서 〈야전 찬송가〉와 비슷하게 제작했으나 찬송가를 1/2로 축소한 것뿐이고 실용성이 없었다.

또한 나는 그 당시 장교, 하사관 부인들이 무료하게 아까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연대급 부대에서는 최초로 장교, 하사관 부인을 위한 '주부대학' 을 만들었다. 군인교회의 주최로 장소를 제공하고, 매주 한 번씩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함으로써 군인가족들의 교양을 높이는 일을 했다. 사실 이 일이 있은 후 10년 후에야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평생 교육원이 생겼으니 내가 1970년에 만든 주부대학이 평생 교육의 효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전 장교와 하사관들은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전군신자화운동, 진중세례식에 적극 동참했다. 그해 가을 26사단의 중령 최세태 군목의 발의로 26사단 진중세례식을 베풀었을 때, 76연대가 가장 많은 병사들이 세례를 받아 이 방면의 선봉부대가 되었다. 그때 전 사단에서 1,200명이 세례를 받았고, 많은 목회자들이 도와주었으며, 강원룡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내가 간단하게나마 진중세례식 때의 활동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 진중합동세례식을 시작할 때는 형식적이고 무대포로 숫자놀음을 했던 것이 아니고, 눈물과 땀을 바치고 정열을 쏟아 일구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꼭 말하고 싶었다. 이는 나의 업적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군복음화와 진중세례식이 한층 더 다듬어지고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방향 제시에 약간의 도움이 될 듯해서 몇 자 적어본 것이다. 나는 3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 군종업무에 종사했었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알찼던 기간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고 우리는 다만 그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라는 생각이다.



군선교신학 제9권

# 《목ᄉᆞ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A Study of a Method on the Catechumenal Practice in the Korean Military Context, Vision2020: With a Focus on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 Korean Early Presbyterian Treatise, *Mok Sa Ji Beob*(Pastoral Theology, 1919)

최석환 Choi, Sok Hwan

■ 총신대학교(B.A., M.Div., Th.M.)
■ 한국외국어대학교 (B.A.)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박사(Ph.D.)
■ 육군 리더십센터 상담처 상담교관
■ 자운교회 협동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서론

《목ᄉᆞ지법》(*Pastoral Theology*, 1919)[1]은 곽안련(郭安連, Charles Allen Clark, 1878-1961년)[2]이 맥코믹(McCormick) 신학교 교수 헤릭 존슨(Herick Johnson)의 목회신학 강의를 참고하여 단순한 번역이 아닌 자신의 내용으로 재편

1 郭安連(Charles Allen Clark), 《목ᄉᆞ지법(牧師之法)》(京城: 朝鮮耶穌教書會, 1919).

한 것이다.[3] 《목ᄉᆞ지법》(1919년)은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이며,[4]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1922년), 《혼상예식서》(1924년), 《목회학》(1925년), 《목사필휴》(1933년) 출판에 영향을 끼친 책이며,[5] 당시 한국의 문화와 상황을 상당히 반영한 예배지침을 제시한 책이다.[6] 《목ᄉᆞ지법》(1919년)의 목차에는 30개의 공과(工課) 제목이 소개되어 있다.[7] 이중 관심분야인 세례는 '제18공과 목사와 성례' 에서 실천적인 부분까지 다루어져 있다. 본 연구자는 《목ᄉᆞ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목ᄉᆞ지법》의 세례의 이해와 세례집례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2 곽안련(Charles Allen Clark)은 Mackalest College,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수학(1899-1902년) 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1902년에 내한하여 승동교회 목회활동(1902-1924년), 평양신학교 교수활동(1908-1939년)을 한 한국장로교회에 신학적인 공헌을 한 선교사이다. 총 51권의 책을 번역, 저술하였다. 다음 책들을 참고하라. 이호우, 《곽안련의 신학과 사상》(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66, 106, 129, 183; 홍치모,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기독교사상〉, 제26권 제2호 (1982. 2), 46; Kim Kyeong Jin, "The Formation of Presbyterian Worship in Korea, 1879-1934" (Th. 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9), 141.

3 Charles E. Sharp, "A Review of Pastoral Theology" The Korea Mission Field, Vol. XVI, No. 11(Seoul, Korea, November, 1920), 235-236.

4 한국교회 최초의 목회학 저서는 올링거(F. Ohlinger)의 번역서 《牧師之法》(1901년)으로 보여진다. 이 책은 독일 감리교 신학자 니페르트(L. Nippert)의 저서 Pastoral Theology를 올링거가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감리교에서 사용된 올링거의 《牧師之法》은 장로교에서 사용된 곽안련의 《목ᄉᆞ지법(牧師之法)》(1919년)보다 18년이나 먼저 출판되었다.

5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의 역사적 고찰에 따른 성찬신학과 실제" (Ph. D. diss., 백석대학교, 2006), 283-284. 곽안련은 《목ᄉᆞ지법(牧師之法)》 출판 이후 《목회학》(The Work of the Pastor, 1925)을 집필하였는데, 이는 《목ᄉᆞ지법(牧師之法)》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 삭제, 변경한 것이다. 또한 그는 《목사필휴》를 집필하였는데, 이는 예식서 성격의 책으로서 각종 예식 예배의 형태와 순서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장로교 총회에서 발행한 《혼상예식서》보다 자세한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목사필휴》는 총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장 영아세례식과 9장 입교예식을 포함하고 있다.

6 김경진, "목ᄉᆞ지법(牧師之法)에 나타난 곽안련(Charles Allen Clark) 선교사의 예배신학과 방법론 연구," 《부산장신논총》 (2004. 11), 210.



## 2. 《목ᄉᆞ지법》의 세례의 이해

### 1) 기독교의 도리(道理)의 심장(心腸)으로서의 성례

《목ᄉᆞ지법》의 '제18공과 목사와 성례' 는 로마 가톨릭의 7성례와 예수교회의 2성례를 비교하며 시작한다.

> 로마교중에성례닐곱가지가잇스니세례와성찬과혼례와장립례와권징례와견신례와종도례오예수교회안에ᄂᆞᆫ두성례만잇스니성찬과세례라[8]

《목ᄉᆞ지법》의 '제18공과 목사와 성례' 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의 도리의 심장임을 강조하며,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의 특권과 영광을 인식시키며 마친다.

> 셩찬과세례는우리교회안에이두례식밧긔업스나이둘이우리의종교의도리의심장이니첫째는예수의피의공로로죄씨슴을밧ᄂᆞᆫ표요둘째는변화산과ᄀᆞ치

7 《목ᄉᆞ지법》에는 30개의 공과(工課) 제목들이 있다. 즉 총론, 목사의 직분, 목사의 성품 중에 결과하게 하는 성질(Elements of Character Making for Success),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의 개인적 생활, 목사의 기도생활, 목사의 개인적 공부, 목사의 교수하는 일, 목사의 개인전도, 목사의 일자리를 택함, 목사의 책임의 범위, 예배회의 예비, 목사와 공예배, 부흥회, 목사와 기도회, 목사와 성경주일학교, 목사의 심방하는 일, 목사와 성례, 목사와 혼례와 상례, 목사와 음악, 목사와 학교, 목사와 노동자, 목사와 인쇄기, 목사와 교회의 유희, 목사와 재정, 목사와 사경회, 목사와 당회, 목사와 상치리회(The Pastor and the Higher Church Courts), 목사와 타교파나 타회(The Pastor and Other Domination and Agencies), 회당 건축 등이다.

8 《목ᄉᆞ지법(牧師之法)》, 307.

예수와련합ᄒᆞᆷ이라이두례식은목ᄉᆞ의생활에ᄀᆞ장놉흔거스로생각ᄒᆞᆷ이합당ᄒᆞ외다목ᄉᆞ의생활에어려움이만코걱졍이만히잇겟지마ᄂᆞᆫ하ᄂᆞ님의ᄉᆞ쟈로이두례식을ᄒᆞ면셔서셔쥬관ᄒᆞᆯᄊᆡ에목ᄉᆞ가그걱졍을다니저ᄇᆞ리고그어려운거슬내여놋코하ᄂᆞ님의명을가지고ᄃᆞ니ᄂᆞᆫ쟈의특권과영광을알거시라시팔십사편십에ᄊᆞ아 윗의말이《내가하ᄂᆞ님의뎐에셔문하인노릇ᄒᆞᄂᆞᆫ거시악ᄒᆞᆫ쟈의집안에쥬인노릇ᄒᆞᄂᆞᆫ 것보다승ᄒᆞᆫ줄아노라》ᄒᆞ니라목ᄉᆞ가이ᄀᆞ치하ᄂᆞ님의ᄃᆡ표쟈로서셔이두가지의거룩ᄒᆞᆫ례식을시힝ᄒᆞᆯᄊᆡ에그영광은신령ᄒᆞᆫ영광 ᄲᅮᆫ이지마ᄂᆞᆫ셰샹왕의영광보다나흐니라이와ᄀᆞ흔ᄊᆡ는목ᄉᆞ의상을밧는 ᄊᆡ 영광의ᄊᆡ니라"[9]

곽안련은, 세례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표이며, 성찬은 변화산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세례와 성찬은 목사의 생활에 가장 높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서서 집례하는 것은 목사의 특권과 영광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시편 84편 10절을 인용하며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집례할 때 신령한 영광뿐이지만 세상 왕의 영광보다 승함을 선포하고 있다.

### 2) '보이는 은혜' 로서의 성례

《목ᄉᆞ지법》에서는 성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이는 은혜' (Visual Grace)로서의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고 있다.

이셩례는목ᄉᆞ가ᄒᆞᆼ샹강도ᄒᆞᄂᆞᆫ리치를물건으로표ᄒᆞᄂᆞᆫ거시되고눈압헤보이ᄂᆞᆫ증거로그리치를확명ᄒᆞᄂᆞ니이를봄으로이셩례가얼마나귀즁ᄒᆞᆫ지알지라[10]

9 Ibid., 343-344.



### 3) 세례의 5대 의의

《목ᄉᆞ지법》에는 《대한예수교쟝로회신경과규측》의 신경 제10조 내용을 인용하며 세례의 정의를 내린 후, 세례의 5대 의의를 진술하고 있다.

셰례의뜻은본교회신경책에명빅히ᄀᆞᄅᆞ첫셧스니《세례는셩부셩ᄌᆞ셩신의일홈으로써물노씻슴이니그리스도와련합ᄒᆞ여셩신으로말ᄆᆡ암아즁싱ᄒᆞ고시롭게ᄒᆞᆷ과우리쥬의죵이되ᄂᆞᆫ언약을엇ᄂᆞᆫ거슬인쳐증거ᄒᆞᄂᆞᆫ표인즉이례는그리스도를밋ᄂᆞᆫ쟈와그의자녀들의게힝ᄒᆞᄂᆞᆫ거시라》[11] 그런즉다ᄉᆞᆺ가지의 ᄠᅳᆺ이잇스니(一)예수ᄭᅬ셔ᄃᆡ신ᄒᆞ야흘니신피의공노로우리들의죄를다씻게된표요(二)하ᄂᆞ님의식구로입회ᄒᆞ고하ᄂᆞ님의나라에입적ᄒᆞᄂᆞᆫ표요(三)하ᄂᆞ님의사람이된표요병명이그나라복석을닙으니보ᄂᆞᆫ이가다그빅셩으로알거시오ᄯᅩ병명이복ᄉᆡᆨ이잇셔야병명의직분을더잘ᄒᆞᆯ거시아니지마ᄂᆞᆫ복ᄉᆡᆨ잇ᄂᆞᆫ거시더ᄌᆞ미잇스니셰례도ᄯᅩᄒᆞᆫ그러ᄒᆞ니라(四)우리들이복을밧을능력잇싱기ᄂᆞᆫ대로셩신이복을더만히주시고져ᄒᆞᄂᆞᆫ표요(五)그사ᄅᆞᆷ이ᄆᆡᆼ셰ᄒᆞ여몸을들여셔ᄌᆞ긔의 ᄠᅳᆺ대로다시살지아니ᄒᆞ고예수의 ᄠᅳᆺ대로살기를작명ᄒᆞᄂᆞᆫ표니라[12]

첫째 예수께서 대신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게 된 표이며, 둘째 하나님의 식구로 입회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는 표이요,

10 Ibid., 308.

11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5 ; 《대한예수교쟝로회신경과규측》(경성: 대한예수교쟝로회간인, 1910), 5-6.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세례는 셩부 셩자셩신의 일홈으로 물노 씨슴이니 그리스도와 련합ᄒᆞ야 셩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ᄒᆞ심과 우리 쥬의 죵이되ᄉᆞ 언약을 밋ᄉᆞ쟈와 밋그의 ᄌᆞ녀들의게 힝ᄒᆞᄂᆞᆫ거시오."

12 《목ᄉᆞ지법(牧師之法)》, 310-311.

셋째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로서 군인이 군복을 입지 않고도 군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군복을 착용하면 더욱 애국심 있는 군인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다. 넷째 우리들이 복을 받을 능력이 생기는 대로 성령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표이며, 다섯째 세례 대상자가 맹세하여 몸을 들여서 자기의 뜻대로 다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표이다. 다섯 가지 중 넷째의 "성령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표"라는 것을, 곽안련의《목회학》에서는 "세례는 마음속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3]

## 3.《목ᄉᆞ지법》의 세례 집례 방안

### 1) 세례의 집례자로서의 목사

《목ᄉᆞ지법》에서는 세례를 집례하는 자는 오직 목사임을 진술하고 있다.

> 이세례를베프ᄂᆞᆫ권은목ᄉᆞ의게만잇고셩부셩자셩신의일홈으로세례주ᄂᆞᆫ것과포도즙을븟ᄂᆞᆫ것과ᄲᅥᆨ을ᄯᅦᄂᆞᆫ권이그사ᄅᆞᆷ의게만잇ᄂᆞ니라[14]

이는 조선 장로교회의 1907년에 채용한 정치 책《대한예수교쟝로회신경과규측》제2조와《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영문판[15]과 한글판 예배모범 제9장 1조에도 언급된 것이다.

13 곽안련,《목회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68. 이 책은 1925년 8월 30일 초판 1쇄에 이어 1991년 7월 30일 개정 1쇄를 했으며, 2006년 11월 10일 개정 15쇄에 이르고 있다.

14《목ᄉᆞ지법(牧師之法)》, 308.



> 뎨이됴 례ᄇᆡ졀ᄎᆞ 쥬일에 모든 신도가 맛당히 모혀셔 하ᄂᆞ님ᄭᅴ 례ᄇᆡᄒᆞᆯ지니 례ᄇᆡᄒᆞᄂᆞᆫ 졀ᄎᆞ는 긔도ᄒᆞᆷ과 찬미ᄒᆞᆷ과 셩경을 보고 강도ᄒᆞᄂᆞᆫ것과 연보ᄒᆞᄂᆞᆫ것과 안슈긔도 ᄒᆞᄂᆞᆫ것과 셩례를 베프ᄂᆞᆫ거신ᄃᆡ 셩례는 셰례와 셩찬이니 이두가지는 목ᄉᆞ만 베프ᄂᆞ니라[16]
>
> 세례는공연히지체할것도아니오어더한형편을물론하고평신도가줄수업고반다시하나님의사역쟈로부르심을밧은그리스도의목사가줄지니라[17]

출판시기가 앞선《위원입교인규됴》(1895년)에서도 세례와 성찬의 집례의 권이 목사에게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이셩례ᄂᆞᆫ목ᄉᆞ가베프ᄂᆞᆫ거시니밋ᄂᆞᆫ사ᄅᆞᆷ의게예수와련합ᄒᆞ게ᄒᆞᄂᆞᆫ인친표적이니라[18]

《목ᄉᆞ지법》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를 비교하며 목사의 세례 집례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주는 것이 신부의 직분이지만 급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자라도 베풀 수 있다. 이는 로마 가톨릭은 세례는 구원하는 예식이요, 세례를 받지 않고 죽는 자는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세례는 중대한 것으로 알아도 믿음으로만 천당에 갈 줄 알고, 형편을 인하여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15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4. "Baptism is not to be unnecessarily delayed ; nor to be administered in any case by any private person ; but by a minister of Christ, called to be a steward of the mysteries of God."

16《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측》(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간인, 1910), 9.

17《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경성:조선야소교서회, 1934), 232-233.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넉넉히 받을 수가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선하고 선하지 아니한 것이 상관없으며, 그 목사가 악하여도 벌 아래 있지 아니하면 관계치 않은 줄로 알고 "세례는 세례가 된다"[19] 고 하는 것이다.

### 2) 세례를 위한 집례자의 준비

《목ᄉᆞ지법》에서 곽안련은 세례와 성찬 집례자인 목사마다 장로교회 신경 제10조, 예배모범 제9, 10, 11장, 장로교회 정치문답 조례 139문에서부터 150문까지 자세히 알고, 특별히 장로교회 신경과 예배모범에 있는 예배의 뜻과 묻는 말을 외우도록 공부하고, 책이 없어도 그 예식을 잘 행

18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教人規條 위원입교인규됴》(京城: 朝鮮耶穌教書會, 1895). 17. 참고적으로 《爲願入教人規條 위원입교인규됴》 교회치리법(교회다ᄉᆞ리ᄂᆞᆫ법) 조항을 보면, 한국교회 초기 직제로는 '목ᄉᆞ(혹칭 감독)' 와 '션도ᄉᆞ', '쟝로', '집ᄉᆞ' 가 있었으며, 임시직으로 '조ᄉᆞ' (助事)와 '령슈' (領袖)가 있었다. '조ᄉᆞ' (助事)는 목사를 도와 일을 의론하고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일이 어찌되어 가는지를 살펴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며, 전도를 부지런히 하며, 각처 교회로 다니다가 목사가 없다면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영수와 교우와 원입교인을 자세히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령수' (領袖)는 목사와 조사를 돕고 일을 다 의론하여 원입교인이 있거든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목사에게 주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힘써 일을 보고 교우나 원입교인 중에 책벌할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 말을 하며, 목사나 조사나 없을 때에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별하여 인도하게 하며, 교우 중에 병이 있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보고 기도하며 위로하였다. '집사' (執事)는 연보전을 모여서 받은 후에 얼마를 받었으며 어떻게 썼는지 자세히 치부하였다가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회계하여 교우에게 제시하며, 목사와 영수와 한가지로 교회재정을 경영하여 연보전을 교회에 유익하게 하며, 교우 중 어려운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환과 고독을 보호하여 도와주고 또 일없는 사람을 권하여 부지런히 일하게 하고 일을 경영하여 맡기는 자였다. 《爲願入教人規條 위원입교인규됴》, 25-28.

19 《목ᄉᆞ지법(牧師之法)》, 311-312.



하도록 공부할 것을 명하고 있다.

> 우리장로교회신경제십됴에그성례의묘미 ᄯᅳᆺ을말ᄒᆞ엿고례ᄇᆡ모범ᄎᆡᆨ구, 십, 십일에그례식을베프ᄂᆞᆫ ᄃᆡ ᄃᆡᄒᆞ야그법측이잇고그정치샹도리가잇고그례식을베프ᄂᆞᆫ ᄃᆡ ᄃᆡᄒᆞ문답이디잇고장로교회정치문답됴례책에백삽십구문에셔부터백오십구문ᄭᆞ지볼만ᄒᆞᆫ말이만히잇ᄂᆞ니라목ᄉᆞ마다이몃ᄎᆡᆨ은ᄌᆞ세히알고특별히그신경과례ᄇᆡ모범ᄎᆡᆨ에잇ᄂᆞᆫ례ᄇᆡ의 ᄯᅳᆺ과문ᄂᆞᆫ말을외오도록공부ᄒᆞ고ᄎᆡᆨ이업셔도그례식을잘히ᄒᆞ도록공부ᄒᆞᆯ지니라[20]

곽안련은 예를 들어 말하기를 어떤 목사는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에 그 말을 예식책을 보고 낭독하는데 자기의 기억이 믿음직하지 못하면 낭독하는 것이 관계치 아니하지만 외우도록 공부하고 책이 없어도 자유롭게 하면 모양이 좋다고 진술하였다.[21] 이는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의 철저한 실천적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래의 글에 의하면 세례와 성찬을 베풀기 전에 목사가 성례를 베푸는 날에 대하여 자주 말하고, 그 날에 대한 희열과 신령한 유익을 많이 얻을 줄 아는 마음으로 교우들과 함께 바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례를 베풀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 그셩례를베플기전에목ᄉᆞ가그날에ᄃᆡᄒᆞ야자조말ᄒᆞ고별명일에예비ᄒᆞ듯쥰비ᄒᆞ고그날에ᄃᆡᄒᆞ야깃버ᄒᆞᆷ과신령ᄒᆞᆫ유익을만히엇을줄아ᄂᆞᆫᄆᆞ음으로ᄇᆞ라고교우로ᄒᆞ여곰ᄀᆞ치바ᄅᆞ게ᄒᆞᆯ지니라[22]

20 Ibid., 307.

21 Ibid., 308.

22 Ibid., 309.

### 3) 타교단의 세례 인정 문제

《목ᄉᆞ지법》에서는 타교단의 세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논하고 있다.

쟝로교회가ᄉᆞ사롬의셰례는셰례로인명ᄒᆞ지아니ᄒᆞ고ᄌᆞ유ᄀᆞᆫ교회에셔셰례밧은쟈로셔본회에입회ᄒᆞ기를청ᄒᆞ면당회가결의대로그져밧던지다시셰례밧고드러오라ᄒᆞ던지ᄒᆞᆯ수잇ᄂᆞᆫ니라그ᄌᆞ유회가완전히조직ᄒᆞ고졍치잇ᄂᆞᆫ교회이면당회가그셰례를춥셰례로알수잇스나원치하니ᄒᆞ면다시셰례를밧으라고ᄒᆞᆯ수잇고로마교회셔온쟈도그러ᄒᆞᆫ지라당회가시험ᄒᆞ여셔리치를알고진실히밋은쟈로알면그냥셰례인으로밧을수가잇고긴요ᄒᆞᆫ도리에딕ᄒᆞ야아ᄂᆞᆫ거시부족ᄒᆞᆫ줄노알면얼마동안학습으로잇다가셰례를다시주던지어린ᄯᅢ에셰례밧은쟈처럼물셰례업시ᄆᆡᆼ셰로만밧을수잇ᄂᆞ니라[23]

곽안련의《목회학》에서는 상기한 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長監兩教派에서 平信徒의 施洗는 教會가 認定치아니함으로 엇던 獨立教會에서 領洗한者면 形便을 善히 ᄇᆞᆯ혀 平信徒가 베픈 洗禮인지아닌지 알아 酌定할것이다. 로마教會 洗禮人이 改革教會로 改宗하는 境遇에가 問答하여 領洗의 意義를 分明히 覺悟하엿스면 認定하고 그갓지 못하면 다시 施洗할것이다.[24]

결국《목ᄉᆞ지법》에서는 장로교회가 평신도의 세례는 세례로 인정하지 아니함과 독립교회에서 세례 받은 자로서 장로교회에 입회하기를 원하면 당회의 결의대로 받든지 다시 세례 받고 들어오라고 하든지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로마 가톨릭에서 온 자의 경우에는 당회가 시험하여서 이치를 알고 진실히 믿는 자로 알면 그냥 세례인으로 받을 수 있고, 긴요한 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한 줄로 알면 얼마동안 학습으로 있다가 세례를 다시 주든지 어린 때에 세례 받은 자처럼 물세례 없이 맹세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3] Ibid., 312.

[24] 곽안련,《목회학》(경성:조선야소교서회,1936), 134.



### 4) 세례의 형태 문제

《목ᄉᆞ지법》에서는《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예배모범 제9장 6조를 언급하며 세례 형태를 논하고 있다.[25] 즉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로 그 사람의 얼굴에 붓든지 물방울을 떨어뜨림으로 세례를 주고 다른 예식을 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보통 기독교는 물을 떨어뜨리는 방침대로 한다. 그러나 목사가 교육하여 세례의 의의를 가르친 후라도 침례를 원하면, 감리회나 장로회가 침례를 허락하고 목사가 그대로 베풀지라도 책망이 없으리라고 언급하고 있다.[26]

또한 '삼번식'(三番式)과 '일번식'(一番式)의 문제이다. 세례를 베풀 시 손을 세 번 물에 넣어서 세 번 물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보통 일번식으로 해도 별 관계가 없으며, 목사가 자기의 결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25] 정장복 교수는 "한국교회 최초의 실천신학 교수 곽안련의《목사지법》에 나타난 예배의 신학과 이론"이라는 글에서 작은 오류를 범했다. 그것은 세례의 형태문제를 논하면서《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예배모범 제9장 6조에 나온 인용구를 마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있는 인용구로 착각한 것이다. 다음 책을 참고하여 확인하라. 예배모범에 정장복 외 4인,《2006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서울: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53.

다.[27] 성인에게 세례 줄 때에는 '삼번식' 으로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여 좋고, 유아에게는 '일번식' 으로 하여 어린아이를 너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목ᄉᆞ지법》에서 권하고 있다.

《디다케》와《사도전승》에서는 '삼번식' 을 추천하고 있다.《디다케》 7:3처럼 만약에 둘 다 없다면, 즉 '살아 있는 물' 도 '다른 물' 도 없다면, 혹은 '찬 물' 도 '더운 물' 도 없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부었다.

>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부으시오.[28]

《사도전승》에서는 상세한 질문들과 함께 세례 대상자를 세 번 침수한 기록이 있다.

> 세례받을 사람이 물에 내려가면 세례를 베푸는 이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다. 세례받을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즉시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한 번 침수시킬 것이다.
>
>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다. 그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를 다시 침수시킬 것이다.
>
> 그리고 다시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다. 세례받는 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세 번째로 그를 침수시킬 것이다."[29]

### 5) 물그릇과 소반 사용 제안

곽안련은《목ᄉᆞ지법》에서 서구 교회에서 널리 사용된 세례반(Baptismal Font)을 언급하지 않고, 물그릇과 소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세례식에 사용될 물은 아무 그릇이든지 담을 수 있지만, 좋은 기명(器皿) 한 벌을 사서 성찬기와 함께 두고, 다른 일로 사용하지 않으며,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물그릇 상하에 눈같이 백수건(白手巾)이 있게 하고, 물그릇을 체용(體容)이 맞게 적은 소반(小盤)에 두어 거행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고 추천하고 있다.

---

26 《목ᄉᆞ지법(牧師之法)》, 313.《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영문판(1919)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5. "I baptise thee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s he pronounces these words, he is to baptise the child with water, by pouring it or sprinkling it upon the face of the child without adding any other ceremony and the whole shall be concluded with prayer."

27 Ibid., 314.

28 〈Διδαχη〉 7:3 "εὰν δὲ ἀνφοτερα μὴ ἔχης εἰς τὴν κεφαλὴν τρὶς ὕσωρ εἰς ὄνομα πατρὸς καὶ υἱοὺ καὶ ἀχἰου πνεὺμα τος."

29 Traditio Apostolica, xxI.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um ergo descendit qui baptizatur in aquam, dicat ei ille qui baptizat manum imponens super eum sic: Credis in deum patrem omnipotentem? Et qui baptizatur etiam dicat: Credo. Et statim manum habens in caput ejus inpositam baptizet semel. Et postea dicat: Credis in Chr(istu)m Je(su)m filium d(e)i, qui natus est de sp(irit)u s(an)c(t)o ex Maria virgine et crucifixus sub Pontio Pilato et mortuus est 〔et sepultus〕 et resurrexit die tertia vivus a mortuis et ascendit in caelis et sedit ad dexteram patris venturus judicare vivos et mottuos? Et cum ille dixerit: Credo, iterum baptizetur. Et iterum dicat: Credis in sp(irit)u s(an)c(t)o et sanctam ecclesiam et carnis resurrectionem? Dicat ergo qui baptizatur: Credo. Et sic tertia vice baptizetur."

물은아모그릇이던지담을수잇스나됴흔긔명흔벌을사셔셩찬그릇과흠씨두고다른일노쓰지아니ᄒᆞ면그례식이뎌ᄌᆞ미잇게될지니라례식을베플기젼에그그릇샹하에눈ᄀᆞ치흰슈건이잇스면모양이됴코그 을체용이맛게쟉은쇼반에두어거힝ᄒᆞᄂᆞᆫ거시모양이됴흐니라[30]

이는 곽안련이 한국교회의 예배당의 구조와 사정을 깊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예배당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정된 '세례반' (洗禮槃, Baptismal Font)이 아닌 이동이 용이한 '물그릇' 즉 '세례기' (洗禮器, Baptismal Vessel)로 대체한 것이다. 세례 대상자는 자리에 앉아 있고,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장로와 함께 움직이며 세례를 주는 곽안련 방식의 세례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어서 곽안련은 목사의 세례식 집례 시 장로의 수발과 유의사항을 제안하였다.

그런즉엇던교회는쟝로ᄒᆞᆫ사ᄅᆞᆷ이그그릇을들고목ᄉᆞ를ᄯᅳ라셔합당ᄒᆞᆫᄯᅢ에목ᄉᆞ의손압헤그그릇을드리ᄂᆞᆫ지라쟝로가죵용이ᄃᆞᆫ이고목ᄉᆞ딕신쥬관ᄒᆞ여보지안으면이방침이됴흐나쟝로가조곰이라도소리ᄒᆞ던지말ᄒᆞ며도라ᄃᆞᆫ이ᄂᆞᆫ딕목ᄉᆞ의ᄃᆞᆫ이ᄂᆞᆫ거슬방히ᄒᆞ면유익은업고해라ᄯᅩᄒᆞᆫ방이좁고ᄉᆞᄅᆞᆷ이만ᄃᆞᆫ면두ᄉᆞᄅᆞᆷ이도러ᄃᆞᆫ이기어려오우리니목ᄉᆞ가혼ᄌᆞ힝ᄒᆞᄂᆞᆫ거시됴코[31]

이는 목사는 양손을 사용하여 왼손으로 세례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물을 떨어뜨리다가 세례받는 자의 이름을 잊어버려 한 손으로 세례 대상자 명부책을 찾아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명의 장로가 세례기를 들

30《목ᄉᆞ지법(牧師之法)》, 314.

31 Ibid., 314-315.



고 목사를 따라서 합당한 때에 목사의 손 앞에 세례기를 드리는 것을 권한 것이다. 이때 장로가 말 없이 조용히 행하여 목사의 집례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방이 좁고 사람이 많으면 목사와 장로 두 사람이 동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사가 혼자 행하는 것이 좋다고 곽안련은 제안하였다.

### 6) 세례 대상자 좌석 배치

《목ᄉᆞ지법》에서 세례식 시작 전에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셰례례식을베플기시작ᄒᆞ기전에회원이니러서셔찬미ᄒᆞ면셔그셰례를밧을어른과ᄋᆞ히들은강ᄃᆡ압흐로오고다른사ᄅᆞᆷ들은뒤로안ᄂᆞᆫ거시됴흔지라이사ᄅᆞᆷ들을압흐로보내ᄃᆡ婦人班에셔그傳道夫人이나다른직원과男子班에셔그쟝로들이목ᄉᆞ를도아줄수잇스나다찬미ᄒᆞ고안진후에다른직원은안저셔죵용히잇고목ᄉᆞ만인도ᄒᆞᄂᆞᆫ거시됴흔지라[32]

성도들이 기립하여 찬양하면서 세례 대상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오게 하고 다른 성도들은 뒤에 앉게 하는 것이다. 이때 부인반(婦人班)에서 권사들과 남자반(男子班)에서 장로들이 목사를 도와 세례 대상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안내한다. 성도들이 모두 착석했으면 권사들과 장로들도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해야 할 것을 곽안련은 강조한다.

32 Ibid., 315.

### 7) 유아세례 시행 방법

#### (1) 당회의 세례전 부모 문답

곽안련은 유아세례 전 부모 문답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유아세례 시행 방법을 논하고 있다.

> 어린ᄋᆞ히셰례전에당회가그부모들을불너셔그례식의 ᄠᅳᆺ에ᄃᆡᄒᆞ야문답ᄒᆞᆷ이 됴흐니라그부모들이어린ᄋᆞ히의셰례 ᄠᅳᆺ과그중에ᄌᆞ긔의담당ᄒᆞᄂᆞᆫ거슬도모지ᄭᅢᆺ지아니ᄒᆞ니이ᄀᆞ치문답ᄒᆞ면ᄭᅢᆺ게ᄒᆞᆯ수가잇고ᄯᅩ이ᄀᆞᆺ치ᄒᆞ면교인이례비기회한후에의외에부모가ᄌᆞ긔의ᄌᆞ녀를드리랴고다리고오ᄂᆞᆫ풍쇽도업시ᄒᆞᆯ수잇슬지라[33]

유아세례 전 당회가 그 부모들을 불러서 유아세례의 뜻에 대하여 문답을 한다는 것이다. 부모 문답을 통해 유아세례의 뜻과 부모들이 담당할 것을 깨닫게 하며, 예배 시작 후 부모들이 당회와 의논 없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풍속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곽안련은 이런 풍속을 아름답지 못하고 무례하기에 부모들이 미리 목사와 당회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유아세례를 유안(留案)하여 나중에 행할 것을 권한다.

#### (2) 부모 위치 및 서약

유아세례 시 그 모친이 유아를 데리고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그 부친도 강대상 앞에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유아의 부친이 사망했을 때 세례 서약에 관한 것이다.

> 그ᄋᆞ히의부친이죽엇으면녀ᄌᆞᄂᆞᆫᄌᆞ긔의ᄆᆞ음대로ᄌᆞ유못ᄒᆞ니그친족되ᄂᆞᆫᄒᆞᆫ사ᄅᆞᆷ이나외가 에남ᄌᆞᄒᆞᆫ사ᄅᆞᆷ이와셔그ᄆᆡᆼ셰를ᄒᆞ면됴흘지라그러케아니ᄒᆞ면후에모친을반ᄃᆡᄒᆞ던지일가나외가 에뉘가그ᄋᆞ히로ᄒᆞ여곰밋지못ᄒᆞ게ᄒᆞ기쉬오니라[34]

만약 유아의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친족(親族)되는 한 사람이나 외가(外家) 중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세례 서약을 하도록 권한다. 세례식에서 서약하게 아니하면 유아세례 후에 모친을 반대하든지 일가(一家)나 외가(外家) 중에 누가 그 아이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곽안련은 세례식을 베푸는 시점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이후의 미래 양육까지 관심을 가지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 (3) 유아세례 나이

곽안련은《목ᄉᆞ지법》에서 유아세례 나이를 6세 혹은 7세로, 어른세례를 14세로 제안하였다.

> 유아셰례를몃살ᄭᅡ지줄거슨작뎡ᄒᆞᆫ법이업스나너무오ᄅᆡᄭᅡ지기ᄃᆞ리지마면됴흐니짐작컨ᄃᆡ육칠세젼이됴흐니라이ᄭᅦ안에유ᄋᆞ셰례가되지못ᄒᆞ엿스면좀뎌기ᄃᆞ려셔십사셰ᄉᆡ에어룬셰례주ᄂᆞᆫ거시됴흐니라[35]

그러나 연구한 결과 곽안련은《목회학》에서 유아세례의 나이를 5세로, 어른세례를 15세로 조정하였다. 유아세례는 예배모범의 지침대로 무고히 지체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 어른세례는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교육

33 Ibid., 316.

34 Ibid.

35 Ibid., 322.

기간을 갖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 乳兒洗禮를 幾歲세까지로定함이 合當하냐한 問題는 牧師와 堂會가 作定할것이나 禮拜模範九章一條에 無故이지톄처말나 하였다. 一般은 五歲까지가 可하다하나니 그以上은 十五歲까지 기다려 長年洗禮를 받게 할 것이다.[36]

### (4) 유아세례 순서

곽안련은 착석, 설명, 기도, 기립 후 문답(서약), 세례, 기도의 순으로 유아세례 순서를 제시했다.

> 그러ᄒᆞᆫ회에모든부모가강ᄃᆡ압헤와안즌후에목ᄉᆞ가간단ᄒᆞ게그부모와전교회에유익을위ᄒᆞ야그례식의 ᄯᅳᆺ과그부모의직임과본분과그ᄆᆡᆼ셰의 ᄯᅳᆺ을셜명ᄒᆞ고긔도ᄒᆞᆫ후에다니러서셔목ᄉᆞ의문ᄂᆞᆫ대로ᄃᆡ답ᄒᆞ고그후에목ᄉᆞ가셰례를베플고간단ᄒᆞᆫ긔도로그ᄋᆞ히를하ᄂᆞ님 ᄭᅴ맛길지니라[37]

곽안련의 유아세례식 순서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례 받을 유아의 모든 부모가 강대상 앞에 나아와 앉는다. ② 그후에 목사가 간단하게 그 부모들과 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유아세례의 뜻과 그 부모의 직임(職任)과 본분(本分)과 맹세의 뜻을 설명한다. ③ 기도한다. ④ 기도 후 기립하여 목사의 묻는 대로 대답한다. ⑤ 그후에 목사가 세례를 베푼다. ⑥ 간단한 기도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때 ②의 설명, ④의 문답, ⑤의 세례 베푸는 문구는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영문판과 한글판 예배모범 제9장에 언급된 것으로 한다. 먼저

36 곽안련, 《목회학》(경성 :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7.

37 《목ᄉᆞ지법(牧師之法)》, 320-321.



②의 유아세례의 뜻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 이례식은그리스도 ᄭᅴ셔셰우신것이니밋음으로의롭다하심을엇은인증이라구약ᄯᅢ에아브라함의자손이할례를밧는특권이잇던것과갓치복음의은혜하에잇는셩도의자손의게이례식행하는특권이잇나니그리스도 ᄭᅴ서만국백셩의게명하사셰례를밧으라하셨고유아들의게츙복하사텬국의백셩은이와갓다하셧으며복음의허락은셩도와밋그집안에밋친다하셨고사도들도이와갓치집안셰례를베풀엇스니우리의셩품은죄과로더럽게된것을인하야부득불그리스도의피로씨스며셩신의권능으로셩결함을엇어야한다할지니라"[38]

그 다음은 ②의 부모의 직임(職任)과 본분(本分)과 맹세의 뜻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 "목사는ᄯᅩ한좌와갓치그부모를권면하야삼가부모의직분을다하라하대하나님의말삼으로자긔의자녀를가라치며신구약성경에가라친거룩한종교의원리대로가라칠것이니이원리의요령은우리교회신경과대소요리문답에간단히가라쳤슨즉이모든책은부모의직분을도아주는것이니라자녀를위하야긔도하며친히그자녀와함 ᄭᅴ긔도하며그아해눈압헤충성함과경건함의본을보이고하나님의주시는힘을엇어진력하야쥬의셩품과훈계안에서쟝셩케하라할지니라"[39]

그 다음으로 ④의 유아세례 세 가지 문답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38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4;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경성:조선야소교서회, 1934), 제9장 4조, 233-234.

39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op.cit., 74;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op.cit., 234-235.

목사사는좌와갓히문하나니라 (一) 그대는이아해를예수그리스도의피로씨슴과셩신의새롭게하는은혜의필요를인식하나뇨 (二) 그대는이아해를위하야하나님의언약의허락을앙모하며자신의구원을위하야진력하는것과갓치이아해도주예수그리스도를신뢰함으로구원엇을줄밋나뇨 (三) 그대는지금완전히이아해를하나님 씌밧치며겸손한마음으로하나님의은혜를의지하며친히경건한본분을이아해의게보이기를진력하며이아해를위하여긔도하며이아해와함 씌긔도하며우리거룩한종교의도리를가라치며하나님의지시하신모든긔관에서진력하야이아해를쥬의양육과교훈에서장셩케하기를셔약하는뇨[40]

마지막으로 ⑤의 세례 베푸는 문구를 제시한다.

(四) 그후에는이례식에대하여목사가츙복하는긔도를올니고아해의셩명을불너《셩부와셩자와셩신의일홈으로셰례를주노라 아멘》할것이니라목사가이말을하면서물노그아해의머리에셰례를주고긔도로맛치나니라[41]

연구결과 곽안련의《목ᄉᆞ지법》과《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영문판과 한글판 예배모범 제9장을 비교해볼 때 '기도' 순서가 추가된다.《목ᄉᆞ지법》은 착석, 세례식 의의 설명, 기도, 기립 후 문답(서약), 세례, 기도의 순이지만,《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은 착석, 세례식 의의 설명, 기도, 기립 후 문답(서약), 기도, 세례, 기도의 순이다. 즉 예배모범 제9장 5조 4항에는 문답(서약) 후 '기도'가 한 번 더 추가되어 있다. 곽안련의《목회학》에서는 세례식 의의 설명 후 하는 기도와 세례 후 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40 Ibid., 75;《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op.cit., 235-236.

41 Ibid.;《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op.cit., 236.



誓約의 뜻을 解釋한 後에 牧師前뿐아니라 하나님의 眼前임을 覺悟케하는 祈禱가 있고 施洗하고 다시 하나님께 付託하는 祈禱가 있을 것이다.[42]

즉 세례식 의의 설명 후 하는 기도는 신전의식(神前意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Coram Deo) 기립하여 있음을 각오케 하는 것이며, 세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라는 것이다.

### 8) 성명지편의 사용

유아세례식이나 성인세례식 시작 전에 목사가 종잇조각, 즉 지편(紙片)을 많이 예비한다. 각 조각에 세례받을 자의 성명을 하나씩 쓰고, 시작할 때 먼저 성명지편(姓名紙片)을 각 세례 대상자에게 나눠준다. 세례 대상자들이 주머니나 혹 책 안에 넣지 말고 손에 들고 있게 한다. 목사가 세례를 주기 위하여 돌아다닐 때에 각 사람이 차례로 목사에게 자기의 성명지편을 드리면, 목사는 많은 성명 중에 그의 성명을 잊었어도 그 성명지편을 보고 세례를 줄 때 바로 성명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하면 목사가 자기의 명부록책(名簿錄册)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여도 되며 세례식이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43]

만약 세례 대상자가 자신의 성명지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목사가 어떻게 호명할지를 곽안련은 흥미롭게 제시했다.

목사가셰례를베플면셔홀수잇스면셰례일흠을브르면됴흐나혹목ᄉᆞ가니젓던지셰례밧을사ᄅᆞᆷ이ᄌᆞ긔밧은일흠조각을일헛스면호명ᄒᆞ기를정지ᄒᆞ고그더신

42 곽안련,《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8.

43《목ᄉᆞ지법(牧師之法)》, 317.

에《하ᄂᆞ님의언약대로ᄌᆞ녀된쟈여》부르고진행ᄒᆞ면됴흐니라[44]

곽안련의 대답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녀된 자여' 라고 부르는 것이다. 잃어버린 성명지편을 찾거나 세례 대상자의 이름을 다시 물으면 세례식이 대단히 분요(紛擾)해지기 때문에 경건함을 위한 곽안련의 제안으로 생각된다.

### 9) 여자의 작명법

만약 여자(女子)가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곽안련은 목사나 당회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후 세례를 베풀라고 권하고 있다.

시방은죠션셔남녀로쇼의민적업ᄂᆞᆫ더가별노업스나혹엇던곳에ᄂᆞᆫ지금ᄉᆡ지녀ᄌᆞ의게민적일흠이업스니그리ᄒᆞᆫ경우에ᄂᆞᆫ세례를베플기전에목ᄉᆞ나당회가그일흠을지어주ᄂᆞᆫ거시됴쿄이런일에더ᄒᆞ야방침이만히잇스나그남편의일흠의항렬ᄌᆞ와그남형뎨의일흠의항렬ᄌᆞ를합ᄒᆞ여지으면됴흔일흠이될거시오또긔억ᄒᆞ기가편하며[45]

민적(民籍)에 이름이 없는 '여자' 의 이름은 그 남편의 이름의 행렬자(行列字)와 그 남 형제의 이름의 행렬자(行列字)를 합하여 목사나 당회가 작명하라는 것이다.[46] 또한 지금은 새 시대이기 때문에 교인 중에서도 여자에 대하여 '누구의 어머니라 누구의 아내라' 부르지 말고 각기 저의 이름을 부름이 좋다고 권하고 있으며, 세례시 받은 이름을 생전(生前)에 사용할

44 Ibid., 318.

45 Ibid., 318-319.



것을 말하고 있다.[47]

### 10) 강도와 세례의 관계

곽안련은 세례식이 엄숙한 태도를 복잡하고 분주할 것 없이 거행될 것을 말하면서 강도 후에 하는 세례식을 같은 시간에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모강도던지이례식보다뎌 ᄒᆞ다ᄒᆞᆯ수업스니셰례식과강도를갓은시간에아름다온모양으로힝ᄒᆞ지못ᄒᆞ겟스면그날에강도는정지ᄒᆞᆷ이가ᄒᆞ니라미리준비잘ᄒᆞ고강도말은조곰쉘게ᄒᆞ면분쥬ᄒᆞᆫ것업시례식과강도를병힝ᄒᆞᆯ수잇고[48]

강도, 즉 설교를 미리 준비 잘하고 조금 짧게 하여 세례식과 강도를 병행하라는 것이다. 곽안련은 강도보다 세례식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세례식과 강도를 같은 시간에 행하지 못하겠다면 그 날 강도는 정지함이 가하다고 권면하고 있다. 만약 예배시간이 길어져서 강도와 세례식까지 앉아 있지 못하겠다면 강도 후 교우가 기립하여 찬송하면서 세례 대상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는 시간에 나갈 이는 종용히 나가고 남은 사람은 고요히 앉아서 나중까지 세례식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46 정장복 교수는 "한국교회 최초의 실천신학 교수 곽안련의《목사지법》에 나타난 예배의 신학과 이론" 이라는 글에서 다시금 오류를 범했다.《목사지법》에서는 '여자' (女子)의 작명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정장복 교수는 '유아' (乳兒)의 작명법으로 착각한 것이다. 다음 책을 참고하여 확인하라. 예배모범에 정장복 외 4인,《2006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서울: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54.

47 Ibid., 319.

48 Ibid., 320.

### 11) 세례식 순서와 분간(分揀) 제안

곽안련은 ‘유아세례’(乳兒洗禮), ‘장자세례’(長者洗禮, 어른세례)와 ‘유아의 셰례 밧엇던 쟈를 영접하는 예식’(乳兒의 洗禮 밧엇던 者를 迎接ᄒᆞᄂᆞᆫ 禮式) 순으로 제안했다. 즉 유아세례, 어른세례와 입교예식 순이다.

> 셰례를베프ᄂᆞᆫ날에ᄋᆞ히들이오ᄅᆡ기ᄃᆞ리기어려우니乳兒洗禮어린ᄋᆞ히셰례를몬져베프ᄂᆞᆫ거시됴코……그후에長者洗禮어룬셰례와유아의셰례밧엇던쟈를영접ᄒᆞᄂᆞᆫ례식은례ᄇᆡ모범칙의규측대로ᄒᆞᆯ지니라[49]

곽안련은 유아세례를 먼저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오래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유아세례식을 행한 후 교회가 또 찬양하면서 유아를 안은 모친들이 집으로 돌아가든지 예배당 후문 앞에 가서 앉아 있기를 원하면 조용히 함이 가하다고 말한다.[50] 찬양 후 자리가 정리되고 정숙해지면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을 행한다.

《목ᄉᆞ지법》에서 흥미로운 것은 세례식 사이에 찬양의 시간을 두어 교우들이 ‘분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분간’이란 ‘나누어 구별함’이란 뜻으로, 유아세례와 어른세례 중간에 짧은 시간을 두어 구별되게 하고,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이 된 자와 어른세례 대상자 사이도 구별되게 한다.

> 이갓치그유ᄋᆞ셰례베프ᄂᆞᆫ것과어룬셰례베프ᄂᆞᆫᄉᆞ이에시간이좀잇스면교우들이그셰례의분간을ᄭᆡᄃᆞᆺ게ᄒᆞᆯ지라ᄯᅩ유ᄋᆞ셰례를밧엇던쟈와어룬셰례밧ᄂᆞᆫ자ᄉᆞ이에도분간ᄒᆞᄂᆞᆫ거시됴흐니라[51]

49 Ibid., 320-321.

50 유아세례식 중 첫 번째 찬양시에는 유아세례 대상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안내하였다. 두 번째 찬양시에는 유아세례를 마친 후 유아세례 대상자들이 복귀하는 시간을 주며,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곽안련은 예배모범 규측대로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을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순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곽안련이 추천한 예배모범 ‘제10장 입교예식’에 의하면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회중 앞에 기립,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어른세례 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문답,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된 자들을 위한 권면, 어른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세례집례, 기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째,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이다. 성년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공식선언하는 날에 당회의 허락을 얻어 교회에 입회하는 자들이 회중 앞에 서면 목사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유아셰례를밧음으로어릴ᄯᅢ부터교인이되고언약의허락에대하야후사가되여그부모의엄　한맹셔로하나님ᄭᅴ밧친쟈중에모모씨가지금밋음의권쇽에서자긔유업에관한책임과특권을담부할쟈되기를원함으로당회가그리스도를밋는것과셩찬에서쥬의몸을분변하는지식을문답하야가납하노라[52]

둘째, 어른세례 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이다.

> 셰례는우리를그리스도의게접붓침과주와합하는표와인치는것이니셰례를밧고하나님의교회에입교하기를원하는모모씨를당회가거룩하신은혜밧은

51 《목ᄉᆞ지법(牧師之法)》, 321.

52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op.cit., 76;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1934), op.cit., 238-239.

일에대한뎌희의경력과그리스도를밧은일을사실하야인뎡한고로지금셩도와 동반되는것을환영하며감샤히녁이노라[53]

셋째, 문답이다.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자들과 어른세례 대상자들 모두가[54] 공식으로 신앙고백을 위해 이 자리에 있음을 목사가 각인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공식으로신앙고백을하랴고이자리에참여한그대들은다좌의선언과허락을승인하야하나님과그의교회로더부러엄중한언약을맷하는줄알지여다(一) 그대들이하나님압헤죄인인줄알며당연히그의진로를밧을만하고그의크신자비하심에서구원엇을것외에소망이업는쟈인줄아나뇨 (二) 그대들이쥬예수그리스가하나님의아달되심과죄인의구쥬되시는줄을밋으며복음에말한바와갓치구원하실이는다만예수 씀 이신줄알고그를밧으며그의게만의지하나뇨 (三) 그대들이지금셩신의은혜만의지하고그리스도를좃는쟈가되여그대로힘써행하며모든죄를바리며그의가라참과모범을 짜 라살기를작뎡하며허락하나뇨 (四) 그대들이교회의관할과치리를복죵하고그 결하고화평함을일우도록힘쓰기로허락하나뇨"[55]

문답 이후에는 '엄중(嚴重)한 의무(義務)의 요긴(要緊)한 것을 담부(擔負)한 자들' 즉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입교자들에게는 짧게 권면하고, 어른세례 대상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기도로 마친다.

53 Ibid.,《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op.cit., 239.

54 곽안련,《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8.《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예배모범 제10장 5조 1항은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며, 제10장 5조 2항은 어른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며, 제10장 5조 3항은 양군(兩群) 대상자들에게 동일(同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55 Ibid., 76-77;《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op.cit., 240-241.



### 12) 교회원이 되는 시기

어른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날부터 교회원(教會員)이며, 유아세례를 받았던 자는 출생 시부터 교회원이 되지만 입교예식을 한 날에 자기의 맹세를 자기가 담임하게 되는 것이다.[56]

### 13) 이명증서로 이래한 교인 영접

유아세례,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을 행한 다음 바로 이명증서(移名證書)로 이래(移來)한 교인을 영접한다.

이명셔ᄒᆞᆫ교인이잇스면그셰례식을힝ᄒᆞᆫ지바로후에호명ᄒᆞ여니러서케ᄒᆞ고 온교인으로영접케ᄒᆞᄂᆞᆫ거시됴흐니라[57]

우선 목사가 호명하여 기립하게 하고 온 교인으로 영접하게 한다. 곽안련의《목회학》에서는 이래한 교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의 서약과 같은 언약을 다시 말하게 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牧師가 公衆앞에 起立케한後에 教友의게 廣告아야 歡迎의 意를 表示케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뎌로 領洗하던때의 言約과 彷彿한말을 다시 하게할 수 있다[58]

56《목ᄉᆞ지법(牧師之法)》, 321.

57 Ibid., 321-322.

### 14) 학습인 영접 문제

학습인(學習人) 영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곽안련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엇더ᄒᆞᆫ교회안에셔ᄂᆞᆫ이일을힝ᄒᆞᆫ후에그새학습의일흠랑독ᄒᆞ고니러서셔밋ᄂᆞᆫ생활을시작ᄒᆞᆯ약됴를ᄒᆞ라ᄒᆞ나엇더ᄒᆞᆫ목ᄉᆞ의말이학습이아직완전ᄒᆞᆫ신쟈가되지못ᄒᆞ엿스니공식으로이처럼교회원으로영접ᄒᆞ면교회가그사롬에ᄃᆡᄒᆞ야담당을너무만히ᄒᆞ야안된다ᄒᆞᄂᆞ니그목ᄉᆞ의싱각에ᄂᆞᆫ그학습들을당회압헤셔밧을거시나공식으로ᄂᆞᆫᄒᆞ지말고서쳔ᄉᆞ히ᄒᆞᄂᆞᆫ거시됴흔줄노아ᄂᆞ니라이말은혹가하나利害로말ᄒᆞ면공식으로영접ᄒᆞ여도害ᄂᆞᆫ업고이ᄀᆞ치ᄒᆞᆯᄌᆞ흐면그利가만흘지라각교회목ᄉᆞ와당회가의론ᄒᆞ여이런일을작뎡ᄒᆞᆯ지니라[59]

우선 곽안련은 한 교회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 교회에서는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래한 교인을 영접한 후에 학습인(學習人)의 이름을 낭독하고 기립하여 믿는 생활을 시작할 약조(約條)를 한다. 그러나 어떤 목사의 말은 학습인이 아직 완전한 신자가 되지 못하였으니 공식으로 교회원으로 영접하면 교회가 학습인에 대하여 담당할 짐이 너무 많이 있어 안된다고 한다. 그 목사의 생각에는 학습인들을 당회 앞에서 받을 것이나 공식으로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만, 이해득실로 따지면 공식으로 영접하여도 해는 없고 이가 많을 것이라고 곽안련은 말한다. 그러므로 각 교회 목사와 당회가 의논하여 학습인을 공식으로 교회원으로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당회 앞에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58 곽안련, 《목회학》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8.

59 《목ᄉᆞ지법(牧師之法)》, 322.



곽안련의 《목회학》에서는, 학습인에게는 세례를 받는 자나 임직자에게 시행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표시하게 하며 학습하기로 노력하겠다는 뜻만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 學習敎人이 되려하는者를 어느禮拜會時에 敎會公衆앞에 起立케하고 信仰生活의 學習願不願을 더욱 探索할일과 自己를 하나님께 드릴일을 公式으로 表現케할일이다. 學習人에게는 受洗人과 任職者의게 施行하는 發問을 하지 말것이니 뎌희게 그같은 難問을 課할理由가 없고 다만 信仰生活을 表示케하며 學習키로 努力하겠다는뜻만 볼것이다.[60]

### 15) 세례 시간과 장소

세례와 성찬은 공예배 시 집례되며 보통 '교당'(敎堂)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두 예식을 당회의 결의대로 집안에서도 행할 수 있다고 곽안련은 권하였다.[61] '교당'으로 가지 못하는 어른이나 약하고 병든 아이가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본가(本家)에서 행할 수 있었다. 세례는 흔히 '주일대예배회' 말에 행하지만, 특별시간(特別時間)을 내어 주일오후 5시나 해가 떨어지는 일락시(一落時)에 행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곽안련은 생각하였다.[62]

60 곽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8-139.

61 《목ᄉᆞ지법(牧師之法)》, 322-323.

62 Ibid., 323.

### 16) 세례의 횟수

곽안련은 세례의 횟수와 관련하여 전임목사가 있는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으며, 혹 6개월에 한 번씩 행할 것이며, 전임목사가 없는 순행구역(巡行區域)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63] 곽안련은 세례를 너무 자주 베풀면 미숙한 자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 한 번씩만 행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으며, 세례를 베푼 후에 그 성명을 즉시 명부록(名簿錄)에 올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다.[64]

### 17) 세례 대상자 교육 강조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날에 목사가 그 형편을 인하여 기회를 얻어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강도할 수 있으며, 그때에 엄숙한 중에 교우들이 다른 예배 때보다 더욱 들을 사상이 생기고 교수함을 더 잘 받는다고 했다.[65] 이는《목ᄉᆞ지법》에서 세례 시에도 세례 대상자 교육에 대한 강도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ᄉᆞ지법》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해 "긴요한 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할 때에는 학습의 기간을 거쳐 세례자 교육 후 세례를 줄 것을 피력하고 있다.

63 Ibid., 323-324. 곽안련의《목회학》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세례를 주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으며, 학습은 1년에 2차, 3차 실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곽안련,《목회학》(경성: 대한기독교서회, 1955), 143.

64 Ibid., 324.

65 Ibid., 307.



"로마교회셔온쟈도그러ᄒᆞᆫ지라당회가시험ᄒᆞ여셔리치를알고진실히밋은쟈로알면그냥셰례인으로밧을수가잇고긴요ᄒᆞᆫ도리에ᄃᆡᄒᆞ야아ᄂᆞᆫ거시부족ᄒᆞᆫ줄노알면얼마동안학습으로잇다가셰례를다시주던지어린ᄶᅢ에셰례밧은쟈처럼물셰례업시ᄆᆡᆼ셰로만밧을수잇ᄂᆞ니라"[66]

또한《목ᄉᆞ지법》에서는 세례의 형태를 논하면서 침례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 세례의 속뜻을 잘 교육하면 결과적으로 '물을 떨어뜨리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인 세례 대상자 교육을 통해 세례의 의의를 밝히 알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통예수교회로말ᄒᆞ면물을ᄲᅥ려트리ᄂᆞᆫ방침대로ᄒᆞ나누구던지생각ᄒᆞ기를침례회와ᄀᆞᆺ치온몸에셰례를밧어야ᄒᆞᆫ다ᄒᆞ고목ᄉᆞ가교육ᄒᆞ야세례의ᄉᆞᆨ뜻을ᄀᆞᆺ친후라도그러ᄒᆞᆺ셰례를청ᄒᆞ면감리회나쟝로회가그러ᄒᆞᆫ셰례를허락ᄒᆞ고목ᄉᆞ가그대로베플지라도ᄎᆡᆨ망이업스리라그러ᄒᆞ나ᄇᆡᆨ번즁에구십구번이나목ᄉᆞ가그ᄉᆞᄅᆞᆷ을교육을잘ᄒᆞ면물을ᄲᅥ러트리ᄂᆞᆫ셰례를밧을지라[67]

곽안련은《목ᄉᆞ지법》에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그의 저서《목회학》에서는 세례 대상자 교육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牧師가 洗禮를 施行할때마다 以上의 意義를 分明히 說明할것이니 一般이 洗禮의 意義와 有益을 알것이다. 洗禮는 平生에 一次만 領受하는 것이니 領洗하는 當者가 日後에는 그 本意를 知覺한다 하여도 領洗當時에 會得치못하면

66 Ibid., 312.

67 Ibid., 313-314.

68 곽안련,《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4.

遺憾한 일이다.[68]

상기했던 세례의 다섯 가지 의의를 목사가 세례를 집례할 때마다 분명히 설명하라는 것이다. 즉 세례는 예수께서 대신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게 된 표요, 하나님의 식구로 입회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는 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요, 성령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표이며, 세례 대상자가 맹세하여 몸을 드려서 자기의 뜻대로 다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표임을 세례 대상자에게 확실하게 교육시키라는 것이다. 세례는 평생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 받는 것이므로 세례의 의의와 유익을 받는 그날에 모른다면 유감스러운 일임을 말하며 세례 대상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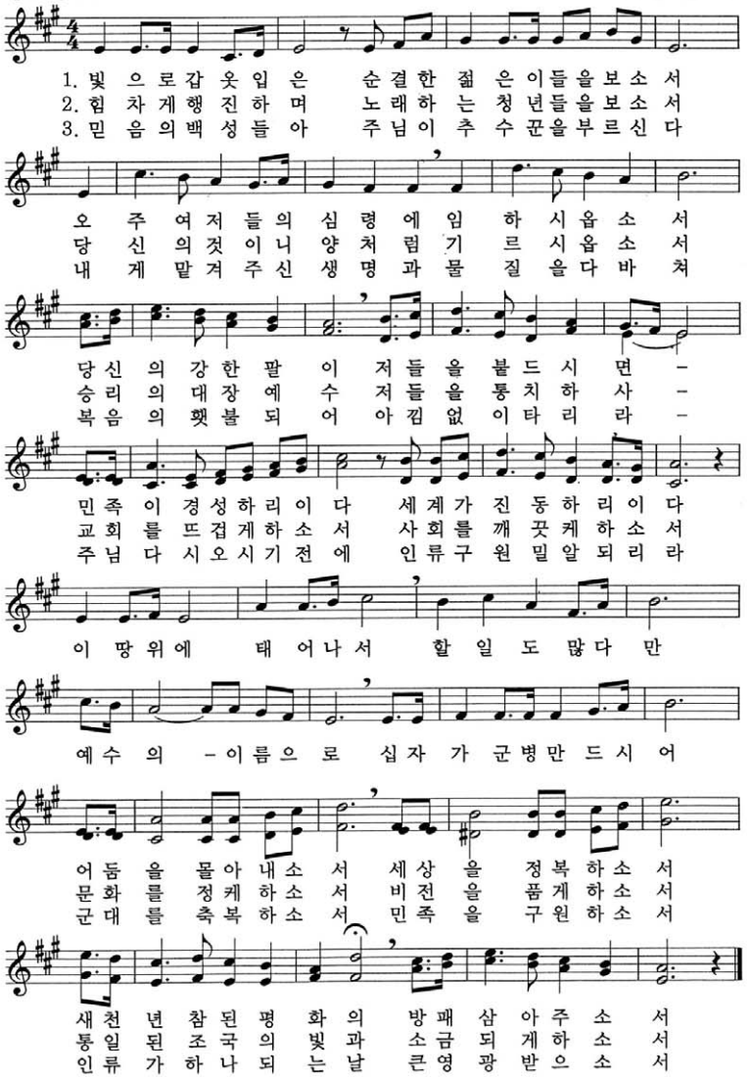
《목ᄉᆞ지법(牧師之法)》은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로서 당시 한국의 문화와 상황을 상당히 반영한 실천적, 상황적, 사례 중심적, 구체적 예배 지침을 제시한 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예배당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점을 배려하여 고정된 '세례반' (洗禮槃, Baptismal Font)이 아닌 이동이 용이한 '물그릇' 즉 '세례기' (洗禮器, Baptismal Vessel)로 대체하여, 세례 대상자는 자리에 앉아 있고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장로와 함께 움직이며 세례를 주는 곽안련의 세례 집례 방안, 세례 대상자에게 성명지편(姓名紙片)을 나눠주는 방안, '삼번식' (三番式)과 '일번식' (一番式)의 문제 해결 방안, 유아의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친족(親族) 되는 한 사람이나 외가(外家) 중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세례 서약을 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날에 목사가 그 형편을 인하여 기회를 얻어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강도(講道)할 수 있으며, 그때에 엄숙한 중에 교우들이 다른 예배 때보다 더욱 들을 사상이 생기고 교수함을 더 잘 받는다고 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해 "긴요한 도리" 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할 때에는 학습(學習)의 기간을 거쳐 세례자 교육 후 세례를 줄 것을 피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목ᄉᆞ지법》은 세례 대상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1004동의 군인교회들이 세례 대상자 교육에 박차를 가하여 비전 2020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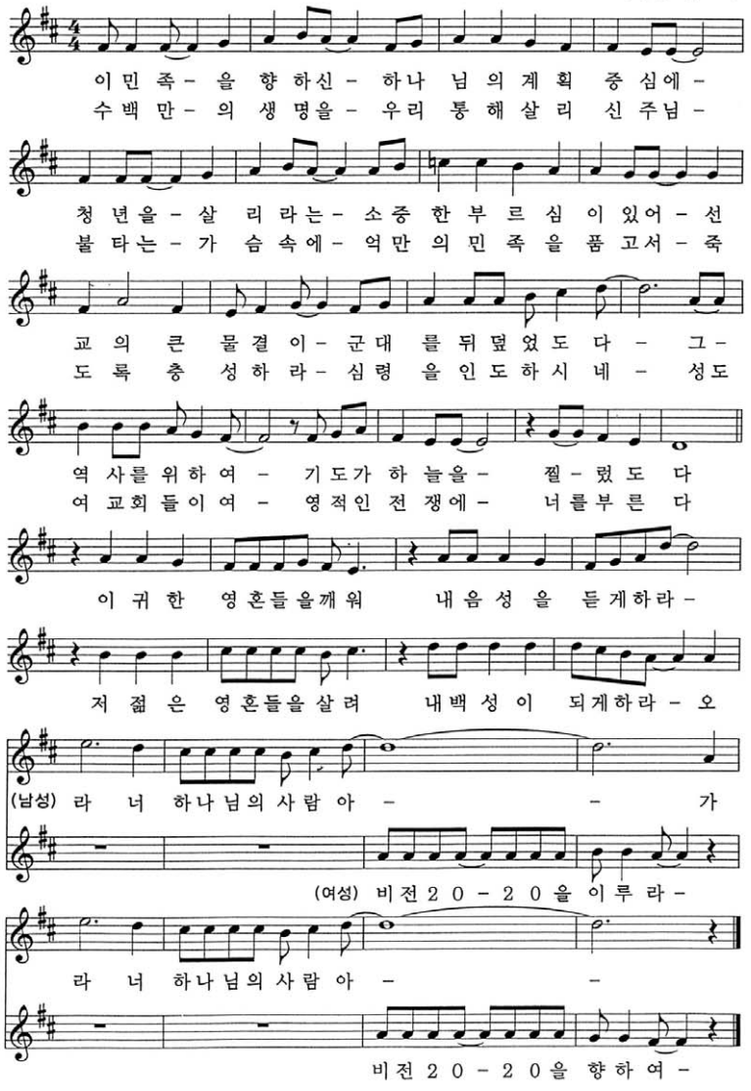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행진곡풍으로




# 비전 2020을 이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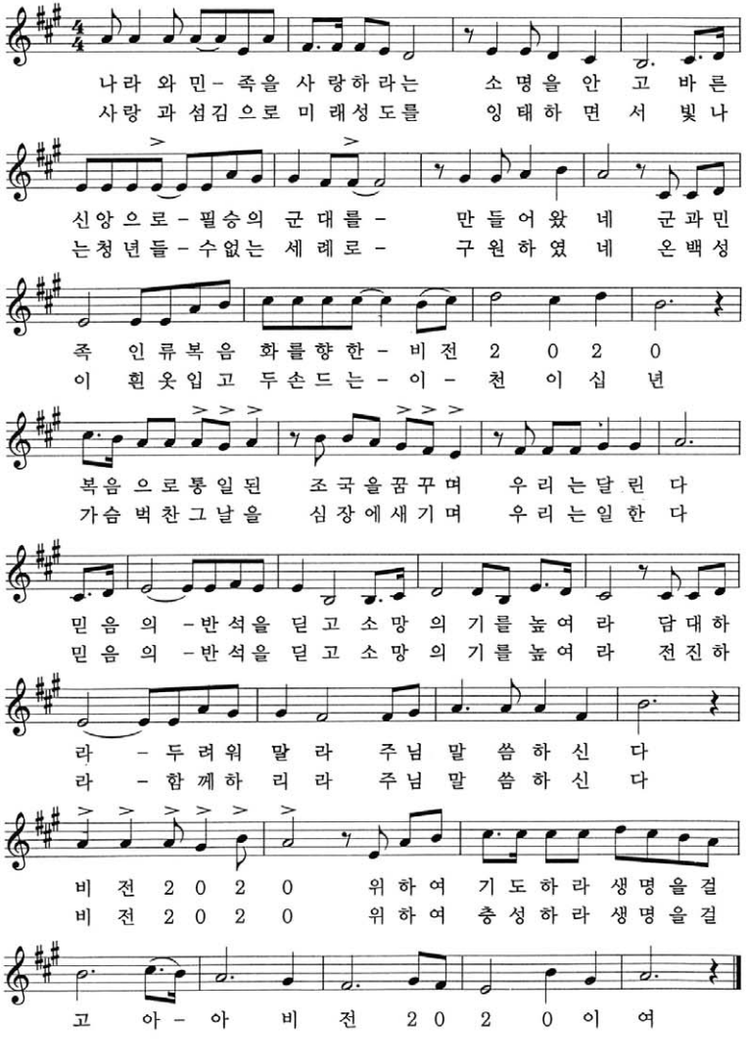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 아, 비전 2020이여!

빠르고 힘차게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판 권
소 유

# 군선교신학 9

2011년 10월 15일 인쇄
2011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주소 |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 |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 : //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 쿰란출판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84-3
TEL | 745－1007, 745－1301, 747－1212, 743－1300
영업부 | 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 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www.qumran.co.kr
E-mail | qumran@hitel.net
qumran@paran.com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 쿰란출판사

등록 | 제1-670호(1988.2.27)

값 12,000원

*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